

발 간 등 록 번 호

79-6500000-000069-01

濟州女性史料集 Ⅱ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

- 김일우 : 조선비망록
- 박찬식 :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 수신영약, 해녀항일 투쟁 관련 신문기사(1920~1933), 이순옥 탄원서와 경력
- 장혜련 : 일본 신문이 보도한 제주도 1878~1910, 제주도 (1878~1940)의 옛 기록, 섬[濟州島] 탐험과 동해 중국에서의 표류, 南鮮寶窟 濟州島, 濟州島生活 狀態調査, 濟州島의 經濟, 濟州島의 地理學的 研究, 20世紀 前半의 濟州島, 朝鮮의 寶庫 濟州島 案内, 濟州島,
- 김오순 : 朝鮮總督府官報 中 濟州錄
- 문순덕 : 조선기행 : 백여년 전에 조선을 다녀간 두 외국인의 여행기, 濟州島實記, 한라산 기행

제주 역사의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었으니

무릇 문화란, 신이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사람들이 완전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거나 그 산물이라고 정의된 바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제주의 역사는 거센 바람과 파도와 맞서 섬을 지켜왔던 가멸찬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조력자로 비쳐졌지만, 언제나 제주역사를 일구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주여성사 정립은 바로 역사의 조역으로 살아온 여성의 역사를 올곧게 기록하고 새롭게 조명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펴내는 『제주여성사료집Ⅱ』도 그 일환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로 문호를 개방한 1876년 이후의 제주여성 관련 각종 사료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사료는 『조선총독부관보 중 제주록』, 『천주교 선교사 서한집』, 『이순옥 탄원서』 등입니다.

또 근대 개항기, 외국인의 눈에 비친 조선과 제주도를 여행한 기록을 통해서 당시 제주여성들의 삶의 몸짓과 이야기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21세기 세계 제일의 국제자유도시를 이룩해 나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조상 대대로 꿈꾸어 왔던 이상향 ‘이어도’를 현대적으로 완성해 내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뜻에서 근·현대 제주여성사 편찬의 토대가 될 『제주여성사료집Ⅱ』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Ⅲ, Ⅳ가 계속하여 발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부디 이 책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이 작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김 태 환**

일 러 두 기

- 이 책은 『제주여성사』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펴낸 『제주여성사료집 I』(2007)의 후속 사업으로 발간되었다.
- 이 사료집은 국역된 사료 중에서 제주여성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 제주여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제주여성의 삶과 당대 제주사회상을 고찰할 수 있는 기록도 수록하였다.
- 이 책에 수록한 사료는 저자와 역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가름하였다.
- 수록한 사료는 원전의 발간연도 순으로 배열하였다.
- 원전(번역본 포함)을 그대로 실는다는 원칙으로 발췌했기 때문에 번역상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
- 이 사료집 내용 중 명백히 틀린 글자로 판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글자를 바로 잡았다.
- 원전 수록에 충실하고자 문장부호 등도 그대로 따랐으며 한글맞춤법에 어긋나는 것만 고쳤다.
- 원저자의 주관적 관점으로 기록된 사료일지라도 그대로 수록했으므로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긴다.

史料의 출처

1.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일본 신문이 보도한 제주도 1878~1910』, 제주특별자치도, 2006.
2. 이마무라 도모[今村 鞆] 외, 『제주도의 옛 기록(1878~1940)』, 제주시우당도서관, 1997.
3. 샤를 바라·샤이에 룡(1888~1889), 『조선기행-백여년 전에 조선을 다녀간 두 외국인의 여행기-』, 성귀수 옮김(2006), 눈빛.
4.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2)』(1899~1910), 『제주복음전래100년사 사료집』 제3·4집, 천주교제주교구, 1997.
5. 김원영(1900), 『수신영약(修身靈藥)』, 김영환 역주(2001), 『제주천주교회100년사』,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6. 지그프리트 겐테(1905), 『섬[濟州島] 탐험과 동해 중국에서의 표류』, 송성희 번역(1994), 『제주도사연구』 3집, 제주도사연구회.
7. 靑柳綱太郎(1905) 외, 『朝鮮의 寶庫 濟州島 案内』, 제주시우당도서관, 1998.
8. 김봉옥 편역, 『朝鮮總督府官報 中 濟州錄』, 제주도, 1994.
9. 大野秋月(1911), 『南鮮寶窟 濟州島』, 홍성목 번역(1996), 제주시우당도서관.

10. 해녀항일투쟁 관련 신문기사(1920~1933), 『조선일보』·『동아일보』·『중외일보』
11. 善生永助(1929), 『濟州島生活狀態調査』, 홍성목 번역(2002), 제주시우당도서관.
12. W·F 샌즈(1930), 『조선비망록』, 신복룡 역주(1999), 집문당.
13. 釜山商工會 외(1930), 『濟州島의 經濟』, 홍성목 번역(1999), 제주시우당도서관.
14. 이순옥 탄원서와 경력(1932), 『李在守實記』, 中島文華堂(일본).
15. 김두봉(1936), 『濟州島實記-附 耽羅誌 補遺』, 제주시우당도서관, 2003.
16. 이은상(1937), 『한라산 기행』, 태학사.
17.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1937], 『濟州島』, 홍성목 번역(1999), 제주시우당도서관.
18. 榊田一二(1939), 『濟州島의 地理學的 研究-1930年代의 地理人口 産業 出稼狀況 等』, 홍성목 번역(2005), 제주시우당도서관.
19. 今村 軔(1942), 『20世紀 前半의 濟州島』, 홍성목 번역(1997), 제주시우당도서관.

목 차

- 일본 신문이 보도한 제주도 1878~1910 9
- 제주도의 옛 기록(1878~1940) 18
- 조선기행-백여년 전에 조선을 다녀간 두 외국인의 여행기- 63
-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2 : 1899~1910) 68
- 수신영약(修身靈藥) 102
- 섬[濟州島] 탐험과 동해 중국에서의 표류 123
- 朝鮮의 寶庫 濟州島 案内 133
- 朝鮮總督府官報 中 濟州錄 142
- 南鮮寶窟 濟州島 165
- 해녀항일투쟁 관련 신문기사(1920~1933) 169
- 濟州島生活狀態調査 218
- 조선비망록 227
- 濟州島의 經濟 235
- 이순옥 탄원서와 경력 259
- 濟州島實記-附 耽羅誌 補遺 265
- 한라산 기행 274
- 濟州島 282
- 濟州島의 地理學的 研究-1930年代의 地理 人口 産業 出稼狀況 等 376
- 20世紀 前半의 濟州島 393

일본 신문이 보도한 제주도 1878~1910

해제

이 사료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가 개항시기 일본신문에 수록된 제주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한 신문은 『鎮西日報』, 『大阪朝日新聞』, 『神戸新報』, 『大阪毎日新聞』, 『神戸又新日報』, 『神戸日報』, 『神戸新聞』 등 일본의 지방신문이다.

제주도(每日 1885. 4. 9.) 003

○ 기후는 상시 온난하여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 토착민은 흰옷을 입고 겨울옷이라는 것을 입은 적이 없다. 인구는 상세하지 못하나 여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남자는 한가하게 지내며 여자는 바쁘게 일함으로 이를 여국이라고 칭한다. 인종으로서는 장대하여 일반 한인과 같지 않으며, 특히 여자의 몸집이 크고 발도 크므로 육지인은 그들을 깔보았다. 언어는 육지와 달라서 거의 상통할 수 없었으나 풍속은 대략 같다.

제주도(鎭西 1885. 4. 15.) 008

○ 토인(土人)은 늘 백의를 입고 겨울옷을 입지 않는다. 인구는 뚜렷하지 않으나 여자의 비율은 꽤 많아 거의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남자는 놀기가 일쑤이고 여자가 일을 함으로, 이 곳을 여자의 나라라고 한다. 몸집은 크고 일반의 한인과는 같지 않다. 특히 여자는 비대하고 게다가 다리가 크기에 내지(조선)인은 아주 깔보는 경향이 있다. 언어는 내지와 다르고 거의 통하지 않으나 풍속은 대략 같다. 다만 내지처럼 귀족, 양반 등의 계급이 없고 각지에서 행상하여 화식(貨殖)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경향이 있다.

제주도(朝日 1885. 4. 25.) 002

○ 기후는 사계절 따뜻하며 동기(冬期)에도 강설(降雪)이 없고 토인(土人)들은 백의를 입고 동복을 만들지 않는다.

인구는 자세하지는 않지만 여자의 비율이 높아 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남자는 놀기 좋아하며 여자가 일을 맡아 하기 때문에 이 곳을 여국(女國)이라고 말한다.

또 인종(人種)은 장대(長大)하며 일반 한인(韓人)과는 닮지 않고 말도 한어(韓語)와 달라 거의 통하지 않으나 풍속은 대략 같다.

경성통신—5월 23일 발 쓰르가마루(敦賀丸) 편 구리바야시즈 기히코(栗林次彦) (朝日 1887. 6. 11.) 006

○ 이 섬 인민은 남자만 고기잡이를 하여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바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와서 뒤섞여서 고기잡이를 하면 여자들이 바다를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고 떠들게 되었으므로, 조선정부는 이대로는 양국의 평화에 해롭게 될 것을 염려하여 우리 정부에 바랐기에 위의 5도 중 특히 이 섬에 한해서 당분간 일본인의 고기잡이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제주도의 형세(又新 1891. 7. 28.) 004

○ 조선국 전라도 남쪽에 굴기(崛起)한 하나의 도서(島嶼)를 제주도라고 한다. 그 섬은 경성에서 해로 97리 떨어져 있고, 북위 33.4도, 동경 13도에 위치에 있다. 지형은 동북에서 서남으로 뻗어, 길이 약 40리, 너비 13리, 중앙에 산맥이 있고 그 중심의 고봉(高峰)을 탐라산이라고 칭한다. 높이는 약 6,500자, 정상은 평년 10월부터 4월까지 눈이 덮여 있고 산허리에는 초목이 번무하며, 운하(雲霞)가 항상 봉우리를 가리우므로 그 전영을 보기는 드물

다. 조망은 아주 절가(絶佳), 산 밑에는 넓은 벌, 비전(肥田) 옥야(沃野)가 많다. 하지만 토민(土民)은 경작에 익숙하지 못함으로 곡류 등은 타지방에서 수입하고 있다. 연안에는 배를 정박시킬 항만이 없고 풍량은 특히 맹렬하다. 남방의 수산수진포(水山輸陳浦)가 겨우 기선 1, 2척을 정박시킬 수 있는 것 외에는 북방의 비양도, 별도, 동방의 오조포, 서방의 가파도 등에 간신히 작은 배를 매여둘 수 있다.

주성(主城)은 중앙 북안에 있어 목사영문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동쪽에 정의현, 서쪽에 대정현이 있어 각각 성벽을 조성하고 있다. 이것들을 칭해서 3읍이라고 한다. 목사는 정부가 임명하는 바 고(高), 량(良), 부(夫)의 후예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또 진(鎭)이 2개소 있고 주내(州內) 18정(丁) 마다 촌락이 있다. 봉대(烽臺)를 설치하여 유사시에는 불을 올려 긴급을 알린다. 의복은 내지(內地)와 다르지 않다고 하나 겨울철에는 모피를 입고 모관(毛冠)을 쓰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 짐승(獸類)을 방불(彷彿)케 한다. 집은 초가집이고 토방에 짚 명석을 깔아 생활하고 음식은 잡곡과 해초를 주식으로 한다. 인종은 내지의 한인에 비해 대단히 장대하고 힘세며 기질은 간사하고 사나우며, 탐욕하므로 탐라국이란 이름이 있다. 호수 5만, 인구 20만, 남자는 대체로 놀기를 좋아하지만 여자의 근면은 대단한 바 농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그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물산은 해산물이 가장 많고 일본인이 동지에서 어획하여 얻은 이익은 적지 않다고 한다.

제주도 휘문(暈間) (鎭西 1891. 10. 8.) 066

○ 인정 및 풍속

이 섬은 옛날에는 독립국이였다. 후에 이씨에 의해 통일되었기 때문에 타국인을 꺼릴 뿐만 아니라, 조선 내지인의 도래를 거부하는 경향도 있어 한국정부에서는 이 통치에 고심하여 목사도 오래 재임하는 일이 대단히 드물다고 한다. 뇌물은 거의 내지와 같이 공사 다같이 공연히 유행되고 있다. 그들이 우리 일본인을 꺼림은 대단하나 뇌물을 주면 체류하여 서로 익숙함은 어렵지 않으며 그리하여 점차 그들을 복종시킬 수 있다. 또 종래 토인(土人)을 죽였을 적에도 10관문(貫文)을 주어서 은밀하게 처리한 경우도 많다.

도내의 남자들은 때로는 논밭의 경작에 종사하든가 혹은 어업, 해상에 종사하는 것을 보지만 평소에는 담배를 피우면서 잡담의 나날은 보내는 일이 많다. 이에 반해서 부인은 종일 부지런히 농사와 어업에 종사한다. 그 여성들은 나체로 바다 속에 잠수하나 남자는 나체를 부인에게 보이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이는 그 곳에 간 우리 어민들을 꺼리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도내에서 의업(醫業)이 발전하지 않아서 도내를 여행한 모씨가 휴대용 보단(寶丹)을 주어서 그들의 병을 고쳤는 바 양의(良醫)라고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종교는 모두 불교뿐이어서 사원 7, 8개소가 있다.

제주도 시찰선의 항해 개황(概況) (鎭西 1892. 3. 17.) 093

○ 작년 제주도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쟁투한 원인을 들으니 조선인은 대체로 남자는 유태하고 부인만 노동하는 경향이 있어

어업도 부인이 해변가에서 전복을 채취하는 정도인데, 일본 어민이 잠수기계로 이것들을 마구 잡으면 그 소득이 아주 많아져 조선인의 어업을 압박하게 되므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조선인의 집은 아주 보기에 흉하다 지붕의 높이는 겨우 1칸 정도, 처마는 기울어져 있고 벽도 찢어져서 보기에 애처롭다. 지붕은 대체로 짙으로 덮고(드물게 기와로 덮는 것도 있으나) 마루 밑은 땀 나무 연기가 통과하도록 하여 집의 반대쪽에 연기의 도망갈 길을 열어 마루를 따뜻히 해서 자리를 깔고 그 위에 잔다. 먼데서 이를 보면 개미의 집 같고 다가서서 이를 보면 동굴 속의 야만인 같다. 개집(犬小屋) 같은 집의 입구에 유자유손(有子有孫), 상복연신(祥福年新), 고유여재(庫有余財), 용지미진(用之未盡) 등이라고 부전(附箋)하고 있으니 역시 우습고 불쌍하다 이르는 곳마다 남자는 입에 담뱃대를 물고 유유히 한가로운 날을 보내고 여자는 집에서 일하고 있듯이 보인다.

제주도의 어업(神戶 1906. 9. 30.) 025

○ 제주도에서 올해 전반기의 수산어획은 예년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 것 같다. 춘기에 가장 이익이 있는 것은 미역인데 미역은 매해 1월초 눈이 내리는 때부터 해녀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 채취하여 그 만물을 서울, 인천 지방에서 팔아 큰 이득을 얻는 것이 상례였지만 올해는 1~2월 전혀 움트지 않고 겨우 3월 중순 경부터 약간 채취할 수 있게 되었다. 섬 사람들은 이는 올해 강설이 평년보다 많아 마침 미역이 움트는 시기에 한라산 눈이 녹은 서늘한 물이 바다에 흘러들어 갔기 때문에 말라 죽었다고 하

나, 잠수업자들은 작년 겨울이래 풍량이 심해서 해저가 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미역을 채취하는 해녀는 미역을 곧 지상에 넣어 모래와 먼지가 섞이지 않도록 한다. 미역을 말린 후 한줌을 묶어서 한파(握)로 하고 10파를 한단(束), 100단을 한장(貼)으로 하여 도매상에게 보낸다. 이들은 거의 다 한국 상인이 매수하여 대안에 보낸다. 또 이것은 한국 관리의 유리한 내직으로 되고 있다.

○ 올해 전반기 어획의 주된 것은 이상과 같은데 전복은 일본의 잠수업자는 겨울 때부터 봄 4월에 걸쳐 어로를 하지만 해녀들은 미역채취를 마치고 난 후 일을 하므로 총계는 후반기에 이르러야만 계산할 수 있다. 마른 낙지도 이와 같다.

한해의 이세(伊勢) 해녀(每日 1908. 5. 14.) 318

○ 「전복 잡는 해녀 육지보다 바다가 좋고 헤엄치지 못하면 시집못간다. 모래밭의 추석 춤 1년 벌이 2만 5천엔」이라고 노래하는 이세(伊勢) 해녀들이 타관벌이로 나가는 수는 해마다 약 300여명, 한 사람이 4~20엔 많은 것은 100엔부터 120~130엔을 벌고 돌아온다. 평균 한사람이 80엔으로 보면 조선바다에서 가지고 돌아오는 그들의 벌이는 해마다 2만 4~5천엔으로 된다.

…조선에서는 제주도에 해녀들이 있는데, 같은 기간에 부산 근방에 와서 일본 해녀와 경쟁을 할 때가 있다. 조선 해녀는 잠수 안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세(伊勢)해녀에는 못따라 간다. 그러나 그들의 특색은 다 부부동반이며 남자가 모든 시중을 하는 것은

문명적이라고 하는가.

제주도의 연구(7) (고베 측후소장 中川源三郎 씨 조사) (神戶 1909. 9. 15.) 078

○ **공업** 본도의 공업은 아직 조금도 볼 만한 것이 없으나 도민이 비교적 수예의 솜씨가 있어 직물, 모자가 명산으로서 본토로의 수출이 많다. 게다가 그 가격이 싼 것은 원료인 말총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날씨가 사나워 어로에 불편할 때 좁은 옥내를 보니 부녀자가 삼삼오오로 자리를 잡아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것들은 한국 고래의 풍속이 유지되고 있을 동안은 수요가 많겠지만 이미 단발이 행하여지는 오늘 용도가 점차 쇠퇴됨은 명백하다.

제주도의 연구 (10) (고베 측후소장 中川源三郎 씨 조사) (神戶 1909. 9. 22.) 081

○ **풍속** 약간 한 본토와 달라서 대략 순복하고 여정(餘精)함은 특이한 미풍이라 할 수 있고 특히 부녀자는 노동에 가장 잘 견딘다. 본토에서처럼 의관(衣冠)을 쓰고 유유히 길을 거니는 자 없고 남녀노소 협력 일치하여 노동을 하며 안에서는 가내부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밖에서는 들에 바다에 부지런히 일상의 업무에 정려한다. 특히 부녀자는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보이듯이 울적한 티가 없고 거동 활발하고 중횡으로 활보하며 그 용모 골격 좀 우리 사람에 닮은 데가 있어 그 선조는 행여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한다.

오래 전부터 본도는 한 본토의 유배지로서 지위 있고 학력 있는 사람이 죄에 몰려 여생을 이 곳에서 보냈던 사람이 적지 않다. 따라서 도내에 이 유녀자들이 많이 섞여 풍채 엄한 자들이 많다고 한다. 토지 원격, 교통 불편한 탓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疏通)이 적으며 왕왕 지방관이 혹정폭령(酷政暴令)을 일삼으므로 이르는 곳마다 원한의 목소리가 끊임없다. 따라서 우리 사람을 경모하는 정 적지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하겠다.

제주도의 옛 기록(1878~1940년)

해제

이 책은 도사(島司)를 지낸 이마무라 도모(今村 鞆) 마에다 겐지(前田 善次), 다구치 데이키(田口禎熹) 등이 1878년대부터 1940년 초반까지 제주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집필하였다. 구성 내용을 보면 1928년의 제주, 제주도의 산업, 발전 방향, 기행, 제주도의 교육·위생, 19세기 말의 제주, 7·8세기의 제주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보고서로 되어 있다. 이 기록물을 통해서 당시 제주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인구 산업(특히 축산, 농업, 어업) 등을 알 수 있다.

濟州島에 대해 (1928)

마에다 겐지(前田善次)¹⁾

<出典 : 『文教의 朝鮮』 昭和 3년(1928)년 8월초>

○ 특히 말해두고 싶은 것은 근면하다는 것과 각별한 것은 해녀에 대해서이다. 나체로 바다에 잠입하여 전복·소라·해조류를 캔다. 그 활동상황이 민첩한 위에 이상하리만큼 발달된 체격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해촌의 부녀자는 11~12세 때부터 해녀 연습을 시작, 18~19세로 한몫 하는 해녀로 자란다. 산간 부락에서 어촌에 시집온 여인도 역시 해녀 연습을 한다. 이들 해녀는 이 섬만으로는 활동무대가 좁다고 경상남·북도로부터 강원·황해·함경도는 물론 중국까지도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남자는 배를 저으며 취사와 어린이 보는 일을 도맡아 하고 여자는 하나의 테왁을 들고 감연히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해녀는 하루 한 두 번씩 물 때를 맞춰 멀리 난바다까지 나가 40분 내지 1시간 동안 일한다. 모두가 썰물을 타서 난바다에 나가 밀물 때 돌아오므로 활동시간은 그 간만(干滿)의 어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 일에서 돌아오면 곧 또 농사에 종사한다. 그런 관계상 경작지는 대개 인가 가까이에 집약되고 있다. 밭이 논보다 훨씬 비싼 것이 통례인데 인가와 떨어지면 전혀 값이 안나는 곳이 많이 있다. 해녀의 수는 해녀조합에 가입돼 있는 자가 8

1) 群山府尹 第3代 濟州島司 역임(在任期間 1923. 5~1928. 7)

천명, 그렇지 않은 해녀가 8천명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임으로 가정경제에 있어서도 자연히 부인이 중심이 되어 여자의 손으로 지탱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밖에 도민은 옛부터 귀신을 모시고 남녀 무당이 많아 타인의 병이나 재액(災厄)을 쫓는다면서 밤낮을 이어 북을 치고 괴상한 주문을 외우며 춤추며 기도하는 풍습이 있다. 또 조상의 무덤을 소중히 여기며 부모의 상을 만나면 풍광명미한 곳에 묘지를 찾아 시체를 가매장(假埋葬)한 채 수년을 보내고 장사 일시·방향·장소를 정하기 위해 몇 날씩 돌아다니는 일도 있다.

조혼의 폐풍(弊風)은 육지와 마찬가지로 14~15세의 소년이 20여세의 처를 갖는 일이 새삼스러운 것이 못된다.

濟州島의 追憶

무에에 켄고(向江犬吾·京城日報 記者)

<出典：『文敎의 朝鮮』, 昭和 3년(1928) 10월호>

○ 제주도의 여성은 어딘지 좀 색다른 데가 있다. 첫째 근골(筋骨)도 늠름하게 바다에 잠수하는 해녀들은 그 위에 전신이 흑갈색으로 그을려 있으므로 그야말로 대단하다. 단단하다고 해서도 잘 알 수 없겠지만, 올림픽에서 우승한 히토미양(人見孃)을 뺄 정도라면 상상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머니나 누나로 갖

게되면 그야말로 믿을만 하겠지만, 여자로서 살펴볼 때 여자다운 느낌은 전혀 없다. 여자다운 느낌,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알아맞힐 것이다.

마음은 외형에 나타나는 의미에 있어서, 외형은 또 마음의 반영(反映)이다. 제주도 해녀는 신체가 반영하는 것과 같은 정신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 하다가는 날씬한 도회지 남자 같은 것은 깔아뭉개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상상하는 하나의 근거는 해녀에게는 부락마다 각기 지선해면(地先海面)의 사용권 같은 게 있어서 함부로 다른 부락 소유의 바다에 들어 갈 수가 없는 데 만일 이 불문율을 깨뜨리면 침범당한 부락의 해녀들이 대거 바다에 몰려가 침범한 쪽과 해중난투극을 연출, 바닷물을 피로 물 들이지 않으면 사태가 수습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바다의 참극(慘劇)은 헤일수 없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외관(外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녀들은 대단히 용감하다.

해녀가 이렇게 용감할 뿐만 아니라 이 섬의 여자는 일반적으로 씩씩하다. 한라산 등산에도 섬의 부인으로서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강수선(康守善)씨라고 했는데 그녀의 체격은 우리들 이상의 어려운 일정에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훌륭했다. 단지 해녀가 아니어서 흑갈색의 아니라 피부가 하얀 미인이었다. 해녀든 해녀가 아니든 이 섬의 부인은 이상과 같이 훌륭한 체격, 용감한 기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체격과 기상이 여자가 생활전선의 제일선에 서고 남자가 가정에 머무는 듯한 현재의 섬기질(氣質)을 낳은 것은 아닌가?

○ 섬 여인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대부분은 일을 잘한다. 그 반면 남자는 빈둥빈둥 놀며 지내 여자에게 붙어살아 여호도(女護島·주 : 여자들만이 산다는 상상의 섬)라고도 일컬어지는 것이겠지. 제주도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에 고찰(考察)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남자가 일하고 여자는 가정안에서의 소비경제에 종사하는 우리들의 가정생활에서 남자는 어떠한 반면(半面)을 보이는가? 모두 근엄한가? 우선 통틀어 여자보다 남자쪽이 방종한 것은 사실일 게다. 이것은 성적(性的)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남자가 생활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원인의 하나이다. 생활의 열쇠를 쥐므로서 생활에 독특한 자유를 느끼는 것이라면, 제주도의 여성이 해녀나 해녀가 아님에 관계없이 대체로 방종(放縱)하다고 하는 소문이 혹시 사실이라고 하면, 그 원인은 생활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주도 남자에게 부지런한 성품이 없다는 것이 되겠지.

○ 여자가 활동적이고 남자가 은둔적(隱遁的)인 것도 육지와는 기풍과 다른 두드러진 점이 아닐까. 그밖에 여자가 물건을 나를 때 머리 위에 얹지 않고 등에 지는 습관도 육지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이것은 오히려 일본과 흡사하다. 아침이나 저녁에 섬 여인의 네모난 항아리(역자주 : 네모난 바구니의 착오)를 배로 등에 지고 무거운 듯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다. 육지의 소주항아리처럼 보여 「무엇입니까」하고 물어보면 섬사람은 음료수라고 대답했다. 물이 어려운 섬에서는 이렇게 해서 먼 데서부터 음료수를 길어 온다고 한다. 육지였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둥근 물항아리

를 머리 위에 얹어서 운반할 터인데 이것 또한 커다란 차이이다. 그리고 섬여인들은 외출 할 때 마다 반드시 가로 2자, 세로 1자, 깊이 1자 정도의 대바구니를 왼쪽 허리에 끼고 다닌다. 무언가 안에 넣었을 때도 있고 넣지 않을 때도 있다. 때로는 자기가 낳은 아기를 넣고 다닐 때도 있다. 해녀가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 이 바구니 안에 잠수복이나 바가지로 된 테왁이나 그날 채취한 수확물 등 여러가지를 집어넣고 있어 너무 무거워 한손으로 들지 못하면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물항아리와 마찬가지로 배로 지고 나른다. 또 애기구덕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아기를 기르는 도구로 유모차와는 다르지만, 제주도의 애기구덕은 그 안에 그물을 쳐서 그 위에 아기를 재운다. 그 안에 아기를 넣는 것은 똑같다. 유모차는 어린애를 나르는 도구이지만, 아기에게는 해먹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할지도 모른다. 섬여인은 가정에서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에는 한쪽 발을 쭉 뻗어 아기를 재운 구덕을 발로 흔들며 아기를 달래며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육지에서는 없는 일이지요.

제주도 見聞記

朴 晟 根

<出典 : 『文敎의 朝鮮』, 1928년 8월호>

○ 본도에 상륙해서 첫째로 이상하게 느낀 것은 부두에서 노동하는 남녀들이었다. 머리에는 밀짚모자를 쓰고 의복은 감즙을 물들인 암갈색의 의복을 입고 있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어떤 학자는 처음 이것을 보고 형무소의 죄인으로 오해해서 이 섬에는 죄인이 많구나 하고 말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한길에는 부인이 설새없이 음료수 바구니를 등에 지고 나르는 것이 보인다. 성내 관덕정 앞에는 월 6회 음력 2·7일에 장(주 : 오일장)이 서는데 매매하는 것은 대개 부인들이다. 또 본도에는 해녀조합원이 약 8천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이들 해녀는 근해는 물론 멀리 조선반도 또는 일본 각 연안까지 출가하는 자도 있다고 한다. 해녀잠수업은 본도 부인의 독특한 기술로서 그들의 잠수작업을 실지로 시찰해 보면 머리는 베로 감싸고 몸은 나체에 다 속옷 한장만을 입는다. 오른손에는 1척 정도의 철제 전복따기(주 : 빗창)를 갖고서 처음에 해안으로부터 난바다로 들어갈 때는 호흡 휴식을 조절하여 물건을 넣는 테와[瓢網褰]에 전신을 싣고 두 발은 움직이며 전진해 간다. 그리하여 잠수시에는 이 어구를 물 위에 남겨두고 잠입 약 1분간쯤 해서 수확물을 손에 잡고

물 위로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약1시간 내외의 작업을 하는데 채집물은 전복·소라 기타 해조류 등으로 수확량은 각자의 기술 또는 장소관계 등에 따라 일정치 않다.

그들이 잠수하는 물의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 22~23심(尋 : 1심은 두 손을 좌우로 뻗은 길이=약 1.8미터)이라고 한다. 또 좀 이상한 이야기로는 바닷가 처녀가 산골마을에 시집 갈 때에도 이 해녀도구를 지참해 가서 때때로 부부가 함께 바닷가에 나와 전복과 소라 등을 잡고는 남편이 이것을 지고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밖에 부인은 자녀의 교양·취사·재봉·세탁·농업 기타 가사잡무에 대해 근면하다. 아마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본도의 부인이 세계 제일일 것이다. 길에서 부인을 만나도 육지에서와 같이 길을 남에게 비켜 주는 일은 없다. 마침 이 섬에 도착한 날 밤에 수명의 친구들과 산책 겸 시내를 이곳저곳 걷고 있을 때, 어떤 곳에 한 젊은 부인이 문 앞에 앉아 어린아기를 아기구덕 속에 넣고 이를 좌우로 흔들고 있어 매우 진기해서 모두들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더니 겁내는 기색 없이 잘 응답해 주고 제주도 고유의 자장가까지 한가락 들려주었다. 이 같은 일은 육지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사실이다. 처녀·신부라고 해도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일이 없으며 또 짐을 머리 위에 얹히는 법이 없다. 조그만 것은 광주리에 넣어서 안고 가고, 큰 것은 등에 진다. 또 여자는 외출시에 가져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조그만 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이상한 풍속이 있다. 여자는 미인이 없지만 남자는 이에 반하여 미남자가 있다. 이것이 조선에서의 「남남북녀(南男北女)」란 말이 생겨나게 된 연유가

아닐까. 일반의 생활정도는 여유롭지는 않지만 남녀 모두 근면의 미풍을 살려 거지가 이 섬에는 없다고 한다.

濟州島 말(馬)에 대하여

나카야마 시게루(中山 蕃)

<出典 : 朝鮮 191號 昭和 6年(1931) 4月>

畜産現況의 概勢

1. 島民生活 經濟의 現況

○ 습속으로써 남자에 비하여 여자는 잘 노동을 한다고 하지만 연중 태반은 해녀로서 바다에서 노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에 투하되는 노동력의 공급은 한지방에 편중해 심한 불균형등 부족상태를 이루어 부락부근의 토지의 농업생활이 매우 빈약하게 됨은 자연스런 결과이다.

濟州島의 海女

다구치 데이키(田口禎熹)²⁾

<朝鮮218號 昭和 8年(1933) 7月>

○ 해녀는 전도의 연안 1백23개리에 살고 있는 부녀자의 직업으로 본도 연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50여년 전) 경상남도에 출어하고 점차 다도해(多島海)로부터 경상북도·강원도·함경도·황해도에 까지 이르고 마침내 조선 각도의 연안 내지(內地·주:일본 본토) 러시아·중국 등의 연안에도 진출하였다. 그 수는 매년 5~6천명, 어획고는 75만엔 이상에 달하고 있다. 도내에서만 일하고 있는 자는 약 7천5백명, 어획고는 25만엔 내지 28만엔 정도인데 본도 수산업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안부락의 여자는 13세정도부터 얇은 바다에서 연습을 시작하고 15~16세가 되면 훌륭한 해녀가 돼서 추위, 더위를 불문하고 연중 조업에 나선다. 해녀들에 필요한 기구는 테왁이라 칭하는 부표(浮瓢)와 여기에 부착하는 망사리(繩綱袋)가 있다. 조개류의 채포(採捕)에는 쇠로 만든 길이 6~7촌(寸)의 빗창을 휴대하고 해조채취에는 낫(鎌)을 사용한다. 잠수 가능한 수심의 최대한도는 7~8심(尋·주:1심은 두팔을 벌린 길이)이지만 3~4심이 보통이다.

조업시에는 일본의 물질옷인 잠방이를 입고 한 손에 테왁을

2) 제6대 제주도사(在任期間: 1931.12~1935.9).

들고 바닷가에서 도보로 채취장에 이르는데 채취장이 먼 경우에는 수십명이 무리가 되어 떼(筏) 또는 작은 배를 타고서 나가게 된다. 테왁은 망사리를 매단 채 항시 물위에 띄워 두었다가 물 밑에서 떠올라 채취물을 망대(綱袋)에 집어넣고 그 위에 배를 얹혀 휴식하든지 또는 부유를 한다.

해녀 1인 1일의 수확은 최고 1엔20전에서부터 최저 20~30전 정도이다. 도외로 출어하는 경우에는 15명 내지 20명의 해녀와 사공 2명 내외가 일단이 되어 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의 연안에 대한 출어자는 3~5톤 범선으로 목적지에 직항하고 경남·강원·함경 각 도 및 일본방면에의 출어는 발동선편에 의해 직각 목적지로 향하는 자도 있으나 대개는 기선편으로 부산(釜山)에 이르고 마키노시마(牧の島·주 : 影島)의 근거지로부터 목적지에 출어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출어해녀의 어획물은 주로 우뭇가사리·미역·은행초·앵초·감태재·툇·비단풀·강리(한천원료)·잡초·전복·소라 등의 해초 및 패류이다.

종래의 해녀 출어상황을 보면 소수의 독립출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객주(客主)의 손에 의해 출어한다. 객주는 부산(釜山) 영도에 거주하며 그 수가 60여 명(그 중 40여 명은 본도 출신자)쯤 되지만 이들 객주는 출어지 해조상(海藻商)의 부하에 속하고 해녀의 모집 및 감독을 맡는다. 매년 음력 12월 경에 내도하여 해녀를 모집하고 응모자에게는 선임(船賃)과 식비를 선대(先貸)해서 출어를 계약한다.

○ 객주가 예정대로 해녀를 모으고자 하다 보니 때로는 남편 승낙없는 부인과 계약을 맺는다든지 혹은 미혼의 부녀를 유괴하고 혹은 전대금(前貸金)에 대하여 고리(高利)를 탐내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 대부분은 본남편·근친자 등의 감독자 없이 딴 남자와 접촉하기 때문에 출어선(出漁先)에서 중혼(重婚)을 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었다.

또 출어지에 있어서의 남채(濫採)는 어장을 심히 황폐시키고 생산액을 점차 감소해서 그냥 방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대정(大正) 9년(1920)부터 해녀어업조합을 설립하여 1) 해조류의 번식보호 2) 해녀를 따라와 시중하는 사람 및 사공의 폐지 3) 해녀의 풍기 개선 4) 해녀의 구제 보호 5) 객주의 근절 등에 대하여 통제제도를 가함으로서 근래 그 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民謠에 나타난 濟州女性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

<朝鮮 212號 昭和 8年 (1933) 4月號로부터>

「一」

○ 그 후 이조(李朝)가 되면서부터 『여지승람(輿地勝覽)』을 비롯 섬의 일을 기록한 글이 열손가락으로 헤아릴 만하지만 그저

속담 등을 늘어놔 이해하기가 어렵다. 「처성심고(杵聲甚苦·방아
 찼는 소리가 매우 괴로워 보인다)」고 간단히 처리 그 어려운 이
 어(異語·속담)로서 애처롭게 부르는 「방아찼는 노래(杵歌)」를
 이해하고 이를 육지로 전하려는 사람을 지금까지 알 수 없다. 인
 조조(仁祖朝)의 정온(鄭蘊)의 『동계집(桐溪集)』에 그가 제주에 있
 을 때 지은 「촌녀저가(村女杵歌)」의 1장이 있다. 가로되,

土俗無春鑿. 村娥抱杵歌. 高低如有調. 斷絕似相和. 欲解須憑
 譯. 頻聞慚不歌. 淒涼曉月下. 遠客髮先皤.

지방풍속에는 절구가 없고 마을아낙이 방아노래를 부르는
 데 높고 낮음에 곡조가 있는 듯, 이어지고 끊김에 조화가 있
 는 듯, 풀이하려면 번역을 빌려야하고, 자주 들으려니 부끄러
 이 여겨 노래가 끊겨, 처량한 새벽 달빛 아래, 멀리서 온 나그
 네 머리가 먼저 흰다.

섬의 여자들은 절굿공이를 안고 새벽녘까지 구슬픈 노래를 부
 르지만 통역이 없으면 의미를 알 수 없다. 번번이 들으려고 하면
 수줍어서 노래를 해주질 않는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三」

○ 제주 토속이 육지의 그것과 다른 가운데 우리들이 우선 깊
 은 인상을 받는 것은 여자의 풍속이다. 발로 한번 섬을 밟고나서
 우선 섬의 여자를 보고 놀라운 눈을 번득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천하의 명물 해녀는 그만 두고도 성내를 왕래하는 여자란 여

자가 모두 바구니를 들고 있다는 것, 길가의 노점을 여자가 주관한다는 것, 논밭의 노동에 여자가 많이 섞인다는 것, 집 안팎 여기저기서 갖가지 여자 노래소리가 들린다는 것 등등은 육지에서는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육지와는 다른 풍속을 보존하고 있는 섬의 여자가 어떤 사상·감정·의지를 지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가정에 대해, 결혼에 대해, 남녀관계에 대해, 직업에 대해, 인생에 대해, 섬의 여자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일까. 나는 섬의 여자의 마음을 그녀들의 민요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민요에 들어가기 전에 제주여성에 대한 전반적 지식으로서 우선 다음의 두 가지를 알아두지 않으면 안된다. 즉 ① 제주 여자는 일을 잘 한다. ② 제주에서는 여자쪽이 남자보다 훨씬 많다.

섬 여자들의 근면함은 육지에서 온 사람들의 눈을 놀라게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도 근면한 습속(習俗)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는 갖가지 설이 있고 또 갖가지 원인이 있다. 그런데 여자 수가 남자 수보다 더하다는 것 같은 게 역시 일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른 한 원인을 이루는 것이다. 섬의 유식층의 말을 듣건대 그 가장 주된 원인은 섬이 천혜(天惠)가 비박(菲薄)하여 평지는 좁고 용수(用水)는 모자라며 그런데도 공물(貢物)의 부담은 무거워 한사람의 게으름도 허용 않고 있으니 여자라고 해도 일해야 하는 것으로 각오한다. 『탐라사실』이 인용하는 고려 문종(高麗文宗) 12년 문하성(門下省)의 주(奏)에도

耽羅地瘠民貧. 惟以木道經紀謀生.

탐라의 땅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다. 오직 목도와 경기(장사)로 생활을 꾸려 나간다.

고 되어 있으며 『여지승람』이나 『읍지(邑誌)』에 쓰여 있는 바도 그와 다름없다. 때문에 만일 이조(李朝)에서 외국무역을 금하지 않았더라면 제주 사람들은 더욱 용한유위(勇悍有爲)한 항해업자로서, 남북중국·류큐(琉球)·일본 새를 왕래하며 거리(巨利)를 차지, 그러므로서 섬의 풍속, 특히 여자의 습속은 지금과는 전혀 달라졌었을 것이다. 실제로 고려사 현종(顯宗) 3년 임인(壬寅)에 탐라인이 와서 큰 배 두 척을 현상한 기사가 있다. 지금 전해지는 민요에도 그 옛날 도민이 큰 배를 띄워 강남(江南)이나 산둥(山東)을 왕래했던 일을 서술하는 게 있다. 지금도 오사카(大阪)에 사는 조선인 중에는 제주도인이 단연 다수를 점하고 있다. 쇄국정책은 여자의 손과 발을 굽고 거칠게 했다. 제주성내의 홍순재(洪淳宰)군에게 부탁해서 섬의 남녀들이 하는 일의 분류(分類)를 시도해 봤는데 남자만 하는 일은 기경(起耕)·진토(鎭土)·토질이 거칠기 때문에 파종한 다음 땅을 밟아 굳힌다)·노역(勞役)·부역(夫役)·건축·토역(土役)·어업 기타 힘드는 일이다. 여자만에 한해서 하는 일은 가래(挽臼)·방아(搗臼)·잠수업·망건(網巾)·탕건(宕巾)·삿갓 등을 짜는 일과 물짓기·빨래·재봉·요리 등은 물론이다. 남녀가 함께 공동으로 하는 노작(勞作)은 제초(除草)·수확·비료운반·가사경영 등이다. 이렇듯 남녀공동노작의 종류는 여럿이 있기 때문에 섬의 남녀는 육지와 같이 내외구별

이 엄중하지 않다. 『탐라사실』은 제주 세시(歲時)의 하나로 조리희(照里戲)를 들어

每歲八月十五日男女共聚歌舞. 分作左右隊. 曳大索兩端以決勝負. 索若中絕兩隊仆地則觀者大笑. 以爲照里戲. 是日鞦韆及捕鷄之戲又作.

매해 8월 15일에 남녀가 함께 어울려 가무를 즐긴다. 이들은 좌우로 나뉘어 긴 줄 모양의 양 끝을 끌며 승부를 낸다. 만약 줄이 끊기면 양자가 모두 땅에 쓸어져 보는 이들이 큰 웃음을 웃는다. 이를 조리희라 한다. 이 날은 그네와 닭 잡기 놀이도 또한 한다.

고 말하고 있다. 또 여자만의 일과 여자가 섞이는 일이 많은 것은 자연히 섬에 수 많은 민요의 발생을 촉구한다. 『읍지』의 풍속에

杵歌聲苦. 女人作隊擣春必發杵歌. 音調甚苦. 旋磨亦然.

방아 짙는 소리가 고달프다. 여인들이 짙을 지어 방아를 짨 때는 반드시 이 노래가 나온다. 음조가 매우 괴로워 보인다. 선마(주:밀방아) 또한 그렇다.

고 되어 있다. 홀로 방아 짙는 노래만이 아니라 망건·탕건·삿갓을 짜고 논밭에서 김을 매고 연가(連架·주 : 도리깨)로서 곡식을 장만하며 테왁을 띄워서 바다에서 헤엄치는 데에도 모두 요(謠)를 부른다. 너무 여자들이 일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식객(食客) 노릇이나 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섬의 남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정조조(正祖朝)에 유배되어 29년의

유배인 생활을 보냈던 조정철(趙貞喆)의 『靜軒集瀛海處坎錄』 卷四 歎島俗에

從古耽羅國. 居民自懶慵. 大都趨末利. 餘事視三農. 婦人惟耕穫. 晨昏旦白春. 蠻風誰一變. 聖德今時雍.

옛날부터 백성들이 게을러 대개 말리(주 :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구하여 삼농을 살피는 일을 여사(주 : 여분히 하는 일)로 한다. 부녀들이 갈고 거두어 드리고 하여 아침에서 저녁까지 종일 방아를 찧는다. 만풍은 누가 바뀔놓을 것인가, 성덕이 지금은 조화가 되었는데(...)

라는 게 있다.

섬에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음을 『여지승람』은 이미 「女多男少」라하고 덧붙여

僧皆作家寺傍移畜妻子.

승들은 모두 절 곁에 집을 짓고 처자를 기른다.

고 하고 이 풍습이 정조조에 이르러서도 변하지 않아 앞에 인용한 조정철(趙貞喆)의 『瀛海處坎錄』 卷四 耽羅雜詠의 十六에

耽羅搖在海之中. 男少女多今古同. 牧子畦丁蔀屋下. 一妻一妾自成風. 時男口爲五萬餘女口爲七萬餘.

탐라는 멀리 바다 가운데 있어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 건 예나 지금이나 매일반, 목자와 농사꾼은 초가에 살고, 한 아내와 한 첩을 거느리는 일이 풍속이 되었네. 이 때의 남자 인구 5만에 여자인구 7만여.

라고 되어 있다. 전년에 국세조사 결과 섬 인구 총수 20만8천3백25명 가운데 남자 9만6천2백14, 여자 11만2천1백11명으로 약 2만 정도 여자수가 많다.

어째서 육지 조선은 남다여소(男多女少)인데 이곳만 이렇게도 여자가 많은가. 이에 대해 예부터 여러가지 설이 있다. 그 중에서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것은 『탐라사실』에 들고 있는 두 대목이다. 그 하나는

本土海洋極險. 公私運販之船絡繹不絕. 而怪風擰雨常多票沒. 老寡青孀每事稼穡. 女多男少良由以也.

이 땅은 바다가 극히 험하여 공사간의 운판선이 끊이질 않는데 괴이한 바람과 날랜 비가 내려 표류하거나 침몰하는 일이 많다, 늙은 과부나 청상과부가 같고 심는데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음은 본래 이 때문이다.

뱃사람이 많고 수난(水難)을 입는 자가 해마다 적지 않은 수에 오르기 때문에 『여다남소(女多男少)』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대목에는 신증(新增)으로써

近按風土. 民苦男丁之搖役. 一家雖生十男入籍者不過一二. 及其式年考籍也以男爲女. 漏丁者甚多故也.

『풍토록』을 살펴보면 남정들의 요역을 괴로워하여 한 집에 남자 열을 낳더라도 호적에 올리는 이는 한둘에 지나지 않는다. 식년으로 호적을 정리할 때에 이르면 남자를 여자로 삼음으로 남자에게 빠지는 자가 심히 많다.

라고 말하면서 도민의 도역(逃役)을 위해 호적에서 빠지는 남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호적부상으로 설명되지만 실수(實數)의 설명은 되지 않는다. 정의읍(旌義邑) 고지(古誌)에는 풍속의 항(項)에

女多男少俗稱. 山岳多雌峯故云.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다. 이는 산악에 자봉(여성의 산)이 많기 때문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라고 되어 있다. 이 현상을 풍수설로써 설명하려는 것이겠지만, 산의 옹봉(雌峰 : 남성의 산)이라고 함은 아마도 의연하고 뾰족하게 높이 솟은 산을 말하고 자봉이라 함은 꼭대기가 둥굴고 우아한 산을 말하는 것일 게다. 제주의 한라산은 원교(圓嶠)라고 일컬어 정상이 둥근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설을 오늘날의 우리들은 믿을 수가 없다.

섬의 식자(識者)들은 섬의 여자가 남국태생으로 조숙한 위에 결혼연령은 대체로 남자에 비해 4~5세부터 6~7세 위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원인에 대한 설명이 될지 어떨지. 이런 경우에 남자를 많이 낳는다는 학설도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실제에 있어서는 지금도 섬에는 여자쪽이 더 많이 태어난다. 내가 체재중에 접촉한 섬 사람들은 그 7~8할이 여아를 남아보다 많이 갖고 있으며 특히 기이한 것은 첫 번째 어린이가 십중 아홉까지는 여자인 것 같다는 것이다.

「四」

우선 섬여인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일을 하도록 습관을 들이는지 뱃노래 한편을 들어서 이것을 증명한다.

船 歌(뱃노래)

다리松堂	큰아기덜은,
되방이 짓기로	다 나간다.
威德近方	큰아기덜은,
신각부비기로	다 나간다.
朝天近方	큰아기덜은,
網巾틀기로	다 나간다.
新村近方	큰아기덜은
涼太틀기로	다 나간다.
別刀近方	큰아기덜은,
宕巾틀기로	다나간다.
道頭近方	큰아기덜은,
帽子틀기로	다 나간다.
高內, 涯月	큰아기덜은,
구물틀기로	다나간다
清水, 당마리	큰아기덜은,
기름장사로	다나간다.
大靜近方	큰아기덜은,

자리짜기로	다나간다.
金寧, 갈막	큰아기덜은,
태약장사로	다나간다.
어등, 무주	큰아기덜은,
푸나무장사로	다나간다.
終達近方	큰아기덜은,
소곰장사로	다나간다.
旌義山압	큰아기덜은,
질삼틀기로	다나간다.

품종은 달라져도 어느 땅이건 여인네가 일하지 않은 곳은 없다. 이렇게 해서 양태(涼太)짜기에는 양태노래 망건(網巾)짜기에 망건노래, 해녀에게는 해녀노래가 생겼다. 어느 것이나 모두 이런 노동이 우리 집의 생활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각각 그 일부를 소개한다.

涼太歌 (양태 짜는 노래)

나동침아	도라가라
서울놈의	술잔돌듯
어서速히	도라가라
이涼太로	큰집사곡
이涼太로	큰밭사곡
늙은父母	供養하곡

어린同生 工夫하곡
一家房床 顧族하곳
이웃四寸 扶助하계

網 巾 歌(망건 짜는 노래)

나網巾아 나網巾아
한간에는 옷밧는 網巾
한간에는 밥밧는 網巾
旌義좁쌀 남밧은 網巾
威德집서 나밧은 網巾
一千시름 다밧은 網巾

海 女 歌

1

총각차라 물에들게,
糧食싸라 섬에가게.
명지바당 싹바람불라,
갈치바당 갈바람 불라.

2

전복조흔 엉덩개로
메역조흔 여곳으로.

내뭉으로 배를 삼고
慾心으로 沙工을사망
설금설금 저서나가라.

3

어린子息 버려두고,
늙은父母 버려두고.
돈일러라 돈일러라.
願진것이 돈일러라
한푼두푼 매운돈을
家夫님의 갑작골로.

이와 같이 섬의 여인은 일이 바뀔 때 마다 부르는 노래도 달라
져 셀 수 없을 정도의 노래가 생겼다. 섬여인네들의 노래가 어느
정도 있는가. 아마도 알고 있는 이가 없을 게다. 민요는 말한다.

저레가는 靑비발아기,
이내방이 도와여두라.
노래하나 더배와주마.
훗일곱에 불으던노래,
아홉상지 半이연마는,
한상지나 더배와가라.

「五」

섬여인네의 많은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방아 짙는 노래이다. 방아질 하는 것이 섬여인들의 일반적인 노동이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절구공이를 쥐어서 서면 곧 노래가 나온다. 민요에

방아귀광 시왕댄[○]갓단,
심어서난 설운말한다.
지을방이 다지여가도,
부를노래 수만일너라.

십왕죽(十王竹)이란 것은 가느다란 대나무로 여기서는 이 시왕대에 천조각을 대고 섬여인들이 춤을 출 때에 잡고 흔드는 것을 말한다.

이들 무수한 방아 짙는 노래의 음조는 어느 것이나 너무 힘이 들어, 깊은 밤에 조용히 이것을 들으면 의미를 알 수 없는 손도 슬픈 눈물이 흐른다. 이것은 이미 『여지승람』에 나와서 이후 제주를 기록하는 어떤 글에도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없다. 실로 방아노래는 괴롭고 참담하다. 마음 속에 얼어붙은 고민을 노래를 빌려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제주민요의 리듬은 이렇게 쓰라린가. 여기서는 전설적인 설명이 하나 있다. 제주의 노래에는 방아 짙는 노래에도 뱃노래에도 농가(農歌)에도 그 밖의 노래에도 노래의 첫부분과 끝부분에 이여도야 이여도(또는 이허도라고도)하는 후렴이 붙어있다. 어떤 이는 이허도(李虛島)라고 쓴다. 이 섬은 공상 속의 섬이며 제주와 중국과의 중간쯤에 있다고 믿

어지고 있다. 가는 배이건 오는 배이건 이 섬까지만 오면 우선 안심한다는 곳이다. 그래서 떠나가는 배에 대해서는 이허도까지 무사하라고 비는 것이며 또 가서 돌아오지 않는 배가 있다면 최소한 이허도 까지만 돌아오면 이 재난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을 하고 슬퍼한다. 노래에.

江南가건 해님을 보라
이여島가 半이라한다
이여말난 마라근가라
마랑가면 남이나옴나.
이여말난 마라근가라.
이여하면 나눈물난다.

이러한 이여도란 후렴은 누가 부르기 시작했다. (중략) 언제인지 모르나 대정에 강(姜)씨라는 해상운송업의 거간인 장자가 있어서 이 공물선의 근거지를 이루고 그때마다 수척의 큰 배가 공물을 만재하여 황해를 가로 질러 출발했다. 그런데 이들 공물선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강씨에게는 늙은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아, 이허도야 이허도」로 시작하고 끝나는 노래를 짓고 이를 불렀다. 적어도 내 남편이 이허도까지만이라도 가고, 왔으면 하는 의미이다. 그 곡조는 처참하도록 슬펐다. 따라서 같은 처지의 대정 과부들이 이것을 듣고 모두 동조했다. 다른 부인네들은 동정하여 동조했다. 이렇게 해서 섬전체로 퍼져갔다. 중국과의 교류가 끝나도 뱃사람이 많은 섬의 부녀

자들은 역시 이 노래에 공명한다. 이렇게 해서 본디 의미는 이미 잊혀져 버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여도야 이여도」는 그네들 노래의 서두로, 끝맺음으로서 불리우고 있다. 그런데 그 기원(起源)이 그렇듯 슬픈 것이기 때문에 그 곡조가 실로 처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사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육지사람이 섬의 노래를 한번 들으면 쓰라린 마음이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그 후 5백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이 슬픈 곡조가 의미를 다 잊어진 채로 섬여인네들에 의해 노래 불리워져 대부분 그네들의 노래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 무슨 때문일까. 이것은 그녀들의 마음이 당연히 여기에 공명공조(共鳴共調)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녀들의 가사도 심중 팔구는 슬픈 것이다. 기쁘다, 즐겁다는 노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그네들의 인생관이 어두운 것이다. 이 생을 기뻐하며 즐거운 기분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다. 어찌면 이 세상 그 자체를 싫어하고 혹은 내 자신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미운사람 꿀보기실년,
山섬에간 집지연사난,
들어오린 하나이업고,
노린사슴 발어름소리여

○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 인간이 싫은가, 내 마음 속에 비애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바람불영 절갯날이명
天動울영 비갯날시라.
願진달밤 밝은날시명,
이내가슴 환한날시라.

또,

애달와라 中心에말을,
뉘귀귀라 일으리한다.
일어가면 내눈물난다

때로는 너무 슬퍼서 돌아간 어머니를 부른다. 어머니를 불러서
빨리 저 세상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거기에서 제주여인들은 강하고 견실하다. 싸울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자신의 힘을 스스로 믿는다.

1

원의 아달 원자랑말나,
신의아달 신자랑말나,
훗버개에 나혼자자난,
원도신도 저홀딕업다.

2

서울이여 南大門은,

님님마다 못여는 문을.
前生구진 이내몸가진,
절로설낭 열녀나지라.

이 노래는 국왕에게 직소(直訴)해서라도 나의 염력(念力)으로 훌륭하게 관철시키고 말겠다는 뜻을 노래한 것이다.

여자의 강함은 좋다. 그러나 그녀들이 드디어 가정부인이 되어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누이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 그 성격으로서 는 화합은 용이하지 않다. 시어머니, 시누이도 강하다. 그녀도 강하다 부싯돌과 부시가 서로 부딪히면 불이 일어난다. 일이 이지경이 되면 신부에게는 가정이 완전히 불여의(不如意)의 세계로 소위 한탄의 집, 고생의 집이다. 방아 찧는 노래에 고부간(姑婦間)의 불화를 노래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방아찧는 노래가 슬퍼지지 않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이다.

1

밧희들은 머들에간다,
길에들은 에염에간다.
이방상에 굿조흔말은,
나신더래 다모여온다.

2

다심어멍 개연의딸년.
거문공자 개주언두언,

흰공자로 날바래더라.

3

놈도가는 길이연마는,
우리어명 날보낸길은,
가시짓고 뛰지섯서라

4

석달만니 씨넉에가서,
찾방문을 여러다보니.
씨아방은 구정기넉시여,
나를보난 세들각찬다.
씨어명은 암빛의넉시여,
나를보난 아지직한다.
씨누이는 코상이넉시여,
나를보난 흐르륵한다.
남편내는 문계의넉시여,
나르보난 영구여든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도깨비라면, 시아버지는 부처님이다. 그녀는 노래한다.

5

씨아바니 오시는 길엔,

璜玦石이 다리를노코.
씨어머니 압푸신 눈엔,
옛귀물이 單藥일러라

그러나 시어머니 쪽에서도 역시 할 말이 없지는 않다.

얼굴 곱고 속구진각씨.
너분들에 반잘귀러라.
반작반작 조와라마는,
속도구진 각씨리러라.

그러므로 섬에는 신부의 이혼, 혹은 이와 비슷한 친정으로 가
는 일이 아주 많다.

가라오라 다리지말라.
먼저방귀 신버신나여,
신영가면 가만일너라.

신부가 점점 단념하고 시어머니도 아집을 꺾어서 어쨌거나 안
정되는 데는 3년이 걸린다.

가라오라 다리는 집에,
도람들명 三年을 사난,
가랜말도 업서라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아이를 위해서이다.

가자하난 가기는실너도,
아니가진 못하일너라.
대조남에 연결닌듯이.
어린아기 사정일너라.

「七」

다행히 시어머니와 화해를 했어도 아직 섬여인들의 고생의 씨앗은 끊이지 않는다. 이것은 앞서 「여다남소(女多男少)」의 대목에서 말한 것처럼, 섬에는 여자가 많은 까닭에 자연스럽게 정부인이 못되면 첩이 되는 여자가 많아서 이 때문에 제2의 가정불화가 생기는 것이다. 첩까지는 되지 않아도 20~30대의 젊음으로 60~70대의 노인의 후처로 가는 자도 얼마든지 있다. 노래에

신업슴도 하도나설완,
갓시물에 여드님거난,
두번세번 물더른밥을,
씹어두랜 양업일러라.

첩을 두게 된 본처의 끊임없는 괴로움은 어떤가. 장가(長歌)를 하나를 읊어 측은하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

1

쌀젓보리 거적채먹은들,
씨아시아 한집에살며.
물리업선 한물을먹은들,
씨아시아 한길³⁾노가랴.
길도다시 빠는수시면,
씨앗길은 따로나빠게

2

한마실에 세꽃한눔아,
세숫밧헤 불사마보라.
네만나명 불아니난다

3

씨앗이연 트드레가난,
가른밧헤 매맛꽃가티,
히원듯이 나안저서라.
내눈에도 저만할것이,
님의눈엔 비면하리야.

이렇게도 가증스런 첩을 남편은 왜 두는 걸일까 필경 내 얼굴
이 늙고 추해졌기 때문이리라. 이 대목에 이르면 섬 여인들은 안
색이 슬프게 변하다.

3) 물을 기는 데는 외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1

가지조코 님조흔때면,
손섬새가 다모여들단.
가지지고 님지여부난,
病든새도 지넘어간다.

2

비발야기 꽃이로베문,
아기업슨 한철일러라.
꽃은피영 동이나맛나,
나사피영 어느동마지리.

3

집에班草 심으지말나.
班草납히 울넘어가면,
심은님이 까라저간다

4

임아임아 情드신님아,
바리거든 꽃친제바리라.
바리거든 님힌제바리라.
꽃가불고 님지은후제,
임이만덜 내어디가리.

어느 것이나 폐부(肺腑)에서 나온 노래로 그네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도 가정의 평화를 깨고 본처로부터 원망을 사는 첩, 그녀들의 생활도 결코 근심없는 것이 아니다. 첩들은 노래한다.

1

놀명먹젠 놈의꽃드난,
놈의종이 半이라한다
시름업젠 새몸에가난,
더사시름 지여라한다.

2

놈의꽃광 솔남바람은,
소린나도 사를매업다.
지저명광 오름에들은,
등굴다도 사를매난다.
留鄉座首⁴⁾ 첩으랑말앙,
山馬牧子 屋家로가라.

3

저달가튼 안해도있저,
새별가튼 종妾도있저.

4) 유향좌수(留鄉座首)는 성하읍내(城下邑內)의 세력있는 대가로(大家) 봐야 한다.

우리갓든 간아해賤妾,
이신간도 數난아니한다.

본처에 비해 고생을 하고 있는 만큼 그녀들의 인생관이나 신세타령은 심각하며 생각키우게 하는 바가 많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본처도 첩도 고뇌의 세계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서 섬 여인들은 남자를 부러워하고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내신세를 한탄한다.

사나이광 밤나무가지가,
소리나명 살을매엿다.
虎班울닌 위염도말곡,
아전울닌 상덕도말곡.
사락눈이 뒤덥힌날에,
남장괴에 부릿배거렁,
남을지여 오는님뵈다.

「八」

○ 이상 섬여인의 어두운 마음의 일면은 거의 서술했다. 남해의 조류가 밀려와 동백이 핏빛 색깔의 꽃을 피우는 섬의 여성은 보다 빨리 여인이 된다. 그래서 남자 대신 일도 하고 놀기도 한다. 게다가 이성의 수는 적고 동성의 수는 많다. 또 그네들은 유교의 설교에 별로 접하지 않는다. 여기서 마음껏 이성을 찾는 노

래가 나온다. 이것은 실로 섬여인들의 밝은 한면이다. 그래서 일면은 물론 그녀들의 생활에 있어서 큰 세력을 갖는 것으로 그에 의해 그 그림과 같은 다정다감한 세계가 전개되어지는 것이다.

1

하나나 둘. 셋이나 넷.
오신다는 건가, 못오신다는 건가.
문을 닫을까, 조용히 기다릴까.
무서운 귀신에게 잡히지나 않을까.
그때부터해서 그림자도 안 보인다.

이 노래는 탕건 짜는 낭자들의 노래로 학무국편집과에서 채집한 것 중에 있던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조선어원고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번역이 잘못이 없는 것만은 의심치 않는다. 「하나나 둘」은 탕건을 짜는 바늘을 꿰는 수이다.

2

吉州明川 가문시장시,
닭이울건 질행을나라.
밤중만에 울어낸닭은,
달이아닌 人닭의소리여.

이 노래는 길주명천(吉州明川) 포목장수를 섬여인들이 환영하는 것이지만 함북(咸北) 길주명천은 모시(麻布)의 명산지 이것을

짜는 것은 주부들의 일로 1필에 반달 걸린다. 남편은 이것을 들고 섬에 팔러 오는 것이다. 정조조(正祖朝)의 시인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의 『북관적(北關謫)』 중에서 읊은 「영중백(盈中百)」에 이를 제목으로 해서 읊은 것이 두 수 있다. 이 노래와 합쳐서 읽으면 그 맛이 더욱 깊다.

旅次雜絕十三首 중에서

秋州兒女淚如絲. 機上鴛鴦織向誰.
半月辛勤成一匹. 王教夫壻上京師.

여행중에 쓴 시 13수 중에서
수주의 여아들 실같이 눈물 흘리며
베를 위에 원앙이 되어 누구를 위하여 (베를) 짜는가
반달을 고생하여 한필을 다 짜내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서울로 가게 하네

秋州客思七十九首 중에서

積麻難具述. 事縷功六七.
生憎布賣妻. 年年數月別.

수주에 여행가서 79수 중에서
베 짜는 어려움 이루다 말할 수 없고
여섯 일곱 공드려 실다듬어
아내의 베 짜는 생애 싫어하면서도
해마다 몇 달을 이별하여 살아간다.

또한 같은 노래하나.

3

吉州明川 감은포장시.
어두우면 어디로가리
玉女神女 방으로가라.

4

山池물광 加樂כות물도,
한디놀젠 言約일너나.
가건아니 올님이어든,
言約이나 마라근가라.

5

님사오젠 설심이런가,
내사가젠 설심이런가.
좁은목에 정든님만난,
이별이자잔 내뭇살러라.

6

봄절나면 궤던님온다,
어서봄절 도라나오라.
明紬마지 열누염서라.

이성을 찾는 섬 여인내들의 수는 많고 길주(吉州)의 포목상인 조차 환영받는 것은 노래대로이지만, 그러나 그녀들이 가장 동경하는 대상은 양반이며, 그것도 도회지의 양반이다. 양반이라면 서로 달려들어 그 정은 얻으려고 하는 섬여인이 적지 않았다. 둘이나 세명의 여인으로부터 송금받아 호사스런 생활을 하는 양반도 있다고 한다. 그녀들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

1

兩班이사 새꽃을하난,
明紬바지 세허릴러라.
상놈이사 세꽃을하난,
양왜달망 불나영앗나.

양반의 첩이 되면 첩 쪽에서 그의 벌이에 따른 바지를 선사하려 오는데 평민의 첩은 주인의 재물만을 가지러 가기 때문에 끝내 주인은 벌거숭이가 되고 만다.

또, 그녀들의 양반·평민의 가치판단을 들어보면,

2

걸난지건 兩班이걸은,
길에屏風⁵⁾ 들은간하다.
걸난지건 상놈의걸은,
소왕가시 드된간하다.

5) 섬에서는 길에 병풍을 둘러놓고 요란스럽게 노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가장 흠모받는 것은 도회지 양반이다.

3

날낭죽건 팔판에무덤.
숭어生鮮 몸에나가근,
서울兩班 七盤에 올랑,
무남제로 굴니녀보져.

그러다보니 도시의 유배인으로서 섬여인과 간친(懇親)을 맺기에 이른 자도 실로 적지 않다. 지금도 섬사람의 자랑의 하나로 섬여인들이 지은 의복은 이것을 서울로 입고 가도 조금도 모양새가 나쁘지 않고 섬의 상당한 집안의 요리는 도회지 사람이 먹어도 시골풍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섬 안에는 도회 양반의 사생아도 적지 않다. 그들은 도회지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모해마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이라 하면 여인네들에게도 동경의 땅이기도 하다. 그녀들은 노래한다.

서울長安 아버지사란.
서울네레 가는님시면,
아바님게 便紙나하영.
便紙보명 날다라가게.

「九」

○ 나는 섬여인네들의 쾌활한 부분을 읊기려다 뜻하지 않게 다정다감함을 노래로서 지적했다. 그러나 제주여인은 그 강한 마음의 힘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정렬(貞烈)이 있다. 이것은 간과해선 안될 섬 여자의 마음이다. 박제가(朴齊家) 『貞蕤찬詩集』 제4에는, 제주여걸 만덕(萬德)의 기사가 있다. 여기에 제주 서문 밖에 세워져 있는 홍의녀(洪義女)의 묘비에 대한 내력을 약술하고 섬여인을 예참하며 원고를 마친다.

○ 홍의녀 이야기는 정조(正朝) 연간의 일이다. 노론(老論)의 명가 조정철(趙貞喆)은 정조 원년 7월 홍국영(洪國榮)에게 미움받아 제주에 정배당해 29년간 제주에 있다가 순조5년 7월에 풀려돌아가 생모와도 만날 수 있었다. 다음 다음해인 순조7년 특별히 청하여 제주목사가 되어 부임하여 아주 큰 덕정(德政)을 베풀어 은혜를 옛사람에게 갚았다. 『정헌처감록(貞軒處坎錄)』은 그의 처지에 따라 소감을 시가(詩歌)에 나타낸 것을 모은 것으로 전후 12년에 걸친 유배인의 생활, 제주인의 풍속, 기후, 산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참고할 만한 게 아주 많다.

그의 적거후(謫居後) 5년 즉 정조 5년 신축, 세도가 홍국영이 실각하여 강릉(江陵)에서 죽고, 남인 채재공(蔡在恭)의 밑에 노론 시파(時派)와 소론(小論)과 남인이 드날렸다. 전라도 감사 박우원(朴佑源)이 시파이고, 제주목사 김시구(金耆耇)는 남인이었다. 박은 김과 짜서 조정철을 비롯한 관내의 노론벽파(老論僻派)의 유

배인을 죽이기로 하고 조정철에 대한 감시를 한결 엄중히 하여 어떤 트집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끝내 『潛奸邑婢』의 일조(一條)를 얻어 그를 힐문(詰問)하고 또 상대방인 홍의랑(洪義娘)을 고문한 것이다. 홍의랑의 이름은 윤애(允愛) 향리(鄕吏) 처훈(處勳)의 딸이다. 그가 섬에 도착한 해부터 이미 그의 처소에 출입하며 시중들고 있었다. 김목사는 반드시 조정철의 허물을 캐내리라 하고 고문해도, 그녀는 단연코 이를 거부했다. 결국 곤장 70대에 이르러 죽었다. 때는 윤5월 15일이었다. 6월 2일 새벽 성남에 묻었다. 정헌 기록에 의하면 윤 5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비 한방울 오지 않고 5월 15일에는 심한 비바람에 나무가 꺾이고 천지가 압담했다. 옥리(獄吏)는 이를 아가씨의 원기(冤氣) 탓이라고 여겼다.

이상은 『정헌처감록』이나 『이조실록』⁶⁾에 의해 기록된 것이지만 제주 고로(故老)들의 전하는 바와는 크게 다르다. 그들의 말로는 5월에 목사에게 밀사(密使)가 와서 그를 적당한 죄명아래 장살(杖殺)시키라고 했다. 그는 법정에 끌려나와 모진 매를 맞고 거의 초주검이 되어 법정 밖으로 끌려 나왔다. 이때 홍의랑이 달려와서 그의 몸에 온기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소변을 입에 부어서 소생시켰다. 이때의 법은 맞아서 죽었다고 버려진 죄인이 되살아나도 다시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런 끝에 다시 소생하고 홍의랑은 중죄인으로서 교살(絞殺)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헌 자신의 기록에 달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성(京城)의 관장(官場)을 다시 몇 번 돌아 그는

6) 『朝鮮王朝實錄』인데 일본인의 기록으로 바로 잡는다. 편집자 주

순조 5년 을축 재도(在島) 29년만에 풀려나 7월에 고향으로 돌려 보내졌다. 다음 다음해 특별히 청하여 제주목사가 되어 도임, 당장 홍의랑을 위하여 묘를 만들고 비를 세워 글을 새겼다. 그 문말(文末)에 이렇게 전한다.

痤玉埋香奄幾年. 誰將爾怨訴蒼旻. 黃泉路遠歸何賴. 碧血藏深死亦緣. 千古芳蘅菘烈. 一門高節弟兄賢. 烏頭雙闕今難作. 青草應生馬鬣前.

구슬과 향기가 이땅에 묻힌지 몇년이나 지났는고
그 누가 너의 원통함을 저하늘에 호소하리
어떠한 바람소리 따라 황천길 급히 가서
푸른 피 머그문 채 묻힌 것도 인연인가.
장하고 꽃다운 이름 오랜세월 전해졌고
한 집안에 높은 절개 형제가 뛰어났네
빨간빛 두 정려문은 지금 세우기 어려운데
말 발굽엔 응당 푸른 풀이 자라네

그 스스로 주(註)를 달고, 홍씨의 언니는 이참판 형규(李參判亨逵)의 부실(副室)이 되고, 참판이 죽자 독을 마시고 뒤를 다랐다. 이것을 일문쌍절(一門雙節)이라고 했다. 홍의랑도 정헌의 이 비문을 얻고, 구천아래에서 영면했을 것이다.(昭和 7년 12월 15일).

제주도의 현지조사

도리아마 스스무(鳥山 進)

<出典：朝鮮 303號 昭和 15年(1940) 8월>

2. 人情·風俗

○ 경제사상이 발달하고 의뢰심이 비교적 적어 자영자족(自營自足)을 존중하는 풍속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시의심(猜疑心)이 강하고 배타적 기분이 농후하여 공유공영(共有公營)의 정신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본도인은 내지인(內地人·일본인), 몽고인(蒙古人)의 혼혈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체격·면모·풍속·습관·언어 등이 육지부와 다른 점이 많다. 여자는 매우 근면해서 옥외노동(屋外勞動)에 힘쓰고 특히 해녀의 경우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으며 그 수가 1만에 달한다. 또 이에 반하여 남자는 비교적 나태하다.

3. 衛生狀態

(1) 一般的 衛生狀態

본도는 해륙의 교통이 불편한 관계상 문화의 정도가 저급(低級)하여 일반도민의 생활정도는 육지에 비하여 낮으며 위생사상 역시 유치하다. 농가는 물론 집단부락에 있어서도 대부분 집집마

다 변소에서 돼지를 기르고 있다. 채난연료(採暖燃料)로 우마분(牛馬糞)을 사용하고 지금도 아직 미신적 치료를 행하는 자 많으며 특히 결핵(結核)·화류병(花柳病)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그 원인은 도내에는 항시 계절풍이 강하여 먼지와 함께 결핵균이 날아와 침입하는가 하면 작부(酌婦)·고녀(雇女)는 마치 화류병의 온상과 같은 느낌이 있다. 위생시설의 쇄신개선을 요하는 점이 극히 많다고 하겠다.

조선기행

- 백여년 전에 조선을 다녀간 두 외국인의 여행기 -

해제

이 책은 백여년 전 조선사회를 방문한 두 외국인이 남긴 여행기이다. 여행기의 주인공은 프랑스인 샤를 루이 바라와 미국인 샤이에 롱이다.

샤를 루이 바라(Charles Louis Varat, 1842~1893)는 프랑스의 여행가이며 지리학자, 민속학자로 프랑스 문교부에 의해 민속학적 임무를 띠고 조선에 파견되었다. 그 후 1888~1889년 조선의 실상을 보고 『조선종단기』를 썼다.

샤이에 롱(Chaille-Long, 1842~1917)은 미국 메릴랜드 출생이며 대위로 제대했다. 그가(전직 한성 주재 미국 총영사이자 공사 서기관, 이집트학회 회원) 작성한 「코리아 혹은 조선」은 1887~1889년의 이야기이다. 이 부분에 제주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의 두 저자가 조선을 방문한 시기는 1888~1889년이며 당시 조선은 일대 혼란기였다. 여기에 소개된 여행기는 외부와 접촉이 없었던 민중, 정치적 고난 등 여행자에게는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는 조선의 제반 상황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 즉 외국인(서양인)의 눈으로 관찰한 1백여년 전의 조선의 실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 I. 개요와 역사, II. 조선의 왕, 이희 폐하, III. 뉴욕에서 한양까지, IV. 조선의 궁궐에서, V. 한양에서 켈파에르트 섬, 즉 제주도까지, VI. 켈파에르트의 수도, VII. 조선의 잔치, VIII.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IX. 조선의 예술과 사찰, X. 맺음말>로 되어 있다.

V. 한양에서 켈파에르트 섬, 즉 제주도까지

○ 토착민들이 제주도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켈파에르트(Quelpart)는 1668년 하멜표류기가 편찬된 이후 서양지도에 제주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서양인들에게 제주도는 Quelpart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중국해(海)에 떠 있는 섬으로, 한반도 남쪽 약 96킬로미터 지점, 북위 33°에서 34°사이, 동경 124°에서 126° 사이에 위치해 있다. 섬의 북동쪽 끝에서 남서쪽 끝까지의 총 길이는 64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으나, 그 너비는 다해야 고작 27킬로미터에 지나지 않는다.

해발 2천미터 이상의 한라산 봉우리가 섬 전체를 관통하는 높은 산악지형을 굽어보고 있다. 중국해와 동해를 오가는 뱃길 가운데 위치해 있으면서도 켈파에르트는 아직까지 ‘미지의 땅’이며 본토인 조선 못지않게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지역으로 남아 있다.

○ 하지만 하멜 이전은 물론, 그의 이후에도 어느 누구 하나 켈파에르트의 신성한 땅을 밟아 본 유럽인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외부세계로부터의 완전한 고립감이 이 섬 주민들에게 하나의 절대적인 종교가 되다시피 했다.

○ 1888년 9월 1일 나는 외무부 대신의 고마운 배려 덕분에 폐하로부터 켈파에르트를 방문해도 좋다는 허락과 함께 신분증

명서와 그곳 관리에게 보내는 특별 추천서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같은 달 5일, 개인 통역관으로 고용한 김월 씨와 요리사 한 명을 대동하고 나는 제물포를 출발해 부산으로 향했다.

선원은 선주와 나, 통역관과 요리사 그리고 일본인 다섯 명을 합해 모두 아홉 명으로 이루어졌다. 보잘것없는 삼판선이 엄청난 바다의 파도 앞에 얼마나 허약할 것인지 잘 알고 시작하는 여행인 만큼, 그저 요행을 비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드디어 9월 22일, 우리는 식량을 잔뜩 싣고서 부산을 출발해 곧장 내해(內海 : 대한해협을 말한다. 내해라고 착각할 만큼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수많은 섬들이 흩어져 있다.)로 접어들었다.

○ 지리학자에게는 ‘북촌(北村, Ville 여 Nord)’이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진[의문이다. 현재 북촌이라는 지명은 별도봉이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한참 떨어져 북제주군 조천읍 해안가에 있다. 필자의 착각인지, 역자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옛 지명이 그러한지는 미지수이다.] 별도를 품고 있는 구릉지대는 연속적으로 그 고도가 높아지면서 급기야는 한라산 정상까지 이르는데, 고도 6백미터 정도까지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다. 대략 8백여 가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총인구수는 3천여 명 정도 될 것이다. 가옥들은 방과 제를 쌓았던 그 화산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비록 지붕은 지푸라기로 엮어 엮은 것이지만 마을의 골목길들을 따라 죽 늘어선 높다란 담장하며 전체적인 외관이 무척이나 견고해 보였다.

○ 마침내 간식이 들어왔다. 주로 해초 튀긴 것과 생선·해삼을 중심으로 그밖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가 곁들여졌고, 곡주도 차려졌다.

○ 관리는 나를 뒤늦게 영접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로 말문을 열었다. 그의 얘기가, 갑작스런 방문으로 무척이나 당황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무려 2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 결코 하선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상소를 해왔다고요. 지금까지 그 어떤 외국인도 이 켈파에르트에 발을 디디도록 허락된 적이 없었소. 어떤 경우에도 이방인은 이곳 백성의 신께 바쳐진 한라산에 오를 수가 없는 것이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백일동안 산신령을 달래기 위한 제를 지내야만 하오. 그렇지 않으면 흉작과 기근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오.”

일단 수궁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보였다. 잠시 후 식사가 차려졌는데, 해삼과 해초 튀긴 것, 생선, 꿀 그리고 곡주가 나왔다.

○ 하지만 오늘날 켈파에르트 주민의 종교란 단지 땅과 공기의 정령 따위에 대한 신앙 차원(일종의 샤머니즘, 조상숭배와 피타고라스적 관념론의 혼합)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그러면서도 용(龍)에 대한 믿음의 가장 확고하고도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쨌든 켈파에르트의 제신(諸神)은 모두 한라산에 모여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몇몇 닳아빠진 조각상들을 제외하고는 불교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섬에 머물고 있을 때 웬 노인 하나가 나를 찾아왔는데, 다음은 종교라든가 섬의 역사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가 대답해 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땅이 창조될 때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지. 그런데 어느날 저 산봉우리에서(한라산 정상을 가리키며) ‘고’와 ‘양’, 그리고 ‘부’라는 이름의 세 사람이 나왔다고 하지. 그렇게 해서 땅에 사람이 난 것이라네. 세 사람이 서로 진지한 얘기를 나누며 산에서 내려와 마침내 바닷가에 이르게 되었지. 그런데 문득 파도에 밀려온 듯한 귀썩 하나가 그들의 발치에 와 닿는 것이었어. 지체 없이 뚜껑을 열어 보았더니, 놀랍게도 세 명의 아리따운 처녀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세 남자는 얼른 그 세 처녀와 짝을 이루었지. 그로부터 비로소 인류의 번식이 시작된 거야. 그밖에 짐승이라든가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들은 구름이 저 한라산 봉우리 위에 실어다 놓았지.”

거기까지 말한 다음 노인은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고’씨의 15대 자손들은 배를 하나 건조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지.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조선땅에 가 닿아 그곳 왕을 방문하게 되었어. 그런데 그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조선 궁정의 점성술사들에 의해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주는 조선에 공물을 바치게 되었지...”

천주교 선교사 서한집(1899~1910)

해제

1901년 제주민란(이재수란, 신축교안)과 관련된 교회측 자료는 천주교 제주교구가 선교 10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 권의 자료집으로 엮어서 출간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조선교구장이었던 뮌텔 주교가 보관해 두었던 자료들로써,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발간된 자료집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주교 제주교구, 『신축교안과 제주 천주교회』(제주복음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2집), 1997.
- ② 천주교 제주교구,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라크루 신부 편-』(제주복음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3집), 1997.
- ③ 천주교 제주교구,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페네·김원영·무세·타케·김양홍·이경만·주재용·이필경 신부 편-』(제주복음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4집), 1997.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편

○ 라크루(Lacrouts) 신부의 서한(1900. 5. 26.)

지난 화요일에 군산에서 제주로 제 짐을 부쳤고, 토요일인 오늘 두 명의 전주 여신도 회장과 그 중 한 여인(이마리아)의 아들(신재순)이 군산으로 떠났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0. 8. 30.)

현직 이방과 그의 아내가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임명된 장래 이방의 아들과 손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호기심이 많은 제주 사람들, 특히 호기심 많은 제주 여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 집들보다는 차라리 제 주위에 있는 집들을 사고 싶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0. 6. 24.)

김원영 신부는 한논의 교우들 사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신자들은 아주 훌륭한 신앙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희망이 싹트고, 여인들은 배우기 시작하며, 그들 중 두 명이 이미 삼종기도를 배웠고 다른 여인들도 배우고 싶어합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0. 6. 29.)

어제 저녁 식사 후에, 예전에 어사였으며 3년 전에 유배되었고 주교님께 자기 명함을 놓고 갔다는 이校理(李容鎬)라는 사람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밖에 나오지 않으며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곳의 무수히 많은 서당들 중의 하나가 그에게 일임되었습니다. (……) 그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0. 8. 12.)

지금 농부들에게는 바쁜 시기이지만, 40여 명이 예비자로 등록했으며, 몇 명은 영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곳에서는 결혼이 마땅히 중히 여겨졌어야만 했을 텐데도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있고 기생들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군수(金昌洙)는 전에 기생이었던 사람을 아내로 데리고 있는데, 그가 군수였을 때 취한 여인으로,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을 소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지위가 높은 유배자들은 기생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런 여자들 가운데 몇몇 여인들은 가장 높은 지위의 將校(군관직 향리)처럼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교님께 말씀드리거니와, 이와 같은 풍습으로 인해 결혼의 신성함과 불가해소성이 이곳에서는 거의 생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남편은 현재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아직 살아 있는 다른 여러 명의 여인들을 가졌던 일도 있습니다. 아내 자신도 여러 명의 남편에게 속해 있었고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아직 죽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동시에 아내 쪽에서 바오로 사도의 특은⁷⁾을 사용하는 것, 즉 바오로 특은을 이용하여

함께 결혼하는 것이 특별 허가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면, 우리는 매우 자주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 신자의 경우, 그의 첫 번째 부인에게 행해진 헛된 질문을 한 후 혹은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아직 이교도인 현재의 부인을 아내로 삼도록 하는 특별 허가에 동의하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입니다. (……) 세계는 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일어나고 있는 개종의 움직임을 감지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자칫 학살될 뻔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거의 별 거 벗고 있는 빨래터에 설교하러 가거나 그곳을 배회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이 며칠 더 머물러 있었다면, 사람들이 이 일로 그들을 학살하려고 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출의 증가로 인해 지붕을 새로 덮는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여인들과 함께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두 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하층민들과 섞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에게 많은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첩이 있는 남자들을 당황해 하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오고 싶어합니다. 벌써 5명 내지 7명의 아이들이 12단을 배우러 매일 오고 있으며 많은 수의 다른 이들도 역시 오고 싶어합니다.

제 주위에서는 여름의 더위로 다소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설사

7) 비세레자 부부간에 성립된 혼인에서 부부 중 한쪽이 세례를 받은 후, 상대방이 평화로운 동거 생활을 거부할 경우 세레자는 혼인의 해소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와 이질이 뒤따라왔습니다. 여신도 회장(이마리아)은 아직 완치 되지 못했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0. 10. 20.)

10월 2일 이후 신자가 되었다는 視察官(丁裕燮)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나흘 동안 12명의 기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이 무시무시한 사람은 목사(이상규)가 우리와 관계를 갖는 것을 비난했고, 신자인 진위대의 주요 인물들 중 두 사람을 매우 부당하게 면직 시키고도 입맛을 다셨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1. 5. 20.)

신자들은 그들의 집에서, 노상에서, 그리고 산속에서 수색을 당하고 학살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들, 심지어 어린 아들들까지도 다시 말해서, 모든 가족들이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신축교안 보고(1901. 6. 11.)

이 날 저녁에 여자 이교도 한 명이 동문 근처에서 햇빛에 널려 있던 화약에 불을 던져 폭발이 일어났고 교우 세 명이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교우 한 명이 이교도들의 악의를 비난하자, 여인들이 그를 붙잡느라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온 도읍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 마귀 같은 여자들의 흥분으로 더욱더 위협적이 되어가고 있었던 그 군중의 손아귀에서 그를 빼내 오기 위해 이 교우를 동헌으로 데려가 그에게 태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음력 4월 10~11일의 밤중 내내 여인 8명이 도움을 돌려 모든 여인들에게 점심 식사 후에 몽둥이를 들고 광장으로 모이라고 명령하고 다녔습니다. 아, 그것은 너무도 잔인하고 비열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신자들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 아침에 모든 여인들은 종종걸음으로 광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 20대에서 60이나 70대에 이르는 여인들로, 한편은 미친 듯이 격분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비웃음을 보이며 신자 5명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매일 마을의 신자들, 특히 여자 교우들의 새로운 학살 소식과 화재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법국 놈, 법국 년’으로 취급했습니다. 읍의 우두머리들은 다시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도들이 두 번까지나 연거푸 읍의 우두머리들을 체포했고 다행히 샌즈 씨가 여자 신자 한 명과 함께 그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1. 6. 18.)

6월 16일에 주동자들의 용서를 구하는 진정서가 여인들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1. 9. 14.)

11명의 죄수들이 오늘 서울로 떠납니다. 그들 중에는 오대현의 아내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김옥돌이 있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1. 9. 28.)

여러 마을에서는 남녀 신자들을 ‘도가’라는 공공 건물에 모아

놓고 그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옷 벗는 것과 때리는 것을 보게 하였으며, 아이들도 그들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똑같은 모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강상호라는 늙은이는 여신자들을 자기 방에 불러들여 문을 잠그고 그들의 옷을 벗게 하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대비책으로 팬츠를 입고 있었지만, 늙은이의 손으로 내리치는 거친 매질을 받기 위해 그것마저 벗어야 했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2. 12. 28.)

건입 고을에 유 주사라는 26세의 교인이 사는데, 그의 늙은 아버지에겐 아내와 첩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도처로 여행을 합니다. 그는 또 우연히 독개에 사는 21세의 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행 사이사이에 그 젊은 여인과 함께 살며, 맏아들 유 주사와는 70리 떨어진 곳에서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습니다. 유 주사의 아버지가 육지로 여행을 갔을 때, 片씨 성의 선원이 문 씨에게 물건을 사 달라며 620냥을 맡겨 놓았는데, 이 여인은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자신이 살던 집까지 비밀리에 팔아 버렸습니다. 육지에서 돌아온 편 씨는 자기의 힘으로는 그 돈도 물건들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군수에게 고소하자, 군수는 이 여인을 벌하고 이 부정한 행위를 처벌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보수를 받고 자신을 보호해줄 자들을 찾아다니다 저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지만, 저는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난데없이 군수는 유 주사에게 불효라는 죄명을 씌워 그를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3. 6. 10.)

저는 고 베네딕도라는 젊은 신자와, 영세는 하지 않았지만 굳은 인내심을 보이는 한 기생과 결혼시켰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이 지나자 이 젊은 여인은 자기 남편과 육체적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불평을 했고, 그것이 두 사람의 화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침내 문제의 그 젊은이는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를 피정에 데리고 가서 목포에 있는 일본 의사에게 가보도록 했는데, 의사 앞에서 실제로 그의 무력함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그가 200냥을 내고 석 달 간 치료를 받으면, 낫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가난했으므로, 저는 제 비용으로 한 달 간 시도해 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가 서너 차례 일본 의사를 찾아갔을 때, 의사는 항상 부재중이었습니다. 결국 고 베네딕도는 자기가 완쾌되었으며, 자신의 손놀림으로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에 돌아와서 첫 시도는 처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녀가 자기는 남편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그와 헤어지겠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무척 난처한 지경입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3. 6. 11.)

홍 율리안나라는 신자에게는 밭이 두 패기 있었는데, 하나는 종답이었으므로 그 여인이 영세할 때 친척들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라의 소유였습니다. 율리아나의 남편은 매년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그 밭을 계속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 밭 가격의 삼분의 일을 內藏院에 선불했습니다. 그

러나 이것을 목사의 이방이 가로챘습니다. 불쌍한 이 여인은 내 장원에 호소했으며, 내장원은 목사에게 그 밭을 이 여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목사는 이방을 시켜 보리 수확한 것을 빼앗도록 했고 가엾은 이 여인은 네 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제계 와서 울음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4. 4. 18.)

주교님께서서는 늙은 마리아(라크루 신부의 복사인 이마리아)에게 돌아오게 될 보상에 관해서 그의 측근들의 탐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주교님께서서는 이 측근들이 마리아의 그 조그만 재산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주도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 베르모렐 신부에게 500엔으로 강경 근처에 논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재순⁸⁾의 처남이 이 논이 마름이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재순의 매장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고 또 다른 비용으로도 사용될 것인데, 그 내역에 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베르모렐 신부는 제계 보낸 편지에서 올해는 논을 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해서 관리인들을 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인들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어찌면 양로원에 한 자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 빈첸시오가 주교님께 告目을 보내 드릴 것입니다. 김 빈첸

8) 이마리아의 아들. 1901년 민란 때 민군에 의해 살해됨.

시오는, 정신은 박약하나 마귀적인 열성에는 강한, 매우 미신적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학살 이전에 이미 빈첸시오와 영세한 그의 아들이 이 여인을 개종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학살이 있고 나선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빈첸시오는 더 이상 이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집에도 아주 가끔 들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 여인은 죽을 뻔했고 빈첸시오와 그의 아들 아우구스티노가 이 여인에게 ‘代洗’를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독한 이교도인 그의 오빠들의 허락을 받고 싶다는 핑계로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빠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마침내 여인은 빈첸시오의 위협에 굴복하여 동의하는 체했습니다. 사람들은 늙은 마리아를 찾으러 갔습니다. 빈첸시오의 아내는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여인에게 권고하여 동의의 표시를 얻어냈다고 믿고선 대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병이 낫자마자 ‘귀신들’에게 감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구해주었다고 믿고 점점 더 미신에 빠져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세례가 무효였고 전혀 세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빈첸시오는 다시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俗事에 관한 교회의 재판권의 경우이므로 저와는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빈첸시오는 결혼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여인과 살 수는 없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연말보고(1904. 5. 19.)

고 안토니오와 그의 부인 박 세실리아는 남몰래 ‘식계(제사)’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모든 신자들과의 합의하에 (전체 신자 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 안토니오는 1900년 이후 영세한 세력 있는 향리입니다. 다른 두 사람, 즉 이 루가와 그의 부인 이 막달레나는 오히려 연약한 성격으로 인해 냉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냉담자인 이 베네딕도는 너무 젊고, 이교도인 부모 사이에서 깨끗하게 처신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냉담자는 이교도인 부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9. 9. 5.)

관대한 한 분의 자발적인 협력 덕분에 제주에 여학교(신성여학교) 건립의 가능성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 저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교님께 전하고, 동시에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 여학교를 관리하도록 허락해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또한 주교님께 보내는 편지와 함께 서울의 수녀원장에게 편지를 써서 작년에 주교님이 정하신 조건으로 2명의 여선생을 뽑아 보내주도록 부탁했습니다. 비에모 신부는 그 학교로 쓰일 집을 방문했고, 그의 새 용도에 적합한 몇 가지 정비를 하면 그 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교님께서 제 부탁을 들어 주시고 이런 목적하에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에 필요한 허가를 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9. 10. 20.)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수녀님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어린 여학

생들을 개종시키는 데 열의를 쏟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20세가 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에 시작했던 한자 공부를 끝마치기를 바랄 것입니다. 수녀님들이 어린 이교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부모들의 허락과 함께 가족들의 신뢰를 얻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학교는 처음의 비용이 충당되자마자, 스스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뿐 아니라 서너 명의 수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리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09. 11. 28.)

수녀님들(김 아나타시아 수녀와 이 곤자가 수녀)이 타고 오기로 되어 있던 증기선 한 척이 오늘 아침 도착하자, 신자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를 잘 손질한 마리아와 함께 항구로 뛰어 갔습니다. 그 여자는 예쁘지 않았습니다.

정오에는 어제 목포를 출발한 또 한 척의 증기선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바다는 굉장히 고요해서 배멀미만 없었다면 멋진 항해입니다. 선인들과 악인들이 섞여 있으므로, 저는 이 일에 관해서 어떤 두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수녀들이 “뱀과 같은 피와 비둘기 같은 단순함”과 하느님의 도우심을 갖는다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10. 1. 4.)

아나타시아 수녀님이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월요일에 홍로로 떠났던 저는 수녀님들에게 성체를 남겨 두고 다음 토요일에 눈이 엉덩이까지 내린 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을 주교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날보다 하루 더 많은 닻새 동안 성체를 보관했습니다.

주교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제 소나무 대신에 상청골의 여학교를 위한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가 영사관이 나 통감부에게까지도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이 땅은 옛날에 좌수의 집으로 지금은 비어있고 수녀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학교가 확장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현재 값으로 친다면 백 엔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사관은 이 일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고 제안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10. 1. 21.)

<미션 가톨릭>의 편집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 주도의 민요 노래들을 적어 보냅니다. (……) 이 노래들은 제목도 없고 그것들이 쓰여져 있는 그대로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서로 관련이 없는 다른 문장들 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장들뿐입니다.

제가 고아의 노래를 불러봤는데 그 노래는 감상적인 어조를 띤 제주말로 된 단아한 곡입니다.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보러오는 이교도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것이 관계되는 것은 그들이니까요. 수녀님들이 이 작은 노래집을 복사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들이 제게 3부를 복사해 주는 조건으로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일 제가 이것

이 샤르즈뵈프 신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저는 이것을 직역하여 그에게 복사본을 1부 보낼 것입니다.

<미션 가톨릭> 편집장님께,

편집장님의 독자들을 위해서 제주도의 노래 몇 개를 모아 번역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마음의 고귀함과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번역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 대로 이 노래들이 편집장님 마음에 들 수 있다면 다른 것들도 모으겠습니다. 제가 모아 놓은 곡들 거의 모두가 그리움의 고통스런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문은 그녀들에게 닫혀 있고, 그녀들은 그것의 아름다움을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노래들이 여자들의 노래이고, 그녀들만이 그것들을 만들었고 그녀들만이 그것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에 대한 생각, 마리아께 대한 자식으로서의 시선, 삶과 죽음은 털 괴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편집장님, 미천한 종이 드리는 심심한 경의의 표시를 받아 주십시오.

고아의 노래

새야! 새야! 제비 왕국의 새야!
우리 엄마 만나거든
“네 딸이 울고 있다”고 말해 주렴.
“내 딸이 어디서 울고 있냐?”고 물으면
큰길 네거리에 앉아

어디로 갈지 몰라 울고 있더라고 말해 주렴

어미를 보고 싶은 마음
내가 떠나면, 엄마를 만나겠지.
내가 가지 못하면, 엄마가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지리.
원하고, 원하고, 원하던 물,
손바닥 가득 물을 마시면 용기가 생기리라 말들 하지.
정(情)이여! 그 정을 만족시키고 싶어라.
그냥 칼로 베러 가거라.
남쪽 바다 저쪽에서 온 새야,
일본에서 온 새야,
오늘 떠나자 내일 떠나자 하는구나.
이슬이 큰 대나무의 큰 잎을 덮었으니,
날개가 젖어 더 이상 너를 날아오르게 할 수 없구나.
슬프고, 슬프고, 슬프다고 너는 말하는구나.
나 역시, 내 정이 나를 슬프게 하네.
절로 눈물이 흐르네!

(여인들은 벼를 찢으며 항상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하면서 응…응…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쉬지 않고 더욱 격렬하게 벼를 찢기 위해 내는 긴 한숨일 뿐입니다. 이 노래에서 ‘응’ 소리는 문장이나 그 일부분을 대신합니다.)

방아타령

어이! 저기 아리따운 아가씨
이 쌀을 짙게 우리를 도와줘.
네가 산 넘어 시집가면
네 시아버지가 목사이기를.
응...응... 그의 성미가 너무 까다로우면
너무 까다롭게 하면 우리들 세 형제에게 오너라.
그의 걱정을 부숴버리리라.
우리가 너를 위해 그의 격렬함을 부숴 주리라. 응...

사랑받는 것들이 사람들이듯
미움받는 것들도 사람들이네.

때때로 재미로 다른 이의 첩이 돼 보고
때때로 이곳저곳에서 기분 풀이해 보렴.

소나무의 바람이 다른 이의 첩처럼 소리를 내고,
모든 이로부터 거절당하고 우롱당한 정숙한 여인과의 살림은
둘 사이에서 불가능하다.
돌들이 굴러간다. 살림이 가능하다.

아기의 노래

작은 키에 뚱뚱한 몸
치맛자락에 목화 씨 감추고
벌써 25리 걸었다고 믿으며
문에서 앞뒤로 몸을 흔들고 있었네.

흉년

산꼭대기 쪽을 바라보라.
사람들은 검은 밀을 베고 새파란 논의 벼를 베는데,
응...응...
아픈 마음에 나는 울기만 하노라.

깨진 사랑

그는 말했다. 망각과 함께 그는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은 나, 나는 그를 잊을 수 있을까?
그를 잊고 나는 살고 싶을까?
이 모든 많은 것들 속에서 나는 그것을 생각하네.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절로 눈물이 말을 하네.

여인들의 욕망

여인의 길, 눈물의 길, 비참한 길
나는 더 이상 너를 생각지 않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기를
네가 다시 태어난다면, '현인'으로 태어나기를
우리 언니와 내가 죽거든
앞산에다 묻지 말고
뒷산에다 묻지 말고
가지 밭에 묻어 주오.
우리 위에 가지가 자라거든
먹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우리 임금에게 바쳐주오.
우리 언니와 나를 자비로운 영혼으로 여기도록
내가 죽거든, 닻나무 밭에 묻어주오.
내 위에 닻종이가 자랐거든, 가장 훌륭한 선비의
붓 아래 그것을 놓아주오.
평온한 내 마음은 더 이상 원이 없으리라.
내가 죽거든
나는 꽃이 되리라.
네가 죽거든, 나비가 되거라.
꽃과 나비는
함께 노나리.

해녀들의 노래

바다에는 파도의 목소리
집에는 시어머니 목소리
몸은 작는데, 목소리는 참으로 크구나.
머리카락부터 물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양식을 가져가라. 큰 섬으로 가거라.
앞서가는 우리는
미역이 잘 자라는 바다 밑 아름다운 들판으로 간다.
미리 떠난 다른 이들은 감태가 자라는 자갈밭으로 가거라.

두 명의 고아

어린 까마귀도 우리 엄마 하고 부르고
어린 새도 우리 엄마 하고 부르는데
우리 언니와 나, 우리는 무엇을 했기에
엄마라는 말을 알지도 못할까.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10. 5. 15.)

제가 제주 군수에게 써보낸 학교(신성여학교) 개교에 관한 선언문을 복사하여 보내드립니다. 이 선언문 중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것이 아직 서울로 우송되지 않았나 봅니다. 주교님께서 그것을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것을 수정하시거나 최선을 다하여 완전히 고쳐 써주시기까지라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여학교의 개교로 우리 학교의 학생 7명이 떠나갔습니다. 그 학생들 중 한 명은 그가 할 수 있는 온갖 영향력을 이용하고 부탁하고 애원한 후 되돌아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우리 학교를 나간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 학교에는 신분이 낮은 25명의 여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은 건강합니다. 되도록 빨리 선언문을 수정하거나 고쳐 쓰셔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10. 6. 10.)

우리 학교에 대한 악의는 남녀 학교들의 교감의 소행이었던 같습니다. 이 일본인은 아마도 조금 질투를 했나 본데, 그에게 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 관리들의 타고난 습관적인 파렴치한 언행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견지에서는 그가 옳았던 게지요. 그런데 한국 관리들은 망신만 당했고 지금은 유순해졌습니다!

학교 건물과 수녀원을 개조하는 데 약 550엔을 지출했습니다. 제 나무에 대해 말하러 왔던 순검이 제가 대신 요구했던 큰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페네 신부와 김원영 신부가 제주에 처음 왔을 때 이 집을 그들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이 집의 지붕에다 성 베네딕도의 메달을 던졌는데, 이 집의 지붕은 그녀들의 부엌 지붕에 거의 닿을 정도입니다. 요컨대 저는 기다리고 있으며 주님께서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라크루 신부의 연말 보고(1910. 7. 17.)

작년에 샤프르비프 신부는 1801년에 순교한 황사영(알렉산텔)의 증손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프랑스에 알렸습니다. 선교회는 이 순교자를 기억하고자 했고, 그들에게 480프랑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한 채 샀고 기회가 닿은 대로 나머지 돈으로 그들에게 밭도 사줄 예정입니다. 황사영의 손자는 제주로 귀양 온 자기 할머니(정난주 마리아)가 자기 아버지(황경한)에게 쓴 편지를 제게 건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세 살이었고 추자도 근방에 살고 있었으며 황씨 집안은 그의 후손입니다.

제주읍에 있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 소속의 여학교에는 5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신자들 사이에서 열의를 불러 일으키는 것 말고도, 어린 이교도들이 학교를 자주 찾아와 신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학교를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이 제게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적이 없는 한 저는 이교도 여자들이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에게는 여전히 무척 많은 이교 사상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어린 애들은 신자가 되기도 전에 그녀들이 모른 사이에 천주교의 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학교가 지속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면, 저는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10. 12. 20.)

지금 제주에 있는 공립학교에는 학생이 400명 이상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저를 무척 보러오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방을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의 모든 물자들을 갖고 있지만, 이 집을 짓기 위해 아직도 200~250엔과 다른 물건들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제게는 한 푼도 없으니, 이런 방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일 년 내내 금주하고 금욕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신성학교를 추천하기 위해 누벨 오를레앙에 있는 한 미국 신문사의 여 편집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신문사의 이름 역시 '모닝 스타'(즉 晨星)입니다. 그러나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모님께서 필요한 때에 저를 곤경에서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11. 1. 9.)

고 아가다의 결혼이 무효임을 증거하는 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콜렉타이레>(즉 짧은 기도서)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거의 극복될 수 없음을 읽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윤 씨 가족들이 모두 배교를 했고, 그들이 질문에 응하리라는 희망도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는 이곳의 본당 사제로서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법적 검직 불능이 있을까요? 이곳에서 소섬(우도)까지는 거리가 멀고 모든 경비는 선교사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사방에서 쫓긴 아가다는 성탄절 이후 저의 교우인 늙은 마리아의 집에 피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분명함이 이 정도까지에 이르

렸을 때는, 더 빠른 방법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혹한 법이라도 법은 법입니다. 만약에 주교님께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 한 마디를 해주셨더라면, 저는 이 고통을 주교님께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가다에게 ‘당신은 이 결혼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직접 그 일을 보았고, 또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눈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도부터 그 일에 관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혹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저는 맹목적으로 법에 복종하기 위해 주교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 라크루 신부의 서한(1911. 3. 23.)

목포의 부윤이 나무에 대해 제게 제안을 해서 저는 그에게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집 ‘향정’과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읍의 주요 인사들이 제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 탄원을 할 모양입니다. 게다가 군수와 그곳의 일본인 우두머리가 저의 요구에 호의적이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얻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다음 여름 동안에 버틸 판자 때문에 걱정이 많고, 그것을 수녀원이나 학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200엔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숙하러 이곳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녀에들에게는 관립학교의 문을 닫고 그녀들을 수녀원에 맡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편

○ 페네(Ch.Peynet) 신부의 서한(1899. 7. 21.)

미국인들(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이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은 엽전 만으로도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음력 3월에 다시 돌아올 때, 예수교를 배우는 첫 한국인들에게 매달 100냥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이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런 달콤한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거래를 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 페네 신부의 서한(1899. 10. 8.)

신자도 예비자도 없는 상태. 남녀 어른 각기 한 명씩 두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 페네 신부의 서한(1899. 10. 28.)

현재 우리에게는 예비자 가정이 12 내지 15가구 있습니다.

○ 페네 신부의 서한(1899. 10. 30.)

저는 박 고스마를 보냈고, 그는 양 베드로로부터 전교를 받은 가정들(다섯 내지 여섯 가구)이 굳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여드레 후에 제게 알려 주었는데, 그는 자기가 볼 수 있었던 이교도들 중에서 여덟 내지 아홉 가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열둘 내지 여다섯의 예비자 가정이

있는 셈이죠.

처음의 예비자들 가운데는 속죄의 교리를 배우고, 장애가 없다면 세례 준비가 될 사람이 다섯 명이나 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예비자들과 이따금 우리를 찾아오는 몇몇의 이교도들에게 물어 본 바에 따르면, 이혼이라는 슬픈 관습이 적어도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행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내를 못마땅해 하는 남편은(여자들의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군수에게 맡기거나, 혹은 오히려 군수나 그의 부하들에게 완전히 내버리면, 그들은 대개 이런 가엾은 여자들을 100냥에 팔아 버립니다. 여자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이 액수를 지불하기만 하면 그 여자의 주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된 여자들 값으로는 좀 비싸다고 여기지만, 비싸건 아니건 간에, 그래도 이 관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빚어내 줄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 즉 여러 번 또는 적어도 한 번 아내를 바꾸지 않는 자를 남자로 보지 않는 만큼 더욱 그렇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섬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들이 섬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들어오자마자 나가 버림으로써,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을 알고 그는 신자가 될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지난 6월에 우리를 보러 온 것은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봄에 개와 소, 그리고 말들이 미친 것은 그곳에 왔었던 프로테

스탄트들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가을에 바람이 거세어 수확을 망치는 것은 저(페이네 신부) 때문이랍니다!

○ 페네 신부의 서한(1899. 10. 31.)

오씨라는 성을 가진 64세의 한 예비자는 합법적인 아내를 내쫓고 다른 아내를 맞이했고 그런 뒤에 또 자기 자신의 본처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남편이 살아 있는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지금 50 몇 살인 첫째 부인에게서 두 딸을 얻었는데, 이들은 다른 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른바 첫째 부인의 본남편이 죽었습니다. 현재 36세인 둘째 부인에게서 1남 2녀를 얻었는데, 이 여인의 본남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예비자의 합법적인 아내는 벌써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모든 진술을 듣고 저는 그가 현재 데리고 있는 두 아내들 중에서 아무도 합법적이 아닌 만큼 다처제에 관한 교회의 교리를 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두 여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싶지만, 그들 중 한 아내는 데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과 다른 어린 자식들의 어머니이며 또 더 젊다는 이점도 있으니까 둘째번 아내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제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으나 이 여자에게 알려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일렀습니다.

나중에 저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훗날이므로 과부를 보살피라고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개종하는 이교도에게 그의 아내들 중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개종하기를 원하면, 그 여인을 데리고 있을 것을 허락하는 것은 사

실입니다. 물론 그의 합법적인 아내가 개종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그가 그 여인을 데리고 있는 것은 예외로 하고, 모든 아내가 비합법적이라는 가정에 한해서입니다.

○ 김원영 신부의 서한(1900. 9. 6.)

저의 지역에만도 거의 60명 내지 70명의 예비자들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허가라는 외교인이 제가 저녁 식사 후 나쁜 짓을 하기 위해 여자들을 성당에 가둔다고 저를 모함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여자들은 晚課를 공동으로 바치기 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크루 신부님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고 모함한 사람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 김원영 신부의 서한(1900. 10. 12.)

예비교우들이 100명이고 영세자가 30명이나 됩니다.

○ 김원영 신부의 서한(1901. 1. 28.)

지금 예비자들이 근 400명이 되고 영세자는 50명입니다. 그간 4칸 집과 집 마당까지 주일과 침례 때 사람들로 가득찰 정도로 크게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婚配 阻擋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최근에 남녀 양쪽이 영세를 했을 때 저는 안심이 안 되어 라크루 신부님에게 문의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쪽 신문 교우는 완전히 동거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 쪽은 비록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동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바오로

특전에 나옵시다만, 주교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들 젊은이들의 나이는 21세와 19세인데 한 쪽은 천주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자신의 구령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일마다 늘 저에게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혼배시키면 교회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신문 교우들을 올바르게 행동하게 하고 또 엄하게 다스려야 하므로 감히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혼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김원영 신부의 서한(1901. 6. 9.)

최근에 무세 신부님이 목포에 오시어 저의 마을과 집이 완전히 불타 버렸고 여기저기의 교우마을들이 파괴되었으며 상처를 입지 않은 교우가 거의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김원영 신부의 서한(1901. 6. 12.)

무세 신부님과 43명의 교우들을 만났습니다. 교우들은 망건도 없이 모자만 쓰고 도망자의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3명의 여자와 10명 가량의 어린이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남자 어른들이었습니다.

저의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살해되었고, 다른 마을에서도 저의 교우들을 찾아내 345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6월 8일 군함이 제주도를 떠나자, 반도들은 다시 전령을 보내 마을의 두목들로 하여금 우리 교우들과 교우들의 (비록 외교인일지라도) 친구, 3대까지의 교우 친척들을 끌어오게 하였습니다. …… 또 아주 나쁜

여자들이 라크루 신부님을 여러 번 죽이려 했답니다. …… 교우들을 특히 오을길과 대정의 관속들이 매우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우 어린이, 소년 소녀, 여자들을 짓밟고 돌로 쳐 무수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온 교우들이 거듭 인정한 바에 의하면, 반도들에 의해 교우들이 살해된 제 지역의 마을들은 대략 이러합니다. 즉 한논, 호근, 서귀, 법환, 도순, 하원, 색달, 상문, 열뢰, 중문 등인데, 대정의 또 다른 마을에서 몇 명이 더 죽었는지는 모른답니다. 또 홍로, 토평, 양근, 짐밭, 또미, 예촌, 풀목, 수망, 토산, 늬골, 녹화지, 펼개 등인데, 정의를 또 다른 마을에서 얼마나 더 죽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온 교우들은 대로동의 성안으로 피신한 교우들이기 때문입니다.

○ 무세(G. Mousset) 신부의 서한(1901. 6. 11.)

알루이트호는 제주에서 42명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는 셋뿐이고, 나머지는 남자 예비자들이며 신자가 4~5명입니다. …… 아마도 읍내에는 아직 열두 명의 남자 예비자나 신자들, 여인 몇 명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 무세 신부의 서한(1901. 6. 18.)

무수히 많은 여자들이 감옥에 갇힌 우두머리들의 사면을 두 번이나 요구하러 왔으며, 그들의 사면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많이 제출되었다고 라크루 신부는 말합니다.

대정의 한 여인이 어떤 큰 움직임의 선두에 나섰고 대정의 남

자 하나가 역시 하나의 움직임의 선두에 나섰는데, 이 두 무리의 목적은 필시 반란군 우두머리들의 석방을 요구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 무세 신부의 서한(자료집 93쪽 ~)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폭도들이 모든 마을에서 그곳에 있던 신자들과 우리와 함께 있던 신자들의 부모와 아내, 아이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일 가족들의 죽음을 알리는 신자들이 울며 찾아왔습니다.

서문에서는 매일 신자 사냥꾼들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들은 성벽과 이웃해 있는 두 채의 신자 집 근처에 이르러 그곳에 불을 지르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곳에 있던 세 명의 여인과 계집아이 셋을 죽였습니다.

○ 타케(E. Taquet) 신부의 서한(1902. 6. 17.)

저는 이번 소동이 모든 것을 쓰러뜨려 버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었으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지 서너 명만이 계속해서 종교 의례를 지키거나 교회를 배울 뿐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곳 한논의 사정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마을에는 거의 과부들뿐인데, 젊고 늙은 과부 열한두 명이 제 집을 포함해 열한 채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적어도 다섯 명은 재혼을 시켜야 할 텐데 결혼할 수 있는 남자들은 두 명뿐, 게다가 한 명은 라크루 신부 집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

다. 보리 수확은 실통치 않고 아무도 그것을 팔지 않으므로 저는 도착 즉시 쌀을 배급해야 했는데 또 다시 배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타케 신부의 서한(1908. 9. 24.)

마침내 저희들은 학교도 하나 갖게 될 것입니다. 일본인, 한국인 프로테스탄트 신자들과 이교도들 할 것 없이 모두들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곳 제주에서는 프로테스탄트들은 신자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학교를 세워 학생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생 한 분에게 지불할 엽전도 부족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 이경만 신부의 서한(1922. 12. 26.)

남편이 일본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부인이 아직 영세는 하지 않았으나, 그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남편의 권고로 수녀원에서 하인으로 일하며 기회가 있는 대로 수녀들에게 학문을 좀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입교하지 않는 한 결코 공부의 소원을 채울 수 없다고 제가 대답했기 때문에 그녀는 우리 교의 교리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부인을 수녀원에서 하인으로 받아 줄 수 있는지 주교님께 문의합니다. 그녀의 가족은 모두 아직 외인입니다만 적어도 그녀의 부모는 곧 개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소원을 처음에 가지게 된 것은 마르타의 권고로 생각되는데, 마르타는 아프지만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의

숙원을 받아 주신다면 마르타가 서울로 돌아갈 때 같이 보내겠습니다.

○ 데예(Deshayes) 신부의 서한(1901. 6. 19.)

폭도들의 우두머리인 오을길, 이재수, 강우백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은 죽을 만한 짓을 한 자들을 죽였고, 그들의 죽음을 원하는 백성들을 따르기 위해 행동했다는 청원서를 군인 대장에게 제출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수백 명의 섬 여인들은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려 갔습니다.

라크루 신부는 자신의 식복사와 교리 교사인 이 마리아와 함께 있습니다.

○ 뮈텔(Mutel) 주교의 편지(1901. 6. 13.)

5월 28일과 29일에 참으로 무서운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늙은이들, 부인들, 어린이들 할 것 없이 누구도 제외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주성 내에서만도 150명의 희생자를 헤아릴 수 있었고, 섬 전체 안에서는 500명 내지 600명이 학살당했던 것입니다. 목사관에 숨어 있었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하게 되었었는데, 17세의 신부들의 복사(신재순 아오스딩)가 그들과 함께 숨어 있었을 때, 폭도들은 그 소년을 끌어내어 두 눈을 후벼내는 형벌을 가한 뒤에 오랜 고통을 당하여 숨을 거두게 함으로써 결국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뮌헨 주교의 연말 보고서

1900년

제주도에서 부닥치는 아주 유별난 전교의 장애는 원주민의 반야만적인 성격과 문란한 풍습이다. 놀랍도록 쉽게 결혼이 맺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므로 합법적인 결혼을 한 가정을 찾아 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1901년

제주도 주민들은 아직도 반야만적이며 대단히 미신적입니다. 자기들끼리 제주도 조합을 이루는 무당들이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온 섬 안에 퍼져 있습니다.

1905년

많은 외교인들이 천주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났습니다. (……) 그러나 그들이 입교하기에는 아직도 멍니다. 미신, 술, 노름, 여자 등등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직도 많습니다.

1909년

제주도에는 신자가 349명입니다. (……) 라크루 신부는 시내에 여학교(신성여학교) 하나를 건립했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고 그 같은 일에 호감을 가진 한 외교인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는 정치에 진저리를 내고 자진해서 이 섬에 은퇴하여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왕의 사위이고 전 영의정이었습니다(박영효). 2명의 한국 수녀가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떠났으며, 이 학교의 많은 발전이 기약됩니다.

1910년

제주읍에 여학교를 세워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회원들에 의해 운영하게 한 것입니다.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데, 대부분은 외교인들입니다.

○ 크레마지(Crémazy)의 재판기록(1901. 10. 8.)

- 이소사에 관하여

이 여인은 이원방의 아내이다.

법정의 심문 : 당신은 신자들에게 맞서 일어난 여인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신과 그 여인들이 신자들을 학살하기 위해 제주읍의 성문을 모두 열라고 요구했었지?

답변 : 그 당시 저는 앓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심문 : 목포 감리에게서 받은 진술서에 백학탄은 당신 몫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신을 신자들에게 대항하는 격렬한 여성 폭도들의 선두에서 행진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소.

수신영약(修身靈藥)

해제

1900년 초 제주도 천주교회 제주교당의 김원영 신부가 천주교 교리에 입각하여 제주도의 여러 풍속을 교정하기 위해 작성한 서적이다.

『수신영약』은 제주사람들이 행하던 유교제례와 무속신앙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원시유학과 천주교 교리를 동원하여 이론적으로 비판한 호교서적이다. ‘修身靈藥’의 의미는 이 글의 끝에 “좋은 肉身의 教師宅에 있는 藥만 求請할 것이 아니라, 靈魂의 좋은 藥을 얻어 듣고”라는 문구에서 보듯이, ‘몸을 수양하는 데 필요한 영혼의 명약’, 즉 천주교 교리를 일컫는 것이었다.

김원영 신부는 제주 선교 초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글 서문에서 그는 제주사람들이 “하느님은 공경치 아니하고 이단사상에 골몰하며”, “성교하려 하는 사람까지 모함하고 훼방하는” 일을 안타까워하였다. 앞으로는 제주민들이 “土木사상과 이단 숭배”를 끊고 천주교를 믿게끔 하려는 것이 이 글을 집필하게 된 주요 의도였다. 그는 이 글의 집필을 위해 제주에 유배와 있던 전한성판문 金經夏로부터 제주도에 관한 역사책을 얻어서 국한문으로 요약했으며, 조선 포교를 위한 붙어판 관습법을 읽기도 하였다. 그는 이 책을 교민들을 위한 강론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수신영약』은 당시 제주의 천주교회가 토착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의 가치가 있다. 김원영 신부는 우선 천주교의 교리를 유교이론이나 경전 문구를 인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유교의례나 관습에 젖어 있던 제주사람들의 천주교 입교를 유도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면적으로 유교식 제사를 부정하는 내용이 전개된다. 이어서 18항(내외유분별), 19항(훈배), 20항(침을 불취), 21항(주색잡기) 등 4개항이나 할애하여 제주도 결혼 풍속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신영약』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의 민간 신앙 및 각종 제사의례를 소개하고 이를 이단으로 규정,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런 내용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이 글을 통하여 당시 천주교회의 제주도 토착문화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12. 천하만민이 모두 마땅히 성교를 준행할지니라

이 지방에서 뱀을 위하여 간사스러운 계집들이 쌀이나 밥을 뿌려 주니 이런 것이 의리에 마땅한 것이냐. 시방 무당이 굿을 하며 우매한 사람을 속여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 말을 하나, 非禮非義로 살면 얼마 못되어 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니, 자연히 사람은 이를 막지 못하나 하늘은 필연코 이를 없애리라.

정의·김녕·토산에 뱀의 커다란 굴이 있어 해마다 처녀 하나씩 산 채로 뱀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때에 이 목사가 제주를 관찰하고 서 판관이 본읍 제주를 다스릴 제 신당을 불사르고 무당의 미신 행위를 엄격히 금하였더니, 그 후 무당이 아주 없어진 적이 있었다. 이로 볼 때 무당에는 도가 없기 때문이고 혹 있다 하더라도 그 도가 진실하지 못하기에 얼마 동안이라도 없어졌으며, 아주 없어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천주 성교인은 爲主 치명하기를 어찌 무서워하리오.

21. 사람이 세상에 나매 주색잡기를 하여야 남이 말하기를 이 팔청춘에 한 번은 할 것이라 하니 이치에 당연한 것이오, 혹 부당한 것이오

오호라, 내가 제주 절도에 들어와 본즉 한 남자가 너더땃씩 첩을 둔 자가 많으며 임의대로 본처를 소박하니 이 어찌된 일이오. 조강지처는 집에서 쫓아내지 못하는데, 첩을 위하고 본부인은 내 쫓는단 말이오. 우리 성교인은 한 번 바른 혼배를 하면 죽을 때까지 갈리지 못하며, 본부인이 살았을 때는 다른 이에게 장가가지 못한다. 또 성교인 가운데는 童身으로 守貞하는 이가 많으니라.

제주의 여러 풍속이 육지와 다르니 과히 말할 것은 없소마는, 여기에 儒道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찌 소학을 진실히 독습하였다 하리오. 칠세에 남녀 동석하지 않으며 함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데, 내외가 구별 없이 가리지 않고 다른 이의 젊은 미인과 수작을 하니 어찌 탐색이 아니 나리오. 본래는 황토도 美物이요 청수도 미물이니, 상합한 즉 반드시 진흙으로 추물이 되느니라. 내가 우리 대한 여러 도움과 타국 港浦를 유람하여 보아도 제주와 같이 주색잡기 많음을 못 보았소. 이 절도도 대한에 속해 있으니, 예의동방이란 좋은 칭호를 듣기에 합당하도록 修身修心하여 봅시다. 속담에 이르기를 “술과 여색과 재물과 방탕한 기운은 사람을 가두는 네 개의 담장이라.”고 하였느니라.

22. 우리 제주에서 뱀을 위하니 천주 성교 도리에 어떨다 하오.

본래 뱀이 무엇이기에 공경하리오. 신이란 말이오. 사람과 같이 영리하단 말이오, 그 뱀이 미물(美物)이 되어 사랑스럽단 말이오. 매년 정월(正月)에 칠성할망집을 새로 일고 덮어 주며, 뱀을 뒷할망이라고 이름하여 죽이지도 아니하고 잘 모셔 두고, 간혹 칠성할망이 나오면 요사스럽게 백미 등을 뿌려 봉양하니, 만국 사람의 거스름이 되며 천주의 명을 순종하지 않음이니, 대개 들어 보소.

만민이 뱀을 보면 깜짝 놀라 원수같이 여겨 만나는 대로 죽인다. 또한 뱀은 기왕에 우리 조상을 속였으므로¹⁾ 모든 인생의 뱀

1) 창세 3, 1 이하 참조.

속의 원수이다. 제주에서는 뱀을 죽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신으로 공경하여 고사(告辭)를 하니 무슨 유익을 보았소. 혹은 무령(無靈)한 금수가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영리한 사람을 낳았단 말이오. 뱀을 보고 칠성(七星)할망이라고도 하며 혹 뒷할망이라고도 하는데, 조모(祖母)란 명칭을 어찌 이 무령한 뱀에게 주리오. 아마 노형을 보고 뱀을 가리키면서 가로되 “그대는 이 뱀의 몇 대손이오.” 하면, 성을 내어 대답하기를 “사람은 사람을 낳고 짐승은 짐승을 유(類)를 낳는데 이 웬 말이오” 하여 아무쪼록 뱀의 종류 아님을 해명할 것이오. 그러면서 여전히 뱀에게 고사를 하니 대장부도 겉과 속이 다르게 일구이심(一口二心)을 하려 하오.

의가(醫家)에서 사주(蛇酒)와 사즙을 백병통치라 하니 제주인 민도 그 약을 쓰고 새로 조작하며, 또 어떤 제주 사람은 뱀을 보는 대로 때려죽이고 약까지 하여도 어찌 아무 탈이 없는가. 이런 것만 보아도 뱀을 때려죽이면 큰 우환이 몸에 유전(遺傳)한다는 말이 허무한 잡설이 아니오. 만약 뱀이 뒷할망이라고 한다면 어찌 뱀에게 물리며, 또 뱀의 독으로 약을 구한단 말이오. 어찌하여 뱀의 독으로 병자가 단명 요사(夭死)하느냐. 내 ‘할망’ 말을 들었을 때 친애(親愛)를 포함한 말로 들었더니, 그래 친애할 자까지 무정하게 물어 죽인단 말이오. 본래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물 위에 두사 초목금수 등과 만물을 사람의 소용(所用)으로 결정하신 것인데, 인생이 어찌 상제(上帝)의 법을 함부로 어겨 금수의 밑이 되려 하는가.

23. 풍수(風水)와 택일(擇日)과 관상(觀相)함은 믿을 만하오.

노형은 물음에 대해 차례대로 들어 보시오.

풍수는 하·상·주(夏商周) 삼대 때에는 전혀 없었는데, 진(晉)나라 때에 곽박(郭璞)²⁾이라는 사람이 남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고 자 하여 조작한 것이니, 허망함을 대개 말하리라. 부모나 타인이 별세하면 지관(地官)을 불러 용혈의 땅(좋은 밋자리)을 고르며, 나침반을 가지고 동서남북의 방향을 관찰함으로써 가재(家災)와 자손의 흥패(興敗)를 안다고 한다. 하·상·주 삼대 사람들은 이런 이단이 없어도 많은 왕후 장상과 호걸 유생들이 매년 있었다. 그러나 진시황은 여산에 묻혔는데, 무덤 주위로 세 개의 샘물이 흐르며 물에 수은(水銀)이 덮여 있어서, 풍수의 말로 하면 비교할 만한 자리가 없이 좋다고 하나, 삼세(三世)를 지나지 않아 멸망하였다. 곽박도 비명(非命)으로 왕敦(王敦)에게 살해되었다.

이러므로 성자고(成子高) 이르되 “생(生)이 사람에게 이로움이 없거든 어찌 죽음이 사람에게 해로우리오” 하니, 사람이 죽은 후에 불식(不食)의 땅(좋지 않은 밋자리)을 택하여 장례를 치러도 재앙이 없을 것이오, 도리어 이 분묘로 길흉을 구하는 자는 재앙이 있으리라. 옛적에 유중도(柳仲途)가 이르되 “장례를 잘 치른 집은 반드시 번창하지 않으리라” 하였으니, 지관의 간사함을 어찌 깨닫지 못하는가.

산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땅의 습기를 살피고 주위에 물의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것은, 인생이 항상 수토(水土)로 인해 죽는 지

2) 곽박 : 중국 동진의 학자.

경에 이른다 고 하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무덤이 어찌 땅의 습기를 알아 조화를 부리리오. 내 일찍이 들으니 부귀는 재천이라 하였지, 부귀현우(富貴賢愚)와 빈천수요(貧賤壽夭)가 분묘에 있다는 말은 못 들었노라. 천하만국이 지관을 불러 뒀자리를 취택하지 않고 한 동(一洞)이나 한 읍(邑)이 산이나 야지(野地)를 도매하여서 모든 죽은 자를 매장하여도 문명 개화한 나라인데, 홀로 우리나라 근처에서 풍수법이 있으나, 저 서양 각국과 부귀영웅이 많이 태어나오. 대한(大韓)이 부국강병하단 말이오.

상서(祥瑞)와 길복이 시체로부터 온다고 할 수 없으니, 이는 본래 스스로 썩지 않을 능력이 없어서 얼마 못 되어 썩어 버리는데 어찌 자손을 복되게 하리오. 또 그뿐 아니라 부모님께서 본래 구차하게 사시어 가산이 부요하지 못하였거늘 돌아가신 후 분묘에서 도와 주시리오.

상서와 길복이 땅의 형세에 있을 수 없다. 이를테면 자기에게 묻혀 있는 시체도 썩음에서 구원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원동(遠洞)에 사는 자손을 복되게 하겠는가. 옛적에 송범문(宋范文)은 풍수가를 매우 미워해도 자손이 번성하였고, 진시황과 송채경(宋蔡京)은 풍수법을 최고로 믿었으나 온 집안이 멸망하였다. 본래 지형과 습기를 돌보지 않아도 된니 사례를 내 일전에도 직접 목격한 바가 있다.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건너다가 익사하였는데 그 자손들이 부요하며, 다른 사람은 오히려 좋은 침실에서 죽어도 그 자손들이 가난하기 짝이 없는 일이 있었소. 만약 모든 상서로움이 풍수로조차 난다면 먼저 지관들이 좋고 상길(詳吉)한 지형을 골라 두었다가 그 후 자손에게 줄 것이거늘, 항시 살펴보니 지관

들이 매우 가난함은 무슨 연고인가. 속담에 이르기를 “큰 부자는 하늘로 말미암고 작은 부자는 근면으로 말미암는다” 하였으니, 풍수를 버려 두고 근실히 천주께 믿고 바라고 수심(修心)하여 허욕을 끊어 보소.

하루 동안에 열두 시가 있고, 한 달은 대소를 분별하여 30일 혹 29일이요, 1년 365일 6시 중에 오행(五行)과 오성(五星)³⁾ 이십 팔수(二十八宿)⁴⁾와 육십갑자가 있는데 어느날이 길하고 흉하리오. 비컨대 칠월칠석이 길일 같으면, 이 날 이 서방과 박 서방이 동시에 장가들었는데 어찌하여 박 서방은 자손이 많고 이 서방은 후손이 없느냐. 어찌하여 한 사람은 아들만 낳고 한 사람은 딸만 낳느냐. 15일이 길한 날이라 하여 두 사람이 같이 떠나 길을 가다가 어찌하여 하나는 길가에서 죽고 하나는 무사하는가. 한 날 두 사람이 집을 짓거나 집을 일거나 퇴벽(허물어진 벽)을 고치는데, 어찌하여 하나는 재산이 많고 집안일이 걱정없이 잘되며, 다른 사람은 빈곤하여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느냐. 내 이전 사람의 역대(歷代)를 상고하여 보니, 주 무왕(周武王)은 갑자에 흉하고 상 주왕(商紂王)⁵⁾은 같은 갑자지만 패하였는데, 이 두 왕이 하루 동안에 교전하여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졌으니 어찌하여 이렇소. 하루 한 시(時) 사이에도 산 사람 칠천여 명이나 죽은 사람은 열 중에 팔구가 되었다.

3) 오행 : 우주간에 운행하는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의 다섯 원기로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에 의해 우주 만물을 형성한다고 함.

4) 옛날 인도, 페르시아, 중국 등에서 해와 달과 여러 행성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천구(天球)를 28로 구분한 것.

5) 상 주왕 : 상나라 마지막 왕인 폭군. 주 무왕에게 패하여 멸망함.

또 사람이 흔히 밤에 낳고 죽으니, 밤은 악귀가 침범하는 때인데 어찌 상서로우며 길하리오. 그리고 흔히 보는 일로서 택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히려 복과 자식이 많고, 모든 일에 날과 시간을 택한 사람은 가난하고 자손이 없으니 어쩐 일리오. 지관들이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줄은 모르고 남의 길흉화복만을 보아 주려 열심히 돌아다니니, 눈뜬 소경이로구나. 근래 인심이 점점 쇠하는데 풍수들은 왜 그리 인심이 좋아서 이런 상서로운 모책(謀策)을 타인에게 누설하는고. 실상 지관의 말대로 상서가 있을 것 같으면, 결코 누설하지 않고 혼자 만상 천복을 누리리라.

또 육갑(六甲)은 천간십자(天干十字)와 지지십이자(地支十二子)⁶⁾로 세월 일시를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인데, 근래 요사스러운 풍수들이 귀곡(鬼谷)⁷⁾을 따라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로 육갑의 근본 상태를 점치며, 일시를 영혼이 없는 짐승과 결합시켜 놓고 자시(子時)는 쥐요, 축시는 소 [牛] 운운하여 인상, 형상(形狀), 안색을 보아 이것으로 길흉 요상(妖祥)을 안다 하니 가히 불쌍하도다. 별과 점괘를 위주로 하여 남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을 보아 주려 다니는 이여, 혹 천문에 통달하면 신성(辰星 : 별자리)이 회전함을 보고 비 올 것이나 바람 불 것이나 덥고 추울 것을 알며 일식 월식도 안다 하거니와, 저 관상 보는 자들이 흔히 일자무식이니 어찌 천지나 분간할 줄 알리오. 이러한 사람들이 어찌 타인

6) 천간 : 60갑자의 위 단위, 즉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지지 : 60갑자의 아래 단위, 즉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7) 귀신이 모인다고 일컬어지는 별의 이름.

의 화복을 보아 주리오.

중니지문(仲尼之門)⁸⁾에서는 삼척동자까지라도 사람의 형상에 관한 일은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여씨춘추(呂氏春秋)⁹⁾에 가로되 “거친 사람이 인상이 좋으니, 인상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아 벗을 선택하여야 성인이 된다” 하였으니, 어찌 사람의 근본이 손바닥이나 손가락에나 눈동자에나 귀목〔耳莖〕 위에 있다 하려 하오. 점치는 사람의 수많은 말 중에 우연히 하나가 적중하는 것을 가지고 변통없는 법과 같이 만들어 우부(愚婦)를 현혹하려 하느뇨. 어찌 일월이 회전함에 인명이 매였으리오. 인명은 재천이라 하였소. 죄인이 법 아래 죽으면 명이 사납고 직성(直星 : 사람의 운명을 맡은 별)이 악하다 하니, 별의 죄악을 어찌 사람이 받는다 하리오. 나라에서 십대신(十大臣)이나 관장(官長)을 지목하실 제 어찌하여 이 점치는 법을 채용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마땅한 도덕인재(道德人才)만 택하시느뇨.

제요(帝堯)는 장수하시고 순(舜)은 단명하시고, 문왕(文王)은 장수하시고 주공(周公)¹⁰⁾은 단명하고 중니(仲尼)는 장수하시고 자공(子貢)은 단명한 것은 육신의 다름이지 마음의 다름이 아니다. 또 용모로 길흉을 따지는 것이 옳지 않음을 말하리라. 순(舜)은 겹눈동자이셨고 항우(項羽)도 역시 겹눈동자이셨으며 공자와 양화(陽貨)도 마찬가지로였다. 한(漢) 고조는 코가 우뚝하였고 관략(管輅)도 역시 코가 우뚝하였다. 이는 형모(形貌)만 같고 언행 화

8) 공자와 제자와 그 가르침. 중니(仲尼)는 공자의 자(字).

9) 진(秦)나라의 백과 사전.

10) 주(周)나라 시조인 무왕(武王)의 아우요 문왕(文王)의 아들임.

복이 피차 같은 것이 아니다. 점치는 법에 길흉이 매었다면 서로 같은 용모에 어찌 피차 화복이 같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는 장수하고 하나는 단명하였느냐.

본래 이 점치는 법의 허황함을 알려 하거든 점치는 자에게 가서 물어 보면 되리라.

“그대의 살 기약은 몇 해나 되며, 죽기는 어느날 어느 시 어느 곳에서 유병(有病) 혹 무병(無病)하므로 명(命)을 마치리오” 하면 즉시 대답하기를 “아주 모르노라” 할 것이다. 관상 보는 자는 자신의 길흉화복과 죽을 때를 전혀 모르면서 타인의 상 보러 다닌단 말이오. 속담에 말하기를 “죽음에는 노소 없고 죽는 기한 모른다” 하니, 이는 진실한 말이로다. 천주께서 우리에게 죽는 기한을 모르게 하사 항상 예비하도록 하고,¹¹⁾ 또 죽기는 한 번만 할 터이니, 각 사람이 마치 밤마다 도적을 지킴과 해마다 기근을 막음과 같이 하는 본분을 보이심이다.

풍수, 택일, 관상의 허망함을 수많은 어구로라도 말할 것이로되, 이만하여도 기왕 노형이 깨달으신고로 그만 그치노라. 비근한 예로 코가 높은 것이나 용모 흰 게 상길(祥吉)인 곳은 태서국인(泰西國人)뿐이요, 용모는 황색이 상길인 데는 동국인(東國人)뿐이라.

24. 무당이 굿을 하면 병자가 나오니 신효(神效)한 법이 아니오. 내 일전에 삼성할망에게 이렇게 물어 보았소. “삼성할망 굿할

11) 마르 13, 32 ; 루가 12, 36-38 ; 마태 24, 43 참조.

제 진실하게 믿고 하느냐” 하니, 제 대답이 “믿다니요, 요사를 부리다니요, 생명을 부지하고 괴롭게 일할 수 없어 남 속이는 노릇을 하지요” 하니, 더 또 증거가 될 만한 근거를 들어 무엇하리오.

그러나 몇 가지 비유를 들어 보시오. 가까운 마을에 화재로 인해 모든 가산이 불에 탈 위험에 다다랐는데, 물 부어 불 끌 생각은 아니하고 무당 불러 풍악(風樂) 굿을 하고 무가(舞歌)하여 불을 끄려 한다면, 노형이 권하여 물로 불을 잡게 하리라. 병세에도 이와 같아 약으로 병을 다스릴 것이지, 저 무당이나 판수(점을 치는 일로 업을 삼는 장님)들이 무슨 극성의 묘책이 있길래 의원도 아닌 술객(術客)이나 심방들을 불러다 놓고 사오백 돈씩 주어 가며 굿을 하느냐. 본래 병자의 정신이 병세로 어지러운데 종과 징과 북을 치고 가무로 시끄럽게 하니, 정신이 어두워 입맛을 아주 잃어 기진할 것이므로 이 심방들이 병인에게 이롭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기절시키려 다닌다 하리로다.

속담에 이르기를 “먹어야 살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였다. 한 사람이 아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심방을 불러 주림을 쫓아야 이 사람의 병이 부득불 나으랴. 그런고로 고금에 주린 사람이 먹음으로 살았다는 말은 들었어도, 무당이 굿함으로 쾌차했다는 말은 못 들었노라. 어찌 무당이 병세를 쾌할(快活)케 하리오.

날마다 보니 수많은 무당들이 또한 앓아 죽는 지경에 이르니, 어찌하여 심방들이 제 몸에 병이 있느냐. 이 무당의 법이 옳다고 한다면 첫째로 무당들이 앓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오.

1년 365일 동안에 점괘를 하다가 요행지사로 눈먼 소경 길 바

로 다니듯 한두 번 맞춘다면 이게 상서(祥瑞)라고 하리오. 활 쏘 줄 모르는 자가 과녁을 향해 활을 쏘아 90에 요행 한 번 맞춘 것을 가지고, 천하에 극효(極效)한 법인 줄 알아 무당과 판수를 불러 굿하는 자는 모두 마귀의 노복이요 하느님의 원수가 된다. 요행히 병이 나아서 장수한들 죄는 태산같이 쌓이게 되며, 공평한 천주 성교를 아니 받들므로 덕행은 조금도 없으니, 참으로 이런 사람들 보면 천지간에 불쌍하도다. 본래 어느 나라 임금이라도 적국(敵國)과 물화상통(物貨相通)을 엄금하는 것은 인민을 사랑하고 돌봄이니, 어찌 우리 만민의 대부모 되시는 천주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려 하느뇨.

25. 제주(濟州)에서 섬달과 정월과 2월 간에 여러 가지 심방 굿을 제일 많이 행하여 각 신(神)을 숭상(崇尚)하는데, 천주 성교인은 어찌 보기를 싫어하는가.

1) 내가 천주님과 성모님의 홍은(鴻恩)을 입어 기해년(1899년) 2월 7일에 신부로 서품된 후 4월 17일¹²⁾에 제주도에 도착하여, 이곳 풍속을 듣고 보았더니 육지와 다른것이 많았다. 그러나 이 단(異端)만 가지고 대충 말하노라.

2) 정월에 거리제를 하니 이 뜻은 대개 이러하다. 길거리를 가로막아 놓고 병풍을 두르고, 한 10여 가호(家戶)들이 술 떡 밥 황육 등과 돈을 주어 가며, 그 동네 거리의 악귀를 몰아 쫓아 아무쪼록 새해 잘되게 하여달라 함이나, 어찌 청탁을 분별하지 못하

12) 여기의 날짜는 모두 음력임.

는고. 노형보다 더 비천한 무당이 무슨 재능이 있기에 악귀를 몰아 내쫓으며, 풍악과 경 읽음으로 좋고 상서(祥瑞)로운 신을 불러 들여오리오. 또 이 거리제를 할 제 노상(路上)을 짝 가로막으므로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며, 소와 말들은 짐을 싣고 이 골목저 골목 돌아 가까스로 본가에 이르러 짐을 부린다. 또 밤 이 거리제를 하니, 어찌 곤히 자는 사람을 경 읽음으로 깨게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매 하나도 진실된 것이 없으므로 성교인은 보기를 싫어하느니라.

3) 신당에 종이와 땀과 고운 밥과 베 조각 등을 걸고 손으로 빌어 재앙을 면하려 하니 허황하도다. 이 나무가 음식(飮食)을 하오. 이 신당이 한기(寒氣)로 옷을 달라고 한단 말이오. 머리가 없는데 어찌 땀으로 머리를 치장하려 한단 말이오. 신당이 영리하여 편지나 혹 일지를 쓴단 말이오. 이런 허비(虛費)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시사(施捨)를 하면 공로나 있어 하느님의 진노(震怒)를 면할 것인데, 고집불통이라 전부터 시행해 내려온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제주 사람들이 본조상(本祖上) 아니하던 것을 하는가. 고·양·부 삼씨가 일본 미녀를 하나씩만 취하였다 하는데, 근래는 어찌하여 “계집 셋이 있어야 한 사내가 산다” 하는가.

이 무령한 나무 덩불이 무슨 조화를 부리리오. 이러므로 천주 성교를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영리하거나 전비(全備)하지 아니함을 알고 스스로 신당에 사배(祀拜)하지 않느니라.

4) 명감이란 것은 거친 땅에 초막(草幕)을 짓고 산신을 임격(臨格)하게 하여 새해에 아주 좋은 밭이 됴므로써 한 번 농사에 백

배의 수확을 얻게 하여달라고 함이다. 정월에 전상(田上)마다 대개 이런 초막이 있으니, 노형은 무슨 신표(神效)를 산신한테 얻었소. 어찌하여 풍재(風災)로 흉작이 되었다는 말을 매년 되풀이하오. 만약 이 산신이 도와준다면 어찌 풍재(風災)를 면하지 못하오. 이리므로 우리 성교인은 이런 요사스러운 짓을 하지 않소.

5) 포제(醮祭)와 천제(天祭)를 하는데, 이것은 수건 쓰고 촛불을 크게 켜고 커다란 돼지를 잡아 제상에 두고 제를 하며, 그 예절은 많은 점에서 향교 예절과 흡사하다. 한 마을이 그 동네를 위하여 제헌하는 것이라, 천자(天字)가 들어가므로 큰 예절인 듯하나 실상은 허황하다. 중용에도 말하기를 “상천지재(上天之載)는 형체·소리·냄새가 없다” 하였는데, 형체 없는 신이 구미(口味)를 찾아 돼지고기를 먹겠는가. 천주 성교인은 천지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신 하느님을 거룩하고 조출한 제례로 재계목욕하며 공경하니, 정도(正道)를 하는 사람들이 사도(邪道)를 하는 것을 부러워하여 참견하겠는가.

6) 전에 절터였던 곳에 기(旗)달고 축문하여 심방들이 경을 읽고 지방(紙榜)을 써 근처에 붙이고 주육을 차려 놓고 굿을 한다. 전에 서 판관(徐判官, 즉 서린)이 절 오백과 당 오백을 소멸(燒滅)하였는데, 어찌 근래 사람들이 마구 옛적 절터에 제사를 하는가. 서 판관께서 하신 일을 책하여 바꾸려고 하니, 근래 백성들이 제 도읍의 관장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충민이나, 역적이냐. 옛적에 있던 불상을 보면 기술자가 흙 한줌 가지고 두 편에 나누어 한편 가지고 불상을 만들고 한편 흙을 진흙 속에 저버리거나, 나무 하나를 두 쪽에 나누어 한쪽 가지고는 그 불상이 허황한 줄

알아 서 판관을 칭찬할 것인데, 오히려 전 절터를 기념하는 뜻으로 음식 등 물질을 거기 버려 놓는다는 말시오. 공자 이르시되 “시작이 좋렬하면 나중에 이루어짐이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 성교인은 이런 아름다운 말을 따라 곳에 참석 못하오.

7) 용신제(龍神祭)도 정월이나 2월에 지내는데, 이는 곧 물귀신을 위하여 하는 제사다. 노형이 물을 위하오, 혹 물에 있는 물귀신을 위하오. 만약 물을 위할진대 어찌하여 사람이 물을 건너가다가 불행히 빠져도 구원하여 줄 줄을 모르고 죽게 하는가. 만약 물귀신에게 제헌(祭獻)한다 하면 어찌하여 신이 물을 억제(抑制)하고 금지하여 자기를 흠숭하는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오.

또 흔히 자살하는 여자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항상 말하기를 “용신(龍神)이 데려갔다” 하니 미련한 말이로다. 산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숨이 통하지 않으므로 호흡이 끊어져 죽으며, 혼백이 분리하여 혼은 지하로 가고 백(魄)은 물위에 뜨는데, 이를 두고 악귀가 자살한 자의 영혼을 별하려 지옥으로 끌고 갔다 하느냐. 또 본래 용이 무엇인지 온 세상 만인이 잘 모르는데 우리 제주에서만 안다 하오. 이런 모든 것이 이치를 거스리니 어찌 천주를 공경하는 사람이 아는 체나 하리오.

8) 칠성제(七星祭)는 북두칠성을 위하는 제사다. 제주성 내에 칠성동이 있는데, 본래 삼성 고·양·부가 제주를 삼도(三徒)로 구분하려고 함께 모여 공회(公會)를 하던 곳이다. 노형이 어찌하여 청천에 많은 별 중에 북두칠성을 취택(取擇)하여 정성을 하는가. 빛나고 아름다움이면 아마 미성(尾星 : 彗星, 찬란한 꼬리를 가진 별)의 광채와 찬란함이 북두칠성보다 훨씬 낫고, 또 다른

별도 매양 한결같이 비추는데 하필 이 북두칠성만 공경하는가. 예부터 현재까지 별이 사람을 낳아 기른다는 말을 못 들은 것은, 영이 없는 물건이 만물 중에 가장 귀하고 영리한 사람을 낼 수 없음이라. 이를테면 내가 한 푼도 없으면서 만억금 남에게 주마 함 같도다. 그러므로 천주 성교인은 천지만물과 그 안에 포함한 것까지 조성하신 대주재이신 하느님만 공경하노라.

9) 전방(廬房 : 상점) 귀신을 위하여 전방 한편에 송판(松板)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낸다. 아침에 전방을 열며 가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귀신께서 오늘 날 망건을 쓰고 귀 아니 뻥 놔¹³⁾으로 돈을 많이 들어오게 해주소” 하는 것이니, 근래는 귀신도 도적질할 줄 아나 보오. 본래 어느 사람이든지 불의하거나 공짜의 물건을 바라면 이내 없어지고 마는 법인데, 가련하다, 사람의 탐욕이여. 걸인에게 만승천자위(萬乘天子位)를 맡겨 줄지라도 부족하다 하리라. 이리므로 우리 욕심은 죽은 후에야 다 채워지리라.

전방신에게 것처럼 빌어서 전방신이 한푼오리라도 더 보태 주는 것 보았소. 또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망건 쓴 후 귀 배놓지 않은 것 보았소. 귀신하고 농담하려다가는 참으로 상서(祥瑞)로운 일이 전혀 없으리라. 어찌 이런 농담을 듣고 도와 줄 마음이 있었던들 도와주겠는가. 이런 허황한 것을 알고 성교인은 참관하

13) “망건 쓰고 귀 아니 뻥 놔” : 돈 버는 일 등 즐기는 것을 싫어하는 어리석은 사람. 망건 쓰고 귀 안 뻥는 사람 있느냐는 속담은, 망건을 쓰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귀를 내놓는다 함이니, 돈 버는 일 먹는 일 등 즐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지 아니하느니라.

10) 문제(門祭)를 할 때, 집터의 크기를 보아 집터가 크면 네 냥(兩), 작으면 두 냥 씩을 제사의 비용으로 상두(문제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이 사문제(四門祭)도 정월에 하는 것이다. 밤이면 너더뎃 시에 돼지와 다른 음식을 차려놓고 축문을 높이 외우며 제사를 지내니, 허황하다. 이 사문(四門)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향을 살필 때 출입도 못하게 하니, 인생을 살렸다 하랴. 고로 성교인은 상관없으니 네 냥이나 두 냥의 제사 비용을 내지 않느니라.

11) 집 일고 나서 비가 오면 부자 된다 하니 허황하다. 가난한 사람도 집을 일어 비가 오되 일상 가난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다. 공자의 말이 “부귀는 재천이라” 하셨다. 또 집 이는 새 비에 젖어 쉽게 썩을 터이니 부요하겠느냐.明年에 다시 집을 일 터이니 헛된 경비가 더 드는데 어찌 부자 되는가. 본래 비하고 집하고 그 집 사람들하고 무슨 상통함이 있기에 지붕을 이은 후에 비가 오면 부자 되리라 하며, 만약 비가 아니 오면 가난하리라 하는가. 성교인은 이런 요사스러운 말을 귀 밖에 듣는다.

12) 집을 소실(燒失)하였으면 무당 불러다 놓고 굿을 하는데, 네 기둥에다 해(햇대 : 물건을 걸 수 있게 만든 기구)를 매어 두고 무당들이 굿하며 말하기를 “불이여!” 하며 불을 해단에 붙였다 끄고 또 굿하니, 이를테면 화재 본 사람의 냇 나간 것을 편안하게 함인가. 사람이 “불이여!” 소리로 냇 나갔으면, 무당이 다시 그 지켜온 형상을 재연할 제, 어찌 또 놀래 냇 나가지 아니하겠는가.

본래 사람에게 냇이 나가면 즉각 죽는데 아직까지 죽지 아니하였으니, 냇도 나가지 아니하고 혼백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 이리므로 냇이 본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또 만약 혼이 나갔다 하면 이 무당의 경 읽고 쟁 침으로 다시 본몸으로 불러들여 보내라. 이런 난설은 마치 항아리를 쓰고 햇빛 없다하는 자와 소경이 대문 없다 함과 같으리니, 우리 성교인은 믿지 못한다. 우리는 오로지 측은한 마음으로 꿰어 엮드려 천주께 빌어 “정도(正道)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느니라.

13) 집을 인 다음에 사기병에 물을 넣어서 집 마루턱에 두든지 사내가 지붕에 올라가 오줌을 누고 내려오든지 하니, 이는 택일이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만약 택일함으로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면, 어찌하여 세상일에 그릇됨이 많겠는가. 천주 성교인은 이런 짓을 아니하느니라.

14) 2월 21일에 동쪽으로부터 영등할망이 들어온 날이라 하여 무당들이 굿을 하는데, 작은 배를 만들어 그 안에 미역과 닭과 양식과 물과 나무를 싣고, 사공 없이 배만 바다에 띄워 내놓고, 15일 동안 해변을 돌아가며 굿을 하고, 이 굿을 마친 날부터 모든 배들을 출입하게 한다. 본래 외눈박이 장수(將帥) 같은 절도(絶島)를 한바퀴 도는데 사백여 리뿐인 고로 한눈 가지고도 뚜렷이 보이는데, 영등할망이 미역씨와 다른 물건씨를 바다에 뿌리려 들어온 날이라 하는가. 또 영등할망에게 외면(外面 : 겉) 의복을 차려 주면 바다에 파도도 없게 하며 고기 잡기도 잘된다고 하니, 첫째로는 영등할망이 무엇인지 분명 모르고 하는 일이요, 의복(衣服)이 바다 풍랑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구제기(소라)를 까보

면 껌데기뿐이라 하니, 겨울에 새들이 산림에서 살 수 없어 해안에 내려와 구제기를 까먹은 것이 자갈 수보다 많거늘, 어찌하여 영등할망이 먹은 것이라 하느냐. 또 만약 미역씨를 뿌리려 왔다 할진대, 미역이 이미 있어서 넉넉히 바다에서 그 종류를 전(傳)하는 것인데 또 씨를 갖다 대해를 온통 덮으려 하는가. 이런 허황한 말이 어디 또 있으리오. 또 이날부터 배가 출입하니 이전에는 이런 번거로운 법 없이 출입했는데도 사공과 선척(船隻)이 일일이 손실이 없었다 하는데 이 무슨 사술인가. 이런 것만 보아도 성교를 하는 삼척동자까지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15) 똑할망은 이전에 제주 사람이 폭풍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외눈박이 장수하고 싸우는데 이 똑할망이 도와주고 제주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여 당을 지어 섬기고 있다. 바구니에다가 말갈기와 털로 하여 꽃고, 관덕정에서 사람 죽일 때도 갖다 놓고 생사대권(生死大權)을 가진 귀신 할망이라 하니, 어디 진실한 것이 있기에 바구니를 받들어 귀신으로 공경하는가. 이런 난설을 수없이 많이 지어낸 사람이 미친 사람이면 같이 미친 사람 되려 하여 똑할망을 받들려 하는가. 옛적에 고·양·부는 땅에서 솟아났다 하면 어찌 혼배하여 인류를 전하리오. 진실로 생사대권을 잡은 분은 천지신인을 모두 조성하신 자이다. 그러므로 이 똑할망이 생사에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인명은 재천이니, 우리 성교인은 이런 것을 예배하지 아니하느니라.

16) 마주단¹⁴⁾은 말 위하는 단(壇)이니 판관이 하는 제사요,

14) 마주단 : 馬祖壇으로 馬祖祭를 지내던 제단.

17) 풍우뢰단(風雨雷壇)은 비바람 오는 제사이니 또한 판관이 하며,

18) 해신제(海神祭)는 별도(화북)에 있는 배 대는 옛적 포구에서 판관이 그날 배를 해상에 띄우며 제사하는 것이요,

19) 예단[厲壇]은 양반의 딸이 출가 후에 자손이 없이 죽거나, 아무라도 자녀 없이 죽은 외로운 양반에게 음식 차려 놓고 비는 단이니 혹 이단이라고도 부르며,

20) 봄 석전은 목사(牧使)가 난리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며,

21) 소렴당¹⁵⁾은 목사가 나아가 신선 노리개하고 노는 데니라.

22) 배[船] 고사하는 것은 사공이 돼지 하나와 술과 다른 음식 등을 차려 가지고 제사하여 “아무쪼록 발선(發船)과 해중(海中)과 회선시(回船時)에 무사하게 하여 줍소서” 하며 술을 바다에 붓고 배 전후좌우와 돛대 목에 붓는다.

오호라, 우리 작은 제주 섬이 비록 땅으로 작고 작으니 이단 사상이 이렇게 많으니 가련하고 난처하도다. 내가 힘을 다하여 이단 되는 것을 알아 풀어 밝히려 하여 많은 것 중에서 일부만 이 위에 기재하였으니 보는 자에게 부족한 듯하나, 여기 말하지 아니한 것과 여기 이왕 말한 것까지 천주님과 성모님의 홍은(鴻恩)으로 아주 이 제주에서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엎드려 천주와 성모 마리아께 비오니, 보는 자는 이것이 오히려 부족하다 하지 말지어다.

기해(1899)년 3월에 도구내(외도) 사람이 산제(山祭)를 하러 갔

15) 어승생에 있던 신당.

다가 밤에 자는데, 여인 하나와 노인 남자가 울며 나타났다. 그가 묻기를 “어찌하여 울으시나이까” 하니, 저들이 대답하길 “우리는 본래 제주 신령이더니 오래지 않아 병선(兵船)이 와서 우리를 칠 것이기에 이 본토를 버리고 떠나갈 터이니, 그래서 우노라. 우리 말이 거짓이 아닌 증거를 보이리라. 남문 밖에 우성목¹⁶⁾이 저절로 부러졌음이 증거라” 하고 다시는 뵈지 않았다. 도구내 사람이 하도 이상 황망하여 진가를 알아보려고 남문 밖에 가본즉 과연 우성목 하나가 반허리께가 부러져 꼬꾸라져 있었다. 그 후에 운선(輪船)으로 천주 성교 전교사가 입도하시니, 해몽(解夢)하건대 우리 성교가 이 섬에 들어오므로 악귀들이 원한(怨恨)하는 듯하니, 제주 여러 점잖은 이들은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말고 악귀 공경을 그치시오. 사신(邪神)이 기왕 떠났으니 무엇을 바라고 이단을 더하여 두호(斗護)하지 아니하는 악귀를 공경하리오.

23) 몸 비린 것은

- ① 뱀 죽은 것을 보면 7일 동안이요,
- ② 말과 개고기 먹은 사람이 3일 동안이요,
- ③ 산모가 7일 동안이요,
- ④ 경수 월수(月水)하는 여자가 7일 동안이요,
- ⑤ 상처와 손 베임과 존장(尊長)에게 매맞음은 다 나올 때까지니라. 또 고양이 죽은 것을 보아도 몸이 비린다고 한다.

16) 우성목 : 응중석, 우중목이라고도 하며 돌하르방을 말함.

섬[濟州島] 탐험과 동해 중국에서의 표류

해제

지그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 1870~1904)는 독일사람으로 지리학박사이다. 그는 1892~1893년 인도의 언어와 민속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사모아, 중국의 여행기를 신문에 연재했다. 그는 중국을 경유하여 1901년 한국에 도착하여 한라산 답사를 시도했으며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한라산을 등반했다. 또한 한라산의 높이가 해발 1,950m임을 밝힌 최초의 학자이다.

이 여행기 『한국, 지그프리트 겐테 박사의 여행기』(베를린, 1905)는 1901. 10. 13.~1902. 11. 30. 「퀸신문」에 연재되었다. 1994년에 송성희(제주대학교 독일학과 교수)가 『제주도사연구』 3집에 번역·소개했으며, 여기서 제주여성 관련 부분을 발췌했다.

이 여행기는 〈편집자의 서문, 황해의 해안지방, 한국의 내륙지방, 수도 서울, 제주섬 탐험과 중국의 동해에서의 표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서 20세기 벽두에 독일인의 눈에 비친 제주도의 풍속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제주여성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알아보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Quelpart(제주도)를 향하여

I

○ 거친 바다 위에서 느낀 등산해 보고 싶은 욕망—스토롬볼리(시칠리아 섬 북쪽에 있는 화산도 : 역주)와 한라산—대양 한 가운데에 있는 2000미터 높이의 화산—제주도 여행의 가능성에 대한 문의—세상사람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하며 말림—한국 국기를 단 노르웨이 증기선을 타고 출발.

※ Quelpart(켈파에르트)는 1668년 하멜표류기가 편찬된 이후 서양지도에 제주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서양인들에게 제주도는 Quelpart로 널리 알려져 있다.

II

○ 출발한지 세 번째 맞는 아침, 나는 해가 뜨기도 전에 갑판 위에 나가서 남쪽에서 우뚝 솟아 오른 잿빛 안개덩이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잔뜩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화산인 한라산이 있는 제주섬이었다.

그 봉우리들은 삼각형의 내리막 변에서 점점 작아지는 형태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과거에 강력한 화산 활동이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 나는 하얀 옷을 입지 않은 한국 사람을 이곳에서 처음으로 보았다. 모두가 예외없이 아주 거칠고 삼베 같은 천을 걸치고 있었다. 이것은 검은색이나 적갈색으로 염색되어 있었으며, 이상할

정도로 섬뜩하고 무뚝뚝한 인상을 풍겼다.

○ 제주 사람들은, 본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나무나 머리총 [말총 : 발췌자주]으로 섬세하게 만든 테가 넓은 모자 대신, 검정색 펠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모자 밑으로 그들은 마치 압루첸(역주 : 이태리 북부의 아펜닌 산맥의 일부) 강도처럼 음침하고 위협적인 눈매로 엿보고 있었다. 게다가 상륙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웠다. 현문을 내리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 해안에서는 내 짐을 뗏목으로부터 부서지는 파도를 헤치고 걸어서 물으로 옮기는 선부들에게로 한 무리의 여자들이 달려왔다. 촘촘하게 모여 있는 한 무리의 남자와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기다란 담뱃대를 열심히 빨며 일종의 느긋한 호기심으로 이방인을 훑어보고 있었다. 여자들은 지체 없이 내 물건들을 움켜잡고 멀리 떨어진 큼직한 집을 가리키면서 재빨리 물러들 갔다. 그 집은 커다란 지붕으로 봐서 사원이거나 아니면 관아임에 틀림이 없었다. 통역관이 목사의 답변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한 나는 해변에서 기다리며 태평하게 원주민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 자신도 그리고 그들의 섬도 호의적으로 보이지가 않았다. 딱딱하고 어두운 색의 얼굴들, 까만 옷, 거대한 검은 색 모자와 어두운 눈초리들을 보면 불과 몇 주일 전에 이 사람들이 천주교도 전부를 죽였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떠 올릴 수가 있었다. 지금 그들은 처벌받지 않고 자유로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의 관리와 우두머리 몇 사

람만 서울로 이송되어 취조를 받았다.

○ 그 도시의 해변과 외양은 까만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부딪치는 파도에 매끄럽게 연마되고 둥글게 된 까만 현무암 덩이들이 모래가 전혀 없는 해변을 1피트 높이로 덮고 있었다. 이와 같은 까만 불퓌없는 돌덩이들이 집들의 담장을 이루고 있었고, 강한 바람으로부터 그 지붕들을 막아주었으며, 큰 원으로 도성을 에워싸는 거대한 벽을 이루고 있었다.

○ 거리는 좁았고, 집은 모두 섬 전체의 특징인 것처럼 보이는 이 육중하고 까만 용암덩이들로 에워싸여 있었는데, 시가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인 듯했다. 역새[제주도 초가지붕을 엮는 띠 : 발취자주]로 덮은 집들의 지붕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사방에서 섬 전체를 휩쓰는 폭풍에 대비하여 묵직한 밧줄로 엮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 또 까만 용암덩이들이 올려 있었다. 징그럽게 배를 땅에 질질 끌고 다니는, 역겨울 정도로 까만 돼지들이 별거벗은 아이들과 비쩍 마른 까만 개들과 함께 지저분한 거리를 헤집고 돌아다녔다. 남자들은 담배를 피우며 자기 집 문 앞에 게으름을 피우며 무정하게 앉아 있었고, 여자들은 추하고 칙칙한 옷을 입고 나무나 물을 나르거나 집 안에서 나락이나 수수를 찢고 있는 것이 보였다.

Ⅲ

○ 미신에 의거한 관청들의 거부-대규모의 천주교도 학살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마지막 역경의 극복.

○ 그러나 제주목사가 늘 새로운 이의를 제기했다. 나는 그의 방문에 대한 답례로 제주목사를 방문하여 크기는 했지만 아주 관리가 소홀한 그의 궁전에서 성계와 다시마[이 당시 제주도에는 다시마가 없었으므로 미역이라 생각함 : 발취자주], 말린 전복 등 제주에서 나는 별미들을 대접받았는데, 그때부터 그는 산에 올라 가려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도록 다시 한 번 나를 설득하려 했다.

한라산 등정

I

○ 바다에서 밀려오는 물 때문에, 땅 위를 덮고 있는 단단한 화산암층이 벌써 파괴되어 비옥한 돌밭으로 개조된 비교적 낮은 지대에서는 어디에서나 부지런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개는 제주의 특산물인 것으로 여겨지는 수수나 고구마 경작이었다. 그러나 높이가 500미터밖에 안 되는 곳에서부터는 밭이 끝나고 만다. 수많은 무덤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각 무덤은 밭과 꼭 마찬가지로 까만 화산암 덩어리로 쌓은 높은 담이 둘러져 있었다.

○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섬에 사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그냥 뗏목 위에 실어 먼 바다에 띄워 보내 사람과 파도에 내맡겼다. 오늘날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특정의 불교 풍습을 상

기시키는 이런 괴이할 정도로 환상적인 이 풍습 대신에 근세에는 매장 풍습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어떤 영향 때문인지는 들은 바가 없다.

II

○ 동굴 한가운데에서는 소나무 장작과 마른 나뭇잎에 붙은 커다란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주위에는 남자들과 여인네들, 아이들이, 겨울용 우리 속의 양들처럼 빼곡히 밀집한 채, 거친 가죽옷과 목화솜을 넣은 험령한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털가죽 모자와 귀 덮개를 쓰고, 웅크리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했다. 그 사람들은 산채에 살고 있는 한라산의 나무꾼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백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듯 했다. 그래서 늦은 밤 시간에 산 속의 집에 숨어 있는 자기들을 찾아 내어 그들과 함께 지낼 채비를 하는 침입자를 미심쩍은 표정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 우리들 바로 앞에 수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솟구쳐 올라 있는 그 거대한 절벽은 그 자연미나 가공할 만한 형상이 물론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그 안내자는 궁극적인 목표인 진짜 한라산 정상 대신 이 절벽으로써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았다. 웅장한 까만 현무암 암석이 완전히 수직으로 절단되어 길이 약 2킬로미터 높이 330미터로 아래쪽으로 추락해 있었다. 그 절단면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절벽, 바위 모서리, 낭떠러지 등의 아주 신기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민간인들 사

이에 이에 관한 몇 가지 전설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곳 사람들이 이 환상적인 상들에 붙인 이름은 “오백장군”인데, 이는 이 섬의 불교시대의 기념물로써 부처의 초기 화신들인 오백나한의 구현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 부처의 이 초기 화신들은 티베트 문화에서는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숭상하는 지역이 일본과 한국에까지 확대되었다.

Ⅲ

○ 아직까지 백인은 올라 본 적이 없는 한라산 정상에 내가 정복한 것은 대단한 기쁨이었다. 그렇게 많은 반대와 장애물에 부딪혔던 그 작은 모험을 다행히 완수할 수 있었고, 힘든 탐험여행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고의 대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 나는 지름이 약 400미터인 의외로 작은 분화구가 약 70미터 높이의 가파른 벽들로 에워 쌓여 있음을 알아냈다. 바닥에는 겨울눈에 다 덮이지 않고 남겨진 큼직한 웅덩이보다는 약간 더 큰, 작은 호수가 빛나고 있었다. 제주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호수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지하 세계로 통하는 입구가 그 호수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긴 깊은 틈새일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물 언저리에는 본토에서 제주섬을 말의 고향이라는 명성을 가져다 준 바로 그 왜소한 체구의 작지만 강인한 야생마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본의 아닌 체류

I

○ 산신령들이 출발을 방해하다-제주 해안에서 난파당한 사람들-해안의 천복을 기원하는 사당-일본인들에게서 돛단배를 빌리기 위한 우도 섬 행-중세에서 변함 없이 전승된 중국 청조식(淸朝式)의 高宮.

II

○ 따라서 그 여행은 풍부한 내용의 노획물과 신기한 구경거리 등의 소재를 충분히 제공해 주었다. 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섬을 알게 되었으며, 주요 거주지들을 방문했고, 산에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나 위험한 해안에서 유명한 제주 전복을 따기 위해 잠수할 때, 힘겹게 소금을 얻을 때, 모자를 짤 때, 사람 많은 섬의 주요 생업 등 어디에서나 여자들의 독특한 지위를 관찰할 수가 있었다.

III

○ 확실히 제주의 그 감옥은 중국인들이 죄수들을 쇠약해지도록 넣어 두는 소름끼치는 동굴감옥에 비하면 거의 호의적일 정도의 인상이었다. 바람이 잘 통하는 두 개의 밝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4명의 죄수가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자기들 집에 있듯이 담배를 피우고 웃고 서로 잡

담을 주고받았다. 그들 모두는 비록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옥외에서 그다지 많은 운동을 하지 못한 것 같기는 했지만 활발하고 건강해 보였다. 한 젊은 여자만은 죽을 때가 다 된 것처럼 보였다. 그 여자는 아주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이었다. 남편을 독살했다는 죄목으로 이 감옥에 투옥된 지 벌써 삼 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아직 그 죄가 제대로 입증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한 귀환

○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잔뜩 긴장한 채 사방을 살펴봤지만 수포로 돌아 간 뒤, 마침내 그렇게도 기다리던 구원의 징표로 보답을 받게 된 것은 내가 본토를 출발한 지 3주일이 지날 무렵이었다.

○ 나를 위해서는, 마치 기선 위에서 내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기라도 한 듯, 제주에서 아주 뛰어난 음식으로 통하는, 아주 많은 말린 전복과 진주조개, 또한 복숭아, 유자, 식용 버섯 등을 가져 오게 했다.

○ 온갖 종류의 위험이나 예측할 수 없는 조류, 갑작스런 돌풍, 수없이 많은 암초, 빈번한 안개 등에 있어서 필적할 만한 바다를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심술, 굶은 바다 때문에 본토로

부터 분리된 채, 잊혀지고 버려진 상태로 나는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이제 정말 제주가 유배지가 될 것만 같았다.

○ 그래서 나는 제주 도성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포구인 산지포에 함께 가서 정크 한 척을 물색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목사께 부탁했다. 그는 나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는 그 포구로 따라와서, 이 중대한 일을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모든 선주와 어부들을 불러 모았다.

朝鮮의寶庫 濟州島 案內

해제

이 책이 나온 시기가 1905년인데 일제강점 5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기에 일본은 이미 제주도의 지리·교통·어업·상업·임업을 비롯 도정·인정풍속·기후·풍토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조사를 이미 했다. 일본의 보고서 중 발간이 가장 빠른 책으로 당시의 제주도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책에는 아오야기 츠나타로오(靑柳綱太郎)의 「제주도안내」, 모리타 메조(森 爲三)의 「제주도의 육산동물개론」, 이시도야 츠토무(石反 勉)의 「제주도의 식물의 장래와 문제」, 가와자키 시게타로(川崎繁太郎)의 「제주도의 지질학적 관찰」이 실려있다.

朝鮮의 寶庫 濟州島 案內

아오야기 츠나타로오(靑柳綱太郎)

第4編 島 史

○ 지금 탐라지(耽羅誌)에 기술된 바에 의하면 예전에 삼신인(三神人)이 있었는데 땅에서부터 솟아났다고 한다. 제일 위를 양을나(良乙那)라 하고 다음을 고을나(高乙那)라 했으며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고 하였다. 날마다 거친 들판에 나가 수렵을 하고 가죽을 의복으로 삼고 고기는 먹었다. 하루는 자니(紫泥)로 봉해진 나무상자가 떠오르는 것을 동쪽 해변에서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을 열어보니 그 안에 석함(石函)이 하나 있고 홍대자의(紅帶紫衣)의 사자(使者)가 따라왔었다. 함을 열어보니 푸른 옷의 처녀 3인과 망아지·송아지·오곡 등을 싣고 있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들은 일본의 국사(國使)이다. 우리 왕이 자녀를 낳았다. 서해(西海)중에 신자(神子) 3인이 내려와 즉시 나라를 열려고 하나 배필이 없음을 알고 이 3녀를 보내게된 것이다. 아무쪼록 빨리 배필로 삼아 대업을 이루도록 하라면서 사자는 홀연히 흰구름을 타고 사라졌다.

삼을나는 즉시 세차(歲次)에 따라 이들을 아내로 맞았다. 오곡

을 파종하고 송아지·망아지를 방목함에 마침내 모두 번식하게 되었다.

이래서 이 섬의 조상이 되었다. 생각컨대 이들의 소설(所說)은 용이하게 그 진위(眞僞)를 판정키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국통감(東國通鑑)의 기사에 의해, 또 여러 가지 유적과 더 나아가 현금의 풍속, 도민의 용모, 골격 등으로 점검·추론해 보면 크게 이설이 유력함을 깨닫게 된다.

특히 주성 남문 1정(町)남짓 떨어진 곳에 한군데 고적(古蹟)이 있음을 확인하기에 이르러서는 이상과 같은 설을 더욱 「사실적」이게 한다. 즉 남문 밖에 기(氣)가 약간 열리고 땅이 높고 주성(州城)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한 눈으로 푸른 물결을 내다볼 수 있을만한 곳에 한무리의 노송 울창하여 천고(千古)의 푸르름을 간직해있는 곳이 있다. 이것이 이른바 삼신인이 출현했다는 유적이다. 지금은 그곳에 하나의 사우(祠宇)와 배후에 한 기(基)의 소비(小碑)가 있다. 그 사우에는 삼성씨(三姓氏)를 새긴 편액(扁額)을 모시고 당내에 육패(六牌)를 안치하고 있다.

탐라시조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耽羅始祖 良乙那 高乙那 夫乙那)의 세패는 정면에 가지런히 늘어서 있고 그 동쪽에 탐라도내 고씨(耽羅徒內 高氏), 탐라성주 고씨(耽羅星主 高氏), 탐라왕자 고씨(耽羅王子 高氏)의 세패가 엄연함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 배후의 소패에는 표면에 「三姓穴」이라 쓰고, 이면에는 「崇禎後四年夏改立」이라고 새겨있다. 그 옆에 역시 비 하나가 있다. 표면에 「徒內王子星主高氏 三兄弟埋安所」, 뒤에는 「同治10年辛未5月」이라 새겨져 있다.

이곳에서부터 일방이 2간 남짓 되는 낮은 곳이 있는데 푸른 이끼가 깊숙하고 잡초가 길게 형크러져 있는 그 속에 3개의 구멍이 있다.

천년이 지난 오늘 다만 수척(數尺)의 길이에 불과하지만 전해 오기를 이것이 곧 본도의 개조(開祖) 양·고·부 삼을나가 출현한 옛터로서 도수(島守)는 매월 1회 이곳에 와서 제단을 설치하여 제례를 올리는 것을 관례로 삼는다.

사실이 약간 소설적이긴 하지만 굳이 터무니없이 허설(虛說)이라고 버리지는 말아야 할 일이다. 이는 아마도 뒷날 전문사가(專門史家)의 공찬(攻讚)에 맡겨질 것이다.

第6編 人情風俗

○ 제주도는 이 세상 밖의 별천지인 만큼 풍속 등에 있어서도 심히 기이(奇異)한 점이 많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취미를 느끼게 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이 섬에 상륙하면 남자는 대부분 짐승가죽으로 만들어진 가장자리가 넓은 일본식모자 또는 두건 같은 것을 쓰고, 여자는 보통 머리 묶는 법을 달리하여 처녀 신부라 하더라도 본토인과 같이 얼굴을 감싸는 일들이 없다.

본도의 풍속은 일반적으로 강의박눌(剛毅朴訥)의 풍이 있다. 따라서 다소 야비스러운 점이 없는 것이 아니나 대체로 본토와 같이 인순고식(因循姑息), 우유부단(憂柔不斷)치 아니하고 더욱이 기개(氣概)가 높고 남녀모두 근면역역(勤勉力役)의 미풍이 있음이 반가운 일이다. 특히 여자는 움울하지 않고 심히 생산적이어

서 해변에서는 돈벌이를 돕고 성내부근에서는 갖가지 공예를 하며 그밖에 밭을 갈고 우마를 끄는 등 한 가지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요컨대 본토에 있어서의 일방유타(逸放游惰), 행락안면(行樂安眠)의 성향은 이 섬에서는 볼 수가 없다. 모두가 근면역행(勤勉力行) 표한소박(標悍素朴)의 기상에 넘쳐 본토와 그 취향을 크게 달리하고 있다.

○ 사가(史家)들이 말하기를 본토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도(日本島)라고 함도 이러한 소식을 간추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여기에 괴이스럽게 생각되는 바는 도내에선 남자보다도 여자가 많이 낳는다는 것인데 본토 도처에서 여자의 수는 항시 남자의 수를 초과하여 거지라 하더라도 처첩(妻妾)을 함께 거느리지 않는 자 없다 함은 실로 기괴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제주근해는 해로(海路)가 험하고 멀어 자주 표류하고 침몰하는 일이 있으므로서 도민들은 남자 낳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자 낳기를 중히 여겼기 때문인 것이다. 만일 구석구석 도내를 돌아다니다보면 한 고을에 반드시 2~3개의 말방앗간(挽臼場)이 있다. 아녀자가 2~3마리의 말을 사용, 방아노래(杵歌)를 부르며 돌아가는 모습 또한 기묘하다. 이리하여 매해 음력 8월15일(주=추석)에는 남녀가 함께 어울려 가무를 벌이며 좌우양대로 나뉘어 큰 줄 양끝을 끌어 승부를 내게 된다. 만일 중간에 끊기어 양대가 땅에 넘어지게 되면 관중은 크게 웃었다. 이것을 조리극(照里劇) 역자 주=照里戲)이라고 말한다.

○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 섬의 풍속이 일본의 그것과 흡사(酷似)하다는 사실이다. 그 눈에 띄는 것 두셋을 예시(例示)하겠다.

1) 남녀를 불구하고 모두가 짐을 등에 지어 본토와 같이 머리에 이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근면·역행(力行), 꾸밈이 없으며 본토인과 같이 빈들거리고 게으르는 일이 없다.

3) 여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안팎출입이 자유스럽다.

4) 일반적으로 여자가 활발·영리하여 본토와 같이 음울연약(陰鬱軟弱)하지가 않다.

5) 아궁이는 보통 본토와 같이 온돌식으로 하질 않고 특히 돌과 흙으로써 일본과 같이 조립(組立)한다.

6) 노동자 또는 어민 같은 사람의 경우 여자는 수건 따위로 뺨을 가리고 남자는 머리띠를 동여맨다.

7) 본토와 같이 후추를 좋아하지 않고 또 식사는 찬밥도 가리지 않는다.

8) 부인들의 바느질에 있어 그 운침법(運針法)이 일본과 동일하다.

9) 횃바람을 부는 습관이 있다.

10) 용모·골격이 일본인과 유사하며 특히 부인의 경우는 그림에 있는 야마토히메(大和姬·주=일본여성의 美稱)그대로이다.

○ 婦人の地位 : 한국 본토의 부인은 우유부단하고 안방이나

어둡고 깊숙한 곳에 숨어살며 전혀 염세적인 일생을 보낸다. 이는 여자의 재혼을 금하는 법령이 나오면서부터 여자는 어떠한 학대를 받는다 해도 지아버의 집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본토의 부인은 일단 시집가고 나면 쉽게 나돌아다닐 수도 없고 심한 경우는 일생동안 시집의 문밖 출입을 못하는 수도 있다. 어쩌다 외출하는 일도 있지만 교자(驕子)에 타거나 혹은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리며 길에서 남자를 만나게 되면 도망치듯 길가로 피하는 것을 상례로 한다. 그런데 제주의 여인은 전혀 본토와 지위를 달리하여 오히려 여존남비(女尊男卑)의 양태이다. 사람들이 만일 제주에 들리면 첫째로 놀라는 것은 부인의 활발·영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갖가지 노동에 종사하고 그 중에도 잠수(潛水)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에 이르러서는 일본인이 도저히 따를 수 없다. 그들은 항상 잠수해서 천초(天草) 어개(魚介)를 채취, 시장에 내다 팔아서 남편의 생업을 도우며 편안한 생활을 영위한다.

○ 衣食住 : 본토의 풍속은 대체적으로 순박하기 때문에 의식주(衣食住)같은 것은 본토와 같이 화사스런 폐단이 없다. 의복은 그 만듦새에 있어서 본토와 다른 게 없다. 수년 전까지는 도산(島産) 또는 육지에서 수입되는 무명·마직물(麻織物) 및 짐승가죽 등속 뿐이었지만 점차 본토 개화의 여파(余波)로 근래에 이르러서는 양금건(洋金巾), 표백금건류가 속속 목포 그 밖의 개항장(開港場)으로부터 수입돼오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재류일본인의 손으로 한창 판매되고 있다. 그래서 도민의 태반이 이것들을

입기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주성(州城)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벽촌에서는 도산(島産)의 무명·마직물 및 짐승가죽 따위를 입는 일이 많다. 식물(食物)은 섬 안이 주로 조·보리·콩·피 등을 상식(常食)하여 주성지방에 있어서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이들 잡곡에 삶을 맡기고 있으며 미곡(米穀)에 있어서는 섬 안에서 근소(僅少)한 생산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주성지방은 거의를 목포거류지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한다. 가옥 구조도 본토와는 다소 달라, 외벽은 돌로 쌓고 중앙에는 반드시 마루방을 두며 그 양쪽에 온돌방을 만든다. 그런데 주성지방을 제외하고는 사랑(舍廊)채가 있는 집이 극히 드물고 대문 같은 것도 흔히 볼 수가 없다. 지붕은 모두 띠를 매우 두텁게 덮어 커다란 빗줄로 그 위를 단단히 묶는데 이는 본토에 바람이 많고 매년 여름·가을의 교대기에 이르면 폭풍이 내습하여 지붕을 걷고 장벽(牆壁)을 부셔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변소는 따로 집모양이 없이 단지 작은 돌을 외벽 옆에 쌓아올려 겨우 한 줄기의 나무를 가로로 걸친 것 뿐이며 그 안에서 돼지를 키운다.

第7編 氣候 및 風景

- 채복(採鮑)

危乎採鮑女, 臨海裸身投, 憐彼生涯苦, 仁人忍下喉

(위태롭구나 전복따는 여인이여, 벗은 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생애의 어려움 가련하기만, 어진이는 차마 먹지못했네)

- 저가(杵歌)

杵歌추苦發, 月下女單妍, 如怨又如慕, 耽羅俗尙云

(방아소리 괴롭게 들리지만, 월하의 여인은 아름답기만,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탐라의 풍속 전하여 오네).

第8編 漁業

- 濟州島全沿岸의 天草(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는 전 연안에 걸쳐 자라지 않는 데가 없어 온 섬 연안의 부인들이 누구나가 나잠(裸潛)을 업으로 삼아 경쟁적으로 남획,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 번식할 틈이 있겠는가 의심을 갖게 한다. 더구나 우뭇가사리는 그 육성이 매우 빨라 채취후 한 물 때 사이 새싹이 돋아남으로 그리 쉽게 수익을 감퇴시키는 일은 없다. 작금 도내의 나잠 여자 하루의 수확은 아주 숙련자는 1인당 10~12관, 적은 경우는 5~6관이 보통이며 평균 8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朝鮮總督府官報 中 濟州錄

해제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36년간 조선총독부 관보 영인본 142권 가운데 제주에 관련된 기록을 골라 엮은 것이다. 제주도지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연구자료 1집으로 출간되었으며, 편역자는 향토사학자 김봉옥이다.

자료집은 △서임 및 사령, 인허가, 등기사항 등 일반 사항 △인구통계 △어업권 면허 사항, △한라산 임산물 처분 사항을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관보 내용마다 관보의 권수와 쪽수를 기록하여, 독자들이 편리하게 원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으로 일제치하 제주인 항일인사 명단이 실려 있다.

朝鮮總督府官報 中 濟州錄

1. 일반 행정 · 면허 인허가 고시사항

1) 1910~1919년 11

1910년 11월 3일(2권 61, 78쪽)

효자 · 절부는 향당(鄉黨)의 모범이 되므로 금 10圓을 하사하고 표창함.

孝子部	제주군	중 면	李啓徵
		동	高汝松
		동	金淳範
		신좌면	高文煥
		구좌면	朴明福
		신우면	左時祐
	대정군	중 면	玄在玉

節婦部	제주군	중 면	韓貞華
		신좌면	梁順行
		동	朴貞氏

	구좌면	金基明
	동	韓庚生
	신우면	左召史
	동	蔡明寵
	동	高聖賢
	동	姜善生
	구우면	高盛德
	동	高鶴老
	동	河時淸
대정군	우 면	李丁孝
정의군	동중면	玄維善
	동	玄萬松
	동	吳斗烈
	동	吳寬老
	서중면	金貞賢
	동	尹和守
	좌 면	吳達龍
	우 면	金 銀
	동	梁守節

(중략)

1910년 11월 3일(2권 166, 167, 170, 172, 173, 174쪽)
 전국적으로 효자·절부·반족·유생의 포상자수는 다음과 같다.

항목 도별	孝子	節婦	小計	班族	儒生	小計	總計
咸北	45	45	90	47	28	75	165
咸南	102	125	227	156	263	419	646
平北	112	111	223	197	81	278	501
平南	84	144	228	4	9	13	241
黃海	116	131	247	251	182	433	680
江原	111	70	181	244	160	404	585
京畿	160	124	284	664	497	1,161	1,445
忠北	84	41	125	964	495	1,459	1,584
忠南	123	100	223	2,323	308	2,631	2,854
慶北	247	145	392	1,297	23	1,320	1,712
慶南	225	114	339	440	152	592	931
全北	141	103	244	222	169	391	635
全南	199	106	305	457	262	719	1,024
濟州	7	22	29	12	69	81	110
計	1,756	1,381	3,137	7,278	2,698	9,976	13,113

※ 참고로 전국적인 명단을 집계한 것임

1916년 2월 16일(23권 774쪽)

제6회 勸業模範場女子蠶業講習所 1월 29일 졸업자 제주도 대
정면 高守善

2) 1920~1929년 90

1927년 10월 25일(75권 285쪽)

상호등기

상호 : 鄭汝湖商店. 영업종류 : 일용 잡화 판매. 영업소 : 제주면
1도리 1416번지. 사용자 주소 성명 : 제주면 1도리 1416번지 鄭汝

湖의 妻

1927년 8월 18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28년 11월 17일(79권 495쪽)

限地醫師 면허

면허일 : 1928. 10. 27. 면허번호 : 398. 면허지역 : 구우면 일원.

면허기간 : 1928. 10. 27.~1931. 10. 26. 성명 : 高守善

3) 1930~1939년 185

1930년 12월 16일(88권 159쪽)

漁業組合 설립등기

명칭 : 제주도海女漁業組合. 주사무소 : 제주면 3도리 43번지.

목적 : 조합원으로 하여금 어업을 하기 위하여 어업권을 취득하고 또는 어업권 대부를 받아 조합원의 어업에 관한 경제 또는 救濟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시행함. 지구 : 제주도 일원(구좌면 월정리는 제외). 조합원 자격 : 위 지구내에 거주하는 採藻 및 捕貝業者. 설립인가일 : 1920년 4월 16일.

조합장 및 理事 監事 주소 성명 :

제주면 3도리 43번지 조합장 田中半治

제주면 1도리 1447번지 理事 金根 蓍

제주면 2도리 1482번지 監事 金弘 翊

제주면 2도리 1452번지 " 洪 淳 容

신좌면 조천리 2664번지 " 金 泰 鎬

1930년 10월 21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31년 11월 28일(91권 826쪽)

제주도海女漁業組合 등기변경

監事 金泰鎬 洪淳容 金弘翊은 1931년 6월 19일 임기 만료하여
1931년 10월 10일 총대회에서 모두 재선되어 1931년 11월 2일 전
라남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중임함

1931년 11월 20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32년 4월 8일(93권 106쪽)

제주도海女漁業組合 등기변경

조합장 田中半治는 1931년 12월 28일 사임하였으므로 1932년 1
월 13일부로 전라남도지사의 해임 인가를 받았음

조합장 田口禎熹는 1932년 2월 2일 총대회에서 선임되어 1932
년 2월 17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취임함

1932년 3월 3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32년 10월 8일(95권 97쪽)

포교계출

계출일 : 1932. 5. 31. 종파 : 天理教. 포교자 주소 성명 : 우면
하효리 高橋久子

1933년 3월 14일(96권 770쪽)

상호등기

상호 : 共益商會. 영업종류 : 면포·곡물·식료품·잡화판매.
영업소 : 제주읍 3도리 100번지. 상호사용자 : 제주읍 3도리 986
번지 高守善

1933년 2월 1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33년 6월 8일(98권 139쪽)

상호양도

상호 : 共益商會. 1933년 4월 25일 상호 및 영업 양도계약에
의하여 高守善이 사용하는 상호는 영업과 함께 다음 자에게 양
도한 까닭에 변경함

제주읍 3도리 100번지의 3 崔璉順

1933년 4월 22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35년 9월 20일(107권 214쪽)

합자회사 설립등기

상호 : 합자회사 伴商店. 본점 : 제주읍 1도리 1405번지. 목적 :
和洋잡화·음료수·화장품·和洋紙·문방구·교과서·교육지
도·운동구·和洋家具·성냥·석유·양초·고무제품·석탄판매
및 확실하고 유리한 상품의 판매와 대리점과 전항에 따른 부대
사업 일체. 설립일 : 1935년 8월 3일. 대표사원 : 角健輔.

사원의 성명과 출자종류

제주읍 1도리 1405번지 금1만圓 무한책임 角健輔

제주읍 1도리 1405번지 금5천圓 유한책임 角知世

제주읍 1도리 1405번지 금4천8백圓 유한책임 角信輔

제주읍 1도리 1405번지 금5천圓 무한책임 安村嘉雄
제주읍 1도리 1284번지 금4천5백圓 유한책임 金士敦
제주읍 1도리 1405번지 금3백圓 유한책임 藤原八郎
제주읍 1도리 1405번지 금2백圓 유한책임 許寬仲
제주읍 화북리 1654번지 금2백圓 유한책임 金必圭
존립시기 : 설립일로부터 만20년

1935년 8월 10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35년 12월 5일(108권 71쪽)

제주도海女漁業組合 등기변경

조합장 田口禎熹는 1935년 9월 13일 사임함

1935년 10월 8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36년 2월 20일(108권 845쪽)

제주도海女漁業組合 등기변경

1935년 11월 30일 총대회에서 조합장을 다음 자로 선임하여 취임함.

제주읍 3도리 43번지 吉川貞吉

1935년 12월 17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36년 12월 22일(112권 245쪽)

총독부 고시 제713호

1929년 조선총독부 고시 제1호(조선어업조합 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조합 지정의 건)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함

1936년 12월 22일

조선총독부 南 次郎

전라남도部 「金日漁業組合」 다음에 濟州島漁業組合을 첨가하고 「濟州島海女漁業組合」 「舊左面漁業組合」 「西歸面漁業組合」 「舊右面漁業組合」 「翰林面漁業組合」을 삭제함

※ 위 삭제된 어업조합은 제주도어업조합에 통합되었음.

1937년 3월 31일(113권 430쪽)

조합 병합 등기

명칭 : 濟州島漁業組合. 주된 사무소 : 제주읍 3도리 43번지(도청). 목적 : 조합원으로 하여금 어업을 하기 위하여 어업권을 취득하고 또는 어업권 대부를 받아 조합원의 어업에 관한 경제 또는 救濟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함. 지구 : 제주도 일원. 단 추자도는 제외함 조합원의 자격 : 본 조합 지구 내에서 捕介 採藻業者 및 기타 일반 어업자로서 조직함. 설립일 : 1936년 12월 22일.

조합장 제주읍 3도리 43번지 吉川貞吉

理事 제주읍 3도리 43번지 三浦龜右衛門

감 사 제주읍 1도리 1447번지 金根蓍

” 한림면 한림리 1186번지 金稔宇

” 서귀면 서귀리 700번지 康邦吉

1937년 1월 20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병합으로 조합 해산

翰林面漁業組合 舊左面漁業組合 濟州邑漁業組合 濟州島海女漁業組合 朝天面漁業組合 涯月面漁業組合 城山面漁業組合은 각각

1937년 5월 20일 총대회의 결의로 1937년 12월 22일 제주읍 3도
리 43번지 濟州島漁業組合에 병합되어 소멸함

1937년 1월 20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37년 8월 23일(114권 965쪽)

妻의 사업 등기

다음 자는 남편의 허가를 얻어 사업을 경영함

추자면 대서리 140번지 李康珠妻 朴禮眞

영업종류 : 잡화상. 영업소 : 대서리 14번지

1937년 5월 24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38년 2월 2일(116권 571쪽)

妻의 名義 영업등기

주소 : 제주읍 2도리 1359번지 文貞玉. 영업종류 : 미곡 및 주
류판매. 영업장소 : 제주읍 1도리 1442번지

1937년 12월 8일 등기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38년 6월 2일(118권 439쪽)

朝鮮美術展覽會 제17회 출품 진열 작품 다음과 같음

서양화부 命題 : 海女. 주소 : 제주도. 성명 : 金仁志(타부는 생
략함).

4) 1940~1945년 357

1942년 5월 12일(134권 110쪽)

限地醫業 면허

면허일 : 1942. 4. 10. 면허번호 : 825. 면허지역 : 한림면 판포
저지 금릉 두모 고산 신창 용수 조수 낙천 청수 대정면 신도리.

면허기간 : 1942. 4. 10.~1945. 4. 9. 성명 :金城守善 (高守善)

2. 인구 통계 481

1911~1941년

1911년 12월말 인구통계 (1912.7.9. 8권 89, 108쪽)

인구 군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군	23,228	51,817	53,937	105,754	108	219	152	371
정의군	7,610	18,833	19,040	37,873	37	101	24	125
대정군	6,292	13,151	13,690	26,840	14	64	17	81
제주읍	1,725	3,921	4,100	8,021	92	149	134	283

인구 군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군	4	7		7	23,340	52,043	54,089	106,132
정의군					7,647	18,934	19,064	37,998
대정군					6,307	13,125	13,707	26,922
제주읍	중국2 기타2	5 2		5 2	1,820	4,076	4,234	8,310

1912년 6월말 인구통계 (1913. 1. 29. 9권 816쪽)

인구 군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군	22,624	51,263	51,758	103,021	133	268	179	447
정의군	7,621	18,925	19,170	38,095	32	81	38	119
대정군	6,366	13,313	13,849	27,162	15	93	26	119

인구 군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군	4	11		11	22,761	51,542	51,937	103,479
정의군	1	1		1	7,654	19,007	19,208	38,215
대정군					6,381	13,406	13,875	27,281

1912년 12월말 인구통계 (1913. 5. 13 10권 865쪽)

인구 군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군	23,012	51,855	53,047	104,902	155	284	206	490
정의군	7,727	19,011	19,505	38,516	35	89	37	126
대정군	6,417	13,246	13,902	27,148	23	43	19	62

인구 군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군	6	10		10	23,173	52,149	53,253	105,402
정의군					7,760	19,100	19,542	38,642
대정군					6,440	13,289	13,921	27,210

1914년 12월말 인구통계 (1915. 4. 10. 19권 590, 654쪽)

인구 군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39,876	96,731	97,170	193,901	227	487	384	871
(제주읍)	1,739	4,281	4,418	8,705	150	280	273	553

인구 군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중국4 기타2	10 2		10 2	40,109	97,230	97,554	194,784
(제주읍)	중국4 기타1	10 1		10 1	1,894	4,578	4,691	9,269

1915년 12월말 인구통계 (1916. 6. 3. 25권 507, 746쪽)

인구 군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40,573	99,330	101,514	200,844	202	463	311	774
(제주읍)	1,276	3,126	3,218	6,344	116	234	194	428

인구 군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3	8		8	40,778	99,801	101,825	201,626
(제주읍)	3	8		8	1,395	3,368	3,412	6,780

1916년 12월말 인구통계 (1917. 10. 18. 32권 267쪽)

군	인구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40,524	99,457	102,615	202,072	267	480	360	840
(제주읍)		1,507	3,704	3,775	7,479	143	260	215	475

군	인구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6	14		14	40,797	99,957	102,957	202,926
(제주읍)		6	14		14	1,507	3,704	3,775	7,479

1917년 12월말 인구통계 (1918. 11. 8. 37권 97쪽)

군	인구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40,617	101,374	103,041	204,415	334	571	428	999
(제주읍)		1,438	3,550	3,686	7,236	184	296	244	540
(서귀포)		191	505	488	993	33	50	40	90

군	인구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7	17	-	17	40,958	101,962	103,469	205,431
(제주읍)		6	15	-	15	1,628	3,861	3,930	7,791
(서귀포)		-	-	-	-	224	555	528	1,083

1918년 12월말 인구통계 (1919. 9. 17. 41권 195쪽)

군	인구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40,656	99,762	103,647	203,409	240	459	352	811
(제주읍)		1,439	3,488	3,618	7,106	101	187	176	363
(서귀포)		222	515	508	1,023	47	63	54	117

군	인구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12	17	-	17	40,908	100,238	103,999	204,237
(제주읍)		8	16	-	16	1,548	3,691	3,794	7,485
(서귀포)		1	1	-	1	270	579	562	1,141

1920년 10월말 현재 인구통계 (1921. 2. 19. 47권 650쪽)

군	인구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43,333	97,443	102,349	199,792	219	436	350	786

군	인구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7	27	1	28	43,560	97,906	102,700	200,606

1920년 12월말 인구통계 (1921. 11.16. 50권 506쪽)

군	인구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43,531	97,999	102,585	200,584	202	375	351	726

군	인구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7	27	1	28	42,740	98,401	102,937	201,338

1921년 12월말 인구통계 (1922. 9. 23. 54권 1022쪽)

군	인구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41,893	97,834	101,843	199,677	226	392	360	752

군	인구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7	25	1	26	42,126	98,251	102,204	200,455

1922년 12월말 인구통계 (1923. 11. 1. 59권 322쪽)

군	인구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40,432	96,953	101,046	197,999	200	351	341	692

군	인구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12	26	2	28	40,644	97,330	101,389	198,719

1923년 12월말 인구통계 (1924. 10.20. 63권 222쪽)

군	인구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41,238	104,044	104,974	209,018	261	448	421	869

군	인구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26	36	2	38	41,525	104,528	105,397	209,927

1924년 12월말 인구통계 (1925. 9.25. 66권 1050쪽)

군	인구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42,734	106,429	108,155	214,584	238	420	372	792

군	인구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23	48	2	50	42,985	106,897	108,529	215,426

1925년 12월말 인구통계 (1926. 11. 27. 71권 656, 657쪽)

군	인구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48,865	95,280	109,034	204,314	403	622	483	1105

군	인구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24	55	4	59	49,291	95,957	109,521	205,478

1926년 12월말 인구통계 (1927. 12. 8. 75권 730쪽)

군	인구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45,394	101,033	108,808	209,841	325	545	538	1,083

군	인구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32	83	4	87	45,751	101,661	109,350	211,011

1927년 12월말 인구통계 (1928. 8. 31. 78권 573, 574쪽)

군	인구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44,822	100,840	109,668	210,508	336	544	522	1,066

군	인구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31	67	4	71	45,189	101,451	110,194	211,645

1928년 12월말 인구통계 (1929. 9. 24. 83권 223, 224쪽)

군	인구	한국인				일본인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42,462	98,956	105,464	204,420	364	570	546	1,116

군	인구	외국인				합계			
		호구	남	여	남녀계	호구	남	여	남녀계
제주도		26	70	3	73	42,852	99,596	106,013	205,609

1935년 11월 26일(107권, 847쪽)

1935년 10월 1일 현재 국세조사 세대수 및 인구수

제주도 세대수 50,576 인구총수 207,219 남 96,325 여 110,894

부록. 일제치하 제주인 항일인사 명단 643

6. 1919년 己未萬歲運動 때 濟州人으로서 陸地에서 가담하였다가 刑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姓名. 崔貞淑 異名. 假名.	연령 18	직업 학생	주소 경성부 본정 2-27 본적 제주면 3도리 948	죄명 보안법 위반	형기 년 6월	판결법원 경성지방 법원	비고
姓名. 高蓮紅 異名. 假名.	연령 17	직업 학생	주소 전남 광주군 효천면 본적 제주면	죄명 "	형기 년 4월	판결법원 광주지방 법원	비고 집행 유예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受刑者名簿, 各 判決文)

16. 韓國獨立運動史에 의하면 조천리 출신 金時學이 독립사상을 품고 활약한 기록이 있다. 또 加派島 출신 金成淑은 1921년 향리에 辛酉義塾을 창립하여 鄉里皆學운동으로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평생을 독립항쟁에 뜻을 두었다. 1960년 남제주군에서 민의원원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또 女性으로는 조천리 출신 金時淑은 향리에서도 민족 사상관계로 경찰에 검속된 일이 있었는데 일본으로 건너가 제주출신 女工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在日本女工保護會 를 조직하여 활약하였다.

또 姜平國은 1927년 在日本 東京東部朝鮮勞動組織 婦女部 책임자로 선임되어 활약하였고 1928년에는 權友會 日本支部를 조직하여 활약하였다. 姜平國은 崔貞淑 高守善과 함께 晨星女學校 제1회 졸업생으로 醫專을 졸업하여 醫師로 활약하면서 항일에 뜻을 둔 사람들이다.

姓名. 金時淑 異名. 假名.	연령	직업	주소 본적 신좌면 조천리	죄명	형기 년 월	판결법원	비고 여성독립 운동가
姓名. 姜平國 異名. 假名.	연령	직업 의사	주소 본적 제주면 1도리	죄명	형기 년 월	판결법원	비고 여성독립 운동가
姓名. 高守善 異名. 假名.	연령	직업 의사	주소 제주면 본적 대정면	죄명	형기 년 월	판결법원	비고 여성독립 운동가

(韓國獨立運動史)

18. 1931년 麗水水産學校에서 金奉七이 좌익독서회로 검거되었고, 서울 普成高普生 金萬有은 일본 식민지 정책을 규탄하는 격문을 살포하였다가 검거되었다. 또 河崙圭 姜渭璜 金基範 姜昌學 李甲文 등도 서울에서 좌익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었다.

姓名. 李甲文 異名. 李成孝 假名.	연령 20	직업 여학생	주소 경성부 관훈동 본적 대정면 하모리 896	죄명 출판법 위반	형기 1년 월	판결법원 경성복심 법원	비고 집행 유예 4년
---------------------------	----------	-----------	---------------------------------------	-----------------	---------------	--------------------	----------------------

(金奉七 金萬有 判決文, 受刑者 名簿)

22. 1932년 1월에 구좌면 일대의 潛女들의 항쟁사건과 그 배후에서 지도한 좌익조직이 탄로되어 대검거선풍이 일어났다. 그 중

주동자 姜昌輔는 유치장에서 탈출하여 東亞通航組合 제주대리점 책임자 姜炳喜의 도움으로 西歸港에서 伏木丸 편으로 탈출에 성공하였다.

姓名. 夫春花 異名. 假名.	연령	직업 잠녀	주소 구좌면 세화리 본적 위와 같음	죄명 소요죄	형기 년 6월	판결법원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비고
姓名. 金玉連 異名. 假名.	연령	직업 잠녀	주소 구좌면 세화리 본적	죄명 "	형기 년 6월	판결법원 "	비고

(判決文, 受刑者 名簿)

27. 高景欽은 좌익사상 이론가로 알려졌는데 1934년 경기도에서 좌익사상 계몽 중 검거되었다. 愼東玉은 가명을 吳星漢 吳振根 梁昌眠 등을 사용하면서 좌익활동하다 1935년 검거되었다. (중략) 李景仙은 가파도 李道一의 딸로 좌익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었다.

姓名. 李景仙 異名.(李道一 假名.의 女)	연령 22	직업 여공	주소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본적 대정면 가파리	죄명 치안 유지법 위반	형기 1년 6월	판결법원 경성 지방법원	비고 1935.12. 20.판결
-------------------------------	----------	----------	---	-----------------------	----------------	--------------------	-------------------------

(金林溼判決文,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受刑者 名簿)

34. (전략)

(2) 1931년부터 1935년까지의 항쟁으로는 조천리 출신 金文準이 노동운동을 지도하다가 1932년에 검거되어 2년 6월을 복역하고 출옥한 후에는 우리말로 民衆日報를 발행하여 노동단체의 단결과 민족운동을 고취하다가 1936년 5월에 병사하자 그 뒤를 李信珩 등이 주관하면서 민족주체사상을 강조하다가 검거되고 1936년 11월 1일부로 폐간되었다.

이 사이에 항쟁한 인사들 중에는 趙夢九 金瑞鎬 玄尙好 金喜奉 姜文錫 金太權 玄好景 韓奉三 吳坪允 등 많은 인사가 항쟁하였다.

姓名. 玄好玉 異名. 假名.	연령 19	직업 여공	주소 大阪市 東城區 猪飼野町 萬歲橋 본적 조천면 조천리 2912	죄명 치안 유지법 위반	형기 2년 월	판결법원 大阪地方 裁判所	비고 1935.10 .26.판결
-----------------------	----------	----------	--	-----------------------	---------------	---------------------	-------------------------

(受刑者名簿, 日帝特彈壓史)

(4)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사이에 주요한 것은 牛島출신 李奉春이 대판에서 誠心夜學校를 개설하여 민족사상교육을 실시하다가 1942년에 관련자 4명이 검거되었고, 金文準이 民衆日報 폐간 후에 橫濱市에서 李雲洙 등이 우리말 신문을 발간하는데 제주읍 출신 宋性澈이 편집원으로 활약하다가 검거되었다.(후략)

姓名. 李景仙 異名.(李道一 假名.의 女)	연령 228	직업 학생	주소 神戶中野醫學 專門學校 기숙사 본적 대정면 가파리	죄명 치안 유지법 위반	형기 1년 6월	판결법원 神戶區 裁判所	비고 1942. 10.23. 판결
-------------------------------	-----------	----------	---	-----------------------	----------------	--------------------	-----------------------------

(金奉珪 등 鷄林同志會, 高瀛豪, 姜太善, 金昌沃, 金辛亨 判決文
및 受刑者名簿, 昭和特高彈壓史)

南鮮寶窟 濟州島

해제

이 책은 大野秋月은 제주도의 역사서인 「탐라지」를 읽고 1년 동안 실사와 통계자료를 분석한 후에 1911년에 발간된 제주도 관계 인문서이다.

전설과 사료는 물론 현장 조사한 보고서, 풍속, 명승, 고적, 지리, 인문 등을 비롯하여 산업계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다.

四. 本島의 風俗一般 (耽羅志 譯出)

○ 본도민은 딴 곳과 교통할 기회가 없으므로 해서 대체로 완우(頑愚)하다 진취(進取)의 기백이 없고 극히 비린(卑吝)하다. 종래부터 관준민비(官尊民卑)의 폐단이 심하고 일견 겸양한 듯하지만 실은 그렇지 못하다. 『탐라지(耽羅志)』에 풍속은 치검(癡儉)하고 예양(禮讓)이 있다고 한 것은 피상적인 견해이다. 흔히 말하는 바 풍속은 치검하고 새집(茅屋)이 많고 백성들은 짚신을 좋아하고 딴 것을 신는 일은 거의 없다.

또 다듬이질을 하지 않고, 다만 여인들은 나무절구로 찜기만 한다. 모든 것을 등으로 지고 머리에 이는 법이 없다. 길에서 벼슬아치(官人)를 만나게 되면 여인은 즉시 달아나버리고 남자는 길가에 부복한다. (내가 보기엔 지금은 이런 풍속은 없다)

민간에서 흔히 쓰는 속된 말(俚語)은 난삽하고 대륙과 다소 다르다. 음절은 앞이 높고 뒤가 낮아(先高後低) 알아듣기 어렵다. 『풍토록』에는 토착민의 어음(語音)은 가늘고 높으며 찌를 듯하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상(喪)은 백일(百日)에 복을 벗고 밭머리(耕地)의 가장자리에 분묘를 만든다. 혹은 3년 상을 행하는 자가 있다. 지리(地理)를 생각하는 데 복서(卜筮 : 길흉을 점치는 것)를 사용치 않으며(지금은 땅에 대해 점치는 정도) 또 부도(浮屠)의 법을 쓰지 않고 흔히 음사(淫祀)를 숭상한다. 산, 숲, 내, 못, 구렁, 분토(墳土), 목석 모두에게 신이 있다고 믿어서 제사를 마련한다. 매해 초하루부터 상원(上元)에 이르기까지 남녀무당(巫覡)과 함께 신당을 차려 역귀를

쫓는다. 즐거이 장난삼아 꿩과리와 북을 치며 여염집에 나르면 사람들은 모두 다투어 전곡(錢穀)을 바치고 이를 모신다. 또 2월 초하루 귀덕리(歸德里)와 김녕리(金寧里) 등에서는 12본의 목간(木竿)을 세워 신을 맞아 들어 제사를 지낸다.

○ 본도는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다. 옛날 사람들은 스님도 집을 장만하고 처자를 키웠다. 동냥을 하는 자라도 여느 사람과 같이 처첩(妻妾)을 양육했다.

축첩(蓄妾)의 풍속은 오늘날에도 크게 유행하고 있다. (2~3인의 첩을 거느리지 않는 자가 사내 행세를 하는 사람 가운데 드물다) 공사물(公私物)을 운반하는 배는 해로가 험하기 때문에 때때로 표몰(漂沒)하고 그래서 사망하는 자도 끊이질 않는다. 그러므로 이곳 사람들은 여자 낳는 것을 중히 여긴다.

『풍토록』에 가로되 육지와 무역하는 토호(土豪)는 아주 적기 때문에 식력(食力)이 부족한 자는 전곡(田穀)으로 먹어 살았다. 그리하여 청주(淸酒)는 아주 귀하었다. 이곳 사람들은 도처에 조를 심어 소주를 빚었다. 탁주를 음용하는 사람은 보지 못한다. 소주를 좋아함은 고래로부터의 풍속과 같다(絶小土豪, 質陸地, 而食力不足者, 食田穀所以淸酒絶貴). 또 가로되 오래 노역의 일을 하는 데는 모두 여자를 쓴다. 혹은 2~3인 혹은 4~5인이 함께 한 절구를 찼는데 반드시 상저(相杵)의 노래(절구 찼는 노래)를 한다. 음조가 몹시 어렵다. 여마(旅磨)의 노래(연자방아 돌리면서 부르는 노래) 역시 그렇다.

八. 古蹟

삼성혈(三姓穴)

○ 기(記)에 이르되 처음에 이 섬에는 사람이 없었다. 삼신인(三神人)이 용출해서 지금의 산 북쪽 기슭에 진을 세웠다. (구멍이 있고 이것을 모흥혈(毛興穴)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그 곳이다. 제일 윗사람을 양을나(良乙那), 다음을 고을나(高乙那), 막내를 부을나(夫乙那)라고 했다. 3인(人)은 거친 두메에서 수렵을 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고기를 먹었다.

하루는 동아줄로 봉한 나무상자가 물결에 흘러 동쪽 바닷가에 당도함을 보게 되었다. 이것을 뜯어보니 안에 돌상자가 있었고 홍대자의(紅帶紫衣)를 입은 한사람의 사자가 따라 나왔다. 함을 열어보니 청로의(靑露衣)를 입은 여인 3인과 망아지, 송아지, 오곡의 씨가 있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日本國) 사자인데 우리 임금이 이들 3녀(女)를 낳고 가로되 서해(西海) 중악(中岳)에 신의 아들 3인이 내려와 마침 나라를 열려고 하나 배필이 없으므로 신(臣)이 3녀를 모시고 가서 좋도록 짝을 지어서 대업을 이룩토록하라고 명하셨다고 말하고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사라져버렸다. 3인은 모두 나이에 따라서 나누어 이들 여인을 취하였다. 땅이 비옥하고 맑은 물 나오는 곳에서 활을 쏘고 터를 잡았다. 양을나가 거쳐하는 곳을 일도(一徙)라 부르고 고·부을나가 거쳐하는 곳을 이도(二徙)·삼도(三徙)라 불렀다. 이렇게 해서 도(徙)의 이름이 시작되었다.

해녀항일투쟁 관련 신문기사

해제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지국이 있었는데, 주재 기자들 대부분은 1920년대 이후 대두한 청년 사회주의 운동가들이었다. 1928년 제주도내 청년운동가 한상호·김정로·윤석원 등은 동아일보 제주지국의 기자였다. 1931년 7월 13일 있었던 제주청년동맹원들의 노동현장 지원 사건을 주동한 장종식과 신현덕은 각각 조선일보 제주지국장, 동아일보 제주지국장이었다. 제주청년동맹원 이태윤과 홍순일·김태륜 또한 조선일보 기자였다.

그리고 해녀투쟁을 배후에서 지도한 혁우동맹원 신재홍·문도배·오문규·강관순 등은 모두 판결문에 기자가 직업인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은 1931년 9월에 조선일보 성산포분국에서 회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조선일보 기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일보는 동아일보보다 해녀투쟁의 전말을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이들이 직접 취재하고 기사화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조선공산당 제주도 세포조직의 전단계인 혁우동맹을 조직하여 해녀들의 경제적 불만을 포착하였다. 이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된 뒤 조선일보 기사(1933. 2. 8)에 따르면, “혁우동맹이란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농촌 대중과 해녀 획득에 활약하여 공산주의 기본 대중의 토대를 건설하던 바 구좌면 해녀 ‘데모’를 총지휘하여 조선 초유의 큰 항쟁을 발생시켰다 한다.” 라고 하여, 해녀투쟁과 혁우동맹과의 연관성, 항쟁의 특성 및 규모 등을 지적하였다.

이 사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외일보>에 기사화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해녀투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직접 항

일이나 독립을 지향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해녀들의 움직임은 해녀조합의 해산물 저가 매수와 각종 횡포에 대해 권리와 생존을 위해 투쟁한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사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주목할 때 이 부분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해녀투쟁을 기사로 작성한 혁우동맹원들은 이 사건을 배후에서 지도했지만, 비밀 결사조직과 해녀 대중의 보호를 위해 사건과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숨긴 채 자연발생적인 경제 투쟁으로 기술하였다고 해석된다. 당시 일제의 탄압 상황을 이해한다면, 독립을 내세운 표면적 민족운동은 곧바로 검거와 조직의 해체, 해녀대중과 괴리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신문기사 내용만 하더라도 충분히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련한 해녀의 운명 / 제주의 생명 / 흉악한 객주 / 당국태도
냉정 / 도내인사 분기(동아일보 1920년 4월 22일)

가련한 해녀의 운명

죽도록 애써서 잡놈만 살찌어 보호할 방책에 성의없는 당국
제주의 생명 해녀의 일년별이 실로 백만 원 이상

조선에서 가장 큰 섬이오 가장 남쪽에 있는 제주도는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모르는 이가 없거니와 그 섬에서는 거의 바다의 소산으로 생애를 삼으며 특별히 그곳에서는 사나이보다 여자가 많이 활동하여 물 속에도 들어가고 멀리 본토로 장사도 다닌다 함은 우리가 이미 들은 지 오래이며 해녀의 활동으로 생산하는 돈이 일년에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매년 에 바다에 나가서 해조류와 어물을 잡는 여자의 수효는 만여 명에 달하고 그 중에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부산·울산 등지에 나아가서 활동하는 여자의 수효가 4천 명 이상이나 되며 육칠장 이상이나 물 속으로 들어가서 전복과 기타 해조를 따내는 동시에 여러가지로 바다 속의 발견도 많이 하였다. 그런데 이네의 수입은 한 사람이 평균 3백 원 값어치를 생산함으로 4천 명의 총수입은 실로 120만 원의 큰 돈을 생산하여 실로 조선 수산계에 적지 아니한 숫자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적게 말하면 그네의 활동은 제주도의 생명이요 다시 말하면 조선 산업계에 중대한 현상이다. 그러나 해녀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보면 매우 비참한 일이 많이 있다. 해녀가 부산 등지에 나오면 물상객주에게 의지하여 사오삭 동안을 유숙도 하고 돈도 꾸어쓰는 터인데 소위 물상객주라는

자들은 교활한 농락으로 말미암아 해녀들은 반 년 동안이나 부모와 자식을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 멀리멀리 바다를 건너와서 뜨거운 별에 살을 태워가며 벌어 놓은 돈을 거의 다 소비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도리어 객주에게 빚을 얻어쓰고 빈손만 쥐고 돌아가게 될 비참한 운명에 있다.

흉악한 객주

객주의 장난으로 해녀는 헛수고 뿐

소위 물상객주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제주도 사람이요 해녀의 남편노릇 하던 사람이 많으니 그들은 해녀를 다섯 명만 거느리게 되면 곧 왜채라도 아무 보증도 없이 낼 수가 있게 된 형편이 있으니 일본사람들은 객주에게 돈을 취하여 주고 물건을 헐하게 가져가는 맛에 해녀의 객주라 하면 금송아지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믿고 돈을 주게 되었다. 해녀들은 이와 같이 반부랑자가 다 된 객주에게 돈을 얻어쓰고 나중에 세음은 물건으로 하는 것이 예투인데 교활한 객주와 일본사람들은 어떠한 농락을 하였든지 실상 백 근 되는 물건을 구십 근만 회계하는 버릇을 만들고 그 외에도 저울눈을 속여서 만나중에 해녀의 수입으로 되는 것은 백 근에 칩십 근밖에는 못되며 이것도 객주에게 빚으로 빼앗기는 등 여러가지로 부정한 수단 아래에 모두 해녀의 수입으로 있지를 못하게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진대 객주하는 사람들은 해녀의 남편을 꺾어서 비싼 변리로 돈을 취해주고 해녀가 어물을 잡으면 무리한 혈값으로 비싼 이자를 모두 회계하여 받는 흉악한 수단이 있음으로 해녀는 할일없이 못된 객주와

일본사람들의 제 욕심만 차리는 흉악한 수단에 떨어져서 반 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한 값도 없이 부인 손을 쥐고 돌아가게 된 것이다.

당국 태도 냉연

조합설치운동과 우스운 관청 태도

이와 같은 비참한 내용을 안 제주도의 유지들은 이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재작년 1월에 수산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녀를 보호하고 여러가지 편의를 도모하려 하여 당국에 신청을 하였더니 당국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이년 동안이나 해답이 없음으로 작년 10월경에 이르러 다시 김태호 씨 외에 유지인사 여러 사람이 발기하여 다시 해녀조합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해녀의 생산한 물건을 공동으로 팔게 하며 중개도 하여 주고 돈도 대어주기 위하여 당국의 양해까지 얻어가지고 전남도 당국에 교섭을 하였더니 전라남도 亥角 도지사는 일부러 경상남도 당국의 양해를 얻기 위하여 작년 겨울에 진주와 부산 방면에 출장을 하였었다. 그러나 마침 부산에서는 해녀의 생산하는 물품은 수산계에 막대한 금액이 되며 이것을 이용만 하면 이익이 큰 것을 알므로 일본사람 岩崎某 등의 꾀로 부산에 해조주식회사를 설치한 계획이 있었던 터이라 亥角 도지사는 처음 뜻을 버리고 해조주식회사를 위하여 해녀조합을 그 회사에 부속케 하기로 내정까지 하고 돌아온 일이 있다.

도내인사 분기

이 일 구제코저 제주인사의 열심

해녀는 이와 같이 많은 생산을 하면서도 늘 객주나 중개인이 나 일본사람의 종과 같이 노동만 하여줄 뿐이요,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함을 개탄하여서 제주도의 유지들은 여러 해를 두고 모든 방법으로 비참한 경우에 있는 해녀를 구제하여 주려 하였으나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성의가 적은 모양이요 더욱이 영구히 해조회사의 노예를 만들려 함에 대하여는 민간에서도 그저 있을 수가 없으며 제주도의 살고 죽는 큰 문제이므로 방금 近藤 도사와 도참사 김근시 씨와 해녀조합관계로 김정혁삼씨가 광주로 와서 도청당국과 교섭하는 중이요, 해녀들이 직접으로 나아가서 활동하는 부산·진주 지방은 관할구역이 다르므로 따로 교섭키 위하여 장차 부산·진주 방면으로도 갈 예정이라더라.

해녀문제의 낙착(동아일보 1920년 5월 5일)

해녀조합은 허가되야 돌아갈 면목이 있다고

해녀조합발기인 金泰鎬씨 談

일찍이 본보에 기재되었던 제주도 해녀문제는 세인의 주위를 끌던 바어니와 지난달 28일 경남도청 지사실에서 회의를 열고 近藤 제주도사, 車田慶 경상남도 사무관, 林 조선수산조합장과 조선해조주식회사 편에서 岩崎·高田 등의 여러 사람이 모여 여러 시간을 협의한 결과 제주해녀어업조합의 주장이 전부 통과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진상을 알고자 지나간 2일 오후 4시 50분

호남선 열차로 광주로부터 목포에 온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의 발기인 김태호 씨를 목포호텔로 방문하고 사실의 경과를 물은 즉 씨는 감개무량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

나도 이제는 제주도로 돌아갈 면목이 있게 되었소. 내가 지난 달 21일에 제주도를 출발하여 제주해녀들이 가서 벌이하는 경상남도 해안 도처를 닷새를 두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하여 보았으나 결과가 어찌될지 몰랐소. 우리 해녀조합은 세상사람이 아는 바와 같이 30여 년 동안을 두고 간악한 상고무리의 농락과 속박을 받아서 생활상 아주 머리를 들지 못하는 해녀를 보호하여 구제할 목적이요 그 실행 방법은 동 조합에 규약과 같이 벌이 나가는 해녀에게 자금을 유통하여 줄 일, 그들이 벌이하는 해안에서 어물을 잡는 권리를 완전히 보존할 것, 잡은 어물은 공동판매에 붙일 것 등이 그 주요한 것이요 그리고 그 동안의 여러가지 수속 변경도 있었지만은 허가청원을 제출한 지가 올봄에 꼭 2개 년이 되었소. 그런데 조선사람은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2개 년 동안이나 허가를 얻지 못하여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하였소. 그런데 근일 허가가 되리라는 소식을 듣고 다행히 금년 봄부터는 저 가련한 해녀를 구제할 줄로 믿었더니 의외에 부산해조무역상들이 조선해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본 조합보다 먼저 허가를 마쳤는데 이에 이르러 우리 조합과 그 회사 사이에 일대 충돌이라 할는지 분쟁이라 할는지 아무렇든지 해녀의 머리 위에 청천병력이었소. 그것은 해녀조합에서 공동판매한 해물을 전부 그 회사에밖에 다른 데는 팔지 못하게 되는 일이요. 물건 시세에 상당한 가격으로 정직하게 매매할 것 같으면 용혹무괴한

일이지요마는 그 회사의 주장되는 해조무역상들은 거의 다 해녀 이익을 농단하여 먹는 간악한 장사들이요, 그런즉 아무리 해녀들이 속지 아니하려 해도 마침내 그 자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게 되었소. 그러므로 해녀들이 이 말 듣고 거절과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यो. 더구나 우리 조합이 그 회사의 일개 부속기관이 되는데야 더 말할 것 있겠소. 그러나 이 내용은 전혀 경남도청 당국자들의 피상적 관찰로 교묘한 간상의 말을 옳게 듣고, 극력으로 그들의 계획을 원조하여 본도 당국과 그 회사 사이에 주선하여 제주도와 본도 당국자들이 찬성의 각서까지 하게 하였소. 물론 이쪽 당국자들도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이렇게 한 것이겠지요. 형편이 이렇게 되면 해녀를 구제하는 계획은 헛되어 실패되고, 만여 명 해녀들은 종내 그 고생을 조금이라도 면치 못할 것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짐작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그 해녀에 대한 그들의 계획과 수단은 결국 개꼬리를 삼 년을 묻어 두어야 황모가 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이 아무변경이 없을 것이요. 그리하여 해녀의 생활은 마침내 황하수가 맑아질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될 것이라 함은 그것은 종래의 무역상 개인 개인의 하여 내려온 행위와 해녀의 참담한 생활을 보아서 장래에 대한 일종 짐작을 말함이라고 혹 그렇게 말할 이도 있으리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아주 알기 쉬운 예를 들어서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곧 해녀를 속박하기 위하여 항상 그들이 쓰는 수단은 그대로 또 쓸 터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령 수일 전에 해녀에게 대하여 물에 들어가 일하는 증서를 강제로 팔고 혹은 무식한 해녀에게 부정한 계약을 받아서

해녀에게 빚을 지우게 하려고 하는 일ियो. 이리므로 해녀는 이 일에 대하여 시위운동까지 하였고, 나는 부산에서 수백 명의 해녀단체가 우리를 구제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목도하였소. 어찌했던지 이 문제는 제주도에서 나가서 벌이하는 해녀를 구제하려는 제주해녀조합이 무리하게 공동판매권을 빼앗으려는 해조회사의 계책을 제어하는 것과 해녀가 나가 벌이하는 자금을 그 회사에서 취하여 주어 무리한 이익을 취하는 속박을 면하게 하는데 있소. 다행히 이번에 近藤 제주도사의 진력과 본도 당국의 성의있는 양해를 힘입어 우리 조합의 주장이 통과되어 이 사건이 결말나는 것은 제주동포들의 바라던 바이며 세상의 우리 조합에 대한 조소를 면하게 되는 바이라. 우리들 일행은 가장 만족히 아는 바이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조선해조주식회사와 그 관계자를 미워하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만여 명의 해녀의 생활에 큰 관계가 있는 도덕의 어그러지는 계획을 아주 버리고 정직하게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올시다.

해녀조합의 소식(동아일보 1920년 6월 1일)

일시 전남·경남 양도에 일대 문제를 야기하던 제주도해녀조합은 근래 막연무문하더니 마침 모 信筋으로부터 도착한 확실한 소식을 거한 즉 거월 21, 22 양일간 계속하여 제주도청 회강당에서 조합원 총대회를 개하고 본년도 예산과 직원임용 기타 제사항을 결의하였으며 본년도의 조합자금은 금 3만 원을 해도 식은 지점으로부터 기채하기로 하고 부산출장소 관내급 해도 내의 조합원(해녀) 어로품은 조합의 공동 경매에 부하기로 결정되었다더라.(목포)

해녀문제 해결乎(동아일보 1921년 3월 19일)

당국자의 주선으로 거간을 없이하고 직접 판매하기로

제주도에서는 해녀라는 것이 있어서 연연히 경상남도 울산, 장승포에 나와서 옷을 벗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해조와 전복 등을 따는 사람이 4천여 명 이상이라. 이러므로 이 해녀 문제는 제주도의 중대한 문제요 연년히 그들의 버는 수익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 전기 울산·장승포 등지에 있는 지방 인민은 남의 지방에 와서 이와 같이 다수한 수산품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하여 해녀와 그 지방의 인민 사이에 서로 분쟁이 있으므로 당국이 조정하여 해녀는 그 지방 인민에게 入漁料라는 것을 바치고 이것만은 무사히 해결이 되었으나 그 후로 해녀들은 그들의 특별한 재조를 발휘하여 채집한 해조는 그때부터 임시 점포를 설치한 객주에게 팔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객주라는 것이 무지몽매한 해녀들을 속여 서로 매매할 때에 혹은 근수로 속이고 혹은 가격으로 속여서 그들의 6, 7삭 동안 뜨거운 별 아래와 찬 물 속에서 얻은 바이익은 전부 간악한 객주에게 빼앗기게 된다. 또 이 객주라는 자는 해녀의 남편되는 자를 이용하여 해녀가 나와서 벌이하는 동안에 그 집안 생활비와 또는 준비금으로 미리 돈을 꾸어주어서 해녀의 몸은 전부 객주하는 자에게 매여 살게 하고 싫든지 좋든지 그들의 얻은 바 수확물은 그 돈 취해준 객주에게 팔게 된다. 그런데 이 객주들은 어디에서 돈을 변통하여 그와 같이 해녀에게 꾸어주느냐 하면 부산에서 해조업을 하는 일본 사람에게 빚을 얻어서 주고 나중에 해조를 싸게 해녀에게 사서 중간의 이익을 먹는

것이요 또 해녀가 타고 다니는 어선에는 소위 거간꾼이라는 것이 있어서 객주와 해녀 사이에 거간료를 따먹음으로 결국 해녀의 일 년 동안 일하여 얻은 바 소득은 이와 같이 중간에서 악한 무리의 배를 채우고 그들은 섭섭히 빈 주먹으로 돌아가게 됨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주도 인사들이 수산조합을 일으키고 부산의 해조업자 일본인들도 해조회사라는 것을 조직한 것은 본보에서도 이미 보도한 일이 있거니와 근일 또다시 해녀와 해조회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결단코 객주나 거간하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으로 회사에 팔되 보통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몇 할인만 싸게 하여 달라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해녀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 이익의 배당을 받겠다는 요구이라. 이 때문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교섭이 되고 두 도의 내무부장이 부산에서 서로 만나보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경상남도 佐佐木 지사의 말을 듣건대 해녀의 소득품은 4할인으로 회사에 팔게 하여 해녀가 요구하는 대로 되었다는 말이 있고 또 객주 문제에 대하여는 그들이 70여 명이나 있으므로 그들을 일시에 배척하면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불분명한 대답을 하는데 이후로 이 문제의 진행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더라.(광주)

제주해녀의 어업을 금지(조선일보 1923년 5월 10일)

기장어업조합의 역원 수인이

오백여 명의 해녀는 크게 곤란

거금 오십 년 전부터 제주도 해녀가 전 조선 연안 각지에 가서 해초와 전복 소라 등을 잡아 팔아서는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여 오던 중 객주 영업하는 자 중 불량배는 자기들의 사복을 채우고자 하여 여러 가지 수단으로 무리한 압박을 받아오더니 제주도의 유지 김태호 씨와 전 제주도사 근등진이랑씨가 고심초사한 결과 거금 사년 전에 제주해녀조합을 설립하여 모든 편리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리대금과 무리한 수수료금의 피해를 방지하였으므로 해녀들의 생활이 안녕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금년도 전과 같이 5백여 명의 해녀가 고기잡는 요금 1,500원을 내고 잡으라 하였더니 기장어업조합에서는 요금도 아니받고 고기잡이를 엄금할 뿐 아니라 주택도 아니 빌리고 주화까지 서로 놓지 아니하고 어업조합에 가입하라 선전하다가 지나 일일에는 마침내 해녀의 어구와 채취한 물건을 빼앗으므로 해녀측에서는 무리한 금지라고 반항을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완력으로 구타하여 동군 大邊里에서는 구타당한 해녀는 낙태까지 되었는데 지금에 그 자세한 내용을 들은 즉 기장 인사 전부가 금지한 것이 아니고 기장어업조합 역원 몇 사람의 소위인 바 그 사람들은 이전에 제주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 회수를 하던 사람이 제주해녀조합이 생긴 후로는 해녀와 관계가 단절되어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해녀를 자기 조합에 가입케 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수단이라

는데, 이 급보를 들은 제주해녀조합 부산출장소에서는 한편으로 다수한 역원을 출동시켜 분경을 막으며 또 한편으로는 동래경찰서에 교섭을 개시하여 선후책을 강구 중이라더라.(제주)

비참 애상의 주인공인 제주해녀의 생활 / 연연이 부채에 / 해녀조합 총사직(동아일보 1924년 4월 28일)

비참 애상의 주인공인 제주해녀의 생활

이천 리 해상을 일엽편주로 나와서 이중압박에 우는 가련한 제주 해녀

요사이 부산어업조합과 제주도해녀조합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그 내막은 매우 복잡한 모양이다. 부산어업조합은 작년도에 겨우 설립되고 제주도해녀조합은 대정 11년(1922)도부터 창립되어 제주도에 본부를 설치하고 부산에 출장소를 두고 수천 명 해녀에게 생활난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부하고 음란방탕을 예방하기 위하여 풍속을 개량시키고 해상풍파에 위험을 무릅쓰고 참담한 생활을 수중에 맡기는 사업이므로 만일의 경우에 생명을 보존하여 주기 위하여 환란상구를 도모하고, 해녀들이 살을 에이는 듯한 엄동설한이나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아드는 오륙월 염전을 불구하고 넓고 깊은 바다물 가운데서 채취한 해초 판매에 이익을 도와주기 위하여 조합 설립의 목적을 성립하기 위하여 해초 공동 판매를 경영하는 등 해녀를 위하여 다대한 편의를 위하는 각종의 사업을 실행하여 오는 중인데, 부산어업조합에서는 이익을 취코자 하여 어떤 방면으로 야심을 둔 까닭이든지 해

녀들을 대하여 말하기를 부산어업조합에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경남해안에는 어디로 가든지 입어를 용서치 않겠다고 강제적 수
단으로 수없는 압박과 고초를 주어가며 조합에 가입하기로 권유
하였으나 인생의 일흠만 쓰고 이 세상에 나오는 날부터 보고 배
운 것은 물 가운데서 헤엄하고 배에서 닻줄 다리기와 노젓는 것
밖에는 모르는 가련한 해녀들은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한 해녀조합이 있는 이상에는 남의 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단연 거절하여 오던 원인으로 작년부터 충돌과 분쟁이
일어나서 동래군 기장 방향의 어업조합에서는 말하기를 우리 조
합에 가입치 않으면 제주 보작이들은 바다 근방에도 받을 못들
여 놓게 한다고 하는 등 갖은 핍박을 받아오다가 금년에도 사월
십육일이 해조류 채취를 시작하는 법정 기일인데 금년은 해조
발육 상황이 양치 못하다 하여 아직 채취하기가 좀 이르다고 오
는 오월 초하루날부터 시작하게 되어야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제주도 해녀조합원을 총계하면 이천여 명이고 기타 종업자 천여
명을 합하면 약 삼천여 명의 해녀들은 두 어깨에 대바구니 하나
씩만 걸머지고 수륙 수백 리의 원역을 건너와서 자기들의 생명
이나 다름없는 해초를 절취하기 위하여 법정 기일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부산어업조합에서는 강제적 수단으로 해녀 십여 명
을 감언이설로 유인하여 조합에 가입케 하고 그 가입된 해녀들
에게는 법정기일 전에 해초 채취를 용서한 까닭에 기일만 기다
리고 있던 해녀들과 서로 충돌이 생겨서 지난 24일 아침에는 해
녀 20여 명이 부산 동삼동 방향으로 지나가는데 그 지방 사람들
은 무조건으로 배를 육지에 끌어올리고 앞길을 막으며 행선을

못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에 비치 못할 욕설과 폭행으로 고통과 압박을 준 일이 세상에 발포되게 되었다. 오늘 까지 수없이 당해오는 고통과 압박은 오늘이야 비로소 두 줄기의 뜨거운 눈물과 가슴쓰린 울음소리가 세상에 들리게 되었다. 그 광경을 당한 해녀들의 생각에는 우리 조선사람들은 일본사람들에게 자유를 구속받고 압박을 당해오는 여지에 더구나 우리 해녀들은 일본사람에게도 압박을 받고 조선사람들에게도 압박 구속을 받으니 이와 같이 구구한 이중생활을 하는 것보담 차라리 이 깊은 물 가운데 빠져 죽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심으로 일시는 대혼잡을 이루었다 한다. 눈물을 해상에 뿌리던 해녀 일동은 호소할 길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부산남빈정 제주도 해녀조합 출장소에 물밑듯 모여들어 구제하여 달라고 애원하던 즈음에.

연연히 부채에 오도가도 못한다고

해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자를 보고 하는 말이 “우리는 제주도에서 생활이 곤란하여 여자의 신분도 돌아보지 않고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을 이별하고 떠나면 이천 리의 대해를 일엽풍선으로 사고 무친척한 이 경남 해안에 출가하여 수십 길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지방 사람들의 기술로서는 도저히 구경도 못할 해조류를 채취하여 생활하여 오는 지가 우금 사십여 년이올시다. 그러나 지방 사람들은 우리를 대할 때마다 제주년이니 보작이년이니 하고 사람의 대우를 아니해 줍니다. 압박에 압박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힘들여 얻은 물건을 상당한 값으로 팔지도 못하고 지방 問屋 등의 무리한 수단과 간계에 빠

저서 빼앗기듯 주어버리고 문옥들에게 부채만 해마다 더하게 되어 십여 년 동안으로 지방 채주들에게 강제집행이 되어 오도가도 못하고 제주도의 운천만 바라보고 가슴쓰린 눈물만 흘리는 사람도 수다하였습니다. 가련한 우리들을 누가 구제하여 줄 사람이 없더니 제주도 인사의 고심진력으로 당국의 양해를 얻어 대정 9년(1920)에 비로소 우리를 구제할 제주도 해녀조합이 설립된 후로 우리들은 다대한 편익과 이익을 얻고 지방사람들에게 노예대우를 얼마쯤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만 의외에 부산 동래 2개 조합과 울산 5개 조합을 합하여 7개소에 지방어업조합이 성립된 후로는 우리를 지방어업조합에 가입하라고 모든 수단으로 유인함으로 우리는 영영 거절하였더니 금년에도 이와 같은 압박을 또다시 받게 되었다.”고 설움에 북받쳐 울음 섞인 말을 겨우 끝을 마쳤다.

해녀조합 간부 총사직

그 다음 해녀조합에서 역사적 경력이 깊은 김태호 군의 말을 들은 즉 “우리 해녀조합의 창립 이래 겨우 오개 성상을 지난 성적을 볼 것 같으면 수중으로부터 취적하는 총액이 대정 10년(1921)도 공동판매고가 구만여 원이고 십일년도에는 십구만여 원이고 십이년도에 이십이만여 원이고 십삼년도에는 부산 동래, 울산 이군 일부의 입어지 관할 내에 약 삼십만 원 가량 채취될 여망이 있습니다. 일년간 이만한 성적을 보는 까닭에 이번 문제도 아마 이해관계로 伊藤 조합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각 신문지상으로 보더라도 조합의 간부 일동이 총사직을 한다는 말을 들은 즉

내막이 매우 분규한 증인데 본조합에서도 전라남도청에 교섭한 결과 불원간 해결될 모양이라고.”

해녀문제와 6조의 타협책(동아일보 1924년 5월 4일)

기보와 여히 제주도해녀조합과 地元어업조합 사이의 분규 사건은 수일 전에 矢島 경남내무부장이 상경하여 총독부에서 제반 사항을 협의한 결과 지난 1일에 來釜하여 동일 오후 3시부터 부산부청 부윤실에서 금반 분쟁사건으로 사표까지 제출한 이등 지원어업조합장과 기타 간부 일등을 회집한 석상에 신문기자 참석을 일체 거절하고 좌기 각항을 협의하였다고.

협약안

제일, 제주도해녀어업조합원으로 경상남도 부산부 동래군 금울산군 관내에서 어업조합의 지구 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정주하고 해녀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주도해녀조합과 지원어업조합과 협의상 지원어업조합에 가입케 할 사.

제이, 지원어업조합에 가입한 해녀로 제주도에 귀환하는 자는 지원어업조합을 탈퇴한 자로 함.

제삼, 지원어업조합에 가입할 자 금 탈퇴한 자의 씨명은 매년 3월말까지 결정한 후 지원어업조합으로부터 제주도어업조합에 차를 통지함.

제사, 지원어업조합원인 해녀의 채취물 중 천초·앵초·은행초는 조합에서 취합하여 조선해조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하기로 함. 단 지원어업조합에서 현재 공동판매하는 것은 차한에 부재함.

제오, 전조의 채취물 판매의 취체에 관하여는 관계 양 어업조합 급 조선해조주식회사가 협력하여 차를 간섭함.

제육, 대정 13년에 한하여 지원어업조합에 가입할 자의 씨명 결정은 차를 5월 말일까지로 함.

전항에 의하여 지원어업조합에 가입한 자의 대정 13년도 입어료는 차를 환부함이 가함(부산).

거주지 문제로 해녀조합 又 분규(동아일보 1924년 5월 13일)
제주도의 해녀조합과 부산 지원어업조합과의 분요는 전남과 경남 당국으로부터 作製된 계약서에 의하여 대체 해결되었으나 거주의 점으로부터 다시 분요가 생기는 모양이다. 그 계약서 중 「3개년을 그 지방에 거주한 자는 거주소대로 어업조합에 가입케 한다」는 일개 조의 문제로 해조조합과 해녀조합은 강경한 반대로 대표자 일동은 지난 10일 부산부윤에게 진정을 제출하였다고.(부산)

어업분쟁 문제(동아일보 1924년 6월 14일)

해결의 희망이 있다

기보한 바와 여히 제주도해녀조합과 부산어업조합과의 입어분쟁 문제는 그 후 조합원의 자격 문제가 발생되어 분규가 점차 심하여 가던 바 경남·전남 양도 당국에서는 본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의견의 일치점을 발견하기에 고심하여 오던 바 지난 11일 矢島 경남·松井 전남 양 내무국장은 직접 책임 관계가 유한 前田 제주도사와 부산어업조합 관계 간부 일동이 함께 부

산 철도호텔에 회합하여 계속 협의한 결과 해결의 희망이 유하다고.(부산)

제주도의 해녀를 축출(조선일보 1927년 5월 6일)

협정을 破하였다고, 경남도 당국에서

해조류의 최성기에 들어가 경남도 연해에는 목하 삼천의 제주도해녀가 들어와 捕魚의 활동을 하는 터인데 부산으로부터 동해안까지의 제주도 해녀의 입어는 1,700명을 한하여 慶·全 양도에서 협정하였는 바 벌써 동래만 90명이 초과되었으므로 본도 수산과에서는 목하 조사중으로 또 울산 방면의 제한수 이상에 입어한 듯하므로 반칙 해녀는 전부 축출하기로 되었다더라.(부산)

나잠 어업취체령으로 수천 해녀 생도 막연(중외일보 1927년 12월 27일)

허가가 있어야 해녀 노릇도 한다

제주 일대 해녀 사할 문제

종래로 默許되어 내려오던 제주도 해녀들의 나잠어업은 무려 수천 명의 해녀가 제주도를 근거로 南鮮 연안 도처에 산재하여 우수한 묘기로 사시장천 추우나 더우나 수중생활을 하여 해초와 패류 등을 채취하여 가지고 일가족이 생활하여 옴을 비롯하여 제주도 내에 약 오천 명이 거주하는 외에 전남연안과 경남연안 각지에 약 삼사천 명이 잠재하여 가지고 있어서 매년 그들의 수

입이 이삼십만 원이란 거액에 달하던 바이나 지난 20일부로 총독부로부터 어업취재령 시행세칙이 발표됨을 따라 종래로 届出만으로 만족하던 것이 이로부터는 면허제도로 변경됨을 따라 오는 1월 10일부터는 허가 없이는 무단히 해중에 잠입하여 해초 등물을 채취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기위 下附신청을 한 사람만을 기한을 유예키로 되어 일일이 도지사의 허가를 요하게 되어 다수의 그들은 치명적 대타격을 받게 됨을 따라 영향이 막대하여 일대 사활문제화 하였다는데 방금 부산 牧島 일대에도 해녀가 수백 명이 집중되어 있는 바 그들도 생로가 막연하리라 하며 전반적으로 문제는 중대한 영향이 파급될 모양이라더라.(목포)

「해녀의 타격은 사세부득」 경남 수사과장 談

금번 어업령 취제로 인하여 해녀의 해중 나잡으로 해초·패류 등류를 채취함을 방어키 위하여 허가제도가 됨을 따라 실업될 해녀가 다수에 달하게 되었다 함은 별항 보도한 바이어니와 이에 대하여 相澤 경남 수산과장은 말하되, 「이같이 제도를 변경하여 그들의 종래의 어업을 금하게 된 것은 해초 등물의 번식을 보호코저 함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약간 그들에게 영향이 불무할 것이나 할 수 없지요」라고 말하였다더라.

해녀 입어로 문제로 경남도 당국에 진정(동아일보 1928년 5월 5일)

去 3일 오후 1시경에 제주도 구좌면 연평리 해녀출가단 대표 梁昌浩 외 5씨와 제주해녀어업조합 부산출장소 서기 文泰彬 씨

는 경남도 수산과장을 방문하고 객년 1월 중에 총독부 수산국과
 경남도 수산과에 대하여 해녀 채취입어로 문제에 관한 진정이
 有하였으나 1년 이상의 세월을 경과하여도 하등의 처치가 無하
 매 此를 급속 실현하도록 재차 진정하였다는데 우 해녀 등이 명
 치 29년(1896)에 統營郡 東部面 猪仇리에 내왕하면서 통영군 각
 해안 방면에 천초 及 은행초를 발견하여 채취하다가 그 뒤 업적
 이 점점 양호하므로 동 31년(1898)으로부터 35년(1902)까지 해녀
 백여 명을 입어케 하던 중 해지역이 英親王宮 소속지이므로 영
 친왕궁에서 위원을 보내서 매년 구역별 금 오십 원을 수세타가
 융희 원년(1907) 즉 명치 39년도에 거제도에만 한하여 毛○田 조
 합을 설립하고 地元 주민과 해녀가 전부 조합원이 되어 피차간
 채취하는 동시에는 구역을 別하고 그의 대소와 好否를 전형한
 후 每區 自 5원으로 至 7, 8, 10원씩 조합에 수입케 하여 오다가
 융희 3년(1909)도에 至하여 통영군 支那町에 있는 徐廷遇씨가 주
 장하되 통영은 금후부터 기항지가 되었으니 생산발전책으로 해
 녀채취물은 통영에서 판매하는 것이 最要하다 함으로부터 船頭
 12인과 계약을 체결 후 해녀의 채취물은 전부 서정우 씨에게 위
 탁판매케 하고 서 씨는 입어료를 전부 부담하여 대정 14년(1925)
 까지 이행하여 오던 바 15년도로부터 지원 주민은 지방 권리를
 주장하고 입어료를 전보다 2배 내지 10배를 징수함에 대하여 차
 는 해녀에게 중대한 문제라고 진정한 것이라더라.(부산)

제주해녀 襲來로 총독부에 진정(동아일보 1928년 5월 19일)

해마다 제주해녀들이 습래하여 절해고도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
흑산도민 사할 문제

절해고도인 전남 무안군 흑산도 주민이 제주 해녀의 침습으로 생계를 잃게 되었다 함은 기보한 바이어니와 흑산면 湄上島 주민 대표 이양백·김태현 양씨는 주민 57명의 연명으로 17일 오전에 조선 총독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서의 내용을 보면 태상도와 태중도 주민 사백여 명은 순전히 바다 속에서 채취되는 천초로 겨우 호구하여 가는데 제주도 해녀가 일본사람의 발기로 해녀조합을 만들어가지고는 그것을 빙자하여 해마다 흑산도를 침습하여 도민이 채취하던 해산물을 모조리 캐어감으로 여러번 분쟁이 일어났으나 입장하는 경비선은 도리어 조합측을 옹호하므로 호소할 길이 없어 총독부에 진정하는 것이라더라

18개조 요구코 삼백 해녀 시위(조선일보 1932년 1월 14일)

조합 간부의 무리를 통론한 후 지부장 등 해결 언명 듣고 해산
제주해녀조합사건 후문

제주도 구좌면 하도리에서는 감태재와 생복 판매에 관한 다섯 가지 요구 조건을 들어 제주도 해녀조합에 항의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이어니와 일월 칠일에 하도리 해녀 300여 명이 호미와 비창을 들고 구좌면 일대에서 일대 시위 운동을 일으켜 세인의 이목을 놀라게 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듣건대 소화 6년(1931)도 생복과 「감땃재」 판매에 있어서 생복은 지정매수인이 매수 거절한 사이에 생산한 것을 조합의 처치를 기다리다가 모두 꺾어지고 「감땃재」는 지정등급 변경, 지정가격 감하로 인하여 판매를 중지하고 있는 등 손해가 막심하므로 생산자가 해녀조합에 대하여 오랫동안 품어오던 불평이 필경에 폭발하여 항의문까지 발송하였는데 기한이 경과하도록 조합에서는 일언반구의 회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며 하여야 할 책임까지 이행할 성의가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생산자측에서는 해녀조합의 정체를 폭로하자 어디까지 요구조건을 관철하자고 호소하며 굳게 결합하여 마침 세화 장날인 7일 정오부터 300여 명이 해녀의 유일한 무기인 호미와 비창 등을 들고 어깨에는 양식 보자기를 매고 하도리에서부터 시위 행렬을 지어 세화 시장에 도착하였을 때 세화주재소 경관대의 극력저지도 듣지 않고 부근리에서 모여든 해녀들과 호응하여 한층 기세를 높여 장보러온 수천의 군중을 에워싸고 10여 인의 연사들이 번갈아가며 해녀조합에 대한 모든 불평불만을 통론하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성명하며 백 리나 되는 해녀조합본부를 습격하려고 행진하는 도중 세화주재소 경관대는 원만히 해결을 지우자고 요구함으로 300여 명은 일시에 주재소에 쇄도하여 현장에서 선출한 10여 인의 대표는 우리의 요구조건을 관철시켜 주겠다는 책임있는 언명을 주면 시위를 중지하겠다고 하자 경관측에서는 조정에 진력은 하겠으나 승낙을 할 수는 없으니 어서 조합으로 가도 좋다고 해서 해녀들은 다시 시위행렬로 평대리 면사무소에 쇄도하여 면지부장을 면회하고 면지부장의 책임으로써 요구조건을 해결하여 달

라고 힐난하고 결국 지부장과 지부계원과 하도리 구장이 책임을 지고 교섭할 것을 승낙하고 해녀들은 조합에 가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돌아와서 오후 다섯 시에 시위대는 해산하였는데 전후 다섯시에 끝난 광대한 시위는 실로 전 해녀 대중에게 큰 충동을 주었으며 동시에 해녀조합의 무책임 무성의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데 그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요구 조건

○ 搗布灰에 대한 것

- 판매 문제는 지금부터 2주 내로 해결할 것
- 가격 등급은 지정한대로 할 것
- 계약금은 생산자에게 보관케 할 것
- 二宮 악덕 상인에게 금후 상권 절대 불허
- 계약 무시코 상인 옹호한 升田 서기 즉시 면직
- 등급을 마음대로 구별한 무능 서기 반대
- 물품 인도 불이행

○ 생복에 대한 것

- 금후 2주일 내로 완전 해결할 것
- 지정매수인 고태영에게 손해 배상 청구할 것
- 계약금을 즉시 내어줄 것
- 악덕상인 고태영에게 금후 상권 절대 불허
- 일체의 지정 판매 절대 반대
- 일체의 계약보증금 생산자 보관

- 미성년, 40세 이상자에게 조합비 부과 반대
- 병 기타로 인하여 입어 못한 자에게 조합비 면제
- 위선적 우량조합원 표명 철폐
- 總代 리별 공선
- 조합 재정 공개

순시 중 도사 포위하고 일천 해녀 결속 시위(조선일보 1932년 1월 15일)

제주경찰은 장검하고 제지

만세 고창 후 遂 해산

제주도 구좌면, 정의면의 6개리에서는 천여 명의 해녀들이 지난 12일 세화리 장날을 이용하여 「호미」와 「감태식재」를 들르면서 해녀조합에 대한 두 번째의 항의적 「데모」를 하는 동시에 때마침 순시하고 있던 제주도사를 포위하고 지정판매 절대 반대의외 십여 개의 조건을 들어서 진정하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검을 뽑아가지고 이를 제지하였으므로 더욱 분개하여 대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나중에는 요구 전부를 관철하고자 만세를 고창하면서 해산을 당하게 되었다 한다.

제주해녀시위 詳報(조선일보 1932년 1월 24일)

오일내의 완전 해결 언명 듣고 유유 해산

지난 12일 제주도 구좌면 세화리에서는 구좌, 정의 양면의 해

녀 천여 명이 제주도 유사 이래 처음 보는 대시위를 일으켰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이어니와 이제 그 자세한 바를 들으면, 제주
 도에서도 가장 해산물이 많이 나고 따라서 다수의 해녀가 살고
 있는 구좌, 정의 양면에서는 소화 5년(1930) 이래 정의면 해초부
 정 판매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해녀측과 제주해녀어업조합
 간에 충돌이 있어 오던 중 소화 6년(1931)도 구좌면 하도리에서
 는 생복과 감태재 판매에 있어 지정상이 지정가격 감하, 지정등
 급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자 생활 조건을
 해산물에 의탁하고 있는 해녀 대중에게는 그들의 생활을 위협하
 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녀조합 주재원과 상인을 상대로 5, 6차례
 나 항쟁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가므로 격분된 해녀들은 해녀조합
 에 항의문을 보내서 무책임한 처지를 통격하고 기한부로 확답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내내 그 태도를 고치지 아니하므로 지
 난 1월 7일 하도 해녀 300여 명이 대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
 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해녀 대중의 불평이 전체화되고 심각화
 함에도 불구하고 해녀조합에서는 지난 12일에 소화 7년(1932)도
 의 해산물 중 포패류에 대한 지정판매를 한다는 광고문을 얼마
 전부터 널리 부쳐놓았기 때문에 지정판매로 인하여 여러 해 동
 안 많은 손해를 받아오던 해녀들은 크게 불만을 품고 일체의 지
 정판매를 절대로 반대하자는 소리가 날로 높아가며 지정판매 기
 일을 앞두고 각리에서 해녀회의와 모두 항의를 하는 등 구좌, 정
 의 방면에는 갑자기 공기가 긴장하여졌다. 그리고 지정판매 기일
 인 12일은 때마침 제주도사요 제주해녀어업조합장인 田口 도사
 가 신임 후 도 순시로 구좌면을 통과할 일정일이요 세화장날이었

으므로 구좌면의 하도·세화·종달·연평, 정의면의 오조·시흥
합 6개리 해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녀조합에 대한 일
대 시위를 하는 동시에 도사를 면회하여 자기네의 지금까지 속
아오던 모든 불평불만을 말하고 요구 조건을 제출하려고 결심하
고 있었다 한다. 이와 같은 해녀들의 작전 계획이 널리 알려지자
12일의 세화장은 의외에도 이른 아침부터 전의 몇 배나 모여들
어 자못 긴장한 가운데 오전 11시 반이 되자 세화경찰관 주재소
동쪽 2정쯤 되는 네거리에 종달·오조 해녀 대략 300명과 하도
해녀대 300여 명과 세화 해녀대 40여 명이 일시에 동남북으로 모
여들어 「호미」와 「비창」 등을 휘두르고 만세로써 서로 호응하며
세화장 안을 향하고 만뢰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듯한 함성을 지
르며 노도격광의 기세로 갈 즈음에 마침 제주도사를 태운 자동
차가 뒤로 달려오다가 크게 실색하여 경관이 차에서 내려서 시
위대를 해치려고 진력하였으나 의연히 시위대는 세화장관을 점
령하고 각지로 모여든 만여 군중이 에워싼 가운데서 각 리별로
해녀들이 나와서 해녀조합에 대한 모든 불평과 죽음으로써 항쟁
하자는 격렬한 연설이 있었고 이어서 각 리별로 20여 명의 대표
를 선출하여 요구조건을 통일적으로 결정할 즈음에 정찰하는 해
녀로부터 도사가 돌아가려 한다는 정보가 있자 그 즉시 시위대
는 몰려가서 차를 타려고 하는 도사를 주재소 정문 앞에서 포위
하고 나섰다. 그러자 같이 온 경관과 주재소원들은 칼을 두르며
해녀들을 위협하고 밀치고 발로 차는 등 자동차 길을 해치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제지하려 했으나 해녀들은 「호미」와 「비창」을
들고 우리들이 지정한 요구에 칼로써 대하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대한다고 언명 노호하며 역습하여 그 형세가 자못 험악하므로 도사 이하 전원은 크게 낭패하여 잠깐 참아주면 좋게 하여 준다고 간곡히 말함에 해녀측에서는 작성한 각리에 공통된 7개 요구 조건과 하도리 해녀측에서 11개 요구 조건을 들고 곧 해결하여 달라고 강박하고 동시에 20여 명의 대표가 직접 도사와 문답을 하고 있는 판에 시흥리 해녀대가 동쪽으로 호응하여 오고 또 이어서 연평리 해녀 300여 명이 머리에는 수건, 등에는 양식을 짊어지고 「호미」와 「비창」을 휘두르며 만세로써 서로 호응하여 오는 광경은 보는 자로 하여금 소름이 끼칠 만큼 기세를 떨쳤다. 더욱 기세를 높인 해녀는 「속히 해결하라」고 연방 노호하며 대표 중에 3, 4인은 눈물을 흘리며 해녀들의 이런 불평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가려는 도사는 너무도 해녀 대중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분한 어조로 항의하는 등 격분한 해녀는 일보도 양보치 않고 강경히 뺏대어서 나중에 도사로부터 요구조건부를 5일 내에 요구대로 해결하겠다는 승낙을 얻고 즉석에서 5일 내에 완전한 해결이 없으면 더한층 맹렬히 항쟁할 것을 결의하고 시위행렬도 세화 동쪽 5정쯤 나아가서 금후 더한층 굳게 단결하고 해녀대중의 이익을 대문하여 분투하자는 굳은 맹세를 하고 만세성리에 해산하였다는데, 이 급보를 들은 제주경찰서에서는 무장경관 수십여 명을 급파했으나 벌써 시위대는 해산 후이므로 그냥 돌아가게 되었고 그 뒤에 형사대만이 구좌, 정의 양면에서 대활동을 개시하고 있으며 해녀측에서는 해결 통지가 오기만 고대하고 있다 한다.

요구 조건

1. 일체의 지정판매 절대 반대
2. 일체의 계약보증금은 생산자가 보관
3. 미성년과 40세 이상 해녀조합비 면제
4. 병 기타로 인하여 입어 못한 자에게 조합비 면제
5. 출가증 무료 급여
6. 總代는 리별로 공선
7. 조합재정 공개
8. 상인 옹호한 升田 서기 즉시 면직, 기타 생략

석방 요구하고 다시 소동(조선일보 1932년 1월 26일)

응원경비선이 급행

제주도의 해녀시위사건으로 24일에 다시 해녀들은 구좌면 세화주재소에 모여 지난번에 검거된 해녀조합원들을 석방하여 달라고 밤까지 대소란을 일으켜 사태가 극히 험악하므로 전남 경찰부에서는 만일을 염려하여 24일 밤 목포에 있는 경비선 금강환에 응원 경관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여 출동하였다.

해녀 등 천오백 명 시위 검속경관대를 습격(조선일보 1932년 1월 26일)

무장경관대 출동 위협하고 백여 명 일시에 검거

24일 제주도 구좌면 해녀들의 시위사건이 다시 폭발되어 경찰

서원이 출동하여 청년 수십 명을 검거하여 본서에 호송하던 중 1,500여 명이 자동차를 습격하여 파괴하자 경찰관은 총으로 위협하였다. 급보를 접하고 각지의 경관은 무장하고 모여 총검거를 착수하여 남녀 일백여 명을 검거하고 경찰은 계속 활동 중이며 한편으로는 본서로 호송 중이다.

제주해녀시위사건(조선일보 1932년 1월 27일)

34명 검거 취조 경계는 일층 엄중

제주도 구좌면 세화주재소를 습격하여 대소란을 일으킨 해녀 사건은 재작 24일 밤까지 경찰의 진압으로 그 후 표면은 평온한 모양이나 경찰에서는 주재소를 습격한 해녀 중 주모자로 인정되는 여자 34명을 인치하고 방금 취조 중인데 제주도 내에는 일만여 명의 맹렬한 시위운동까지 하게 됨에 장차 문제가 은연중에 만연될 염려도 있다 한다. 또 그저께 밤에 출동한 전라남도의 경비선 금강환은 35명의 경관을 싣고 제주도에 도착하여 그곳 경관과 같이 경비중에 있다 한다.

팔백여 명 해녀 大擧하여 피검자 탈환 기도(조선일보 1932년 1월 28일)

경관대에 육박 사태 악화 공포 발사로 遂 해산

27일 오후 두 시 제주도 해녀사건에 대하여 경무국에서는 보안과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발표가 있었다.

지난 12일 도사가 순시 중에 해녀들이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진정한 일이 있어 도사는 진정 내용을 상세히 조사 처리할 것을 언명한 바 있었으나 그 후 24일에 다시 해녀들이 세화주재소에 몰려와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이때에 29명을 검거하였는데 그 배후에는 좌경분자들로 조직된 민중운동협회의 남자들이 책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방면으로 검거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방에는 24일 전남 경찰부로부터 응원경관 약 40명이 금강환으로 출동하여 26일 다시 제2차로 우도에서 남자 11명을 검거하여 가지고 우도에서 떠나려 할 때에 백여 명의 해녀가 배를 둘러싸고 배의 길을 막으며 방해하므로 경관은 부득이 공포 10여 발을 놓아 해녀를 위협하였다. 그 때문에 해녀들은 피하였을 뿐 결코 사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비선은 세화주재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방금 4명 가량 검거 취조 중이다.

해녀 등 又復 시위(조선일보 1932년 1월 29일)

청년층 검거 계속, 27일에 종달리에서, 피검자 석방을 요구
제주도해녀사건은 그 후 평온한 듯하였으나 27일에 다시 구좌면 종달리에서 100여 명의 해녀가 떼를 지어가지고 동 사건으로 이미 검거된 40여 명을 석방하여 달라고 주재소로 몰려가고 있었다. 급보를 받고 경찰에서는 다수 경관이 출동하여 진압 해산시켜 평온하게 되었다 한다. 한편 제주도 경찰에서는 해녀단의 리 면에서 책동하고 있다고 보는 청년층을 계속 검거하고 있다고 한다.

검속하던 경관대와 해녀단이 대충돌(조선일보 1932년 1월 29일)

검속자 탈환하려다가 충돌, 제주 일대 경계 삼엄

제주도 구좌면 해녀사건은 동 조합장인 도사가 직접 요구조건 전부를 5일 이내에 해결하여 준다고 언명하였다 함은 당시에 보도한 바와 같거니와 그 후 해녀조합 당국에서는 일호도 회답하여 줄 성의조차 보이지 않으므로 일반 민심은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중 24일 오전 8시경에 제주경찰서에서는 경부 이하 수십여 명의 무장경관대가 자동차 수대에 분승하고 출동하였으므로 일반은 더욱 긴장되어 아래와 같은 대충돌을 일으켰다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의 대략을 탐문한 바에 의하건대 지난 12일 사건이 있던 후 세천 고등계 주임 이하 5, 6명의 형사대가 변장하고 구좌면 일대에 경계망을 늘리고 계속 활동 중이던 바 23일에 이르러 세화리 문도배·문도후, 종달리 신재홍·한형택·한원택 이하 수십 명을 검속하여 지사로 호송하고 이어 하도리 오문규 등 이외 수명을 검속하여 자동차로 본서에 호송하려던 중 사오백 명의 해녀와 동민들이 쇄도하여 검속자를 탈환하려 하므로 경관대와 일대 충돌이 일어나서 흥분된 군중은 비창과 돌맹이로 자동차를 습격, 파괴하는 바람에 검속자는 종적을 감춰버렸으며 순사 모자한 개도 검속자와 한가지로 행방불명이라는데 형세 자못 위급하므로 경관대는 총으로 위협하면서 해산에 노력하였으나 군중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더욱 완강히 대항하여 일대 혼잡을 연출하였는 바 이 급보를 접한 본서에서는 각지의 주재소원을 비상

소집하여 무장경관대를 편성해서 현장에 급행케 하여 이어 충돌이 있었는데 가장 용감하게 대항하는 분자의 의복에 도장을 찍어 두었다가 그것을 증거로 손 닿는 대로 계속 검거 중이라는 바 군중은 더욱 수를 증가하여 세화리 일대는 전시 상태로 화하고 있으며 이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해녀들도 속속 집중하여 도무지 해산할 가망조차 없고 읍내와 세화리 사이가 90여 리임에도 불구하고 경관과 검속자를 가득 태운 자동차가 연락두절이며 제주읍 동문 외에는 경관을 배치하여 통행인의 주소 성명을 조사하므로 일반은 통행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 하며 경계는 전 제주도적으로 삼엄하여 마치 계엄령이 내린 듯이 도민은 극도의 불안에 쌓여 이 구석 저 구석에서 2, 3인만 모여도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다. 그리고 이상 자세한 내용은 엄중한 경계로 인하여 탐사할 길이 없으므로 실상을 알 수 없으나 탐문한 바에 의하면 검속자가 50여 명이라는데 더욱 이채인 것은 해녀가 30여 명이 끼어 있는 것이라 하며 검속 선봉은 의연히 계속 중으로 출동 당시에 다수의 부상자가 생겼는 바 그 중에 2명의 임부가 낙태하여 생사의 길에서 신음하고 있다 한다.

데모사건 취조하다 운동자협의회 정로(조선일보 1932년 3월 4일)

다수 석방하고 상금 사십 명 유치

제주 해녀사건 후문

제주도 해녀사건은 수차의 데모사건과 검속자 탈환으로 또는 격문사건으로 한참동안 세인의 이목을 놀랜 후 백여 명의 검속

자를 내고 연일 준열한 취조를 거듭해오던 바 인제는 사건이 거의 일단락을 지은 셈인지 지난 수일 전에 하도리 해녀 夫春花(25)·夫德良(22)·金玉蓮(23) 등 삼인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석방되고 남자 청년으로서는 文武炫·愼允珍을 석방시키고 나머지는 전부가 그대로 있는데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이 소화 5년(1930) 9월 20일 경에 세화리 金時和 집에서 청년 10여 인이 간담회 끝에 비밀결사 민중운동자협의회를 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번 해녀사건에도 어떤 단서가 포착된 듯하다는데 지금까지 검속되어 있는 사람의 성명은 아래와 같다.

하도리 金順鍾 吳文奎 夫升琳 吳銀浩 金麗贊 吳斗萬 康一龍
韓文玉 林丁玆

세화리 金甲天 金時坤 金時和 金三龍 文益培 文道厚 文道五
李斗一

연평리 金聲五 康寬順 禹奉俊 李斗三 高子華 鄭贊植 申才弘
孔德奉 高基昌 姜熙俊 梁奉潤 尹大弘 高漢祚

종달리 韓香澤 韓基澤 韓元澤 韓滢澤 蔡在五 康泰一 高四萬
康宗遠

제주경찰에 구십 명 유치(조선일보 1932년 3월 5일)

이십 명 석방코 검거 계속, 해녀사건 後報

(제주도) 전남 제주도 구좌·정의 양면 해녀들이 이삼년 전부터 해마다 불평 조건을 들어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에 수차 항의하여

오던 바 지난 1월 7일에 삼백여 명 해녀의 시위 행렬이 있었음을 비롯하여 동 12일에는 천여 명의 해녀가 「호미」와 「빗창」을 들고 島司를 포위하여 일대 시위를 일으켰으며 그 사건 관계로 동 14일에 청년 몇 사람이 경찰의 손에 걸리게 되자 약 사백 명의 해녀가 피검자 탈환운동을 일으켜 다수 인원이 검거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 전남 경찰부의 응원까지 얻어 출동케 되었고 동 26일에 팔백여 명의 해녀가 무장경관대와 충돌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마다 상세하게 보도한 바이거니와 동 사건은 뒤를 이어 더욱 확대되어 제주도 경찰서에서는 삼엄한 경계망을 뻗치고 관계자를 계속 검거하여 康寬順·姜成玉·夫辛休·申才弘·吳文奎·文道培·夫春花(여)·愼允珍·文武炫 등 남녀 약 구십 명을 검거하여 각지 주재소에 나누어 유치시키고 이번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무슨 조직이 있거나 앉았는가 하여 엄중한 취조를 하여 그 중에서 지난 3일에 이십 명 해녀를 석방한 모양이고 음력 정초에는 구좌면 내의 몇 마을에 일반 민중을 선동시키는 의미의 격문이 산포된 까닭에 경찰당국에서는 다방면으로 활동을 개시하여 세화·하도 등지에서 청소년 삼명을 검거하여 취조를 하고 있는 중이나 지금까지 특별한 단서를 얻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주경찰 맹활동 청맹원 수십 명 검거(조선일보 1932년 3월 17일)

제주경찰이 돌연히 대활동, 각처 가택 엄중 수색

3월 11일 오전 9시 반경에 제주경찰서에서는 筐川 경무보를 비롯하여 정사복 경관대 수십 명이 돌연 대활동을 개시하여 청

맹원 십여 명을 검거하고 뒤를 이어 엄중한 경계하에서 남녀 맹원의 집을 엄밀히 수색한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이거니와 동 하오 7시경부터는 자동차를 동으로 서로 달리며 검거에 분명한 모양인데 내막은 절대 비밀에 부침으로 알 길이 없으나 무슨 단서를 얻었는지 12일에도 몇 명의 검거가 있고 읍내외 한림, 애월, 하귀, 화북, 조천 등지까지 경계망을 뻗치고 청년 수명씩 검거 호송하며 제주읍내에는 종일 경관이 동서로 맹렬한 활동을 개시하여 재차 가택 수색을 하여 다수의 서적과 문서 등을 압수하므로 일반 시민은 공포에 싸여 있다. 이제 검거된 수십 명 중 판명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제주도 일대의 검거 선포 확대(조선일보 1932년 3월 22일)

경찰서원 총출동으로 전도적 검거 계속

지난 삼월 십일일 아침 제주서에서는 정사복 경관대 2, 30명이 돌연 총출동하여 읍내를 중심으로 각 지방의 청맹원 수십 명을 검거하는 동시에 수십처의 가택을 두세 차례씩이나 일일이 수색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거니와 사건 발생 이후 4, 5일이나 지나도록 검거는 그치지 않고 점점 확대하여 본도 산남 지방과 각 촌에까지 뻗치게 하였고 먼저 검거된 청맹원은 유치장이 협착한 관계인지 심야에 자동차로 경관 스스로 운전하여 각 지방 주재소로 이송 배치시킨 후 전도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므로 일반은 일체 주목 중인데 아직까지 사건의 내막은 절대 비밀에 부침으로 자세히 알 도리가 없다.

제주도 삼천 해녀의 사활 문제 遂 해결(동아일보 1932년 4월 23일)

사중 오중으로 곤란 받던 것

양도 당국 협정 조인

(광주) 삼천여 명의 제주도 해녀가 경남해안에 출어할 적마다 경남에서는 타도 사람이라 하여 4중 5중으로 착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매년 세인의 이목을 시끄럽게 하여 오던 중 금번에는 전라남도 鄭 산업부장과 경남 산업부장이 총독부에서 회견하고 여러 날 동안 협정하다가 지난 20일에는 쌍방이 좌기 협정안에 조인하였으므로 제주도 해녀에게는 새로운 서광이 비추었다고 한다.

협정 사항

1. 제주도 출신의 해녀로서 경남에 호적을 옮겼거나 또 현재 경남에 거주하는 자는 純경남地元어업조합원으로 할 事
2. 제주도 해녀로서 2개년 이상 경남에 거주하였음을 公簡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는 경남지원어업조합원인 동시에 제주해녀조합원으로 해조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주해녀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원 할 事
3. 전계 2항에 해당하는 자가 금후 증가되는 때에도 此를 지원어업조합원으로 하게 아니할 事
4. 해조 판매에는 해녀이거나 아니거나를 물론하고 일체 此를 해녀조합에서 취급할 事
5. 해조의 밀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있던 종래 경남지원어업

조합 소속의 買수입은 폐지할 事. 단 어업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지역은 제외함

6. 이상 각 항 이외의 사항은 종전의 협정에 의할 事
7. 본 협정은 금후 총독부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효함

해녀시위사건 이후 제주엔 검거 不絶(조선일보 1932년 5월 1일)

한편으로 석방하고 또 검거

다수 청년 송국 예정

지난 일월에 제주도 구좌면 세화리에서 해녀 데모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제주경찰서에서는 번개 같은 경관이 출동하여 세화리, 하도리, 종달리, 연평리를 중심으로 남녀 약 백 명을 검속하여 엄중한 취조를 한 후 일부는 석방하고 그 나머지는 취조를 속행하던 중 의외에 민중운동자협의회라는 비밀결사가 소화 5년(1930)도에 세화리 金時化 집에서 조직되고 그것이 이번 사건을 배후에서 책동하였다는 것이 발로되었다 함은 당시에 본보에 상세히 보도하였거니와 지난 22, 23 양일에 해녀 세 사람과 李斗一 외 이십여 명을 석방하여 읍내에는 한시도 지체하지 못하도록 자동차를 태워 각각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바 아직도 비밀결사에 관련이 있다는 혐의자들은 유치 중이라 하며 또 대정면 모슬포에서 일어난 삼월 일일 ○○ 데모 사건으로 검속되었던 사람도 오대진, 이신호를 제하고는 전부 석방되었다 하며 지난 삼월 십 일일에 전도적으로 검거된 사건 중에도 김중흡, 김원희는 지난 15, 16일에, 부병훈, 이도백은 지난 23일에 석방되었으나 동일 오

후에 동서에서는 별안간 형사대가 급히 출동하여 제주청년동맹 여자맹원 김병랑, 장경렬, 김정자, 강순자 네 명을 검속하였다가 24, 25일에 각각 석방되었으며 동아통항조합에 대한 「테-제」 사건으로 유치 중이던 구우면 고산리 이태원도 23일에 석방되고 도내 각 주재소에 유치 중이던 피의자들도 연일 본서로 압래하여 오는 것을 보면 사건은 대체로 불원간 일단락을 지을 모양이라는 바 전기 사건의 관계자들은 석방될 사람도 있을 것이나 대개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리라고 탐문되는 터인데 사건 내용은 전기 각 사건의 관련자들이 주동이 되어 제주도 각 부문 운동에 대하여 비밀히 집회 결의한 것과 또 흑종의 결사 혐의도 있을 것이라 한다.

제주 전도에 검거선봉 남녀 50여명(동아일보 1932년 5월 18일)

광주법원 堤 검사 출장 지휘 27명 목포 압송

얼마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堤 검사가 제주도로 출장하여 오래 전부터 제주도 전도에서 검거된 남녀 50여 명을 엄중히 취조하던 중 제주도 모슬포에서 검거된 吳大進, 李辛祐를 비롯한 城內 洪淳日, 尹錫沅, 金台崙, 宋性徹, 金鑾煥, 金玟華 외 15명이 위선 목포 경비선 金剛丸으로 실어내여 지난 14일 오전 10시에 목포에 도착, 즉시 목포형무소에 수감하였다. 당국에서는 극비밀에 부침으로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탐문한 바에 의하면 전기 27명은 제주도 해녀사건이 있는 후 검거되었다 하며 전남 모사건에 관련된 사건이 아닌가 하여 일반은 매우 주목한다고 한다.(목포)

제주민중협의회 25명 遂 기소(조선일보 1932년 5월 19일)

백여 명 검거코 검사 출장 취조로

목포지청 예심 회부

한동안 세인의 이목을 놀래이던 제주해녀쟁의 사건으로 발로 된 민중협의회라 하는 비밀결사의 관계로 제주도 청년 백여 명이 검거되었다 함은 본보에 누차 보도된 바거니와 목포지청 埵 검사가 제주도까지 출장하여 취조한 결과 오대진·홍순일·윤석원·김민화 외 25인만 예심에 부쳐 지난 14일에 금강환이란 경비선으로 목포지청 예심계에 넘겨 즉시 목포형무소에 수감하였다고 한다.

목포로 압송 / 예심에 회부 50여 명 중 27명만(동아일보 1932년 5월 22일)

제주도의 검거 사건

기보 - 제주도에서 한동안 세인의 이목을 놀라게 하던 50여 명 목포 경비선으로 실어내여 지난 14일에 목포에 도착하는 즉시 목포형무소에 수감하였다 함은 기보한 바 있거니와 전기 검거된 50여 명 중 27명은 제주도 해녀사건 직후 탄로된 민중협의회라는 비밀결사 관계로 그 같이 검거를 당한 것이라 하며 목포로 압송된 27명은 예심에 회부되었다고 한다.(목포)

제주도 秘社 사건 / 40명 전부 기소(동아일보 1932년 12월 1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공판에 회부 내 15일에 공판 개정

일시 세인의 이목을 놀래이던 제주도 秘社 사건으로 전도를 휩쓸어 검거 선풍이 3월 13일경 일어나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堤 검사는 비밀리 제주도에 출장하여 동 검사의 지휘로 40명을 검거한 후 지난 5월 12일경 압래하여 오는 즉시 목포형무소에 수감한 후 申才弘 외 39명을 예심에 부치고 취조 중이더니 최근 渡邊 예심판사의 손에 종결을 짓고 동시에 40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가택침입, 보안법 위반, 예배방해, 협박, 폭력행위 등 죄명으로 목포지청 공판에 회부되어 오는 15일에 공판을 개정하리라는데 41명 중 검거 당시에 탈주한 姜昌輔만 기소중지로 되고, 그 외 전부는 유죄로 기소되었다 하며 이 사건에 담임 변호사는 李儀珩 · 金聲浩 · 尹明龍 3씨라 한다.(목포)

각면에 秘社를 조직 / 제주 전도 적화 획책(동아일보 1933년 2월 8일)

해녀의 주재소 습격사건 관련 목포서 40명의 공판

(목포) 재작년 1월 26일경 일시 세인의 이목을 놀래이던 제주도 해녀 데모 사건이 일어나자 검거 선풍은 제주 전도를 휩쓸어 청년 남녀 백여 명을 검거한 후 취조하던 중 의외로 제주도를 적화하려하던 赤色秘社 사건이 발각되었으므로 이를 엄중 취조하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堤 검사는 申才弘 외 39명만을 작년 5월

12일 경비선 金剛丸으로 목포지청 검사국으로 이송한 후 지난 11월 28일에 예심을 마치고 치안유지법 위반, 보안법 위반, 가택침입, 예배방해, 폭력행위, 협박 등 죄명으로 공판에 회부하여 금 7일 동법원 지청에서 제1회 공판이 개정되었는데 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姜昌輔는 검거 당시 도주하여 기소 중지가 되어 공판장에는 姜昌輔만 보이지 않고 40명의 피고가 출정하였다 한다.

출정 피고

金漢貞(38세) · 秦宅周(27세) · 康錫萬(26세) · 安九玆(33세) · 李炳星(20세) · 姜文範(21세) · 尹昌錫(21세) · 李南浩(31세) · 姜寅化(31세) · 李章瑩(21세) · 姜昌玉(31세) · 李奉春(19세) · 李乙用(28세) · 申才弘(34세) · 吳大進(36세) · 李益雨(24세) · 文道培(26세) · 吳文奎(33세) · 康寬順(26세) · 金聲五(24세) · 金順鍾(35세) · 金時坤(33세) · 韓香澤(28세) · 蔡載五(25세) · 韓遠澤(21세) · 高仕萬(24세) · 韓榮澤(21세) · 李辛祐(33세) · 高雲善(27세) · 金泰安(25세) · 夫泰煥(26세) · 朴燦圭(22세) · 金塗煥(32세) · 金玟華(31세) · 文在珍(22세) · 金台崙(21세) · 洪淳日(21세) · 宋性澈(20세) · 尹錫沅(27세) · 張鍾植(28세)

革友同盟을 해체 후 지하운동에 착수 / 동지 중 위험분자 있다고 해체 / 조직과 활동의 경로

1927년 2월경 姜昌輔 · 李益雨 · 申才弘 · 吳大進 등은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후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운동에 활동하여 오다가 1928년 8월경 제4차 공산당사건에 검거 선봉이 일어나게되자 姜

昌輔는 검거되고 남아 있는 세 사람만은 주의선전에 노력하여 오다가 1930년 3월경 제주도 구좌면 세화리 文道培 집에서 申才弘·吳大進·康寬順·夫大炫·金時坤 등이 모여 신재홍의 발의로 제1차 革友同盟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부서를 나누어 申才弘은 농민부, 康寬順은 청년부, 吳文奎는 소년부, 文道培는 여성부, 소집책임자로는 金順鍾, 夫大炫 등으로 결정한 후 잠정적으로 운동을 진전시켜 왔다고 한다. 그러나 신재홍은 항상 동지 이면서도 부대현은 아무리하여도 위험성이 많아 그를 한 그룹에 일을 할 수 없다 하며 1931년 1월경 구좌면 하도리 松林 속에 모여 형식상으로 革友同盟은 해체하는 동시에 부대현과 인연을 끊고 다시금 혁우동맹은 그 후 지하층으로 뿌리를 박아 일대에 운동을 지도하여 오다가 제4차 공산당사건에 검거되었던 姜昌輔가 감옥에서 나오자 申才弘, 吳大進 등이 1931년 11월경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에서 지정판매제를 실시하여 오던 바 제주도 구좌면 하도리 해녀들이 해녀조합에 대하여 「감태재」, 「생전복」 판매에 관한 5개조의 요구조건을 걸고 반항한 바 있었는데 그 후 조합 측과 해녀간에 말썽은 계속되어 오던 중 1932년 1월 7일 하도리에 산재한 해녀 3백여 명은 그들의 호미와 빗창을 들고 어깨에는 양식 붓다리를 매고 하도리에서 시위운동을 일으켜 세화시장까지 오던 도중 경관의 제지도 물리치고 세화리 해녀들과 호응하여 일층 기세를 높여 장을 보러 온 수천 군중 속에서 해녀조합에 대한 불평을 군중에게 통론한 후 그곳을 떠나 해녀조합 본부를 습격하고자 행진하던 도중에 경관의 제지로 해산한 일도 있었다.

해녀들은 다시금 1월 12일 구좌면과 정의면 6개 동리에서 천여 명의 해녀들이 모여서 제2차 데모를 일으켜 때마침 순시하던 濟州島司를 포위하고 해녀조합에 대한 지정판매와 10여개 조건을 들어 진정하고자 하던 중 경관들이 제지하자 만세를 고창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므로 제주경찰서에서는 각 주재소 경관들을 비상 소집하여 무장 경관대를 편성한 후 현장에 급행하게 하여 일거에 남녀 백여 명을 검거하였다. 이에 해녀들은 다시 검속 유치한 주재소를 습격하여 피검된 사람을 탈환하고자 밤이 깊도록 소동을 일으키던 사건도 배후에서 조종한 사건이다.

조선공산당 야체이카 조직 / 다섯 가지 규율 정해 활동 / 구역 분담해서 선전

그 후 申才弘·金漢貞·李益雨 등은 다시금 姜昌輔와 1931년 5월 15일 제주도 신우면 애월리 金元熙의 결혼식에 초대 받은 것을 기회로 하여 김원희 집에서 그 다음날 16일 새벽에 姜昌輔의 제의로 1928년 국제공산당에서 나온 조선테제에 의하여 과거 인테리겐차 중심운동과 派爭을 일축하고 노동자 농민을 토대로 함으로써 조직할 것을 말한 후 현재 조선공산당은 존재하여 있지 아니하나 장래에 재건되면 정식으로 연락을 취할 것을 전제로 조선공산당 제주야체이카를 조직한 후 동지들을 규합하는 일방 姜昌輔는 야체이카 책임자가 되고 주의 선전 구역을 분담하여 姜昌輔는 제주 城內와 신좌면으로 구역을 정하고, 吳大進, 李益雨, 申才弘 등도 각각 구역을 정하여 활동하기로 하고 당 규율 문제와 입당 자격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후 당 조직에 기준하여

분담구역내에서 세포 단체조직에 착수하였다는데 당 규율은 금주할 것, 연애하지 말 것, 비밀을 엄수할 것, 2년 이상 실천운동에 종사한 자라야 당원 자격을 줄 것, 당원이 되려면 6개월간 감시 기간을 경과한 자라야 되고 자주적 활동을 한 자에게 준다는 등을 정하였다.

제주도 秘社 사건 최고 팔년역 구형(동아일보 1933년 2월 21일)

41명 피고에 전부 유죄논고 21일에 변론속행

(목포) 제주도 秘社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矢本 재판장의 주심과 高田·柳 양배석 판사, 堤 검사 입회 아래 변호사 李儀珩·金聲浩·尹明龍 제씨의 열석으로 공판을 개정하고 申才弘 등 40명 중 康錫萬은 병으로 출정을 못하고 39명만이 출정한 후 金漢貞, 李益雨 외 몇몇 피고들의 변론이 있는 다음, 검사의 논고가 있는 후 최고 8년으로 다음과 같이 구형을 하자 변호사 김성호 씨의 열렬한 변론이 끝나 재판장으로부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남은 변호사의 변론은 이로써 중지하고 결심을 하겠다고 말하며 피고 중 張鍾植은 재판장에게 대하여 우리들은 이러한 중형을 받게 되고 또는 우리들의 장래를 위하여 할 말도 있고 하니 피고들의 자유변명과 변호사들의 변론이 있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하므로 재판장은 오는 21일 공판을 계속하기로 하고 오후 6시 20분에 폐정하였는데 금번 이러한 중형의 논고는 목포법정이 있는 이후 사상사건에 있어 전례에 보지 못한 중형이라 하여 일반은 매우 궁금히 생각하

고 있다.

구형 金漢貞 8년, 申才弘 8년, 李益雨 7년, 吳大進 6년, 夫泰煥 · 朴燦圭 · 金瑩煥 · 張鍾植 · 吳文奎 · 康寬順 · 金聲五 · 金順鍾 · 金時坤 · 文道培는 각각 5년, 韓香澤 · 高雲善 · 金泰安 · 洪淳日是 각각 3년, 尹錫沅은 3년 6월, 秦宅周 · 康錫萬 · 安九鉉 · 李炳星 · 姜文範 · 蔡載五 · 韓遠澤 · 高仕萬 · 韓榮澤 · 李辛祐 · 金玟華 · 文在珍 · 金台崙 · 宋性澈은 각각 2년, 姜昌玉 · 李奉春 · 李乙用 · 尹昌錫 · 李南浩 · 姜寅華 · 李章瑩은 각각 1년 6월

제주도 秘社 사건 / 최고 7년 중형 언도(동아일보 1933년 3월 3일)

피고 40명 중 무죄는 2명 피고회의 개최 소동

(목포) 제주도 비사사건으로 申才弘 외 39명은 예정과 같이 지난 28일 오후 3시 1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제1호 법정에서 柳 · 高田 양배석 판사와 堤 검사의 입회로 矢本 재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중형을 언도하였다는데 제주도 비사사건이 있던 후 금번과 같은 언도는 목포법정이 있던 이래 전례를 보지 못한 중형이라는 바 피고 중 金漢貞은 돌연히 일어나 적기가를 부르자 남은 피고들도 공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는 간수의 제지도 고사하고 被告會議를 20분 동안 개최하여 우리들은 부자유한 자동차를 타고 감옥으로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보로 걸어서 갈 것과 중형을 받은 우리 30명은 대구로 공소할 터이니 일제히 도보로 정거장까지 출발하게 하여 줄 것을 결의한 후 간수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재판장이 요구조건에 허락을 않는다는 것으

로 다시 소동이 있는 후 오후 5시에 간수들에게 끌리어 자동차를 타면서 삼엄한 경계 속에 수백 명 군중까지 역시 적기가를 부르면서 형무소로 수감되었다는 바 언도 형량은 다음과 같다.

	[구형]	[언도]	
申才弘	8년	7년	120일 통산
金漢貞	8년	6년 2월	240일 "
李益雨	7년	6년	120일 "
吳大進	6년	6년	120일 "
文道培	5년	5년	120일 "
吳文奎	5년	5년	120일 "
康寬順	5년	5년	120일 "
金聲五	5년	5년	120일 "
金順鍾	5년	5년	120일 "
金時坤	5년	5년	120일 "
張鍾植	5년	년	30일 "
韓香澤	3년	3년	120일 "
夫泰煥	5년	3년	120일 "
金瑩煥	5년	3년	120일 "
高雲善	3년	2년 6월	120일 "
金泰安	3년	2년 6월	120일 "
朴燦圭	5년	2년 6월	120일 "
尹錫沅	2년6월	2년 6월	120일 "
李辛祐	2년	2년	120일 "
文在珍	2년	1년	240일 "

秦宅周	2년	1년	240일	"
韓遠澤	2년	1년	120일	"
高仕萬	2년	1년	120일	"
金台崙	2년	1년	120일	"
洪淳日	3년	1년 6월	120일	"
宋性澈	2년	1년 6월	120일	"
金玟華	2년	1년 6월	120일	"
安九玆	2년	10월	240일	"
李炳星	2년	10월	240일	"
尹昌錫	1년6월	10월	240일	"
康錫萬	2년	10월	200일	"
李乙用	1년6월	8월 집행유예	2년	

제주 革友團同盟 사건 최고 5년역 판결(동아일보 1933년 6월 7일)

출정 피고 24명

(대구) 제주도 혁우동맹 사건은 지난달 24일 이래 대구복심법원에서 上野 재판장 주심, 松崎 검사 입회로 심리 중이던 바 동 29일 검사로부터 최고 7년 이하의 체형을 구형하였다.

5일 아래와 같은 판결 언도가 있었는데 피고 24명 중 신재홍·김한정에게 징역 5년을 최고로 이하 11명에게 체형, 나머지 10명에게는 4년간 집행유예다.

실형

징역 5년 김한정, 신재홍 ; 동 4년 오대진, 이익우 ; 동 3년 6
월 오문규 ; 동 3년 문도배 ; 동 3년 6월 강관순, 김성오, 김순중,
김시곤 동 2년 6월 부태환 집행유예(4년간) ; 징역 2년 한향택,
동년 이신호, 고운선, 동년 김태안, 동년 박찬규, 동년 김유환, 1
년 6월 김민화, 동년 문재진, 동년 송성철, 동년 장종식, 동 10월
안구현, 동 6월 홍순일, 무죄 윤석원

濟州道生活狀態調查

해제

이 책은 전쇼 에이스케(善生永助)가 昭和 4년(1929)에 발표한 제주도 자료이며, 제주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우리나라와 대조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 책은 전국을 관리했던 총독부가 다른 지방과는 사정이 다른 제주도를 기록한 점에 특징이 있다. 내용을 보면 당시 제주의 경제사정, 마을 형성, 생활, 문화, 생계, 지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총설

○ 어느날 이 삼신인(三神人)이 유렵(遊獵)을 하다가 동쪽 해안에 이르렀을 때 마침 바다에 자니(紫泥)로 된 이상한 상자가 떠 있고 그 곁에 보랏빛 옷에 붉은 띠를 두른 동자(童子)가 따르고 있었으므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으로부터 푸른 옷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 셋과 망아지·송아지·오곡의 씨앗이 나왔다. 그 동자는 「나는 일본 국사(國使)이니라 우리 왕께서 세 여자를 낳으셨는데, 서해(西海)의 중악(中岳)에 3신인이 나타나 바야흐로 나라를 세우려하고 있으나 아직도 배필이 없다면 신(臣)에게 세 여인을 모시고 가라고 해서 왔소이다. 아무쪼록 비(妃)로 삼아 대업을 이룩하시오」라고 말을 하고는 흰구름을 타고 홀연히 사라졌다. 3인은 각기 연령순에 따라 세 여인에게 장가들어 양을 나의 거소를 제일도(第一都), 고을나의 거소를 제이도 부을나의 거소를 제삼도라 칭하고 처음으로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송아지·망아지를 키우면서 농경(農耕)·어렵(漁獵)에 주력, 섬을 개척하여 날로 부유해졌으며 자손도 번창했다고 한다. 제주읍성(邑城)의 동남쪽에 있는 삼성혈이라고 하는 노송(老松)이 울창한 사당은 바로 이 섬의 시조인 이 삼신인을 모시는 곳이다. 이 신화에 비추어 보아도 제주도가 일찍이 내지(內地·일본)와 밀접한 교섭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I. 경제

7. 인구(人口)

- 호구조사

최근에 있어서의 제주도 호구수(戶口數)를 보면 호수 45,751호, 인구 211,011명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제주도의 인구에 관해 『여다남소(女多男少)』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옛부터 이 섬은 남자수보다 여자수가 많고 남조선의 도서 및 연해지방에 제주와 마찬가지로 남자수보다 여자수가 많은 지방이 있다는 것은 인구상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 일본으로의 출가자수

제주도의 인구는 일본으로의 출가(出稼) 관계로 해에 따라 현저히 증감하지만 1926년말에 있어서의 제주도내 조선인의 일본 출가자 총수는 23,584명에 이른다.

일본출가지수표

남	13,600명
여	9,984명
계	23,584명

그래서 출가선(出稼先)은 한신(阪神)지방을 중심으로 주로 하

고, 대부분은 노동자이다. 그래서 출가자로부터 제주도로의 1년간 송금액수는 남자 176,900원, 여자 78,099원, 합계 237,799원에 이르고 있다. 이것으로 볼 수 있듯이 도민의 일본출가로 생활난을 완화하고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은 막대한 것이다.

11. 수산(水産)

○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이 있는데 동 조합은 도 일원을 조합지구로 하여 조합원이 8천여명이다. 1920년 창립, 제주면 삼도리에 두고 각 면에 열들의 지부를 마련한 위에 출가해녀의 보호감독을 위해 부산에 출장소, 목포·여수에 가(假)출장소를 두고 있다. 월정리어업조합은 1916년에 창립된 조합으로서 어업권(漁業權) 4건을 갖고 기본금 등 3천여원을 적립(積立), 어획물 공동판매와 조난구휼(遭難救恤) 등을 맡고 있다. 서귀포어업조합은 1925년에 설립되어 우면(서귀)을 구역으로 하는 해녀를 제외한 어업자로서 조합원으로 하여 어획물을 공동판매 공동저금·조난구휼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의 해녀활동은 왕성하여 그들은 제주도 연안뿐 아니라 경남·전남을 중심으로하여 조선 각지에 분포되고 있는데 멀리 일본에도 출가하는 모양이다. 그 수입은 1일 평균 50~60전으로부터 2~3원에 이르러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막대한 것이다.

Ⅲ. 생활

1. 복장

○ 여자의 복장

성년 여자로서 농업 혹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고리, 치마, 속바지, 버선, 허리끈 등을 사용하고 봄·가을에는 흰천으로 된 겹옷, 여름에는 삼베로 된 홑옷(감즙으로 염색한 적갈색옷이 많다), 겨울에는 하얀 솜옷을 입고 있다. 농업, 어업 이외의 종류 이상의 계급에서는 저고리, 치마, 단속곳, 속곳 버선, 허리끈 등을 착용하고 마고자, 두루마기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의복의 재료는 비단·면·무명·삼베 등을 쓰고, 색배합은 치마는 흰색, 곤색, 검정, 청색 및 갈색 등으로 하고 그 외에는 거의 흰색이다. 소녀의 복장은 직업과 계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의복의 종류는 어른 것과 거의 같다. 일반적으로 부인은 홑속옷 같은 것은 입지 않고 저고리는 흰색, 검정, 혹은 복숭아 색을 많이 쓰고 유아는 남아와 마찬가지로 저고리 및 허리끈 등을 사용한다.

○ 머리에 쓰는 것

여자들이 쓰는 것은 흰무명으로 만든 폭 5~6촌, 길이 2자 안팎의 흰수건을 거의 모두 사용하고 상류계급에서는 풍차(風遮 : 방한용)를 드물게 사용한다.

6. 관혼상제(冠婚喪祭)

○ 관례(冠禮)

도민은 옛날부터 관혼을 중요시하고 미혼자를 경멸하는 풍습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남자는 보통 13~14세가 되면 관례를 올려 머리를 상투 틀고 갓을 쓰며 동시에 혼인의 예약을 한다. 이로써 성인이 되었음을 천명한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보다 연상인 경우가 많고 미혼의 남자는 「총각」이라고 하고 성혼한 남자는 「서방」이라고 칭한다. 총각때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서방이 되면 비로소 머리를 트는 것이다

미혼의 여자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기혼녀는 머리를 좌우로 나누어 틀어 올려 묶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남자는 단발을 많이 하고, 또 여자들은 트레머리로 묶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 혼인

부모는 아들이 13~14세에 이르면 신부감을 물색하여 그 부모에게 매파를 보내 청혼을 하고, 상담이 잘되면 혼인날짜를 잡는다. 혼인일이 되면 원근(遠近)을 불문하고 신랑은 말을 타고 심부름꾼 십수명을 끌고 가까운 친척남자 2~3명(역시 말을 탄다)과 함께 신부집을 찾아가서 중신장이와 함께 신부부모를 만나고 신랑측 부모로부터 보내온 혼서와 함께 폐백을 올린다. 신랑은 신부의 부모에게 절을 하며 이어서 신부와 서로 잔을 교환하면 일가가 모두 기쁨에 넘치는 축배를 든다. 신랑은 말, 신부는 가마

를 타고 신랑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통상 행해지는 혼인의 예식이다.

결혼비용은 빈부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평균 1백50원 정도 필요하다. 이것을 용도별로 나누면 신랑신부 복장비용 50원, 술과 안주비용 70원, 심부름값 15원, 잡비 약 15원 정도이다. 그런데 신부측이 가난하고 신랑측이 부유하면 피로연비용은 신부측에 보조해주는 관례도 적지 않다.

본도의 여자는 한번 시집 간 이상 죽을 때까지 시가에 따르는 풍습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해도 시댁을 떠나 결혼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중에는 나이 어린 미망인이 재산도 부양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재혼하기도 하나 그 숫자는 극히 미미하다고 한다.

IV. 문화

1. 풍속(風俗)

○ 제주도는 육지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종래 교통도 원활치 않았으므로 풍속습관도 반도인 육지부와 다른점이 적지 않다.

○ 조선의 육지부 여자들은 모두 집안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데 제주도의 부녀자는 옥외에서 농업이나 기타 노동에 종사하고, 바닷가에서 자라난 자는 해녀가 되어 일한다.

○ 제주도에서는 남자보다도 여자 쪽이 오히려 일을 잘하고 아내가 남편을 부양하는 예도 많다. 따라서 가정에서 여자의 권력이 강한 경향이 있다.

○ 육지 방면의 부녀는 액체든 고체든 물건을 운반 할 때 머리에 얹어 이는데 제주도의 부녀는 등에 지고, 가벼운 것은 옆구리에 끼고 운반한다.

○ 육지방면의 부녀는 바느질 할 때 바늘을 안쪽으로 향해 사용하는데 제주도의 부녀는 일본식으로 사용한다.

○ 제주도에 옛날부터 남자수보다 여자수가 훨씬 많았던 관례로 한 남자가 수명의 첩을 거느리거나, 남자 한사람이 여러여자의 남자첩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

○ 제주도의 부녀는 육지방면의 부녀처럼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난 경우 옆으로 비키는 경우가 없고 어떤 신부, 처녀라도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없다.

2. 민심(民心)

○ 제주도민은 옛부터 성질이 사납다고 해서 이조정부는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미루어

보면 도내에서 민란 소요가 그치지 않고, 인민이 관청에 대해 폭정을 원망하고, 가혹한 세금에 분노하여 난을 일으키고 관청을 불태우고 관리를 살상하는 예가 많았다. 일한합병 후에도 일부 양반·유생들이 지위가 떨어진 데 불만 및 일종의 미신에 사로잡힌 선도(仙導)교도의 준동 등이 있었고 1919년에는 만세소동을 벌인 적도 있지만, 그후에는 민심이 차차 침착 평온하게 돌아가고 이제는 민중은 새로운 정치를 구가(謳歌)하고 있다. 도민은 대개 순박 검소하면서도 일면 개인주의 관념이 강하고 이해타산에 능하며 활동에 진취적인 기상이 풍부하다. 따라서 남녀 모두 일본에 돈벌이를 하러 많이 떠난다. 도민은 옛부터 그 지리여건상 흉작·기근과 같은 경험을 맛보았으므로 그들 사이에는 자급자족의 지식이 잘 보급되어 근검역행(勤儉力行)의 미풍이 있고 특히 부인네가 노동에 힘쓰는 점은 외부에 자랑할 만한 특색이다.

4. 신앙

○ 원래 도민 속에는 무지몽매한 자가 많아 미신의 풍속은 성하고 무녀·기도사·점장이의 말을 신뢰하고 길흉화복을 점치며 이들에게 기도를 의뢰하는 자가 적지 않는 것이다.

조선비망록(Undiplomatic Memories)

해제

일반적으로 한국사에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을 개항기(開港期), 혹은 한말(韓末)이라 일컫는다. 이때는 서세동점(西勢東漸), 즉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와 일본이 경쟁적으로 조선과 중국대륙으로 진출해 식민지화를 도모하던 시대였다. 이러다 보니 많은 외국인이 조선으로 들어왔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서 겪고 보고 들은 일을 글로 남겼는데, 그것이 190여 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한말 외국인 중에는 선교사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의사, 직업외교관, 탐험가 등이었다. 이들의 글에는 국운이 기울고 있는 조선을 두고서 이권쟁탈의 우선권을 확보코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러시아와 미국 및 일본 등의 외교활동에 관한 사실 및 격동의 한국근대사 현상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한편, 당시 풍물에 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이들 저서의 예로는 H . B. 헐버트의 『대한제국 멸망사』와 F . A 맥켄지의 『대한제국의 비극』 및 W . R. 칼스의 『조선풍물지』 등과 같은 것이다. 또 W . F. 샌즈의 『조선비망록』도 그러하다. 이들 4권의 저서 가운데 제주여성과 관련된 기록이 나오는 것은 W . F. 샌즈의 『조선비망록』이 유일하다.

샌즈(W. F. Sands)는 1874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태어났고, 1898년 조선주차 미국공사관 1등 서기관으로 부임했다. 이후 고종의 신임을 받았으며, 1900년에는 공사직을 그만두고 고종 황제의 고문이 되었다. 그는 러·일전쟁을 보고 조선의 몰락을 예언해 조선의 중립화를 고종에게 제안한 적도 있었다. 또 1901년 제주도에서 신축민란(辛丑民亂), 즉 '이재수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고종의 부탁을 받고 제주도에 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샌즈는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과 함께, 미국 공사관이 철수하자 귀국했다. 1910년 이후에는 외교관을 그만두었으나, 국제문제 해결에 계속 관여하는 한편, 1927년부터는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에서 외교학 관련 강의를 맡아 1946년에 생애를 마칠 때까지 출강했다. 이러던 중 외교관으로서 조선에서 겪고, 보고 들었던 일을 글로 써 1930년에 『조선비망록』을 발행했다.

『조선비망록』은 일본과 조선의 관계, 서울의 외교사절, 영사재판, 황제의 고문관, 대궐 생활과 민속놀이, 조선인의 신뢰성, 여인의 나라 제주도-‘이재수의 난’ 등을 예리하게 관찰했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여인의 나라 제주도—이재수의 난’이라는 항목에 제주여성에 관한 기록이 상당량 나온다. 이는 샌즈가 1901년에 ‘이재수의 난’이 일어났을 때 중재해 달라는 고종의 부탁을 받고 제주도에 와서 겪고, 보고 들었던 내용 등이다. 이때 그는 프랑스 선교사를 보호해 준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뒤뇌르 훈장(Legion of Honor)을 받았듯이, ‘이재수의 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조선비망록』의 원본은 국회도서관에도 없으며, 서울대 도서관에 마이크로 필름 상태로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희귀본이다. 이 책은 신복룡의 번역으로 집문당에서 1999년에 출간되었다. 제주 역사와 풍물 및 제주여성 관련 내용은 『제11장 여인의 나라 제주도 : 이재수(李在守)의 난』에 들어 있다.

제11장 여인의 나라 제주도 : 이재수(李在守)의 난¹⁷⁾

○ 이 무렵에 중국에서는 의화단의 난(Boxer Accident)이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연합국들은 천진(天津)에서 멀리 떨어져 느긋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북경에서 의화단에 포위된 공사관 직원들과 선교사들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했다. 조선뿐만 아니라 유럽과 서구 국가들에 대한 황제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로서 나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쌀과 담배를 배에 싣고 이들을 연합국 군대에 보낼 수 있는 기선의

17) 이하의 기록은 천주교 역사에서는 「신축년(辛丑年) 제주 교난(教難)」이라고 하고 역사학에서는 「이재수(李在守)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01년 무렵 제주도에는 프랑스 신부 라크루(Larcrouts, 具) 신부와 무세(Mosser, 文) 신부가 포교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라는 교리에 따라 마을의 신목(神木)을 베어 버리고 해안 무속이 심한 이 지역의 신당(神堂)을 헐어버리는 등의 작폐를 저질러 원성을 사고 있었다. 이 무렵에 정부로부터 강봉헌(姜鳳憲)이란 오리(汚吏)가 징세관(徵稅官)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수탈이 심했는데 이때 천주교도들이 그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 프랑스의 세력을 믿는 신부들도 일부 이를 방조함으로써 민원(民怨)을 샀다. 이에 대정(大靜) 군수 채구석(蔡龜錫 : 1879~?. 제주인. 1879년에 식년 생원에 합격. 字는 大汝)과 유럽의 좌수 오대현(吳大鉉), 강우백(姜遇伯), 그리고 제주 관노(官奴) 이재수 등이 상무사(商務社)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1901년 5월에 도민을 규합하여 제주읍을 습격하고 천주교도를 처형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도 500명과 주민 200명이 희생되었다. 정부에서는 강화도 수비대를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채구석, 오대현, 강우백, 이재수를 서울로 압송하여 이들 중 채구석을 징역에 처하고, 나머지 3인을 처형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이 집단 학살은 그 후 제주도의 정치 문화에 커다란 앙금으로 남았다. 高宗實錄 광무(光武) 5년(1901) 10월 9일자 참조. 이때 필자인 샌즈는 프랑스 선교사를 보호해 준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뒤뇌르 훈장(Legion of Honor)을 받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반외세의 불똥이 우리 측에 대한 갑작스런 분노를 부채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혀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예의 주시했다.

정세를 알아보기 위해 지방에서 돌아온 나는 제주도에 무서운 반란의 조짐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카톨릭 선교단이 반란군에 의해 억류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기독교인이 학살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두 척의 소형 프랑스 군함인 알투에트호(L' Alouette)와 서프라이스호(La Surprise)가 제물포항에 도착했지만 중국 측 작전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늦어 즉시 제주도로 출항했다.

○ 조선의 최남단 항구인 부산을 거쳐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다 보면 제주도는 기선 항로의 서남쪽에 위치하여 파란색의 거대한 원추형 화산의 모습을 어렴풋이 드러낸다. (중략) 나는 그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둘러보고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기뻐다. 현지어로 제주라고 부르던 이름이 어떻게 켈파트(Quelpaert)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고대 중국과 일본의 지도상에는 제주도가 여인의 섬(island of women)으로 나타나 있다.

○ 제주도의 고립성 때문에 조정(朝廷)은 제주도를 유배자들의 귀양지로서 이용했다. 제주도는 조정이 다스리지만 그것은 단지 명목상일 뿐이다. 독립의 전통뿐만 아니라 그곳의 여러 이상한 관습들은 제주도를 다스리기가 어려운 곳으로 만들었다. 세상에

서 잊혀진 이 외딴 곳에서 남자는 열등하게 취급받았고 여인들이 모든 것을 차지했다. 여인들이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모든 재산을 소유했다. 여인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성을 따랐으며 여인은 결코 한 명의 남편만을 갖지 않았다.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내륙에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만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이 돌아갈 때는 13세에 이른 모든 소년들과 함께 나간다. 단지 소수의 남자들만이 중국의 개항장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처럼 세 곳의 도시에 살고 있다. 이들과 유배자들이 제주도 전체의 남자 인구의 전부이다.

여인들은 공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 이것은 모계사회를 능가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여인의 나라인 아마존 사회(Amazon community)³⁾이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항상 그들의 권력을 주장할 준비가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힘으로 그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전통이 너무나 강해서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는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남성들이 으레 주장하는 권리로써 관리가 공관인 현지 왕들의 궁전에서 아들을 낳아 제주도 왕조의 왕위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다. 현지인들은 조선의 왕도 원치 않았고 또 조선인들도 제주도의 왕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습은 조선인들과 제주인 모두를 만족시켰다.

유배자들이 제주도를 떠날 수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배자

3) 여기에서 아마존 사회(Amazon community)라 함은 남미의 아마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여인국을 의미한다.

들은 자유롭게 감시도 받지 않았다. 유배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살 수 있었고 그들이 좋아하는 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제주도 남자들은 사냥꾼이고 어부이며 해안 무역업자들이고 밀수업자들이었다. 남자들은 바다나 산림지대와 같이 가능한 한 여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인들에게 토지의 모든 일들을 맡겼다. 바위가 많은 화산토는 겨우 기장을 재배하는 정도였으며 평지에 세워진 돌담의 높은 바구니로 퍼다가 채운 것이었다. 거의 모든 곡식류는 60마일 떨어진 내륙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가져왔고 종종 해안 항구를 따라 막연히 뒤엎힌 해류와 거친 바다 때문에 여행이 1주일이 걸리기도 했다.

여인들은 수영과 잠수에 능숙했다.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가끔 암초 때문에 해수면에 떠 있는 박 가까이에 바구니를 띄워 놓은 채 수영을 멈추기도 하며 전복이나 식용 해초 다발을 찾기 위해 다시 깊이 잠수한다. 그들은 그것들을 따기 위해 빈 바구니에 부착해 놓은 작은 낚을 사용한다. 이 낚은 남자들이 괴롭힐 때 무기로도 사용된다. 바구니가 가득 차면 바구니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매달아 놓았던 돌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바구니를 건져 올려 수면에 떠다닌다. 여인들은 한 시간 가량 수영하거나 떠다닐 수 있고 오리처럼 손쉽게 잠수할 수도 있으며 바닷새만큼이나 오랫동안 손쉽게 바닷속에서 이곳저곳으로 일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다. 수면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여인들은 고기잡이배에 있는 뜻밖의 남자에게 거리를 유지하도록 경고하기 위해 서로 다른 높낮이의 단조로운 휘파람 소리를 계속해서 불곤 한다.

○ 일본을 통해 우리 측으로부터 새어 나온 반란에 관한 새로운 소식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제주도를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곳의 관리들과는 연락하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 아직까지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반란 활동이 제주에서 추방되어 있던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은 두 명의 신부의 지휘 아래 그 도시를 방어하고 있었다. 신부들은 조정의 무기고에서 꺼낸 낡은 무기로 그들 자신과 몇몇의 시민들 그리고 목사의 포졸들을 무장시켰다. 그들은 섬주민과 반란군 그리고 본토에서 온 산적들로 이루어진 1만여 명 정도의 성난 군중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프랑스 군함 두 척이 출발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 군함들은 나의 낡은 기선과의 경주에서 이겼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 좁아서 선교사들과 연락하여 몇몇 기독교인들을 배에 태운 것 이상으로 사태를 수습하지는 못했다. 나는 프랑스 해군 고위사관에게 나의 신분을 밝히고 나의 부하들을 죽음의 도시를 둘러싼 성벽 아래에 있는 그 좁은 해안에 상륙시키기 시작했다. 신부들의 연락원이 그 포위를 뚫고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전신소로 가기는 힘들었다. 그 무렵에 굶주림에 떨고 있는 그 도시의 여인들이 자정쯤에 반란군들에게 도시의 성문을 열어 방어자들에 대한 엄청난 학살이 자행되었다. 어떤 총소리나 생명의 신호도 그 성벽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 도시의 성문은 활짝 열렸고 비좁은 길가에는 시체들로 가득 찼

다. 나는 시장에 위치한 목사 관저의 문 앞에서 지난 10일 동안 내내 햇볕과 비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참혹하게 잘려진 남녀노소 무리가 90명에 이르렀다.

○ 나는 내가 제주도에 머문 여러 주 동안 너무나 일이 바빠서 제주도를 탐험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나의 제주도 방문은 아마도 여인의 나라(Amazon) 전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이다. 주둔군은 조선이 일본에 병합(併合)될 때까지 남아 있었다. 그후 제주도는 일본 정부에 의해 요새화되었고 그들의 요새가 있는 곳은 절대 탐험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만약 선교사들이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모아 놓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여전히 전에 그랬던 것처럼 신비스럽게 남아 있을 것이다.

濟州島의 經濟

해제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이미 한국을 합병할 계획 아래 그에 필요한 기초조사 등을 철저히 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몇 편의 보고서 역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濟州島勢要覽」은 일제가 패망하기 전인 1944년까지 발간되었으나 정확히 몇십년에 걸쳐 몇 권이 나왔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제주도의 행정·산업·경제·교통·항만·위생·교육·종교·기상·인정 풍속에 이르기까지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록하고 있다. 당시 제주사회 전반을 살필 수 있는 요긴한 자료이다.

「濟州島의 經濟」는 釜山상업회의소가 1930년에 펴낸 것으로 70년 전 제주도의 주요생산과 교역, 해녀나 그 밖의 출가(出稼)상황과 그들의 수입이 도내 경제에 미친 영향 등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 여기에는 輕便鐵道에 대한 기록이 관심을 끈다. 제주-김녕간 24km, 제주-협제간 32km 등 총 56km의 人力循環軌道이다.

또한 이 책에는 위의 두 보고서 외에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가 1910년에 쓴 「제주도에 있는 徐福의 石壁文字」와 「濟州探訪記」가 번역되어 실려 있다.

1930년 濟州島의 經濟

부산상업회의소, 上田耕一郎(우에다 코오이치로오)

II. 제주도 경제의 여러 모습

1. 문화와 생활정도(文化 生活程度)

○ 형이상(形而上)의 문화 정도는 그 교육에 대해서 이를 살피는 것이 가장 첩경이다. 1929년 7월 현재 본도의 교육기관에 대해 본다면,

공립농업학교(公立農業學校)	1개교	1백32명
공립심상고등소학교(公立尋常高等小學校)	1개교	1백11명
공립심상소학교(公立尋常小學校)	3개교	66명
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	12개교	3천5백40명
사립보통학교(私立普通學校)	4개교	7백83명
개량서당(改良書堂)	31개소	1천9백80명

위 상태로 도민의 지능계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공립보통학교의 시설은 지금에는 이미 1면(面)1교(校)를 실현하고 있는 등 명

백히 도민 향학심의 발흥(勃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섬의 문화 향상을 시키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은, 도민이 일본에 돈벌러 가는 것으로 받는 직·간접적인 영향이다. 출가(出稼) 노동자는 한결 같이 일본의 격렬한 생활권에 말려 들어 귀중한 체험을 얻음과 동시에 반도(半島) 방면의 문화와 비교하여, 보다 진보된 일본문화를 접하는 까닭에, 사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자극·계발되는 일이 많다. 이 결과가 조만간 섬의 문화를 향상시켜 갈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실제로 도민은 육지와와의 거래보다 오오사까(大阪) 방면과의 직거래를 좋아하는 것 등은 운임관계라든가 채산(採算) 관계가 있다고 해도 일본출가노동에 따른 간접 영향으로 인정되는 바이다. 또 도내 가는 곳마다 일본어가 잘 보급되어 있는 것도 그 영향의 하나로 헤아릴 수 있겠다.

2. 노동지상주의(勞動至上主義)의 부녀(婦女)

제주도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일을 잘 한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섬나라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제주의 부녀는 특히 눈에 띄게 잘 일하는 듯하다. 농가에서 자란 사람은 밭에 나가 경작에 종사하고, 해변에 태어난 사람은 해녀가 되어 해산물을 채취한다. 섬 각처에서 열리는 정기적인 장날에도 많은 부녀자가 장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짐꾼은 별로 볼 수 없는데 제주도에서는 여자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가는 모습이 색다르게 느껴진다. 부녀자가 외출할 때는 반드시 직경 약 2척 깊이

약 1척의 대바구니를 갖고 다니는 풍습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나 습관적으로 바구니(구덕)의 아래쪽을 오른쪽 허리뼈에 걸치고 바구니의 윗부분은 오른팔을 뻗어 쥐고 있다. 섬의 여인은 일 잘하는 상징으로 반드시 이 바구니를 갖고 다니는데 바구니 안에는 곡물, 잡화, 야채, 세탁물 등이 복잡하게 들어 있다. 섬 여인들은 자동차로 원거리여행을 가도 구덕을 놓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로는 빈 구덕을 비스듬히 끼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다.

육지의 부녀자처럼 물건을 머리 위에 얹고 천천히 걷는 것과 같은 비활동적인 운반 방법은 이 섬에서는 전혀 채용되지 않는다. 전술한 대바구니를 옆에 끼고 용감하게 걷든가 또는 보리, 조 등과 같은 무거운 짐이면 이것을 등에 지고 운반을 하는데 지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끈으로 걸어 직접 등에 업고 나른다.

이처럼 노동지상주의에 정진하는 제주도의 부녀자들 중에는 본도는 물론, 일본 및 육지부에 출가(出稼)해서 가는 곳마다 수산자원의 개발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그 출가소득이 적잖게 본도를 윤택하게 하는, 명물인 해녀가 있다.

본도의 해녀가 도외 출가를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35년 전인데, 이후 해녀 모집에 있어서 모집인에게 불만스런 점이 많아 그 때문에 드디어 현존하는 해녀어업조합이 창설되어, 해녀의 공급은 물론, 그 보호, 구제 및 복리 증진을 꾀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은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이유 및 목적 때문에 1921년 4월 설립된 것으로 조합지역을 제주도 전체로 하고 지역 내의 해녀, 사공을 조합원으로 한다. 또 조합지역 외로 출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현재, 부산과 목포에 출장소를 두고 있

다. 조합은 단지 해녀의 보호, 구제에 힘쓸 뿐만 아니라 점차 그 사업을 확장하여 어획사업자금의 대부(貸付), 어획물의 공동판매 등을 맡고 있다. 해녀조합에 가입한 해녀는 현재 8천명이지만 그 분포를 보면

· 제주본도 3천명 · 조선육지 출가 4천명 · 일본 출가 1천명
인 현상이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자가 약 2천명 정도로 짐작되므로, 해녀의 실제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정되며 전 인구의 5%에 해당된다.

4. 자원(資源)과 물산(物産)

4) 수산(水産)

○ 어획한 어패류와 해조류는 전부 본도의 해녀가 잡고 채취한 것으로 따라서 이들 처리에 대해서는 전부 도내에서 가공되고 있다. 소라는 주로 통조림으로, 미역은 개량미역으로, 들북(말)감태는 조제옥도(粗製沃度)로 각각 가공된다.

1939년 濟州島勢要覽

제1장 총설

1. 연혁(沿革)

○ 본도의 개조로써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태고의 시대에 양

을나(良乙那)·고을나(高乙那)·부을나(夫乙那)라고 하는 삼신이 있었다. 어느날 이 삼신이 유렵(遊獵) 하다가 동해의 해변에 이르렀을 때, 바다에 자니를 칠한 이상한 상자가 떠 있었다. 그 곁에 보랏빛옷(紫衣)에 붉은 띠(紅帶)를 두른 동자가 따라 있음을 보았다. 상자를 열어보자 푸른 옷의 처녀 셋과 사람과 씨앗·망아지·송아지가 들어 있었다. 종자가(從者) 말하길, “나는 일본국의 국사(國使)이니라 우리 왕이 이 세 여자를 낳았는데 서해의 중악(中岳)에 신자(神子) 셋이 내려와 나라를 열려고 하나 아직 배필(配匹)이 없으므로 신(臣)에게 이 세 여자를 데려오도록 명했다. 아무쪼록 비(妃)로 삼아 대업(大業)을 이룩하도록 하라.”고 말하고는 홀연히 흰구름을 타고 사라졌다. 세 사람은 각기 연령순에 따라 장가를 들고 양을나의 거소(居所)를 제1도(都), 고을나의 거소를 제2도, 부을나 거소를 제3도로 칭하고 처음으로 오곡을 뿌리며 망아지 송아지를 키워 농경어렵(農耕漁獵)에 힘써 섬안을 개척했다. 이것이 본 도민의 조상이라고 한다. 제주읍 남쪽 12정(町·註=1정(町)은 1백9m 強)이 되는 곳에 삼성혈이라는 고적이 있다. 사우(祠宇)에 여섯 개의 비(碑)를 모시고 있다. 일찍부터 내지(內地·주=일본)와 교섭이 있었음을 생각해 한다.

VII. 인정풍속(人情風俗)

2. 풍속

본도민에게는 일본인·몽고인과 혼혈(混血)이 많아 체격·용모

· 풍속 · 습관 · 언어 등에 있어 육지부와 다른 점이 많다.

○ 여자는 매우 근면하여 옥외노동에 힘쓰며 특히 해녀 같은 것은 달리 유례(類例)를 볼 수 없지만 이에 반해 남자는 비교적 게으르다. 장보기 같은 것도 거의 여자가 맡아 남자는 드물다.

○ 바느질의 운침(運針) 및 어린이를 업는 방법은 일본식이다.

○ 도민의 노동복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손바느질한 무명을 감물로 물들인 것을 사용하는데 극히 내구성(耐久性)이 풍부하고 또한 위생적이다. 색복(色服) 장려상의 한 지침으로 삼을 만하다.

○ 일가의 생계는 주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상례로 한다. 따라서 남자의 태만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 부녀자는 신부(新婦) · 처녀라 해도 남자의 면접을 피하는 풍습이 있다.

제13장 명소고적(名所古蹟)

해녀작업

○ 나체잠수어업(裸體潛水漁業)에 종사하는 해녀의 총수는 1만 명 이상이며 그 중에서 조선의 각 연안과 일본에 출가(出稼)하는 자가 4천4백여명을 헤아리고 전국 해녀 54%를 차지, 그 수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해녀는 주로 해안지대 주민의 부녀자로서 12~13세쯤부터 얇은 바다에서 연습을 시작. 16~17세에 이르면 제몫을 하는 해녀가 되어 보통 40세까지는 최성조업기(最盛操業

期)로하고 55세쯤까지 조업을 하나 보통은 50세쯤으로 중단한다. 잠수하는 수심은 최대 10심(尋·註=1심은 약 1.8m). 보통 4~5심이며, 1회 잠수시간은 보통 1~2분인데 가장 긴 수는 4분간 잠수하는 경우도 있다. 또 본도의 해녀는 내한력(耐寒力)이 가장 강하여 연중 조업 않는 계절이 없으며 한달 평균 15~20일 간의 내한 노동력(耐寒 勞動力)을 지녀 타에 비길 수 없는 우월(優越)한 점이 있다.

耽羅 漫筆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

I

이 파란색 바다에서 해녀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찌면 다시 해녀로서 늙어갈 게 틀림없는 12~13세의 처녀들이 자주 물속으로 자맥질하며 해녀연습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거기서 인간과 자연과의 어떤 조화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일종의 가련함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는 해안의 용암 사이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을 길거나 빨래를 하기도 하는 하얀 옷의 여인들 무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제주도의 물은 한라산으로부터 내려오지만 그것은 바위 밑에 지하수가 되어 숨어들고서 바다 가까운 곳에서 해수의 압력으로 용출(湧出)한다고 한다.

하천은 모두 바다 가까이서 흘러내리는 짧은 것이며, 샘은 바로 바닷가에서 솟아나고 있다. 맑은 바다를 앞에 하고 밝은 하늘을 위에 이고서 밝고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한, 건강한 섬 여인이 명랑하게 웃음지으며 재잘거리면서 옷가지를 빨고 물을 길는 광경이 아름답지 않을 리가 없다. 나는 제주읍 근처에서도, 모슬포쪽에서도 이와같은 광경을 볼 수가 있었다. 이 물은 또 바닷가 근처의 바위 사이에 깊게 고인 못(淵)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 근처의 용연동(龍淵洞) 같은 것이 그런 하나이다.

3

탐라(耽羅) 혹은 둔라(屯羅)고 불리웠던 이 섬에 있어서의 인간생활의 최초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 『고려사(高麗史)』 고기(古記)에 가로되 라고 해서 인용해 있는 것을 보면

그 최초에는 사람이 없었고 삼신인이 땅에서부터 솟아나왔다. 지금의 진산(鎭山·한라산을 말함) 북쪽 산기슭에 구멍이 있어 모흥(毛興)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그 곳이다. 제일 어른을 양을나(良乙那)라고 부르고, 다음을 고을나(高乙那)라고 불렀으며,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고 불렀다. 세사람은 황당한 시골에서 유렵(遊獵)을 하여 가죽옷을 입고 육식을 하였다. 하루는 자니(紫泥·註=도자기의 몸에 철분이 많이 섞여 검붉게 된 빛)라 봉해진 나무상자가 떠와 동쪽바닷가에 이르렀음을 보게 되어 이를 열었봤더니 안에 돌상자가 있었다. 붉은 띠를 두르고 자주빛 옷을 입은 한 사자(使者)가 따라와 있었다. 함

을 열어본 즉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셋과 여러 송아지·망아지·오곡의 씨가 있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 사자인데 우리 임금께서 이 세왕녀를 낳고 가로되. 서쪽 바다 산속에 신자(神子) 3인이 내려와 마침 나라를 세우고자 생각했으나 배필이 없다. 그래서 신(臣)에게 명하여 3녀를 거느리고 가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배필로 삼아 대업을 성취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사자는 갑자기 구름을 타고 사라져 갔다. 세 사람은 즉시 나이에 따라 장가들었다. 샘이 달고 땅이 기름진 곳에서 활을 쏘고 땅을 정했다. 양을나가 사는 곳을 제일도(第一都)라 부르고 고을나가 사는 곳을 제이도라 불렀으며 부을나가 사는 곳을 제 삼도라고 불렀다. 처음으로 오곡을 뿌리고 또한 망아지와 송아지를 쳤다 날로 부유해졌다...(下略)

대체 이 전설이 어느 시대에 비롯되고 어떤 기록에 처음으로 실려졌느냐는 연구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으나 어쨌든 제주성밖 몇 정(町)의 남쪽에 삼성혈(三姓穴·毛興穴)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으며 거기에 삼신인을 모시는 제사지내는 삼성사(三姓祠)라는 곳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얼굴모습 기타 등은 매우 비슷하나 그래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인의 얼굴에는 이 차이를 대부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눈이 치켜 올리는 버릇이 적다든지 광대뼈의 돌기(突起)가 적다고 하는 것 들일까. 그것은 생각해보아도 좀처럼 포착하기가 어렵다. 어쨌든간에 제주의 남녀는 육지의 남녀보다는 명랑하다. 그리고 특히 여자가 보다 아름답다는 것은 사실이다.

○ 더욱이 풍속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반도와는 다르고 일본과 가까운 것이 있다. 첫째로 제주도의 여자는 반도의 여자와 같이 물건을 머리에 얹히지 않는다. 물 길는 독을 머리에 얹어 들길을 걸어가는 여인의 모습은 조선의 독특한 광경이지만 제주도의 여자를 보면 독을 바구니에 넣어서 등에 지고 간다. 그리고 바구니에는 조그만 대자리(簣子) 같은 것이 밑에 붙어있어 땅에 내려놓아 설 때 같은 때에는 독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지승람』에는 「남녀가 즐겨 짚신을 신는다」고 되어 있는 외에 「등에 나무통을 진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후자 쪽이 지금의 제주도에서는 볼 수 없는 바이다. 내가 조선에서 약간 견문한 바에 의하면 물을 넣는다든지 물을 길는다든지하는 목기(木器)에는 나무를 도려내어 만든 것은 있는듯 하나 일본에서와 같이 테를 끼운 판자를 붙여서 만든 통과 같은 것은 별로 볼 수 없는 듯하다.

○ 제주의 시장에는 이와 같은 독이나 항아리 외에도 대바구니가 많다. 전라도 일대와 마찬가지로 대나무바구니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일이 이 지방만큼 많은 곳은 전 조선에 드물 것이다. 밖에 나가는 섬 여인들은 넣을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옆구리에 대바구니를 끼고 간다. 특히 진기한 것은 가로폭이 2자 5치정도 될까 생각되는, 소판형(小判形이란 16~19세기 일본에서 쓰이던 金貨) 대바구니다. 이것은 어린이를 들여놓는 바구니(애기구덕)로서 아마도 이 섬의 독특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육지와 다른 것을 들어본다면 물건을 지고 나를 때에 육지쪽

에서는 반드시 지게라고 하는 일종의 간단하고 원시적이며 그리고 편리한 짐나르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육지만큼 그것이 필연적이지는 않다. 장작같은 것도 직접 등에 지고 가는 남녀를 나는 종종 산길에서 목격하였다.

4

○ 제주도의 제일의 명물은 해녀이다. 부산에서 제주행 기선을 타기 전에 우리들은 바닷가 돌담에 걸터앉아 거룻배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들과 함께 배를 기다리는 여객 중에는 제주도의 해녀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사람의 머리 3배쯤되는 바가지(浮標)가 달린 둥그런 나무테에 붙여진 그물통 옆에 놓고, 젓먹이에게는 젓통을 물리며 노모와 주인인 것 같은 남자 등과 어울린 일가충출동의 출가(出稼)인 듯 싶었다. 우리들은 그들 일행을 보면서 벌써 절반은 제주도에 닿은 것 같은 기분에 끌려던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1만 몇천명이라고 하는 제주해녀 중에는 전라남·북도도 말할 것도 없고 경상남·북도·강원도에서부터 북쪽은 함경도 서쪽은 황해도 더 나아가서는 중국해에까지 진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녀들이 11~12세 때부터 바다로 자맥질하는 훈련을 쌓고서 17~18세쯤이면 버젓한 해녀가 되고 40세를 넘을 때까지 일을 계속 한다. 그녀들은 4~5심(尋·1심은 양팔을 벌린 길이)에서 8심까지 깊이 잠수하여 1회에 40~50초 내지 1분 정도 일을 한다. 그녀들은 노련한 이를 앞세워 썰물을 따라 일하러 나갔다가 밀물을 타 바닷가로 돌아오고 잠시 후엔 들판에 나가 일하기조차 한다. 그녀들이 찬 물을 감당해내는 힘

은 놀라운 바가 있는데 임신중에도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중지하지 않는다. 그녀들이 채취하는 것은 전복이나 소라와 같은 조개류뿐만 아니라 미역 우뚝가사리 기타 해초 등도 포함된다. 그녀들은 한사람이 물에 떠오르면 한사람이 잠입해가는 식으로 교대로 일을 한다. 그녀들이 손목에 묶어둔 작은 칼을 잡을 것을 끊어내는데 쓰여지지만 그것이 수확물에 걸려서 위로 떠오를 수 없게 되어 헛되이 목숨을 잃는 비화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녀들은 모두 그 작은 칼을 고무줄로 묶어두고 있다.

그녀들은 수중안경을 쓰기 시작하므로 그녀들의 일은 꽤 편해졌다. 이 같은 이야기는 섬의 관리들한테서 들은 것이다.

한번 우리들은 배를 타고서 난바다에서 그녀들의 작업을 구경했다. 그것은 그물통에 붙여진 바가지가 데굴데굴 물결에 스쳐 흐를 정도로 약간 바람이 부는 날의 오전이었다. 그녀들은 이 그물통에다 팔을 맡기고 힘을 넣는가 싶더니 머리는 바닷속으로 잠기고 두 발로 평하고 수면을 차면서 자맥질해 갔다. 잠시후 물위로 올라온 그녀들은 잡아온 조개류를 그물통속으로 내던지고 피리를 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숨을 내 쉰다. 사실을 말한다면 이 피리소리 같은 음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혹은 전에도 하고 후에도 했는지 확실치 않으나 이렇게 물결 위에서 그물통에 매달리며 그녀들이 연주하는 진솔한 호흡소리의 음악이 비감과 쾌감을 함께 뒤섞는 기분을 자아내게 한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풋내기 생각으로 제주도의 조개류나 해조(海藻)의 대부분이 이들 해녀들에 의해 채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

실은 그렇지 않았다. 13척이나 있다고 하는 잠수선이 잠수기를 붙인 잠수부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확물은 도저히 그녀들이 미칠 바 못되었으며 잠수부와 해녀와의 생존경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해녀들의 수확물도 점점 줄어들고 그들의 작업장도 점차 난바다로 쫓기게 되는 것 같다. 혹은 대부분의 명물이 그러하듯이 그들도 역시 단순한 명물로서 진중(珍重)히 여겨질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일본지방에서의 작업을 본 적은 없지만 시마(志摩)의 해녀들 사진을 보면 그녀들은 모두 나무물통을 띄워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취향에서 말한다면 바가지를 띄우는 쪽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녀들은 부단히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근육은 탄탄히 죄여져서 특히 허리에서 발에 걸친 하체에는 보통의 여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감이 없고, 마치 남자와 같이 보인다.

제주도는 예전부터 「여다남소(女多男少)」의 땅이며 지금까지도 그러하다. 몇 사람의 첩에 기대어서 빈둥빈둥 지내는 팔자 좋은 사나이도 있다고 한다. 해녀로 유명한 시마지방의 이시가가가미(石鏡)란 곳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고 한다. 여자의 남편을 획득코자하는 경쟁이 여자를 바닷속으로 잠입케했다는 논리는 반드시 맞지 않는 바도 아닐 것이다. 바다에 관계되는 것으로 실로 원시적인 것은 전나무 꺾데기에 얽어서 그 위에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함인지 난간을 종횡으로 얹힌 뗏목이다. 도민은 이것으로 바다에 나가 뜰망을 내리고서 고기를 잡는다고 한다.

제주도의 사람과 마을

미즈키 도라오(水城 寅雄)

섬의 생활

○ 여자는 보통 속옷 치마, 짧은 치마(裳), 땀받이(襦)요대 등을 착용하며 기후에 따라서 겹옷, 홑옷, 솜 넣은 것을 입는 것은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인데 일반적으로 홑속옷(單襦衣)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고 속옷(襦衣)은 백, 흑 또는 분홍색이다. 지위 고하에 따라 복장의 종류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소녀의 복장도 대체로 어른과 비슷한데 유아는 남자나 여자나 속옷, 허리감기 등을 사용하는데 그친다.

여자는 하얀 무명으로 된 백건(白巾)을 사용한다. 상류계급에서는 풍차(風遮·註=머리에 쓰는 防寒具)라는 것을 드물게 사용한다.

○ 조업시에는 일종의 해녀복을 입는데 한쪽에 테왁을 붙들고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며 물안경을 끼고서 바닷가를 건너 채취장으로 가는데 채취장이 먼 경우에는 수십명이 한패가 되어 뗏목 또는 작은 배를 타고 나간다. 테왁은 그물주머니를 붙인 채로 항상 물 위에 띄워 두며 물 속에서 떠올라 채취물을 그물주머니에 넣고 그 위에 배를 얹혀 휴식 또는 부유한다. 그녀들은 한 사람이 떠오르면 한사람이 자맥질하는 식으로 교대로 일을 한다. 그

녀들이 차가운 물을 견뎌나가는 힘은 대단해서 임신 중에도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 해녀의 하루 수확은 최고 1월20전에서 최저 20~30전 정도 된다. 전라도 연안으로 가는 출가자는 3~4톤 되는 범선을 이용하고 경남·강원·함경도 등 각도 및 일본방면으로의 출어에는 발동선에 의해 바로 목적지로 향하는 자도 있으나 보통은 기선 편으로 부산으로 나가 마끼노시마(牧島·지금의 영도)의 근거리로부터 목적지로 출어한다. 일반적으로 도외로 출어하는 경우에는 15명 내지 20명의 해녀와 뱃사공 1명, 선원(槎工) 2명쯤이 일원이 되어 출발한다. 이들 출어해녀의 어획물은 주로 우뭇가사리·미역·은행초·앵초·청각채와 같은 해조 또는 전복, 소라 등과 같은 조개류이다.

해녀는 소수의 독립된 출어자를 제외하면 모두 객주(客主)의 손에 의해 출어한다. 객주는 부산 영도에 거주하고 그 수는 60수명을 넘지만 이들 객주는 출어지 해조상(海藻商) 밑에 있어서 해녀의 모집 및 감독을 맡으며, 매년 음력 1~2월경엔 섬에 와서 해녀를 모집한다. 이 객주가 예정수의 해녀를 확보하려고 꾀하는 결과 혹은 남편의 승낙없는 부인과 계약을 맺고 혹은 미혼의 부녀를 유괴한다고 하는 폐해도 있다. 또 선불금(先拂金)을 주고 이에 대해 높은 이자를 탐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본 남편 근친자 등의 감독이 붙지 않은채 딴 남자와 접촉하기 때문에 출어한 곳에서 중혼(重婚)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의 自然과 風物

츠루다 고로오(鶴田吾郎)

○ 다음에는 제주도의 여인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 섬은 부인이 참으로 일을 잘 하는 곳인데 12~13세 꼬마 아가씨에서부터 60세 정도의 노파까지도 집밖에 나가 무언가 일하고 있습니다. 섬의 여자란 것은 대개 미인형을 갖추고 있지만 제주도의 부인들로부터는 특히 그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용모에서 말한다면 일본인에 가깝고 체격도 좋으며 빛깔도 해안이면서도 검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 부인들의 복장은 대체로 육지 조선과 큰 차이가 없지 마는 다만 다른 것은 머리에 반드시 폭넓은 백포(白布)를 두르고 뒤로 묶어서 늘어 뜨리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은 얼굴모양을 잘 보인다고하는 기교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며 또 바람이 세다고하는 것도 이와같은 습관을 만들어낸 것이겠습니까마는 이 '수건'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르는 것은 특히 섬 여인같이 보여서 좋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짐이 됨직한 것은 모두 지고 다닙니다. 바구니를 등에 하고선 끈으로 어깨로부터 돌려 지고 가는 것입니다. 머리에 얹어 물건을 나르는 것은 육지 조선에서 온 사람뿐으로 섬 여인은 결코 머리에는 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등지에 있는 것과 같은 물동이를 바구니에 넣어 물 길러도 나갑니다. 장작이건 세탁물이건 무엇이든간에 져서 가는데 심한 것은 비료로 쓰는 것마저도 이 동이에 넣어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돌아가는 사람, 이것은 노약(老若)의 구별 없이 짐을 등에 지고서 섬 길을, 예의 하얀 수건을 햇빛에 반짝이면서 지나는 풍경은 특수한 감명을 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시몬이나 곱테 등이 바닷가 풍속을 유화로 그리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과 공통된 감흥을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여인들은 어떤 계급이냐고 하면 대부분 일하는 데 있어서는 빈부의 차가 없고 더욱이 제주도에서는 대단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니까 전적으로 부인이 일하는 것은 천직, 혹은 부인의 일체의 임무인 것 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 모양이 아름다운데다 노작(勞作)을 자연 속에서 하는 것이므로 저절로 건강미가 우러나와 부인노동의 비천(卑賤)함이란 것은 털끝만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의복도 최근부터 사용되고 있는듯 하지만 완전 백색이란 없고 쥐색·다색·흑·황색 등 상의 또는 치마 빛깔 있는 것을 쓰며, 옷감은 세루(註 = 서지·serge)나 비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는 의외였습니다.

○ 옛날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신(臣) 서복(徐福)에게 명하여 불로불사(不老不死) 영약(靈藥)을 동쪽나라에 가서 구해 오도록 하였던 바 서복은 이 서귀포에 와서 약을 얻었지만 미인에게 마음을 끌려 서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서복은 일본에서 죽었다고 하는 일설도 있고 또 삼신인의 출현 연대와 진의 시황제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약초가 풍부하게 있는 점이라든지 중국과 일본과의 중간에 있는 섬이므로 이러한 전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는 서복이 간신히 약초를 얻었으나 미인에게 이끌려 잠시 체재한 후 마침내 돌아가려고 할 무렵 정방폭포의 바위에 글자를 새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약초와 미인은 지금까지도 제주도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서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빚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복은 끝내 서쪽으로 가려고 떠나 시황제에게 약초를 받치려고 돌아가보니 이미 황제는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 해녀는 전도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 수 1만6천여명. 지금은 제주도의 해녀가 섬뿐만 아니라 일본 해안에까지 진출해서 그 높은 능률을 발휘하고 있는 형편으로 여자가 일하는 영역도 해녀에 이르러서는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고 하면 누구든 바다에 나갈 적에는 4, 5인 이상이 모여서 구덕을 지고 낚, 장작, 짚 등을 준비하고 그물은 수확물을 넣기 위하여 바닷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바가지를 띄우기 위해 끈으로 묶어둡니다. 마침내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는 적당한 바위그늘을 찾아 의복을 벗고 해녀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빛깔은 대체로 검은 색으로 유방에서 허벅지 위까지를 덮는 듯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짝 입는 것이니까 모양은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녀복의 특색은 오른쪽을 갈라서 4·5군데

끈으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젖은 것을 벗는데도 이쪽이 간편하다고 합니다. 시마(志摩・註=三重縣 동부) 부근의 해녀들이 입는 간소복 등은 물에 젖게 되면 매우 불편한 모양이 된다고 하는데 제주도의 해녀는 상당히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흰수건을 두르고 물안경을 끼고서 3·4인씩 바다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는 해녀다운 강건한 사람도 있지만 해녀의 견습생이란 것은 11~12세부터 18~19세 까지의 처녀로서 이것을 선배해녀들이 그 나이 무렵부터 지도하게 되는데 실지 연습을 위해 바다속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들 젊은 해녀들의 나체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데 건강미에 빛나는 순진한 표정은 자연스러움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물속으로 자맥질하는 것은 대개 1분간까지인데 얼굴을 수면으로 올렸을 때 호흡을 하기 위하여 「휴」하고 휘파람을 불니다. 이 「휴 휴」하는 휘파람 소리가 바람 잔 수면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면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바다의 풍요라고 할까. 그러한 한가로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바닷속에 잠입했다가 떠오르곤 해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전복, 소라, 해삼, 미역, 감태 등을 잡아 올립니다. 이어서 바위그늘에 모여서 거기서 장작불을 때면서 머리 손질을 한다든지 의복을 갈아입기도 하는데 이때 해녀들이 자연적으로 연출하는 나체 포즈란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것으로써, 서양화가들이 모델을 써서 판에 박은 듯한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생각하면 꼭 제주도로 가서 그들을 보도록 말하고 싶어집니다.

濟州島俗信雜記

아카츠모 도모시로(赤松智城)

(2)

○ 석상(石像)에서는 제주읍의 교외(郊外) 동서에 상대하는 남녀의 미륵상(彌勒像)이 유명하다. 즉 동쪽 산지천(山地川) 부근에 있는 미륵은 여형(女形)의 석상으로, 따라서 남자가 참배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배자가 거의 없지만 이에 상대하는 서쪽 교외 병문천(屏門川) 근처에 있는 대소 2종의 미륵은 남상(男像)이며 더구나 그것은 분명한 남근석(男根石)인지라 오로지 여자가 참배하는 존상(尊像)이 되어 있다. 그리고 큰 미륵상의 복부에는 마치 임부(妊婦)의 암일대(岩日帶)와 같이 백지를 감아 이것을 미륵대(彌勒帶)라고 칭하며 구자(求子)의 기원(祈願)을 위해 무당이 원자(願者)의 의뢰에 의해 붙인 것이다. 또 작은 미륵의 석상은 특히 불자(佛子)라고 불리어 이에 씌어진 백지는 곡깔(像帽)이라고 하고 있지만 가장 절실한 요구인 기자(祈子)를 위해 이곳에 참배하는 여성은 실은 남 몰래 이 남근석 불자에 가랑이를 벌리고 서서 기괴(奇怪)하고 오히려 노골적인 모방적 주술행위(模倣的 呪術行爲)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미륵은 여기에서는 일종의 성신(性神)이 되며 도 생식기 숭배의 대상이 되고도 있다는 것은 실로 괴이(怪異)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본래의 여음석(女陰石)이나 남근석

에 뒤에 다소의 인공을 가해 조각(彫刻)도 하고 제멋대로 미륵의 이름을 여기에다 붙였음에 다름 아닐 것이다.

(3)

○ 제주도에서 신사(神事)를 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무당이며 전도를 통틀어 천명의 무당이 있다고 할 만큼 그것은 매우 왕성한데 그러나 실수(實數)는 본디 분명치가 않다. 무당의 통칭은 육지와 마찬가지로 무당이지만 경칭(敬稱)으로는 신방(神房)이라고 불리며 그 영수(領袖)를 수무(首巫) 또는 수신방(首神房)이라 칭하고 여무(女巫)를 특히 「애무당」이라고 하는 일도 있다. 내륙의 남조선 지방에 의하면 이 섬에는 남무(男巫)가 다수이며 특히 유력한 수무에는 남성이 많다. 근데 대단한 세역(勢域)이 있던 토산리(兎山里)의 신왕돌(愼王鬘) 여무(女巫)도 적잖을 뿐 아니라 주로 치병(治病), 특히 소아 치료를 위해 초청되는 천한 무파(巫婆)의 한 패도 이 여무들 가운데 있다. 이것은 정식 무당은 아니지만 역시 신방이라 불리우며 무당이 상용(常用)하는 북 대신에 바가지를 두들기는데 때로는 이것은 두드리지 않고 환자의 머리맡에서 주문(呪文)을 외우면서 병마(病魔)를 창구로부터 집 밖으로 내쫓는 등의 간단한 행사를 집행하는 자로서 그것은 소위 「선무당(未熟巫)」류에 속하는 저급한 여자무당이다.

무당 제신(祭神)의 일례로서 필자는 제주읍의 유력한 한 수무(首巫)의 고임생(高任生)이 봉사(奉祀)하는 제신상(諸神像)을 보았는데 그 신위(神位)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본궁위 (本宮位 · 最高神으로서 여성임)
 제석위 (帝釋位 · 남성)
 수령위 (水靈位 · 남성)
 원망위 (冤望位 · 남성)
 천자위 (天子位 · 남성. 별도로 여성의 천자위도 있어, 한라산의 여신이 그것이며 龍王의 5남의 처라고 한다)
 감찰위 (監察位 · 남성 首巫에게만 내리는 신이라고 함)
 상사위 (相思位 · 남녀부부 相思의 신으로 꽃밭에 내린男神)
 중전위 (中殿位 · 상사위의 처)
 향군위 (向軍位 · 천자위의 처)
 유아위 (維兒位 · 향군위의 처)

한편 필자는 우연히 이 수무 고소인이 행하는 무제(巫祭)를 제 주읍 삼도리의 모씨덕에서 주야에 걸쳐 구경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단지 이 섬의 무당과 민간의 의례행사(儀禮行事)와의 어떤 관계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서귀포 면장에 따르면 종래 무당은 보통 때는 천역(賤役)에 쓰이지만 관혼상제의 겨우 특히 결혼식과 장례(葬禮) 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즉 결혼의 행렬에는 여자무당이 말에 타서 앞장 서서 중요한 예장(禮狀)을 지참하며 그의 남편인 남자 무당이 이에 쫓아간다. 신부 집에 이르러서 그 예장을 제출, 만일 이것이 상대방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하면 결혼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몇 번이나 예장을 새로이 써서 이를 바치는 일이 있다고 한다. 또 무당은 장례 때는 관(棺)

의 신발을 지참하는데 이것은 무당 전유(專有)에 속하는 일이다.

이렇듯 평상시는 천시 당하는 무당도 이런 의식 때는 일변(一變)하여 특권을 지니는 사람이 되며 그 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일 같은 읍리(邑里)에서 결혼식이나 장례가 겹쳐 무당이 동시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에서 무당을 초청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찍이 무당이었던 사람을 초빙하는 것이다. 이런 때의 무당에의 사례(謝禮)는 이전엔 1원 내외였지만 현재는 3원에서 7~8원까지, 의뢰자의 빈부에 따라 다르지만 그 1개월의 총수입은 수십원에 오를 것이라고 말해진다.

또한 면장의 말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결혼식 및 장례와 의 중요한 관계는 서귀리의 좌우 양면(兩面)에 있어서는 물론 제주섬 전체를 통해서도 한결 같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주읍에서는 결혼식 때 무당이 전안(奠雁)과 신랑의 침구를 갖고가긴 해도 장례식에는 관여 않는다는 것을 필자는 들은 일이 있다. 이 섬의 무당이 현실적으로 민간 행사에도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그 역할에 대해서는 도내에서도 다소의 지방적 차이가 있어, 전도에 걸쳐 반드시 꼭 같지는 않다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순옥 탄원서(嘆願書)와 경력(經歷)

해제

이순옥 탄원서와 경력은 『이재수실기(李在守實記)』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재수실기』는 1901년 제주민란의 최고 장두였던 이재수의 일대기를 적어 놓은 기록이다.

1932년 일본 오사카[大阪]에 거주하였던 제주 출신의 조무빈(趙武林)이 기록한 것으로 이재수의 누이 이순옥(李順玉)의 구술을 바탕으로 하여 전기문 형식으로 엮어졌다. 구술을 기본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는 떨어지지만, 다른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 주요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재수의 출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재수(李在守, 1877~1901)는 제주도 대정읍 인성리에서 아버지 이시준(李時俊)과 어머니 송씨(宋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군사놀이를 즐겼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고 『이재수실기』는 전하고 있다.

『이재수실기』는 조무빈이 사실 그대로 기록하려 노력했다고 서문에서 밝혔지만,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된 부분도 많이 보인다. 여기에 수록된 이순옥의 탄원서는 ‘이재수란’ 과 오빠 이재수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넘어서서 제주여성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사료라고 본다.

어리석고 미혹한 어린 계집아이가 각하 전에 활달스럽게 무슨 말씀을 올리리까마는, 원통한 마음으로, 목숨을 앗기지 아니하여 생전에 슬프고 애달픈 말씀을 소녀의 둔필로 입을 대신하여 원정을 올리오니, 각하께옵서 날빛같이 인간을 하찰하시어 얼음이 녹는 것과 같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이십여 년 전에 집은 본래 가난하여 생활이 겨우 면사할 따름이오나, 부친님은 일찍 죽어 없으므로 다만 어머니와 오라버님과 소녀 등 삼인이 즐겁게 거생하는 중, 지난 신축년 성교도란에 인민이 교도에게 압박을 받아 한시라도 유쾌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며 크게 소동이 되어 있는 터에, 소녀의 오라버님은 당년 이십오 세인데, 민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도내의 인민을 인솔하고 스스로 선봉장이 되어 왕성한 성교 폭도를 처벌정할 때에 모든 인민의 철천지원통과 인정을 바로잡아 해결시키며 함성하여 주려죽는 백성을 구원하여 있는 후, 수일이 못되어 이왕 전하 어전에서 호출하여 상경한 후에는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고로, 어떠한 사실에 사형을 받아 죽었는가 의심하여 집을 떠난 날로 기일을 정하고 제사를 시행하나, 남녀간 후가 없는 고로 모친님이 풍속을 좇아 향제하옵는데, 기제일 당하면 수삼일 전부터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못하여 주야를 물론하고 나오는 것은 한숨이요 흐르는 것은 눈물이요 들리는 것은 울음소리뿐이온데, 항상 듣는 바 그 슬픈 소리에 있도되,

“유명무실한 제주목사의 비석은 곳곳마다 세워 있건마는 어찌하여 도탄 중에 들어 있는 일반 백성의 원을 풀며 인정 바로 잡아주는 나의 아들의 비석은 없으며, ‘이재수전’이라 하여 내 아들

의 행적 잡지는 사람마다 받아 읽는 말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귀밑에서는 읽어 알려주지 아니하느냐? 지금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 있나 죽어 있나? 내 아들을 내가 죽어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만나 볼 수 있을까? 답답하다. 이 세상 사람들 나의 아들을 아무 죄도 없이 어디로 보내어 나의 간장을 끊는고?”

하며 반생반사라. 온 정신이 혼혼하여 생사를 분별키 어려울 때마다 소녀가 항상 간유하며 만류하다가 지금은 칠십 당년이라 금일명일 생사가 알 수 없는 고로, 소녀의 늙은 모친님 일생의 철천지원통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엮드려 사퇴오니, 각하께옵서 하감하시어 후 없고 애 무한 소녀의 오라버님에게 인정을 표하시어, 늙은 모친의 마음을 만분지일이라도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삼년 이월 이십륙일
제주도 대정면 인성리
이순옥 상서
조선총독 각하

순옥의 경력

사방은 적적하여 죽은 듯 밤은 고요하고 산방굴사 야반의 종 소리는 줄줄 내리는 굽은 비 소리에 섞이어 조그마한 초가집 안방에 누워 있는 순옥의 귀에는 처량하게도 들린다.

순옥은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남들은 다 잠을 자는 정밤 종까지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연연한 약질에 번민인 듯 고민인

듯 그 수심에 쌓인 얼굴은 누가 보든지 중병을 치르고 겨우 일어난 사람 같았다.

스무사흘 새벽달은 창틈으로 비추어 베개 위에 고요하고 토벽에서 ‘직직’ 하는 실솔성은 간단없이 읊조리며 ‘꼬끼오, 꼬끼오’ 나래를 툅툅 치는 닭의 울음을 날 밝기를 재촉하여 수심인 듯 변민인 듯 전전불매하는 순옥의 가슴을 자극한다.

연기 십오 세 겨우 된 순옥은 아무리 팔모로 뜯어보아도 활발한 기상은 한 점도 없는 것 같았다.

순옥은 항상 고대소설에 착미하여 『심청전』 한 권을 밥 먹을 때를 제하고는 어느 때든지 손에 놓지 아니하고 보는 특성이 있다.

“아! 심청은 어린 가슴에도 망목된 부친을 위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공양미 삼백 석에 팔리어 어두운 눈을 다시 밝게 하였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나도 오빠의 억울한 일을 어서어서 하루바빠 신원을 하여야지. 우리 오빠는 이십오 세 청년으로 도탄에 든 제주 백성을 위하여 악마 같은 폭도를 소멸하고 음흉한 불란서 선교사 무리를 구축하여 입신양명하기는 고사하고, 간인의 음해를 입었는지 불란서 선교사 무리들에 잡혀 죽었는지 한 번 가신 후로 오늘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 참 억울하기가 가이 없다. 어머니께서는 저렇게 날마다 수심 걱정으로 눈물이 마를 사이가 없고 집은 넉넉지 못하여 겨우 지내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신원할꼬?”

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변민하였다.

살같이 빠른 세월은 물같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또다시 가을이 와서 순옥의 연기는 삼십삼 세에

이르렀다. 일구월십 그의 수심은 깊은 잠 들기 전에는 잊히지 못하였다.

순옥 여사는 정든 고국과 사랑하는 어머니 슬하를 떠나 산 설고 낮은 만리 해외에 한 개 외로운 손이 되었다. 순옥 여사는 곧 그의 친척이 유숙하는 대판시 히가시구 가라호리 좌도화 집을 찾아서 주인을 정하고 재봉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원만한 점을 얻지 못하였다. 그의 당초 해외로 건너온 목적은 금전을 모아서 오빠의 억울한 행적 실기를 저술하여 세상에 반포하고자 하였으니, 금전을 모을 수가 없다. 금전을 모을 수 없는 이상에는 오빠의 실기를 저술할 수 없다.

오빠의 실기를 저술하여 세상에 반포치 못한 순옥은 수심이 병이 되어 점점 난치지경에 이르렀다. 대정 병이란 것은 올 때에는 소리 없이 오되 갈 때는 반드시 무형적으로 물러가지 아니하여 각종 의약으로 구축하여도 상당한 시일을 허비하며 적지 않은 금전을 소모할 뿐 아니라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고 마는 것이다.

이 중병에 걸린 순옥은 생래 초면인 만리타국에서 홀홀단신 고독한 몸으로 생활이 곤란한 중에 설상가상으로 난치지증이 되어 기거 동작이 자유롭지 못하여 하염없는 눈물은 시름없이 내려 고국 부모형제를 생각할 때에 쇠약한 정신은 가끔 염라국을 꿈꾸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여간 가정 병약으로 치료는 하여 보았으나 조금도 효력이 없어 점점 위중하여 실내 동작도 불가능이다.

이 비경에 빠진 순옥은 간신히 동구 구장 마쓰이 상을 방문하

고 자기 병세와 생활 상태를 일일이 애원하였다. 마쓰이상은 인류애의 동정으로 무료치료권을 교부하여 적십자병원으로 지도하였다. 무료권을 받은 순옥은 매일 삼십 정 거리나 되는 병원에 다녀서 복약한 지 일개월 만에 전치되었다.

몸이 전치된 순옥은 오빠 일에 더욱 정신이 쏠리어 간간이 속증이 발할 때는 실신한 사람 같다.

오빠의 신원할 생각이 뇌수까지 박힌 순옥은 금일에 이르러 그의 종질 십일 세 된 응백으로 그의 오빠의 계후까지 하였다.

대저 여자는 그의 남편을 위하여 희로애락을 한 가지 하여 남편이 불행히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시는 혹 단지도 하고 종사도 하는 일은 간간이 있지만, 이순옥 여사는 반평생을 두고 그의 오빠 신원할 생각이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하늘같이 오늘까지 이르러 간혹 자기 처소에서 목욕재개하고 정한수를 받들어 천지에 암축하는 일도 있다.

濟州島實記

附 耽羅誌 補遺

해제

『제주도실기』는 제주 출신 향토사학자 김두봉(金斗奉)이 제주도 관련 자료를 모아서 1936년에 간행하였다. 서언에 보면 제주도실적연구사편집부는 제주도실적 연구사를 조직하고 동영잡조(東瀛雜調)·탐라지 등을 再刊하면서 먼저 제주도실기를 간행한다고 밝혔다.

이 책의 목차는 <1장 건치연혁, 2장 지리하천, 3장 기상, 4장 교통 및 통신, 5장 성내연혁, 6장 종교연혁, 7장 교육상황, 8장 농산의 유래와 발전된 종류, 9장 농사를 권장하는 춘경굿 풍속, 10장 축산의 발전, 11장 삼림과 조림의 흥미, 12장 무진장의 보고 제주도 해안, 13장 고래(古來)의 유품, 14장 김녕당 전설, 15장 풍속적 연등신, 16장 한라산 기 역, 17장 영주십경가, 18장 용연야범가, 19장 농부가, 20장 부두에서 본 감상, 21장 약수폭포, 22장 한라산 별곡, 23장 선시(鮮詩), 24장 조어가, 25장 고대인물, 26장 효자, 27장 열녀, 28장 토요(土擾: 민란), 29장 부록, 30장 성주 왕자전, 31장 이조의 문치, 32장 총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제주여성 관련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했다.

제13장 고래(古來)의 유풍(遺風)

○ 본도는 바다 위에 외롭게 서 있어 옛사람들이 남조선(南朝鮮)이라 부르던 별세계인지라 풍속, 인정, 언어, 습관 등이 조선 반도와 다른 점이 많다. 남녀가 근검하며 여자는 짐을 머리 위에 이지 않고 등에 저서 운반한다. 출입할 때는 대바구니를 허리에 끼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닌다. 가옥제도는 보통 작지만 처마 끝은 높아 문호(門戶)가 높고 보통은 퇴창(退窓)을 사용하니 보기가 시원하다. 새[茅]로 지붕을 이어 큰 줄로 종횡으로 엮고 2년간 비·바람을 막는다. 사면이 바다여서 바람이 많은 까닭이다.

○ 양아(養兒)의 풍속

아이가 나서 3일이 지나면 대바구니에 편안히 눕히고 강보를 덮고 양아(養兒)의 노래를 부르니 이는 중국 강남의 유풍이요 아이를 등에 업는 식은 일본풍과 비슷하지만 그 역시 개량하여야 될 것이다. 발로 바구니를 흔들며 손으로 양태를 짜며 양아가(養兒歌)를 부르는데 곡조도 아름답다.

○ 생활의 정도

남녀간에 독립적 생활을 좋아하며 빈부의 차 등으로는 최고 부자가 20만원 가량이요. 극빈자라도 200원 이상 정도인데 평균적 생활을 하므로 거지가 별로 없다. 아들이 20세만 되면 독립생활을 시킨다. 가령 한집의 재산이 천원이고 아들이 4형제라면 그

재산을 여섯으로 나누어 큰아들은 두 배로 주고 각각 1배씩을 나눈다. 미성년 자식의 재산은 부모가 보살핀다. 부모 중에 만약 죽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재산은 생존한 아버지가 보호하다가 그 부모가 죽으면 유언에 따라 큰아들이 차지한다. 불량한 자식이 있어 낭비하더라도 급한 화(禍)는 미치지 않는다. 그런 때문에 80노인이라도 재산이 있고 미성년 소년에게도 재산이 있다. 농가에서 가족이 식당에 모여 한 그릇에 같이 먹는 것은 오랜 옛날의 유풍이다. 가족의 단합성이 짙고 편리한 풍속이었으나 그 또한 개량이 요구된다. 밥을 먹는 곳 즉 부엌이 따로 있으니 가옥제도가 질서정연하다.

○ 심성(心性)

본도의 해변에 사는 백성들은 거의 海業生活을 하는데 여자는 바다 밑에 잠입하여 전복, 해삼, 조곽(藻藓 : 미역과 해조류) 등을 채취하니 부인의 기술로는 세계에서 다시없다.

○ 제주도의 특색(特色)

신화 중에 세 여인이 일본에서 왔음을 말했지만 말 가운데 사투리가 있으니 햅수과, 하나네, 마랑, 아다리, 이것은 부인이 사용하는 말이다. 지금은 경성말(서울말)을 많이 사용하여 듣기 좋고 본도 사람들은 보통 일본말을 속히 익힌다. 부인의 기술에 심산(心算 : 속셈)을 잘하며 바느질할 때 방식도 일본부녀의 방식과 같다. 남자는 상공에 힘쓰나 보통 항해의 기술이 많다.

제14장 김녕당 전설(金寧堂 傳說)

○ 김녕은 성내에서 동쪽 해변으로 약 50리에 있는 촌락인데 동북쪽으로 약 3마장(馬場)쯤 나가면 큰 굴이 있다. 길이가 10여 리나 되고 높이가 7~8장(丈)이 되고 넓이는 5간 남짓 한데 그곳에 요망(妖蟒 : 큰 뱀)이 있었다. 크기가 굴의 반이나 되고 큰 귀가 달렸으며 항상 굴에 있어서 작요(作妖)하니 상고(上古)에는 목사와 주민들이 술과 음식을 차리고 만 15세 처녀로 제수(祭需)를 대신하였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바람의 재앙과 비의 재앙이 한 해가 다가도록 끊이지 아니한다 하여 토민과 목사는 지극히 경외하였다. 중종 10년 판관 서련(徐麟)이 부임하여 풍속을 물으니 이속(吏屬)들이 굴에 관한 말을 하였다. 서련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요물 때문에 무고한 처녀의 생명을 죽게 하려느냐고 따졌다. 봄에 군교(軍校) 10명을 뽑아 창과 칼 염초(焰硝) 신탄(薪炭) 등을 준비하고 전과 같이 제를 올리게 하였더니 과연 대망(大蟒 : 큰 뱀)이 나타나 처녀를 먹으려 하였다. 서련이 수창(手槍)으로 용감하게 대망을 찌르니 군교들이 뒤를 따라 일제히 찔러 대망을 죽인 뒤 그 시신을 끌어내어 불살랐다. 서련은 끝마무리를 하고 말을 달려 성으로 들어올 때 홀연히 뒤에 홍색기운(紅色氣運)이 보이더니 서련이 관아에 이르러 혼절,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촌민들은 더욱 판관의 죽음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로부터 대망의 요흥(妖兇)은 없어졌다. 그러나 또 그 마을 남쪽에 굴이 있으니 이름이 돈굴(豚窟)이다. 큰 돼지를 희생으로

하여 지금까지 봄, 가을 제를 올려 액을 물리치고 복 받기를 빈다. 다른 마을로 이사하여 있어도 원근을 막론하고 일 년에 한 번씩 굴에 와서 제를 올리며 또 무엇이든지 새로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 굴에 제사한다. 근원은 자세치 않으나 원나라(元) 백성들이 김녕에 거주하며 제사를 지내던 유풍인 것 같다. 윗 기록에 홍색기운이 보였다는 말은 와전(訛傳)인 것 같다.

○ 광정당(廣靜堂)의 전설

산의 서쪽 대정 산방산 밑 길가에 음사(淫祠)가 있으니 당주(堂主)는 역시 대망(大蟒)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곳에 이르면 예배하고 또한 말 탄 사람은 말을 내려서 간다. 그렇지 아니하면 말이 발을 전다고 한다. 숙종 28년 목사 이형상(李衡祥)이 순행(巡行)할 때 광정당에 이르러 아전들이 하마를 청하였다. 목사가 이유를 물으니 아전이 말하기를 이곳에 음사가 있어 하마하지 아니하면 말이 발을 전다 했지만 목사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나갔더니 과연 말이 발을 절어 걷지 못하였다. 목사가 친히 그 당에 이르러 무당을 불러 말을 잡아 제사하여 귀신을 보려 하였더니 대망이 나타나 사명기(司命旗)를 독설(毒鬮)하려 하므로 목사가 대망을 베고 당을 불 질렀다. 이로부터 이형상이 당사(堂祀)의 휘철을 주창하여 당은 500, 절은 300여 곳을 불 지르고 승려와 무당들은 다 관예(官隸)로 정하여 버렸다. 그 뒤로 승려의 해독(害毒)과 무당의 폐해(弊害)는 근절되었으나 광정당 부근의 주민은 지금도 그 당을 위한다고 한다. 그 역시 원나라 백성들이 그 부근에 거주하며 위하던 신당인 것 같다.

○ 설만두고(雪漫頭姑 : 설문대할망)의 전설

옛적에 한 신녀(信女)가 있었는데 속칭 설만두할망(본도 방언)이라고 부르고 사마고파(娑麻姑婆)라 하니 그 키가 거의 하늘에 닿을 듯 하고 손으로는 한라산을 짚고 발로 푸른 바다의 푸른 물결을 희롱하며 땅을 옮겨 봉우리를 만든다 하였으니 그 사람 됨이 장대함은 가히 상상할 만하다. 항상 말하기를 이 섬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옷 한 벌을 지어주면 그 보수로 내가 반드시 이 섬에서 대륙까지 다리를 놓아 걸어서 왕래하게 하고 배를 타고 다니는 어려움을 없게 하리라 하며 용기를 뽐내었다. 하마터면 다리를 놓을 뻔 하였으나 애처롭게도 그 당시 이 섬 사람들이 힘이 부족하여 요구한 옷 한 벌을 하여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끝내 다리는 성사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천곶(朝天串)이 그 당시 다리를 만들려던 흔적이라 한다. 제주성 동쪽 신촌리 바위 위에 거인의 발자취가 있으니 속설에 설만두할망의 발자취라 칭하고 그밖에도 전해오는 전설이 많다.

○ 강림(姜林)의 전설

옛날 김치(金緻)가 판관인 때에 어떤 여자가 호소하여 말하기를 나에게 아들 셋이 있어서 재주가 뛰어났는데 나이가 열 살이 지나 모두 죽었으나 원통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판관님께) 고(告)한다 하였다. 판관이 그 말을 듣고 즉시 서첩(書帖)을 뇌자(隸子 : 옥을 관장하는 관리인 듯) 강림(姜林)에게 주면서 저승에 가서 주부(主簿)를 잡아 오라고 하였다. 강림은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여 서첩을 가지고 한라산에 가서 정성을 다하여 제사하

여 빌었다. 밤 4~5경(更 : 새벽 2~5시)이 되었는데 음산한 바람이 일어남에 따라 붉은 관을 쓰고 까만 옷을 입은 한 신인이 공중에서 말하기를 내가 저승의 주부노라고 하면서 김판관의 명을 어길 수 없어 너와 같이 가겠노라 하였다. 강림은 그를 묶어 돌아와 관청에 고했다. 김판관이 관복을 갖추고 맞이하며 말하기를 어느 집의 세 자식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었다. 그대가 명철하게 저승 문서를 주관하면서 법을 집행함이 어찌 이리 불공평하나 하니 신인이 말하기를 원컨대 그 여자를 불러 오시오 하므로 판관이 뇌자에게 명령하여 그 여자를 불러 뜰에 꿇어앉게 하였다. 신인이 소리를 가다듬어 말하기를 너에게 간부(奸夫)가 있어서 본 남편이 병이 들었을 때 간호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세 아들이 있으나 다 너의 죄악 때문에 요절한 것이다. 모진 형살하는 이에게 좋은 보답은 없는 법이다. 어찌 원통하다 말하느냐고 따지니 여자가 부끄러워 함구무언하여 물러갔다. 신인이 김판관에게 요청하기를 강림은 참으로 부릴 만한 사람이어서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하고는 손을 흔들어 작별하니 홀연히 사라졌다. 때마침 강림은 다른 균졸들과 같이 뜰에 늘어서 있었는데 홀연히 땅에 넘어져 죽었다. 이는 강림이 저승주부가 데리고 간 것이라는 무당들의 구전이 아주 많다. 훗날 중국 절강(浙江) 사람 오서신(吳書紳)이 본도에 표류하여 김치의 시문을 보다가 계단 밑으로 내려가 절을 하였다.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세속사람이 아니라 훗날 저승 관원이 될 것이라 하였다.

제15장 풍속적 연등신(燃燈神)

연등의 기원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전설에는 중국의 상인이 제주의 경내(境內)에 표류하여 죽었는데 몸등이가 나뉘어져 머리뼈는 어등포(魚登浦)에 이르고 손과 발은 고내(高內)와 애월·명월포에 이르렀다. 그랬기 때문에 매년 정월 말일에 서쪽 바다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연등신이 내려온다 하여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은 무당을 불러 야사(夜祀)를 지내고 밤이 낮 되도록 폐배를 만드는데 머리는 말(馬)의 머리와 같이 만들어 비단으로 꾸미고 약마희(躍馬戲)를 하여 귀신을 즐겁게 하고 2월 보름이 되면 가주(假舟)를 만들어 돛을 달아 포구에 띄우며 무당이 주문(呪文)으로써 신을 전별하는 의식을 행하여 귀신을 보내는데 그때에 동북풍이 불면 연등신이 떠났다 한다. 2월 초일에 날씨가 따뜻하면 옷 벗은 연등이 왔다 하고 날씨가 사납게 추우면 옷 잘 입은 연등이 왔다 하며 비가 오면 우장 쓴 연등이 왔다 이르니 이는 무당들이 하는 말이다. 2월초에서 보름 뒤까지는 배를 띄우지 아니하고 연등신이 지나가면서 바다의 모든 것을 다 잡아 먹고 간다 하였다. 바닷가에 소라 조개 등의 빈 껍질이 있으면 연등신이 잡아먹고 간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도 연등신을 보내는 풍속이 행하여지고 있다. 산 서쪽의 두모포(頭毛浦)는 연등신을 맞이하는 포구이며 산동 소섬[牛島]은 연등신을 보내는 포구라 부른다. 이 풍속을 배 불이는 사람이나 해녀 등이 주장하는 풍속이다. 신을 맞이하고 보낼 때에 무당의 주문은 아래와 같다.

공신(恭神) 강신(降神) 옥황상제 전위(前位)께 아뢰옵나이다.
연등할멈 연등할아범 2월 초일에 오셨습니다.
거의 15일간 고생하셔서 죄송합니다.

13일날 하는 주문은 아래와 같다.

이 좋은 날에 할멈 할아범 떠나게 되니 곱을 합니다.
14일까지 곱을 하오니 좋은 순풍에 떠나옵소서.
나라 사면 굽어보사 천왕(天王) 인간 차지한 삼신불도(三神佛道)
물차지 황하수(黃河水)요 바다차지 동해 광덕왕(廣德王) 서
해 광인왕(廣仁王) 남해 광신왕(廣神王) 북해 천신왕(天神王)
동해에 요왕(堯王) 높은 신위(神位) 연등할멈 연등할아범 비가
오면 우장을 씩니다.
연등 이방(吏房) 연등 호방(戶房) 선배 후배 좌우 선후배를
세워 2월 초1일에 들어오고 15일에 나갑니다.

이와 같은 주문을 자주 외우며 곱을 한다.

한라산 기행

해제

이은상(1903~1982)은 1937년(정축년 11월 1일)에 이 기행문을 작성했다. 조선일보사가 산악순례사업을 시작해서 두 번째로 한라산 기행을 시도했으며 이은상은 53명의 순례단 단장으로 동참해서 그해 7월 24일 오전 7시 50분 서울역을 출발해서 목포로 향했다. 목포에 머물면서 그 일대를 유람한 후 배를 타서 제주도로 들어왔다.

이은상은 제주도에 도착해서 삼성신화의 발원지인 삼성혈을 방문하고 바다에서 해녀들과 그들의 조업 과정을 구경한 감상을 기행기에 담았다. 이 순례단은 제주도 곳곳의 풍광과 사람들의 생활상을 외지인의 시각으로 관찰한 짧은 경험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제주여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발췌했다.

水國의 淸淨世界

正法眼歲의 最高聖典

○ 우리 一行은 이 섬의 主人이신 始祖三神께 瞻禮하고서 그 길로 海女를 만나러 바닷가로 나왔다. 바다! 바다! 보아도 보아도 바다뿐인 여기! 부딪히는 물결 깨어치는 波濤 소리! 莊嚴한 潮水의 無窮한 行進! 水平線 위에 떠도는 구름과 구름! 물차며 나르는 悠悠한 갈매기!

빛겨 누워 쏜살같이 달리는 白帆! 香氣를 머금고 불어오는 萬里의 長風! 이것이 水國의 驚異, 水國의 風情이다.

○ 말로만 듣고 그림으로만 보던 그 海女들을 만나려는 우리는 모두가 極度の 興味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나는 海女를 기다리는 동안 먼저 茫茫한 大海를 바라보며 琉璃水晶의 淸淨世界에 驚嘆과 凝視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億千萬年の 過去가 이 깊은 바다 속에 깎길 없는 沈默으로 잠기었고 永遠無窮 未來가 저 아득한 水平線 위에서 남모르는 秘密의 춤을 추지 않느냐.

○ 翡翠玉보다 더 파란 바다 위에 默想, 幻想, 狂想의 물기둥이 紫光으로 金色으로 五輝로 七彩로, 혹은 곡두서고 혹은 가로누고 또 혹은 우뚝하고 또 혹은 흔들려서 瑤池의 秘境을 여기 잠깐 열어놓은 듯하다.

一妙一刻도 休息과 靜滯를 가지지 않은 저 물결의 世界!

작은 돌에 부딪히는 작은 물결, 큰 바위에 다닥드리는 큰 물결
이 작은 채로 큰 채로 저마다 판소리 제 각기 다른 빛으로 귀와
눈을 흔들고, 땀기고, 찢고, 빠기고 하여 恍惚한 景觀에 醉하다
못해 지치게 하는 끝없는 神秘의 바다!

자세히 보자.

똑똑히 듣자. 이 最大最高의 眞理, 至玄至妙의 消息을.

「어린 네가 알겠느냐」 하는 듯한 저 眞理의 목소리가 들리는
瞬間 다시 어디로인지 「어린 네게도 알려주노라」 하는 듯한 저
消息의 한 끄트머리가 傳해질 때에 나는 부채살피 듯 가슴을 限
껏 헤치고 歡喜와 感激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내닫고 싶다.

尺寸의 좁은 가슴으로 造茫한 大海와 마주서려 하매 어쩔 수
없이 터지고 깨어져서 半生의 怨恨과 苦悶이 한꺼번에 쏟아져
滄波 위에 鮮血을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서 빈 가슴으로 大宇宙의 眞理와 消息앞에 나와 선 것
이다.

물결! 물결! 그밖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끝없는 바다!

一切의 圓融속을 바라보다가 제 눈마저 그 圓融속에 묻혀 버
리는 瞬間 나는 三千大千世界 微塵數偶의 上本華嚴을 몸둥이로
읽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발끝에 밟히는 조개껍질과 모래알! 코로 들어오는 몸결의 香
氣! 옷자락을 적시는 바다의 濕風!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帆船, 구름, 갈매기, 그리고 깨어지는 泡沫!

어느 것이 神理가 아니며 어느 것이 妙詮이 아니냐. 이대로 如

是法이며 如是說이니 한마디 말도 없고 한 줄의 글도 적지 않았
으되 이 直指妙機를 움직이는 活徑典으로 읽으라 하심이거니와,
茫茫한 大海앞에 나선 지금, 나는 더욱 分明히 無常迅速의 法則
과 그 속에 고여 있는 「사랑」의 大因緣을 깨닫는 것이다.

아침저녁 끝없는 潮水
저 구름 저 갈매기 깊은 물속에
큰고기 작은 조개 어울려 사랑의 因緣
나도 그속에 들었노라.

一鍬一答一瓢子
-水宮을 흔드는 潛女の 휘파람-

우리는 이윽고 배 위에 올랐다. 높은 물결을 헤치고 바다 가운
데로 나갔다. 미리 約束해둔 潛女들이 築港 저쪽으로부터 헤엄쳐
나오는 것을 구경하려는 것이다.

「저기」 「저기다」 하고 一行은 모두들 외쳤다. 알면서도 놀라
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六七潛女들이 혹은 나란히 혹은 떨어져 물결 따라 넘노는 것
을 볼 때 내 입에서는 「저런, 저런!」 하는 潛女の 소리가 나오는
것뿐이나 가슴속에는 무엇인지 알지 못할 한 가닥의 슬픔이 구
름피듯 서리는 것을 깨닫는다.

○ 문득 보매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여섯일곱 뒤옹박만 물 위에

떴다. 놀란 듯 다시 보면 언제 다시 물 위에 솟고, 머리가 나왔다
발이 나왔다 물오리 같이 떠도는 저 놀라운 風景.

무서운 이 물결 위에 오히려 主人公으로 나타난 저 「바다의
딸들!」 넓은 가슴의 抱擁속에 자라난 저 「바다의 사랑!」 그러나
보라. 제 運命 제 一生을 저 바다 속에 내어 맡기고 발끝으로 물
煙氣를 일으켜 제 生命의 설은 자취를 記錄하면서 휘파람으로 「
바다의 딸」된 自己의 萬端情恨을 하소연하는 저 눈물겨운 潛女!

일찍 正宗 때의 詩人 申光洙가 노래하되

一時長嘯吐氣息
其聲悲動水宮幽

라 하였다. 한꺼번에 물 위로 솟아오르며 잠았던 숨을 내쉬던
휘파람은 「세레나데」의 습합이다. 저 슬픈 멜로디, 저 淒涼한 呼
訴! 水宮을 흔들고도 오히려 그 餘響이 하늘에 떠돌아 人生의 괴
로움을 曲曲이 아뢰는 것이 아니겠느냐.

혹은 소리를 들고 나오고, 혹은 文魚를 쥐고 나와 우리가 탄
배 위로 던져 올린다.

그러나 이것을 神奇하게만 볼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열 살에 해엄을 배우고 五十이 넘도록 물속에 살아 추운 겨울
도 生活을 爲하여 오히려 저 물속에 몸을 던지고 어린 子息을
물가에 얹혀 두고서 저녁끼니를 얻으려고 저 깊은 바다 밑을 더
듬는 것이거늘, 누가 저것을 재주라고만 이를 것이냐.

문득 記憶되는 石北의 潛女歌

土俗婚姻重潛女
父母誇舞衣食愛

슬프다! 남으로서 남을 보는 것이 이같이 쉽고 예사롭던가. 저 潛女 물속을 헤매어 果然 衣食걱정을 免하겠느냐.

衣食의 걱정이 없는 者야 본시부터 제 生命을 물속에서 戲弄할 理 없을 것이요, 저같이 波濤속에서 애쓴들 저분들의 衣食걱정이 시원스럽게 없어질 理도 없을 것이다.

金玉澆官의 밥 床머리에 綺羅公子의 젓가락 끝에 魚族珍味를 供饌하고도 저는 돌아서 얻는 것 없이 나날이 뒤웅박 한덩이 칼한 자루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서 이 바다를 찾아오는 것이다.

어느날 무슨 失手が 있을는지, 어느날 不幸하게도 飢蛟의 밥이 될는지 저도 제 일을 모르고서 그래도 그 날을 위하여 이 波濤와 싸우려 武器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배에서 내려 潛女들과 같이 걸으면서 應하지 않는 對答을 억지로 짜가며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潛女들을 代身하여 民謠體의 노래 하나를 생각하였다.

산호대도 진주를 찾아
바다속속 헤매지라우.

심리밖에 백리밖에도 물결 따라 넘노지라우.

얼굴은 보지 맙사.
휘파람이나 들읍사.

흡합조개 해삼이라도
따고줍고 나오지라우
문어전복 잡아나들면
오늘하로 잘살지라우
얼굴은 보지맙사
휘파람이나 들읍사

미역같이 흐르는 머리
물속이라 이렇지라우.

붉고 검은 몸둥이라사
나도 내사랑 가졌지라우
얼굴은 보지맙사
휘파람이나 들읍사.

○ 蓬慮觀의 觀音寺

- 道傍俯伏의 俗과 山川壇 -

아침 이슬을 가까이 밟으면서 三儀讓岳이라 부르는 산을 왼편
으로 끼고 돌아들어가다 「굴치」라는 山村을 樹林寂寞한 生活이
나. 이야기 소리와 발자국 소리조차 조심조심히 지나갈 곳이다.

「굴치」를 거쳐 舊韓國 時節에 軍馬를 치던 곳인 石垣을 넘어 觀音寺라는 작은 庵子를 만난다.

이 觀音寺는 蓬慮觀이라는 比丘尼의 創建인데 그는 일찍 佛敎의 篤信者였다.

俗性은 安氏로 本是州人이더니 丁未九月에(或云 十二月 十八日) 出家의 뜻을 품고 海南 大興寺 晴峰和尚에게 나아가 薙髮受戒하고 明年 正月에(或云 五月五日) 돌아와 佛法을 宣布코져 하였으나 島民一般의 逼迫이 極甚하여 드디어 그야말로 「天地無家客 東西未定巢」의 몸이 되었다.

不得已 그는 漢拏山 白鹿潭으로 몸을 숨기고 七日이나 絶食하다 懸崖에 떨어졌더니 異常하게도 數千群鴉가 衣裳을 물어 救出할새 문득 한 老師가 나타나 「저 山川壇으로 내려가라」 하므로 다시 發心하여 山川壇으로 내려왔더니 雲大師라는 異僧이 있어

「오래 기다렸더니 이제야 본다」 하며 袈裟 한 벌을 내어준다.

다시 明年에 里巷에서 鳩財하여 草庵數間을 이루었다가 또다시 明年에 露峰和尚과 安道月處士 등이 浮海하여 本土에 이르면서 龍華寺의 佛像과 各幀畫等을 陪來하였으므로 반가이 얻어 奉安하여 明年 九月에 法井庵이란 것을 創建하였다.

그러하였으나 島民은 繼續的으로 驅逐하려 하였는데 明年 四月에 轉石의 暴行에도 僞處가 無有한 奇蹟으로 因하여 드디어 服從케 되어 여기다 觀音寺를 이룩하게 된 것이라 함이 이 절의 創建插話다.(頭崙山 人觀音寺 事蹟記)

이같이 歷史는 비록 짧고, 堂宇는 비록 볼 것 없으되, 여기 얽힌 傳說味나는 事蹟이 재미있기로 여기서 잠깐 쉬기로 한다.

濟州島

해제

이즈미 세이치(泉靖一)는 1938년 경성대학 법문학부를 졸업 한 후 1945년까지 동 대학에서 민족문화를 연구하며, 몽골·중국·뉴기니아 등을 학술조사에 참여했다. 그는 경성대학에서 일문학을 전공했으나 1936년 두 번째 한라산 등반이 계기가 되어 문화인류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고 한다. 1935년 여름방학 때 제주방문을 계기로 해서 1936년, 1937년이즈미는 제주의 이곳저곳을 찾아 다녔다. 「제주도 민족지」는 그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는 도쿄에 있으면서도 변모해 가는 제주도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졌다.

이 책은 제1부 제주도 민족지, 제2부 도쿄에 있어서의 제주도인, 제3부 제주도에 있어서의 30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1935년부터 1965년까지 제주도의 각 분야에 걸친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일 제강점기 식민지 지식인의 눈으로 제주도 문화를 다루고 있어 비교적 시각이 아닌 우월적 시각이 드러나기도 한다.

제2장 촌락(村落)의 연구

제1절 주민과 역사

가) 개벽신화와 ‘숫아 나오는 신(神)’

○ 처음에 『고려사』·『지리지(地理志)』 소재의 신화를 둘러싼 여러 설을 검토해 보고 싶다. 이 『지리지』를 저술한 양성지(梁誠之)는 실로 제주의 양씨였다.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제주도 관계 기사도 출처는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⁴⁾ 그후 제주도의 신화를 논하는 자는 대부분 『고려사』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없을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탐라현은 전라도의 남해 중에 있다. 그 옛 기록에 이렇게 전한다. 태초에는 인물이 없었다. 삼신인이 있었는데 그는 땅에서 솟아났다(그 주산(主山)의 북쪽 기슭에 구멍이 있는데 모흥(毛興)이라고 부른다. 이곳이 그곳이다). 딸이를 양을나(良乙那)라고 불렀으며 다음을 고을나(高乙那)라고 불렀고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고 불렀다. 세사람은 거친 벽지에서 유렵(遊獵)을 하며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어느날 자주빛 진흙으로 봉해진 나무상자가 떠올라 동해 바닷가에 다다른 것을 보고 이를 열었더니 상자 안에는 다시 돌상자가 하나 있었다. 거기에는 홍대자의(紅帶紫衣)를 한 사자가 따라 왔었다. 돌상자를 열어보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송아지·망아지·오곡씨앗 등이 있었다.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 사자인데 우리 임금이 세팔

4) 李健 著, 今西龍 譯, 『濟州風土記』, 『朝鮮學報』, 第一卷, 第二號.

을 낳고 이렇게 말했다. 서해의 중악(中嶽)에 신자(神子) 세 사람이 내려와 바로 나라를 세우려 하는데 배필이 없다고 한다. 이에 신(臣)에게 명하여 세 딸을 모시고 가도록 했다. 아무쪼록 잘 배필을 삼아서 대업을 이루기 바란다.』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사라졌다. 세사람은 나이 차례로 장가를 들고 샘물이 달고 흙이 기름진 곳에 다달아서 활을 쏘고 땅을 정했다. 양을나가 사는 곳을 제일도(都)라 부르고, 고을나가 사는 곳을 제이도라 불렀으며, 부을나가 사는 곳을 제삼도라고 불렀다. 오곡을 처음으로 뿌리고 망아지와 송아지를 키우니 날로 부유해졌다.⁵⁾

○ 제주도의 신(神) 또는 신성한 것이 지중에서 솟아 나왔다는 전설은 이 삼신용출의 전설에 국한되지 않고 서귀포의 남자무당 박봉춘(朴奉春) 구전의 『제주도신가(神歌)』 속의 『서귀본향당 본해(西歸本鄉堂 本解)』⁶⁾의 머리말에 『제주도의 땅 설매(雪馬)의 나라에 인문관풍신(印文官風神)이 솟아났다』고 했고 또 수기동(水基洞)에서 들은, 대정군에 전하는 신화 중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돼 있다.

그 옛날 한라산⁷⁾ 서남쪽 나무와 풀이 자라지 않은 고원(高原)에 솟아있는 첩첩한 암석산 오백장군⁸⁾(五百將軍·五百羅

5) 『高麗史』 第 57卷 『地理志』 今西龍譯, 前掲書.

6) 赤松智城·秋葉隆 『濟州巫俗의 研究』 上卷.

7) 『耽羅志』의 濟州·山川 綱에 『漢孛山·在州南 二十李鎮山其日漢孛者以雲漢 可孛引也 一云頭無岳以峯皆平也 一云 圓山以穹窿而圓也 一云 釜岳以山之頭皆有池似貯木器也』

8) 五百將軍은 現在 島民에 의해 漢孛山보다 神聖視되어 있지만 淵일인지 『東國輿地勝覽』·『耽羅志』 등에는 그 所在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抹殺의

漢)의 암석으로부터 두사람의 아름다운 자매의 신이 솟아 나왔다. 그것은 바람도 없는 차가운 달밤이었다. 언니의 이름은 이혼, 동생의 이름을 이완이라고 불었다. 동생이 달 그림자를 가리키면서 언니 이혼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달 속에 살고 있는 저 그림자인 남자가 우리들의 정해진 남편 한라부악(釜岳)의 신입니다. 언제 이 지상에 내려올는지 또 어디로 내려 올지도 모르지만 우리들 가운데서 먼저 만난 사람이 시집가기로 합시다” 고. 언니가 대답해 말했다. “남자는 홀로 차지하는 것, 그대의 말에 따라 그러면 서로 헤어져서 낭군을 찾으러 나가자.” 말을 마치자마자 마자 셋바람(東風)이 안개를 불러 달도, 산도, 여신도 사라져버렸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어느 여신방⁹⁾이 대정군 천제연의 파란 연못가에 암자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 맞은편 기슭에 달의 신, 한라산신이 내려와서 작은 배를 타고 못을 건너 그 여신방을 만나 말하기를 “기연(奇緣)입니다. 함께 혼인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다. 가만히 그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가 여신방이 답하기를 “저도 남자가 그리운 요즘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당신의 정해진 여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배를 빌려 주십시오. 저는 바다로 갑니다. 헤어짐에 있어 당신의 이름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나는 한라산의 신, 달속에 살고 있던 환구¹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신방은 홀로 환구의 배를 타고 훌러훌러 바다로 나가자 해상 저 멀리 한림쪽에서 작은배에 탄 남자신이 훌러왔으므로 이를 끌어당겨 배안에서 함께 자고 그후론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또 제주도 개벽전설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다

態度로 나와 있다.

9) 赤松智城, 秋葉隆, 前掲書

10) Fan-go는 島民의 俗說에 의하며 本解, 즉 巫의 노래라고 한다.

(수기동에서 채집). 옛날 설문대할망¹¹⁾이라고 부르는 키가 큰 여신이 있었는데 그녀는 남해상에서 섬을 만들어 여기서 살려고 해서 한강(경기도)의 토사를 한 움큼 손에 쥐고서 해상을 날아 바다에다 이것을 뿌리자 순식간에 제주도가 생겨났다. 가장 큰 흙덩어리는 한라산이 되고 작은 무더기는 지금의 측화산(側火山)이 되었다고 한다.

이 할망의 큰 키는 무시무시하여 바닷가에 선 채 한라산정의 백록담물로 머리를 감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 섬이 육지와 떨어져 있는 것을 불편하여 그 사이를 연결시켜 달라고 섬사람들의 할망에게 간청하므로 할망은 “좋소, 그렇지만 나에게 바지를 하나 만들어주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승낙해서 마침내 바지 만들기에 나섰는데 처음에 예정한 30두(斗 : 1두는 1백匹)로는 부족해서 기어이 1백말의 베를 사용해 바지를 완성했으나 이것마저 몸에 딱 맞지 않았으므로 할망은 이를 완성시키지 않았다. 어느날 설문대할망은 혼자 물장오리오름(長兀岳)으로 나가 막대기로 이산의 중턱을 두드렸더니 물이 급히 솟아나 화구호(火口湖)가 생겼고 그는 그 깊은 물속에 키 큰 몸을 감추고 지금도 아직 호수 속에서 잠들고 있다고 한다. 장울악(長兀岳 : 9백62m)은 성판악 동북쪽에 있는데 예전부터 성소(聖所)로 알려져 있었던 듯 『탐라지』에도 영험이 두드러진 곳이라는 기재가 있다.¹²⁾

11) 姥를 육지에선 halmoni라 지만 제주도에선 halman이라고 한다.

12) 耽羅志·濟州·山川의 綱에 「長兀岳·在州 東南四十五里几四峯. 一峯最高大 嶺有龍池, 徑可五十步, 深不可測, 人喧則, 雲霧四起, 風雨暴作旱則禱雨, 有堅云マ」.

나) 일본과의 관계

○ 육지에서 이 섬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도민의 풍속습관 특히 여인으로부터 받은 느낌이 육지와 다르다는 것과 앞에 말한 『고려사(高麗史)』 소재의 기사에서 ‘일본적’인 것을 끄집어내려고 한다. 우선 『고려사』의 개벽전설에 대하여 아마노 사다카게(天野信景)는 시오지리(鹽尻·江戶中期의 국학자 天野의 수필집) 상권에서 전설 중의 일본국주(國主)가 그 세 딸을 이 섬에 보냈다는 기사에 대하여 ‘옛날 아마테라스오미가미(天照大神)가 삼녀를 아시하라노 나카츠크니(葦原中津國)에 내려 보냈다는 설과 흡사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나바 이와키치(稱葉岩吉)도 ‘이 전설은 지쿠젠노쿠니 무니카타(筑前國宗像)의 신화의 발전에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무니카타신사(宗像神社)의 분포를 검토해보면 스스로 명백해질 것으로 여겨진다’¹³⁾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가 인용한 옛기록의 출처가 분명치 않고 또 마찬가지로 출처는 분명하지만 『탐라기년(耽羅紀年)』¹⁴⁾에는 ‘나는 벽랑국리(碧浪國吏)’라고 하고서 그 주(註)에 ‘지지작일본국사(地志作日本國使)’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나는 바로 일본국사’라고 하는 기재에 너무 구애받는 일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¹⁵⁾

○ 다음으로 현존하는 풍속 중에서 일본과 가까운 것을 찾아 보면 바느질을 할 때 육지부인은 바늘을 안으로 향해 사용하지

13) 稱葉岩吉, 『朝鮮民族史』, 『朝鮮史講座分類史』.

14) 金錫翼, 『耽羅紀年』.

15) 安倍能成 『耽羅漫筆』, 『靑丘雜記』.

만 제주도인은 일본인과 같이 운침(運針) 한다는 것¹⁶⁾, 아기를 업는 방식이 일본과 비슷한 것¹⁷⁾, 섬에서는 벽토(壁土)에 넣는 새(茅)를 수세라고 하고 육지에서는 벽에 그와 같은 것을 섞는 일이 없지만 일본에서는 대부분 짚을 넣어 이것을 수사(スサ)라고 말하는 점¹⁸⁾들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의 재료로서 일본 풍속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무모하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시기에 전파한 풍습은 섬나라라고 하는 고립된 환경 때문에 달리 영향 받은바 적어 오래 남아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다) 제주도인의 신체·형질(身體·形質)

○ 다음은 해촌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해녀의 나잠어업권구에 관한 것인데 앞 절에서 말했지만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는 나잠어장(裸潛魚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는 앞에 말한 어장과는 달리 매우 까다로운 관행이 있어 나잠어업의 경계(境界)는 매우 분명하다 이와 같은 마을은 그 나잠어장에서 판 마을의 해녀가 조업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따라서 새로 건설된 마을은 작은 범위의 나잠어장밖에 가질 수 없다. 북촌리의 그것은 취락을 중심으로 약 1km의 해안선을 갖고 있다.

○ 제주도에서는 섬 주민의 일부는 촌락을 3개 또는 2개의 타

16) 全羅南道濟州島, 『一九三七年濟州島勢要覽』.

17) 全羅南道濟州島, 『一九三七年濟州島勢要覽』.

18) 森 『濟州島漫談』, 『文敎의朝鮮』 一九二八年 一〇月.

이프 즉 양촌·산촌·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양촌은 『가족의 항해이동기』 전, 즉 섬의 경제가 농업에 주로 의존해 있던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유례(儒禮)를 중히 여기고 문자를 해득하는 자가 많으며, 협동조직으로서의 계의 조직이 발달한 마을로서 산촌보다도 높이가 낮고 해촌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하는 부락이다. 산촌은 문자 그대로 섬 부락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양촌보다는 경제적으로 낮지만 여자가 해녀가 아니기 때문에 양촌인의 도덕적 가치판단에 의하면 해촌보다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놓여지는 부락이다. 해촌은 바다에 면해서 나잠어장을 갖고 도덕적으로 여자가 해녀인 것, 경제적으로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풍요롭지 못해서 가장 경시(輕視) 되었었다.

제4절 촌락과 직장

○ 제주도에서 촌락의 직장, 즉 생산의 장(場)은 목장·삼림의 일부, 어장·나잠어업권구 즉 나잠어업장·선창·용수·말방아등 개인소유에 속하지 않는 공동의 직장과 개인소유의 경작지가 그 주된 것이다. 우선 주거와 직장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여기서도 명백히 나타나는 것은 양·산촌과 해촌과의 차이이다. 양·산촌은 경작지, 목장, 삼림-양촌보다도 산촌에서 광대한 것을 갖고 있다-용수·말방아 등인데 해촌에 비해서는 약간 변화가 덜하다. 해촌의 주요한 직장은 경작지·어장·나잠어업·선창·용수·말방아 등인데 산촌에 비하면 매우 작은 목장과 지방에 따라서는 작은 과수원이 추가된다.

○ 용수는 해촌에 비하여 아주 원거리로부터 길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하동사람들은 상동 끝까지 가서 길어오므로 그 간 왕복 3km의 행정(行程) 때문에 물기는 여자 또는 아이들에게 부과된 큰 노동이다. 말방아(또는 물그래)는 곡물정제(精製)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써 이것은 그림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교래리에는 상동에 4개, 하동에 3개 있고, 사용자는 저절로 정해 있어서 지역적 혹은 친족적 집단이 단위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옥과의 거리는 가장 가까이는 10m, 가장 멀어도 60m를 초과하는 일은 드물다.

○ 다음은 해촌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해녀의 나잠어업권구에 관한 것인데 앞 절에서 말했지만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는 나잠어장(裸潛漁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는 앞에 말한 어장과는 달리 매우 까다로운 관행이 있어(제3장 제5절) 나잠어업의 경계(境界)는 매우 분명하다. 이와 같은 마을은 그 나잠어장에서 탄 마을의 해녀가 조업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따라서 새로 개설된 마을은 작은 범위의 나잠어장밖엔 가질 수 없다. 북촌리의 그것은 취락을 중심으로 약 1km의 해안선을 갖고 있다.

○ 북촌리에는 모두 13개의 말방아가 있는데 사용자의 집과의 거리는 1백m를 넘지 않는다. 해촌의 목장은 산촌에 비해서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 여름철엔 특히 바쁘므로 우마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산촌 사람에게 그 감시를 위탁한다든가, 소수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특정한 감시인을 고용해 쓴다. 또 「경지」 부분

에서 언급한 것처럼 겨울철엔 우마를 휴한지에 들여 놓는 곳도 있는가 하면 산촌의 목장에도 방목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사람들이 경지밖에 있는 마을목장에 방목할 뿐이다.

제5절 교 통

○ 즉 월 3회 왕복의 판제선(阪濟線)은 아마가사키(尼ヶ崎)기선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기항지는 오사카(大阪)·시모니세키(下關)·부산·완도·산지·한림·모슬포·서귀포·표선·성산포·김녕·조천으로 이 항로는 주로 오사카로 출가하는 사람을 송환(送還)하고 있었다. 순연정기(順延定期)의 부제선(釜濟線)은 여수(麗水) 마사 요시노부(政吉信)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항지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부산(釜山)·여수(麗水)·거문도(巨文島)·나로도(羅老島)·산지(山地), 또 하나는 부산·여수·나로도·거문도·미조리(彌助里)·산지 및 부속도서 각지의 순회노선인데 해녀의 육지진출은 이들 항로에 의한 것이 많았다.

제6절 종 합

○ 제주도의 시조전설(始祖傳說)에 대해서는 우선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에 실려있는 삼성개벽(三姓開闢)의 설화를 들지 않으면 안된다. 많은 제주도의 신(神)들이 솟아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삼성이 출현하는 모습은 각각 다음과 같

이 표현되어 있다. 고려사에서는 용출(聳出), 동국여지승람·탐라지에서는 용출(湧出)이라고 말하고 탐라기년에는 수출(首出)이라고 써서 있어서 모두 지하의 신성계(神聖界)로부터 지상의 속계(俗界)로 나타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또 구전의 신화에서도 탄 신들의 출현 모습을 서귀본향당본해나 표천강본해(表天綱本解)¹⁹⁾ 혹은 수기동(水基洞)의 「환구」 전승에서도 ‘솟아난다’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솟아난다는 것은 밑으로부터 위로 용출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용출하는 신들은 탄 지방에서도 드문 일은 아니지만 본도에 있어서는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일이다.

한편 삼신용출의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일본국사」를 가지고서 즉각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속단(速斷)으로, 「벽랑국사(碧浪國使)」라고 씌어진 글귀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 다음으로 제주도의 부락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도청의 이별(里別) 통계가 반드시 자연발생부락 즉 마을의 실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획의 최소 단위인 이(里) 및 구(區)는 특히 나잠어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지대, 즉 양·산촌에서는 자연촌락과는 일치하지 않고 이(里)나 구(區)속에 몇 개의 자연촌이 포함돼 있다. 나잠어업을 갖고 있는 마을들은 대부분 행정상의 이 또는 구와 자연촌이 일치한다. 전자에 속하는 자연촌은 동 또는 환절사회(環節社會)라고 보아야 할 2개동에 의해, 후자의 마을은 2개 이

19) 赤松智城·秋葉隆『朝鮮巫俗의 研究』上卷.

상의 환절사회라고 해도 동(洞)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 산촌은 문자 그대로 섬 부락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양촌보다는 경제적으로 낮지만 여자가 해녀가 아니기 때문에 양촌인의 도덕적 가치판단에 의하면 해촌보다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놓여지는 부락이다. 해촌은 바다에 면해서 나잠 어장을 갖고 도덕적으로는 여자가 해녀인 것, 경제적으로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풍요롭지 못해서 가장 경시(輕視)되었다.

○ 촌락의 환경학적 연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주거와 직장과의 관계 분석이다. 제주도에 있어서 부락의 직장은 양·산촌과 해촌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즉 양·산촌의 주된 직장은 개인소유의 경지와 마을의 공동직장으로써 목장·삼림·용수·말방아 등인데 해촌에 있어서는 같은 개인소유의 경지와 마을공동직장으로써 어장·나잠어장·선창·용수·말방아·목장 등이다.

제3장 가족의 연구

제1절 세대(世帶)의 인구와 가족의 성원(成員)

○ 마을사람들에게 세대인구의 적은 이유를 물으면 “출가가 많기 때문이다.”고 대답하지만 아들의 상속방식에 대하여는 예전부터 행해지고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것 같다.

가족의 성원은 몹시 잡다(雜多)하지만 가장 많은 구성은 한조(組)의 부부와 그 아이들의 2세대(世代)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부모(어느 쪽이건 한쪽인 경우가 많다)와 그 자식부부 및 그 아이들의 3세대를 포함하는 것, 드물게는 2조의 남자부부, 시집갔다 돌아 온 딸, 조카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일가의 가정(家政)·노동·제사 등 일체의 책임은 주부에게 돌아가지만 주부측의 친족이 가족 중에 들어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본도에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 될 현상은 1인 혹은 2인의 성녀(成女)뿐이든지, 혹은 그 아이들만을 포함하는 가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편이 일본에 출가하고 있는 경우(출가는 남자가 많다), 첩으로서 1가구(家口)를 갖추어 토지를 받고서 한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경우, 기타 과부로서 독립된 생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등에 의한 것인데 여자는 독립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생계를 세울 수 있는 노동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표 13〉 家族成員表

(1) 3世帶의 家族(舊左面 演坪里 職業 半農半漁)

姓	名	年 齡	性	戶主 및 戶主와의 關係	備 考
康	京 錫	46	男	戶主	
朴	順 先	49	女	戶主의 妻	
尹	京 考	81	女	戶主의 母	
康	榮 錫	22	男	戶主의 長男	
李	丙 成	22	女	長男의 妻	
康	榮 一	1	男	長男의 子	
康	豐 錫	18	男	戶主의 二男	

(2) 2世帶의 家族(舊左面 演坪里 職業 船舶業)

姓	名	年 齡	性	戶主 및 戶主와의 關係	備 考
康	寬 順	30	男	戶主	
金	有 生	33	女	戶主의 妻	
康	慧 淑	2	女	그의 子	

(3) 2世帶 家族으로 同世帶의 夫婦를 포함하는 것(朝天面 橋來里 職業 農業)

姓	名	年 齡	性	戶主 및 戶主와의 關係	備 考
夫	日 權	48	男	戶主	
金	石 錫	43	女	戶主의 妻	
夫	千 石	28	男	戶主의 長男	
宋	完 官	26	女	長男의 妻	
夫	寶 培	19	男	戶主의 二男	
宋	丙 鎬	23	女	次男의 妻	

(4) 女子만의 家族(朝天面 橋來里 職業 農業)

姓	名	年 齡	性	戶主 및 戶主와의 關係	備 考
李	南 花	32	女	戶主	夫日權의 첩으로, 그의 집 近處에 거처를 두고 있다. 常住하지 不음.
(康 氏)		67	女	戶主의 母	

○ 다음에 대표적인 가족의 타이프를 들어보자. <표 13>에서도 명백한 것 처럼 본도의 가족은 중국적(中國的), 말하자면 유례적(儒禮的)인 규제를 받으면서도 말자상속적(末子相續的)인 가족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소위 대가족은 구성할 수 없다. 게다가 여성의 노동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양·산촌에서

는 토지만 있으면, 해촌에서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독립해서 생계를 영위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남자는 안심해서 일본으로 출가해 갈 수가 있으며 과부는 주눅이 들어 남편 친족의 부조를 받는다든지 친정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다.

이 섬은 여다남소이기 때문에 독신의 여성이 어느 정도는 보이지만 그녀들은 양·산촌에 있어서는 토지만 빌릴 수가 있다면 독립의 생계를 영위해서 자유로이 연인도 가질 수 있다. 또 해촌에서는 토지마저 필요가 없다. 그것을 첩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지만 경제적관계에 따르지않는 자유로운 연인인 것이다. 이와같은 여자세대는 의외로 많고 특히 해촌에서는 그 무렵 증가하고 있었다. 어쩌면 세대수의 증가는 본도의 상속관행에 의하는 것 외에 이와같은 여성세대의 증가에 원인이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는 뭉니뭉니해도 일본에의 출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제2절 가족의 음식물

○ 상식(常食)에 관해서 섬에는 ‘칼칼 먹엄다’고 하는, ‘아주 푸짐하게 먹는 날’이 있다. 이것은 특히 정해진 날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경제상태에 따라 밭벼(陸稻) 밥을 짓는 날인 것이다. 일반가정에서는 수눌음(주 : 표준어로는 품앗이)을 하는 날, 즉 농번기에 공동노동을 행한 날의 저녁이나 비가 계속 오는 날 같은 때를 골라 주부는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생선이나 때에 따라서는 2~3가족이서 단체로 추렴을 하여 돼지를 잡고 즐거운 저

녁 한때를 보내는 것이다. 또 첩의 집에서는 남자가 오는 날을 선택한다. 이 「칼갈먹었다」의 본 뜻은 쌀밥을 먹는데 있으므로 부식물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또 겨울에 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봄·여름·가을에 걸쳐서 ‘잘 먹는 날’은 내가 조사한 범위로는 산촌에서는 평균 30일에 1회, 양촌에서는 5일에 1회, 해촌에서는 20일에 1회 정도의 비율이다.

제3절 농업과 가족

나) 농업노동(農業勞動)의 형태(形態)

○ 제주도의 농번기는 음력 4월 말에서 5월 초순에 걸쳐서인데 이것을 “밭 갈기가 바쁘다.”고 말해서 조, 녹두, 콩의 파종기엔 평상시 일하지 않는 남자들도 모두 함께 팡닐(日覆笠)을 쓰고서 들에 나간다. 이 시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방목하던 우마는 1개소에 모여져 특정한 감시인이 정해져서 가족에 대한 걱정이 일가총동원으로 거칠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된다. 이와같이 해서 파종기에 들어가면 남자는 두사람이서 쟁기 달린 소를 몰고 여자가 그 뒤를 따라 곶배로 흙덩어리를 부수고 아이들은 큰 돌을 밭으로부터 제거하고 작은 돌을 안으로 던져 놓는다. 이것은 밭을 바람과 건조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작은 돌이 많은 밭일수록 섬에서는 좋은 밭인 것이다. 남자는 밭갈기가 끝나면 나무그늘에서 담배를 피운다. 여자는 종자와 비료를 뿌린다. 그것이 끝나면 남자는 일어서서 소를 몰며 쟁기를 밀

어간다. 여자와 아이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흙을 밟는다. 이것이 끝나면 여자는 빌려온 말을 몰고와서 밭에 들여 놓는다. 아이들이 작은 막대기로 말을 몬다. 그러면서 그들은 밭밭리는 소리 즉 조 밟는 소리를 alalu naliyang ho alu라고 되풀이 한다. 「자아 돌아라 돌아」라는 의미라고 한다.

말이 없어서 사람의 발로 밟을 때에도 어느정도 가락을 바꾸어 이 노래를 부른다. 만일 말이 한 마리밖에 없을 때에는 고삐를 길게 해서 이것을 잡은 사람이 밭 중앙에 서서 그를 중심으로 말을 낚는 듯한 모양으로 빙빙 달리도록 해서 고삐를 점점 조이며 반경을 줄여 나간다. 종자를 뿌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날 중에 밟기를 끝내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조나 피와 같이 가벼운 종자는 야간에 비가 오면 몽땅 흘러내려가 버리고 바람이 불면 흩어 날리기 때문에 이 시절의 노동은 아침은 첫 새벽부터 밤은 긴 초여름 햇발이 바다 저쪽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 ‘밭갈기가 바쁘다’는 계절이 끝나면 섬의 날씨는 매우 맑아서 바다로부터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하얗게 부서진다. 그리하여 장마철로 접어든다. 밭에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한다. 7월절 전후는 이른바 ‘검질 매기가 바쁘다’는 계절이다. 이 계절은 초복이라고 해서 메밀이 파종기와 잡초매기에 밤을 낮 삼을 시기인데 초복이라고 하면 바쁘다는 의미로 조차 쓰여진다. 그러나 남자는 이젠 일하지 않는다. 여자는 「팡닐」을 쓰고서 격렬한 햇볕과 안개비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oyolan sade

oyolan sade』라고 하는 sade soli (時代의 노래, 수기동에서 채취)가 밭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이것은 김매는 소리로 집안에서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이 금기(禁忌)를 어기면 그 사람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사는 ‘요왕(堯王)과 신농씨(神農氏)시대에는’ 이라는 의미라고 알려져 있으나 분명치는 않다.

○ 방아를 짚을 때에는 행동을 합치기 위하여 방아소리를 부른다.

이영 이영 이여도 호라 이영
마랑 마랑가라 흠 흠
가시오름 강당장 집
시골방에 세마장 따라 흠

이 민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설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첫째가 메김말(囉子)의 『이여도』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가시리(加時里)의 강당장 집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카하시(高矯亨)는 이여도에 『離虛島』란 글자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옛날 고려시대 충렬왕(忠烈王) 3년 원의 지배를 받아 목관(牧官)이 내려와 이를 다스리면서부터 원말까지 제주는 해마다 토산품을 중국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貢物船(貢物船)은 북쪽 산둥(山東)으로 가기 위해 섬의 서북쪽 대정의 모슬포에서 출항준비를 갖추고 출발을 했다. 언제부터인지 모

르지만 대정에 강씨라고 하는 선박운송업자가 있어 이 공물선의 선주가 되었는데 그때마다 수척의 큰배에다 공물을 가득 실어 황해를 가로질러 출항했다. 그런데 이들의 공물선은 끝내 돌아 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무렵 항로 중간에 『이여도(離虛島)』라고 하는 섬이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가 섬사람들에 의해 믿어지게 되었다. 어느 해 강씨 자신이 스스로 공물선을 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도 역시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강씨에게는 나이든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애처러움을 달랠 길 없어 “아 이여도야 이여도야”로 시작하고 끝나는 노래를 만들어 이를 불렀다. 하다못해 내 남편이 이여도까지만이라도 도착 했었으면 하는 의미였다. 그 곡조는 매우 비애, 처참하였다. 그런데 같이 슬픔에 잠겨 있는 대정의 부인네들은 이것을 듣고 모두 서로 동감하였다. 탄 부인들도 모두 동정하여 이에 동조했다. 이렇게 해서 이 노래는 갑자기 전도로 퍼졌다.²⁰⁾

내가 조천면 수기동에서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옛날 제주도 사람들이 섬밖으로 출항할 때에는 반드시 들르지 않으면 안되는 섬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여도라고 했다. 거기에는 해적이 있어서 배가 도착하면 승객의 소지품을 전부 빼앗고 남김없이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바다에 나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섬사람이 이 섬에서 죽게 되었을 때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싶으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하였다. 도적은 좋다고 대답하고서 그의 혀와 두 손을 자르고 작은 배에 태워서 바다로 내보냈다. 바람과 조류

20) 高矯亨, 『民謠에 나타난 濟州島의 女子』 『朝鮮』, 1993年 1月號.

를 따라 그 배는 운 좋게 제주로 실려 왔다. 그의 아내는 그의 모습을 보고 몹시 슬퍼하여 관청에 신고하였으나 말을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없어서 매우 곤란 했으나 겨우 입으로 글을 써서 이여도의 소재와 해적에 대한 것을 보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남편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바다 저쪽을 원망하면서 이여도의 노래를 지었다. 그 슬픈 곡조는 갑자기 전도로 퍼졌다고 한다. 그 섬의 위치는 중국과 제주도의 중간에 있다고도 하고, 또는 서북쪽 얼음나라(氷國)와 제주의 중간에 있다고도 전하여 진다.

또 가시리(표선면) 강당장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가시리의 호가(豪家) 강당장의 집은 내분(內紛)이 많아서 아내와 아들의 불평이 그치지 않았는데 그 세 형제에게 유식자(有識者)집의 세 자매를 아내로 맞아들이자 집의 풍파가 가라앉았다는 이야기다. 작고 어두운 정지(표준어는 부엌) 속에서 노파가 멧돌을 돌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가래소리」이다.

이영 이영 이여도 마랑가라
 이여도 흐민 내 눈물난다.
 이여도 흐라 이영 방에 고들베기 지영
 저녁이나 붉은 때 흐라
 가시오름 강당장 집에 세클방에
 세클가난 우리 다소도 히연제 가난
 시골방에 세마자 간다.

(水基洞에서 채집)

또 어떤 노래소리에는

이영 이영 이여도 흐라
이영은 마랑 마랑가라
산에 들면 우김새 소리
물에 들면 소무제출 소리
나중 들면 내난가리
저물 때 들면 져가레 소리
(臥山里에서 채집)

이렇게 해서 조 수확기에 보리 파종기가 계속된다. 조 파종과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 보리가 파종되면 이미 겨울을 기다릴 뿐이다. 이와 같이 농업 노동의 태반은 여자에 의해 마련되며 남자는 봄·가을 2회의 농번기에 손을 빌려주는데 불과하다.

제4절 목축(牧畜)과 가족(家族)

나) 목축노동(牧畜勞動)의 형태

○ 여자의 손에 의한 축산은 양돈과 양계이다. 돼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농가 각 가정에 변소에서 키워지는 것인데 분뇨는 비료로서 사용되며, 이의 사육은 손이 별로 들지 않으므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교배는 숫돼지를 암돼지 사육자가 빌어서 한다. 그리고 교배 후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환을 즉각 빼내어 거세를 하는 것이다. 양계는 완전히 원시적인데 다만 집안 들보에

닭집을 만들어 그 속에 계란을 낳게 한다. 이것은 아마도 뱀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사(鷄舍)를 만든다든지 사료를 주는 일도 드물다.

제5절 어로(漁撈)와 가족(家族)

가) 어업과 그 기술

○ 어업은 일반적으로 천업시(賤業視)되어 양촌의 남자가 해촌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나체로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10년 이래 경제의 중심이 해촌으로 옮겨진 이후는 양촌사람들의 이제까지의 사상과는 거꾸로 「어떻게 산촌 사람을 색시로 맞을 것인가 바다에 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자를…」이라는 생각이 해촌 남자를 휩쓸었다.

나) 어업노동(漁業勞動)의 형태

○ 자릿그물어업은 남자 손이 많은 가족에서는 가족단위로 행하지만 그 무렵과 같이 출가 때문에 남자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두 가족의 남자가 공동으로 2명 내지 3명이 출어한다. 그러나 세 가족이 공동으로 행하는 일은 드물다. 대부분은 한사람이 배를 짓고 1명 또는 2명이 그물을 던진다든지 끌어올린다든지 한다. 배를 저을 때의 노래를 「눓소리」라고 한다.

이야도사 이야도사.

(우도에서 채집)

어획물의 분배는 그물과 배를 갖고 있는 쪽이 6,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이 4라는 비율이 이 섬의 관행이다. 기간은 앞에 말한 것처럼 5월에서 8월 사이로 일본조와 주낙의 기간도 대부분이 겹친다. 일본조는 가족단위로 남자에 의하여 행해진다. 특히 조(組)를 짜는 일 없이 한 두명에서 난바다에 배를 저어 나간다. 사용되는 배가 작기 때문에 2~3일간 바다에 머무는 일은 없다. 대부분은 마을에서 하루 왕복의 행정(行程)으로 저녁에 나가 아침에 돌아오는 것. 아침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등 두가지이다. 어기 중에는 우마는 특정의 감시인이나 산촌에 맡겨지며 농사는 주로 여자가 맡아 한다. 그녀들은 동시에 나잡노동에도 종사하므로 남자에 비하면 특히 바쁘다.

○ 종교적 행사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종합해서 말하겠지만 어업에 관한 간단한 금기사항을 들어본다(북촌리와 우도에서 채집).

- ① 출어를 위해 선창을 향해 가는 길에 여자가 길을 가로지르면 고기가 안 잡힌다.
- ② 마찬가지로 출어하는 길에 빈 물허벅을 보면 고기가 안 잡힌다.
- ③ 출어 전야에 타인과 싸운다든지 사람을 죽인 꿈을 꾸면 고기가 안잡힌다. 즉 꿈자리가 나쁘면 안 된다.
- ④ 출어 중 거북(玳瑁)을 보면 고기가 안잡힌다. 거북이 그물 속에 걸려도 결코 죽여서는 아니된다. 또 출어 중에는 거북(대모)이란 말은 금구(禁句)이며 「용왕 셋째딸(말젓딸)」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 ⑤ 고래도 또한 금구로서 영감이라고 불려야 한다.
- ⑥ 물에서 죽은 사람은 사체가 떠오르지 않는 한 장례를 치러서는 아니된다. 만일 사체가 떠올랐을 경우에는 마을전체에서 장례는 치르지만 그 뒤의 제사는 사자의 가족만으로 행한다. 이 두가지 금기를 깨뜨리면 해상을 헤매는 사자의 망령(亡靈)이 출어 중에 올라 타서 허광(虛狂)이 되어, 소리는 마치 그 사자와 같이 나오고 자기 부친을 자기 자식처럼 착각하게 된다고 전해진다.

다) 나잠(裸潛)과 그 기술

○ 제주도라고 하면 해녀를 연상(連想)하리만큼 섬의 해녀, 즉 잠녀는 유명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당서동이전(唐書東夷傳)』에는 말할 것도 없고 『고려사』 『지리지』·『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사서(史書)에는 잠녀에 관한 것이 쓰여 있지 않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뒤의 두 책의 편찬을 맡았던 양성지(梁誠之)는 제주 사람이었다. 육지에서는 지금도 잠녀를 볼 수 없으므로 그 무렵 만일 제주도에 잠녀가 있었다라면 풍속 중에서 한마디 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물며 편자(編者)가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런데 이들 서적보다 1백수년 뒤에 나온 『제주풍토기』²¹⁾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어서 손에 잡히듯 잠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21) 李健, 『濟州風土記』, 『朝鮮學報』, 第一卷 第二號.

○ 「그 중에서도 천한 것은 괘(藿·미역)이다. 미역을 캐는 여자는 이를 잠녀라고 부르고 2월부터 이후 5월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 미역을 채취해 나오는데 남녀가 서로 뒤섞여도 수치스러움을 모르므로 해괴함을 보여준다. 생복을 캐는 것도 이와 같다. 채취한 것은 관가에 바치고 나머지를 팔아서 의식을 해결한다. 그 생리적 고통을 말로 다하기가 모자란데 만일 부정한 관리가 있어 탐욕한 마음을 함부로 부린다면 바로 교묘하게 명목을 붙여 거두어가는 일이 헤아릴 수 없다. 1년의 소행(所行)으로 그 소임을 다 할 수가 없으며 하물며 관청의 거듭된 수납에 고통을 받아 이같이 함부로 날뛰는 관리들의 폐단은 그 기강이 극도에 달한다. 그래서 어찌 의식의 자료를 바랄 수 있으랴. 이러기 때문에 만일 탐관(貪官)을 만나게 되면 잠녀들이 해를 입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소위 기묘사화(己卯土禍·李健에 앞서기 약 1백년)에 관련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제주에 귀양의 몸이 됐던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²²⁾에는 잠녀의 기록을 전혀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문헌적 전색(文獻的 詮索)으로부터 제주도의 잠녀가 서기 1481년부터 1629년의 1백47년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양성지는 제주사람이고 주자학(朱子學)이 한창이었던 이 시기에 만일 그가 비록 잠녀에 관한 일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고향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나체가 되는 것을 관제(官製)의 사서(史書)에 쓸 수가 있었을 것인가. 또 김정은 유교개국(儒教開國)을 기도했던 사나이

22) 金淨, 『濟州風土錄』, 入手하기 어려운 書籍이지만 古川濟州島夕司로부터 빌렸다.

였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붓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했던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인가. 왜냐하면 주자학과 나잠행위는 서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섬에 유교의 영향이 강해지게 된 후에 잠녀가 나타났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현재 섬의 잠녀가 나잠에 의해 얻어지는 연간 총수입은 1936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33만2천7백97원에 이르러 도민의 남자가 어업으로 얻을 수 있는 총수익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 도내의 어로종업자는 여성이 많아 남자어부 3천9백28명에 대하여 8천3백73명이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내 잠녀의 분포를 개관해 보면 애월·대정 등 서쪽의 2개면과 구좌·정의 등 동쪽 2개면이 가장 조밀하며 그 중에서도 부속도서인 가파도와 우도는 특히 밀도가 높다. 그것은 잠녀의 주요 수확물인 해조류가 해저(海底)의 지형·해류·기온 등에 영향받는 일이 크기 때문이다. 섬의 동쪽은 바다가 깊은 데다 용암 암반이 노출돼 있어서 난류가 정면으로 이와 충돌하기 때문에 해조류의 발육을 도와줌과 동시에 유착(流着)하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도의 동쪽에서 채취되는 해조류의 주된 것은 우뭇가사리·미역·감태·마미초(馬尾草) 등이다. 한편 서쪽 비양도 부근은 1008년 경까지의 화산활동이 보이고 있던 지역으로 바다가 깊고 암반이 노출된 데다 난바다에서 한류·난류가 맞붙어 역류해온 난한이류(暖寒二流)가 그 해변을 스쳐지나기 때문에 미역·감태·우뭇가사리·마미초 등이 풍부하게 자란다.²³⁾

이와 같은 해조류가 모이는 곳에서의 섬의 해안은 남김없이 이

들 마을의 나잠어장에 점유돼 있고 거기에서는 비료도 사용되는 마미초(馬尾草·여기서는 듬복을 뜻함)가 주로 채집되고 있다. 또 소라나 전복 같은 조개류의 채집도 부락의 나잠어장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전부터 이와 같은 어획물은 즉시 환급되었기 때문에 특히 제주 한림·서귀포·성산포 등 도읍 부근의 잠녀가 다투어 채집하였다. 이와 같은 패류는 전에는 도민의 주된 공물(貢物)이었음과 동시에 식량이기도 했다. 그런데 1900년 이래 가장 비싼 환금생산물이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 무렵부터 도민의 입에는 들어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의 패류 먹는 방법은 독특해서 우선 바깥껍질을 돌로 부수어 속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해촌 도처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패사(貝砂)를 볼 수가 있다.

본도의 잠녀는 일본의 해녀보다도 추위에 강하고 또 임신 월경중이라도 꺼리지 않고 사계절에 걸쳐 조업한다. 잠수를 할 때에는 「소중기」라고 칭하는 남색 무명의 수영복을 입는다. 이것은 앞면은 유방까지 덮지만 뒷면은 노출돼 있고 가느다란 천이 열십자로 하부에 붙어 있다. 바가지에 그물이 붙은 테왁과 호미 또는 「빚창(조개를 따는 것)」을 갖추고서 「눈(물안경)」을 끼고 잠수한다. 이 안경은 그 무렵 이미 일본제를 구입해오고 있었으나 그녀들의 말에 의하면 예전 자기들이 유리를 사서 만들었던 것이 훨씬 밝아서 일하기가 쉬웠다고 한다. 배로부터 잠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바닷가로부터 헤엄쳐 나가 잠수하는 경우도 있다. 헤엄치는 방법은 거의가 평영(平泳)과 서서 헤엄치는 것인데 잠수방법

23) 栢田一二, 『濟州島海女の 地誌學的研究』, 『大塚理學會論文集』 第二輯 下.

은 일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즉 입영(立泳)의 자세로 바닷물에 얼굴을 들이밀고 어획물을 찾아나서는데 발을 세계 구부려 가슴으로 끌어당기고 머리는 재빨리 수중으로 집어 넣고 몸을 뻗어 위로 흔들며 침하속도(沈下速度)를 빨리한다. 신체가 완전히 물속에 빠지면 발을 차듯이 움직이면서 손으로 양 겨드랑이를 휘저으며 내려간다.

해조를 캔다든지 조개를 뜯을 때에는 손 동작이 바뀔 뿐 수중의 자세는 변하지 않는다. 1회 잠수가 끝나가게 되면 신체를 꺾어 다리를 아래로 내리고 세계 바닷 밑을 차면서 뛰어오른다. 수면으로 떠오름과 동시에 「휴」하고 숨을 내쉰다. 이것을 섬 방언으로는 「호이」라고 한다. 잠수시간은 1분에서 1.5분이며 잠수 깊이는 10길이까지만 대부분의 경우 4~5길 자리에서 작업을 한다. 이와같은 잠수를 30회 내지 70회 정도 되풀이한 후 상륙해서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동을 신체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3회 또는 4회 반드시 테왁을 해중에 가지고 가서 그 주위에 잠수하는 것은 일본해녀가 띄움통(浮樽)을 갖고서 바다에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이 그녀들이 해상에서의 잠수 근거지인데 어획물은 테왁 밑에 달려 있는 그물 안에 넣으며 피로한 때에는 바가지를 붙잡고서 몸을 파도에 맡긴다. 이 섬 잠녀들은 맨몸으로 잠수하는 심도(深度)에 있어서나 천후나 계절에 대한 강도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일본의 해녀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때문에 전에 조선 연안에서 일하고 있던 이세(伊勢)해녀들을 쫓아내어 육지는 말할 것도 없고 쓰시마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 더 나아가서는 만주(滿洲)에

까지 출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나잠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필요로 한다. 여자아이가 7~8세가 되면 선창 안이나 썰물 때의 바닷가에서 어머니의 흉내를 내며 헤엄치는 연습을 시작한다. 어머니는 이것을 직접 지도하지 않고 아이 들끼리만 헤엄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10세가 되면 어머니로부터 테왁을 얻는다. 이번엔 이것을 부낭(浮囊)으로 해서 약간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가 잠수연습을 하지만 아직 어획물을 잡지 않는다. 14세가 되면 비로소 안경·호미·빗창 등을 어머니로부터 받아 어획물 잡기에 나선다. 이때에 잠녀라고 하는 명칭을 받는다. 16세가 되면 잠녀조합의 회원이 되고 겨우 한사람 몫의 일을 하게된다. 이렇게해서 잠녀생활은 50세까지 계속할 수 있다. 그 사이 가장 왕성해지는 시기는 16세에서부터 35~36세까지일 것이다. 따가운 남녘 햇볕을 쬐이면서 해녀생활을 보내는 그녀들의 체격은 당당한 것인데, 피부는 적동색(赤銅色) 그리고 머리도 적갈색으로 변한다. 해녀가 많은 지방의 아이들은 따로 강요하지 않아도 또 양친이 없어도 보고 들으면서 훌륭한 잠녀로 되어가는 것이다.

라) 나잠노동(裸潛勞動)의 형태

○ 앞에서 이미 말한 것 처럼 제주도의 나잠업자는 모두 여자이다. 나잠은 제주도에서의 가장 확실한 여자의 직업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촌에는 1호당 평균 1명 이상의 잠녀를 가진 가족이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녀들의 나잠노동이 가계의 태반을 지탱해준다. 게다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은 거의 여자의

노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촌의 여자는 매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위에 나잠노동의 방식은 남자의 어업과는 전혀 모양을 달리해서 획득물의 판로가 넓어지고 잠녀조합이 창설된다든지 출가가 늘어나도 도구나 기술에는 조금도 재래(在來)의 그것과 변화된 게 없다.

○ 나잠(裸潛) : 제주도에서는 농번기와 해조의 채취기가 거의 일치해 있으므로 그 기간 여자들은 바빠지며 더구나 능숙하게 일을 한다. 그러나 여자들은 아무리 분주해도 남자들은 그것을 돕지 않는다. 7, 8월의 잠녀의 하루생활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자들은 아침 2시간은 밭에서 김매기에 종사한다. 그런 다음 누군가가 땀을 흠쳐내며 “물질하러 가자”고 말하면 갑자기 수명 또는 십수명이 일어나서 집으로 향한다. 바다에 가까운 집 사람은 집에서 소중기로 갈아입고 오지만 대부분은 테왁 속에 소중기를 넣어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닷가 바위그늘에서 갈아입는다. 배로 난바다에 나갈 때에는 젊은 남자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해서 잠수하러 나갈 때에는 반드시 무리를 지어, 개인적으로 나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언제나 함께 가는 친구는 정해져 있지 않다. 집단으로 일을 해도 어획물은 자기가 잡은 것은 자기 것이 되며 딴 사람이 잡은 것은 딴 사람 것이다. 잠수를 일 연속(一連續)이나 이연속 계속하면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은 다음 다시 밭으로 나간다. 오후 4시쯤 되면 바다가 따뜻해진다. 다시 누군가가 “물질하러 가자”고 말하면 줄줄이 바다로 나간다. 이번엔 저녁노을이 해상에 피와 같이 흐르고 화산자갈(火山礫)이

흘어지는 산간지대가 보라색으로 빛나기까지 그녀들은 일을 계속하고 해가 질 무렵 용암의 언덕길을 거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 사이 남자들은 아이들을 보거나 잡담들을 하거나 낮잠들을 자며 느긋하게 보낸다. 잘못해서 바닷가로 나가 여인들의 잠수모습을 지켜보다가 “개에게나 먹혀 버려라”는 고함을 듣고는 당황하여 도망치기 일쑤다. 폭풍 뒤에 해조 무더기가 부락의 나잠어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때에는 남자건 여자건 아이들이건 파종기 때와 마찬가지로 일가 총출동하여 손잡이에 양다리가 달린 긴 막대기(곤체기떼)나 낮 달린 막대기(장호미) 등을 손에 잡고 해안으로 모인다. 각 가족이 경쟁으로 해조를 쟁탈, 한바탕 전쟁소동을 벌인다. 겨울엔 농사가 없어 여유있게 잠수를 할 수 있을 테지만 평균온도가 섭씨 5도8분으로 해수는 그보다 따뜻한 곳이 많으나 아무래도 물은 차갑고 게다가 일부 해조는 금채기(禁採期)이기 때문에 조개류 밖에 채취가 안되므로 여자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회수도 인원수도 훨씬 적어진다.

우도 잠녀들이 1년을 통한 나잠상태를 나타낸 것이 <표 18>과 같은데 이와 같은 노동 실태가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표 18〉 牛島潛女の 潛水表 (各月은 陰曆)

各月別	月別潛水日數	日別潛水回數	採取物
1월	20일	2회	미역 우뚝가사리 다소
2월	14일	2회	미역, 모자반(듬북)다소
3월	28일	2회	모자반 미역 다소
4월	28일	2회	되는대로

各月別	月別潛水日數	日別潛水回數	採取物
5월	28일	3~4회	우뭇가사리 그밖에는 되는 대로
6월	28일	2~3회	전복, 소라
7월	28일	2~3회	감태, 기타
8월	28일	2~3회	감태, 기타
9월	10일	1회	감태, 기타
10월	10일	1회	감태, 기타
11월	7일	1회	전복, 소라
12월	7일	1회	전복, 소라

○ 나잠어장(裸潛魚場) : 정확한 용어를 찾지 못해 나잠어업권 구(裸潛魚業權區) 혹은 나잠어장이라고 불렀지만 요컨대 어느 부락의 지선어업권(地先魚業權)의 일종에 의해 관할되고 있는 해안으로, 바꿔 말하면 그 부락의 잠녀는 당연한 권리로써 나잠 할 수 있지만 딴 부락의 잠녀 입어는 허용되지 않는 해안을 말한다. 이 섬에서는 앞서서도 말한 것 처럼 어로에 대하여는 그러한 전용어업권(專用魚業權)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나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며 따라서 분쟁이 때때로 일어난다. 제주도의 연안은 전부 이와 같은 어장으로 점거되어 있다. 나잠어장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촌이어서 행정구획으로서의 이(里)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화북리를 예로 든다면 화북리 제1구인 별도(別刀) 및 파단은 나잠어장을 가지고 있으나 제2구인 거로(巨老) 및 부록동은 해안에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도 나잠어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들 부락 사람들은 해안으로 떠밀려온 해초 중에서 듬북 이외의 것은 채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신

촌리에 있어서는 2개의 해촌인 원당(元堂)과 신촌과의 나잠어장은 듬북 기타 해조류에 대해서는 2개로 나뉘어 폐류는 어디에 들어가도 무방하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는 복잡한 관행이 있고 특히 듬북의 채집에 있어서는 탄 마을의 나잠어장에 들어가 있다든가 나잠어장의 경계가 틀린다든가 해서 분쟁이 그치지 않는다. 또 듬북에 관한 관행으로서는 가족간에도 아버지가 채취한 것, 어머니가 채취한 것, 아들이 채취한 것 등 각각 별도의 놀(퇴적물)을 만드는 부락조차 있다.

한편 탄 마을의 나잠어장에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관행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어떤 마을이 특정한 탄 마을의 나잠어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한 가족에 있어서는 탄 마을의 나잠어장에 일정기간 들어 갈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2원 정도를 탄 마을에 지불하여 연간 어업권을 살 수 있는 일도 있다. 어업권을 팔 때에는 각 마을 사정에 따라 좀처럼 허용되지 않은 마을도 있는가 하면 허용된 경우에는 소라, 전복, 미역 등 3종에 국한되며 듬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나잠어장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자연촌에 소속되는 것으로 그것은 그 마을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권리이다. 따라서 탄 마을에 시집 간 여자는 출생한 마을의 나잠어장에 나잠하는 권리를 잃지만 출가한 집이 속하는 나잠어장에서 일할 권리를 자동적으로 획득한다. 그러나 만일 시가가 속하는 마을에 나잠어장이 없을 때에는 나잠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또 나잠어장을 갖고 있지 않은 마을, 또는 탄 마을 혹은 육지로부터 가족전체가 이사 온

경우에는 이사한 마을의 나잠어장에 나잠하는 권리를 얻을 수 있지만 이와같은 가족의 여인들은 잠녀로서의 훈련을 받지 않았으므로 우수한 잠녀를 색시로 맞아들이지 않는 한 그와 같은 가족이 우수한 잠녀를 얻는 데는 세대(世代)의 교대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 잠녀의 출가(出稼) : 제주도 잠녀의 우수한 재능이 도외에서 발휘된 것은 1900년경 부터인데 처음에 일본에 가고 얼마 후 나잠어업의 전혀 미개척지였던 육지연안으로 진출하였다. 그녀들은 강원도 부근에서는 이세(伊勢) 해녀와 심한 경쟁을 벌여 완전히 이를 내쫓고 마침내는 반도 연안 일대의 나잠어업권을 「입어관행보존등기(入漁慣行保存登記)」의 형식으로 획득하고 말았다. 그녀들은 보통 봄 2월경 범선에 20여명에서 30명이 한조(組)가 되어 타서 1명 또는 2명의 남자 사공을 거느리고 우선 전라남도 해안으로 간다. 거기서부터 차츰 동해안으로 북상하여 9월 하순에는 청진(淸津)에 도착, 여기서부터 기선으로 조 수확기까지는 귀도하는 것이었다. 1930년 중반에는 기선을 이용하여 더욱 어획이 많은 땅으로 직행, 거기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똑같이 기선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일본으로 향하는 사람은 대부분 오사카항로를 이용하여 대개 일본의 수산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육지에의 출가잠녀는 대부분 배 안에 머문다든지 장기간에 걸칠 때에는 해안에서 오두막집을 매고 스스로 좁쌀을 갖고가 끓여먹으면서 허기를 달래는 정도의 생활을 감수했으므로 수입은 거의 전부 (많게는 3

백원, 적게는 1백50원 정도)를 섬으로 갖고 돌아 왔다. 1936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이와 같은 출가잠녀는 그 해 3천6백60명에 이르고 갖고 돌아온 현금은 77만원에 달했다. 즉 1인당 2백23원 강에 해당된다.

제주도 잠녀가 일본의 해녀보다 우수한 이유는 ① 임금이 싼 데 비하여 능률이 좋다. ② 저수온(低水溫)에 대하여 일본인에게는 볼 수 없을 정도의 강인함을 보이는 외에 ③ 나잠에 있어서는 10길까지는 아무런 기구도 사용하지 않고 배가 없어도 꽤 먼 난바다까지 누리를 짜 헤엄쳐 나갈 수 있으므로 입어비(入漁費)가 싸게 먹힌다²⁴⁾는 것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상은 1936년의 상태였지만 1938년의 가을 성산포에 도착, 어업조합에서 조사한 결과는 통제(統制)에 따라 약간 그 형태가 바뀌어지는 것 같았다. 우선 나가사키 및 쓰시마(對馬島)에의 출가는 해조류가 목적으로, 3월 특별선이 성산포에 기항, 6, 10월 해삼철까지 기다려서 11월에 귀도하는 자가 있다. 이는 일본 수산업자 외의 계약에 따라 나가는 것이다. 그밖에 개인적으로 십수명의 잠녀를 데리고서 출가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보살펴주는 남자가 계획을 정해서 잠녀를 모집하고 잠녀 수입의 각 2할씩을 수수료 및 뒷바라지값으로 징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육지·만주로 가는 것인데 출발은 4월이며 10월에 귀도했다.

○ 물맛이 : 이렇게 과격한 육상노동과 나잠노동에 종사하고

24) 梶田一二, 前掲書

있는 여자들은 아무리 신체가 강건하다고 하더라도 극도의 피로감과 강박관념에 사로 잡히게 된다. 그녀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남편이나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약수터로 간다. 제주도의 약수는 육지의 그것과 달라서 산중에서 솟아나는 냉수의 우수(流水)인데 여기에 흙통 같은 것을 장치, 조그만 폭포를 만든다. 잠녀들은 그것을 몸에 맞는 것이다. 성판악(城板岳) 및 어승생악(御乘生岳)에 있는 2개의 약수는 잠녀의 질병에 아주 잘 듣는 약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 약수가 있는 곳의 표고는 각각 해발 9백m, 8백m 정도인데 사방에 상록수가 울창하게 들어서고 거대한 용암이의 탑(塔)이 솟아있는 곳에 창창한 물이 용솟음치고 있다. 물 곁에는 조그만 오두막이 있어서 약수 맞으러온 잠녀들의 숙박소가 되고 있다. 그녀들은 오두막관리인에게 50전을 주면 이 오두막에 며칠을 있어도 무방하다고 한다. 좁쌀이나 보리쌀은 각자가 갖고 가서 끓여 먹는다. 그녀들은 하루종일 예의 소중기를 입고서 살을 에는 듯한 냉수를 맞기도 하고 일광을 쬐이기도 한다. 오두막 주인은 나무로 된 물시계를 보면서 잠녀가 물맞는 시간을 보고 있다. 한번에 10분 이상 냉수에 맞으면 몸에 해롭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1주일이나 2주일 휴식을 해서 그녀들은 다시 해촌으로 돌아간다. 약수는 산촌사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성판악의 약수는 교래리의 공동재산으로 마을사람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그밖에 조그만 약수는 무수하게 있다. 건천의 일부에 물이 솟는 곳을 골라 당일치기로 물맞이 가는 사람도 있다.

○ 제주도 잠녀와 일본의 해녀 : 처음에 약간 언급한 제주도 잠녀의 기원(起源)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하자. 일본 및 조선에 있어서의 해녀 및 어부의 분포를 그려보면 제주도가 위치하는 위경도(緯經度)에 모여 있다는 것과 조선에는 이 섬을 제외하면 전혀 잠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일본 및 중국에는 예전부터 잠수사(潛水土)가 있었다는 것은 고문서(古文書)가 말해주고 있는 바이지만 조선에 있어서는 이같은 기록을 전혀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 나잠은 새로이 일본 또는 중국에서 전파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문헌만이 아니라 넓은 관점에서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제주도의 잠녀와 일본의 해녀의 공통점을 들어보면, 기술에 있어서는 이미 말한 것처럼 매우 닮았다. 즉 헤엄치는 방식, 잠수하는 방식, 일본에서는 부낭(浮囊)으로 빈 통을 사용하고 제주도에서는 바가지를 사용하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잠수하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다른 점은 일본의 해녀는 잠수할 때에 무지기(일본식 속치마)를 입지만 섬 잠녀들은 이와는 모양을 달리하고 더욱이 조선복장과도 계통이 다른 방식인 「소중기」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어획의 대상물이 일본에서는 식용인 조개류·해조류가 주된 것임에 대하여 섬 잠녀들은 우선 밭의 비료로 듬북(馬尾草)이 주된 것이고 식용의 해조류와 조개류는 그다음이라는 것이다. 일견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지만 섬의 나잠이 농업을 요구와 관계가 깊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뒤에 말하는 것처럼 해조류가 채취되지 않을 때에 행하는 「잠수굿」에서는 심방이 조(粟)를 바닷 속에 살포, 이것이 씨가 되어 해조의 싹이 튼다는

신앙은 분명히 농업문화의 반영이라고 받아들여진다. 일본의 해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신앙행사가 안보인다.

이것은 요컨대 제주도에 있어서는 섬의 잠수가 농업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의 잠수는 오히려 농업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안된다.

○ 조선의 백수랑(白水郎)에 관한 몇 가지 의문 : 나는 앞서 마스다 이치지씨가 작성한 그림과 관련되는 해녀 및 어부의 분포도를 표시해서 육지에는 잠녀가 전혀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고려사지리지』, 『동국여지승람』에도 해녀에 대한 기사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될 사실을 만나게 되었다. 그것은 『여지승람』의 제주토산(濟州土産) 항목에는 곱(藪·미역)·소라·전복²⁵⁾이 지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제주풍토기』에 따르면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잠녀에 의해 처음으로 획득된 것이다. 한편 일본에 있어서는 『이즈모국풍토기(出雲國風土記)』²⁶⁾에 「단 전복은 이즈모군(出雲郡)이 가장 뛰어나다. 잡는 자는 소위 마사키(御崎)의 해자(海子)이다」라는 기사가 있으며 「히젠(肥前) 풍토기²⁷⁾」에는 백수랑이 해송(海松·청각)·전복·소라를 따기 위해 어떤 섬에 주거를 정했다는 기사도 있다. 그밖에 『만요수(萬葉集)』²⁸⁾ 『겐지모노가다

2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八.

26) 『風土記』, 岩波文庫版, 141쪽 (『出雲國風土記』).

27) 同書 255, 6쪽(『肥前風土記』).

28) 鹿持雅 등 『万葉集古義』 名著刊行會版, 1권 373·375쪽, 4卷 159·163·435쪽, 6卷 100·203·318쪽, 7卷 297쪽.

리(援氏物語)』 등의 여러 곳에도 백수랑이 이들 산물을 채취했다는 기사가 있다. 더 나아가 학자는 『대취편(代醉編)』이란 책의 일절 『唐周邯目買奴日水精 善沈水 乃崑崙白水之屬也』을 인용, 백수랑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바는 『풍토기』·『만요수』·기타 일본의 옛기록에서의 아마(阿麻)또는 아미(阿米·白水郎·善郎·海子·海士 등의 글자를 맞추고 있다)는 여자보다는 도리어 남자가 많고 잠수사(潛水土)였음과 동시에 배에 거주하는 어부 또는 뱃사람(舟人)이기도해서 도미나 잡어(雜魚)도 잡았다. 그런데 제주도의 잠녀는 아무래도 일본의 백수랑과는 달랐던 것 같다.

반대로 다시 남조선 각지의 토산(土山)을 『여지승람』에 따라 본다면 앞에 말한 미역·소라·전복 등의 산물은 남조선의 각지, 나주(羅州)·영암(靈巖)·장흥(長興)·진도(珍島)·강진(康津)·해남(海南)·순천(順天)·보성(寶城)·광양(光陽)·흥양(興陽)·장련(長連)·해주(海州)·옹주(瓮州)·강령(康翎)·장연(長淵) 등²⁹⁾ 제현(諸縣)의 토산 항목에 산견(散見)되지만 그 획득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도 볼 수 없다. 미역은 썰물 때나 폭풍 뒤에 얻어지기는 하지만 양과 종류는 국한되어 있고 소라, 전복의 두 가지는 썰물 때에 해수가 없어질 것 같은 장소에는 거의 살지 않는다. 긴 막대기 끝에 작살을 붙여 해중으로 내던져 잡는 방법도 있으나 토산이 될 만큼 잡히는지 아닌지는 의문이다. 즉 잠수 이외의 적당한 획득 방법은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들이 토산으로 지명되고 있는 한에서는 현재 조선의 육지에는

2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 三三~四三.

백수량은 볼 수 없지만 전에는 조선육지에 있어서도 백수량(남녀의 성별은 불명이다)이 있었다던지 그 무렵부터 이미 제주도 잠녀의 육지에서의 출가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제주도 잠녀의 도외출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190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제6절 섬의 여성

가) 가족 내에서의 분업과 여성의 지위

○ 『동국여지승람』에 이 섬의 풍속을 「여다남소(女多男少)」³⁰⁾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 현상은 그 무렵에도 변하지 않고 있었다. 1936년도³¹⁾의 통계가 나타내는 바에 따르면 총인구의 남녀비율은 100대 116으로 여성의 인구는 남자보다 1할강을 웃돌고 있다. 한편 출생사망이 누년통계(累年統計)를 남녀별로 비교하면 <표 19>와 같은데 예외 없이 남자는 출생 사망 모두 여자보다도 많다. 게다가 1936년에 있어서 도외거주자는 4만5천1백41명에 이르고 그들의 남녀비율은 100대56이란 사실은 본도의 여다남소 현상을 숫자적으로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본도 거주의 일본인만의 인구를 보면 총인구에 있어서의 남녀 비율은 100대 94로, 출생사망 수는 <표 19>에서와 같이 어느 쪽이나 하면 출생율에 있어서는 남자가 많고 사망율에 있어서는 남녀가 거의 비슷하다. 즉 여다남소 현상의 요인으로 볼 수가 없다.

3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 三八.

31) 道內統計는 全羅南道濟州島, 1937年 『濟州島勢要覽』을 이용.

〈표 19〉 朝鮮人 및 日本人 出生 · 死亡 統計

各年別		日本人			朝鮮人		
		出生數	死亡數	差引	出生數	死亡數	差引
1931	男	14	9	+5	3,077	1,811	+1,266
	女	9	10	-1	2,970	1,444	+1,526
1932	男	18	13	+5	2,117	1,665	+452
	女	11	15	-4	2,022	1,332	+690
1933	男	22	12	+10	2,250	1,833	+417
	女	12	4	+8	1,993	1,506	+487
1934	男	14	8	+6	2,252	1,787	+465
	女	17	16	+1	1,986	1,372	+614
1935	男	13	16	-3	2,046	1,887	+159
	女	8	12	-4	1,843	1,576	+267
1936	男	18	9	+9	2,243	1,887	+356
	女	14	8	+6	2,068	1,576	+492

(島廳統計에서 算出)

다음으로 이 「여다남소」의 현상을 각리별(各里別)로 관찰할 때 1928년도 통계에 의하면 제주읍의 월평(月坪)·한림면의 금악(今岳)·신성(新星)·판포(板浦)·월령(月令)·금릉(金陵)·옹포(瓮浦)·대정면의 인성(仁城)·보성(保城)·안성(安城)·구억(九億)·동일(東日)·일동(日東)·영락(永樂)·무릉(武陵)·신도(新桃)·신평(新坪), 안덕면의 광평(廣坪), 중문면의 영남(瀛南)·상예(上猊)·하예(下猊), 서귀면의 보목(甫木)·법환(法還), 성산면의 시흥(始興), 조천면의 교래(橋來) 등 여러 리(里)는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를 웃돌고 있다.³²⁾ 이것을 지역적으로 개괄하면 서남지방의 여러 리가 「여다남소」의 원칙에 반하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32)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其二)濟州島』.

또 해·양·산촌의 3개 구분에서 보면 일정한 경향이 안 보인다. 그런데 1936년이 되면 한림면의 수원(洙源), 대정면의 하모(下募), 안덕면의 상창(上倉), 중문면의 대포(大浦)·색달(穢達), 남원면의 태흥(泰興), 조천면의 와산(臥山) 등 7리만이 「여다남소」에 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모두 여자의 인구가 많아진다. 이것은 특히 남자의 사망율이 증가 때문은 아니고, 출가에 의해 「여다남소」의 현상이 더욱더 강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현상은 원인이 되고 또 결과가 되어서 가족 가운데서 부인의 지위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카하시(高橋亨)에 의뢰하여 본도의 홍순재(洪淳宰)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기경(起耕)·진토(鎭土)·노역은 부역(賦役)·토역(土役)·건축·어업 기타의 힘으로 하는 기술이다. 한편 여성에 한정된 노동은 맷돌(挽臼)·절구(搗臼)·잠수업 기타 망건(網巾)·탕건(宕巾)·갓 등을 짜는 작업으로 여기에다 물건기·세탁·잠수업·요리 등은 물론이다. 남녀 공동으로 하는 노동은 제초·수확·비료운반·가사경영 등이다.³³⁾

그런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양·산촌의 여성, 특히 주부의 일의 주된 것은 육체적 노동으로서는 발갈이 뒤의 흙덩어리 부수기·파종·흙밟기·제초·탈곡·풍선·맷돌·절구·양돈·양계·물건기·취사·부역 등이고, 정신적 노동으로는 육아·부조—친족교제·금전출납—조상제(祖上祭) 및 집안제사(祭祀)의 시행이다. 남자의 육체노동으로서는 우마목축·우마를 이용한 농사

33) 高橋亨, 「民謠에 나타난 濟州島의 女子」『朝鮮』, 1933, 1월호.

즉 조경과 파종 후의 각경(攪耕)·수확시의 일부 솟굽기·수렵(그 무렵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건축 등이며 정신적 측면은 유례적 촌제(儒禮的 村祭)·좀 커진 남자의 교육·계의 감리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는 「튼튼한 여자가 들어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됨으로」 그들의 이상적인 처는 「잘 일을 해서 자기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도 부양해 갈 수 있는 여자」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해촌인을 「여자가 일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등(下等)이다」고 했다. 이와같이 주부는 일가의 가사 만반을 처리하고 남자들 보다도 더 바쁘게 생산에 종사하면서도 양·산촌에서는 남자의 지위가 높고 주인은 일가를 독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재산과 여자들의 노동은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부는 다만 고분고분하게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첩을 얻든가 도락을 하든가, 농번기에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든가, 여자들은 입을 다물고 남편에게 종속한다. 여자는 노동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나 보통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남편 또는 이에 대신하는 남자를 중개로 해서 경작할만한 토지를 얻어서 자기와 남자와 아이들의 생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여다남소」의 현상에 의해 주부로 될 수 없는 곳의 성녀(成女)도 남자를 중개로 해서 토지와 결합해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제주도의 양·산촌에 있어서의 첩의 특징이 있다. 본도의 첩은 본처에 아이가 없을 적에는 입가식(入家式)을 치러서 정식으로 시집가는 아가씨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구분을 지어서 혼례를 치르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녀들은 남자의 성적유희물도 아니려니와 소비자도 아니다. 오히려 남성에게 봉사하는 노동자인 것이

다. 남자가 첩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부양한다. 제주도에서는 여자들 사이에 유교적인 신중함이 없기 때문에 첩과 본처와를 동거시키는 일은 없다. 즉 첩이란 여자가 남자로부터 토지와 집과를 무료로 빌리는 것이다. 보통 집 한채와 토지 3반(反)을 주면 여자는 그 토지를 경작하고 식품과 의복을 얻고서 부자유 없이 생활하며 남자가 왔을 적에는 밭벼의 쌀밥에 마른고기 정도의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남자는 1년을 나누어 본가와 첩집에 숙박한다.

첩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본처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처보다는 젊고 딸보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본처는 첩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며 딸도 이에 따른다. 그러니까 첩을 가지면 집안이 활발히 활동하게 되고 남자는 마침내 편안하게 된다. 첩집의 한가지 특징은 가족 중에 첩 여인의 친족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남편 쪽 친족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가족성원(成員)의 성질이 주부의 집과는 전혀 달라진다. 이와 같은 가족의 구성을 이루는 것은 남자에게는 유리하다. 즉 더욱 유력한 노동력을 무료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첩 친족을 부양함으로써 첩과 결합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은 첩에게 그 친족을 부를 것을 권한다. 첩에서 난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만 생활은 어머니 집에서 영위한다. 물론 본처에게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서자(庶子)로 삼을 수도 있다. 양·산촌의 본처가 첩을 경멸하는 상징적 표현이지만 첩집에서는 남편집의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즉 첩집은 현저하게 모계적 존재(母系的 存在)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정식 첩 이외에도 양·산촌의 여성의 일부는 성생활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 출가를 해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가진 여인과 미망인 등이다. 토지를 젊은 아이의 재산으로 하여, 관리의 실권을 그녀들이 갖고 있는 경우, 그녀들과 그 아이들이 생활은 우선 보장될 뿐만 아니라 남편을 대신할 남성을 키울 수가 있다. 남편에게서 버림받고서 비탄한 나머지 자살을 한다든지 질투에 사무쳐 남편이나 그 상대 여자를 살해했다고 하는 예는 경찰조사에 의하면 거의 볼 수가 없다.

해촌에서 여성의 지위는 양·산촌과는 약간 그 취향(趣向)을 달리하고 있다. 가족 가운데 분업은 여자 쪽에서는 양·산촌에서와 같은 양계(養鷄)의 비중이 적어지고 나잡과 시장에서의 교환이 추가되며 남자쪽은 우마의 목축이 적어져서 어업이 추가된다. 그 밖에는 커다란 질적인 변화는 없으나 지금 추가된 두 가지에다 여름철 노동의 대부분을 빼앗겨서 목축과 농사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감소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커서 농경지가 양·산촌에 비하면 중요성이 떨어지고 여성은 나체 하나로 아니 진짜 나체로써, 도리어 남자보다도 큰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섬의 관행으로써 어업의 수입은 일가족 안에서 따로 따로 관리되고 있다. 남편은 처의 허락없이 처의 수입에 손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말할 필요도 없이 처의 남편에 대한 애정이 두텁다면 사실상으로 처의 수입은 남편의 관리에 맡겨진다. 그러나 양자의 애정이 단절되면 대개의 경우 남편의 생활은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남편은 처에게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 여자가 나잡의 출가로 얻어진 돈은 그

남편이 위협시되는 인간, 다시 말하면 여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인간이라면 남편쪽 친족의 신용 있는 사람(이것을 문중이라고 말한다)에게 위탁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코 처쪽 친족에게 위탁되는 일은 없다. 이와 같이 여자가 가족 안에서의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사를 의논하는 것은 남편쪽 친족으로서, 처쪽 친족의 말참견을 허락치 않는다. 또 처쪽 친족이 동거하는 일도 없다. 해촌의 여자는 양·산촌의 여자와는 달리 여자만의 경제적 단체에 속하고 있다. 이것이 그 무렵 일어나고 있던 부인회인데 예를 들면 북촌리에서는 마을 안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풍부한 단체이며 때로는 마을의 중요기관, 예컨대 용수(用水) 및 돌담 등의 수리를 부인회의 이니셔티브로 시행한다.

해촌에서의 성생활은 양·산촌과는 그 모양이 다르다. 한 사람의 여자에게 급급해서 아이보기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양·산촌에서와 같은 첩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여자만의 세대는 양·산촌보다는 많고 북촌리에 있어서는 30수호에 이르고 있다.

나) 결혼과 출산

이 섬에서는 통혼(通婚)에 대해서는 육지와 마찬가지로 동성불혼(同姓不婚)의 규범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음과 동시에 섬의 가장 오래된 성인 고(高)·양(良)·부(夫) 3씨는 전설에 따르면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결혼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부락간의 통혼 상태를 살펴보자. 제주읍의 오라리(吾羅里)와 노형리(老衡里)와는 예전부터 서로 교혼(交婚)하는 것을 상례로 하고 있으나 서귀면

의 서흥리(西烘里)와 서귀리, 마찬가지로 서흥리와 동흥리와는 평상시 사이가 좋지않은 부락은 아니나 통혼하는 일이 절대로 없으며³⁴⁾ 조천면의 와산리(臥山里) 문미마을은 선흥리(善屹里)와는 일반적으로 교통하지만 딸의 매매와 결혼만은 하지 않고 주로 함덕리(咸德里)로부터 색시를 데려오고 딸은 대흥리로 시집보낸다. 또 신촌리에 있어서는 색시를 조천·함덕리 등에서 구하지만 이 마을의 여자가 조천리에 가면 불행해진다고 전해져 예전에는 산촌인 교래리로 시집가는 자가 많았으나 그 무렵에는 잡녀의 일이 유리하기 때문에 산촌으로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 이와같이 자세히 조사하면 복잡한 통혼관계가 존재하는 듯 하나 1920년대 들어와서 부터는 점차 부락내에서 결혼하는 일이 많아졌다. 결혼은 어느 마을에서나 본인끼리 자유로이 결정되는 일은 없고 남자가 15~16세, 여자도 거의 비슷한 연령에 이르면 상대방 부모 사이에서 허혼(許婚)의 약속이 행해진다. 이때 남자집에서 여자집으로 납폐(納幣·폐물)가 품목표와 함께 보내진다.

내가 교래리에서 본 품목표 사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品目：米：捌斗 豚：壹首 燒酒：一桶 鷄：貳首 卵：四拾箇
 此段上送候也 宋哲重 謹拜上

34) 赤松智城·秋葉隆 『朝鮮民俗의 研究』, 上卷, 『濟州島神歌』, 『西歸浦本郷堂本解 및 同歌』, 주 18참조.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 풍수사(風水師)에게 길일(吉日)을 정해주도록 해서 신랑은 비단으로 저고리와 바지 두루마기 등 세 가지를 만들어 입고 말을 탄다. 뒤에는 숙부와 하인이 따르고 신부의 집에 도착한다. 이것을 「장가간다」고 말한다. 한편 신부는 색채가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는 두 줄기로 갈라빚어 그대로 뒷 머리에서 묶어(엮은 머리라고 한다) 여기에 금 또는 은으로 만든 비녀를 꼽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다. 신부집에서의 의식은 간단 하며 신랑 부친쪽 숙부 또는 형은 중매자가 미리 풍수사에게 부탁해 써 갖고 온 예장(禮狀) 또는 문혼장(問婚狀)과 2~4필의 무명천을 넣은 상자(함 크기는 44×33×15cm)를 신부의 부모에게 바친다. 그때 무명천은 홀수를 금하기 때문에 2~4필이 보통이다.

앞의 교래리의 예를 보면 문혼장에 다음과 같이 써어 있다.

時唯孟春
 尊體百福僕之長子柄鎬年旣長成
 未有 伉儷 伏蒙
 尊慈許以令愛睨室慈有先人之
 禮謹行納幣之儀不備狀唯
 尊照 上狀
 礪山後人宋哲重
 夫主事宅 入納 上謹狀拜
 一九三六年舊正月貳拾貳日

이 예장은 고래리에서는 전부 같은 내용의 것을 사용한다.

예장 및 품목표는 신부집에서 소중히 보존하며 이혼할 때에는 이것을 돌려준다. 이같은 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잔을 교환하고 주연(酒宴)으로 옮긴다. 이 주연은 신부집 부담이다. 신부집에서의 연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2~3시간이면 끝나서, 신랑은 말에, 신부는 교자(轎子)에 탄다. 교자는 신랑은 따라온 숙부 또는 형이 데리고 온 인부(부락사람을 마음대로 빌린다)에 메어져서 신랑집으로 돌아와 다시 연회로 들어간다. 돌아오는 길을 「시집간다」고 한다.

연회가 끝나면 신랑 신부는 첫날밤을 맞는다. 신부가 신랑 옷을 벗겨준다. 이것은 앞서 교환된 술잔과 마찬가지로 “나는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입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식이라고 전해진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신랑과 신부는 신부의 집을 찾아 간다. 이것을 「촌에 간다」고 한다. 신부의 집이 먼 경우에는 일박을 하지만 대부분은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그날 중에 신랑집으로 돌아온다. 이것으로 결혼에 관한 모든 의식이 끝났다. 결혼의 비용은 빈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백원에서 1백 50원이며 신부집에서의 비용은 여자쪽이, 남자쪽의 것은 남자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 신부집이 부담은 남자쪽의 그것에 비하여 커지기 때문에 그 무렵엔 신랑가족이 유복한 경우에는 여자집에서 행하는 연회의 주효료(酒肴料)를 보조해 주었다.

본도의 여자는 이혼을 한다든지 미망인이 되어도 재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각년도에 있어서의 결혼 및 이혼을 나타내 보면 <표 20>과 같다.

〈표 20〉 결혼 및 이혼표

(人口 千人에 대해)

	朝鮮人		日本人	
	結婚	離婚	結婚	離婚
1925年	0	0	5.19	1.05
1926年	0	0	4.65	0.61
1927年	1.92	1.92	6.03	6.01
1928年	2.68	0.89	8.00	0.85
1929年	4.00	0	11.63	1.18
1930年	1.68	0	13.25	1.40
1931年	3.17	0	9.81	1.11
1932年	3.04	0	5.62	0.65
1933年	2.93	0	4.21	0.43
1934年	3.47	0	3.69	0.41
1935年	0.09	0	2.13	0.36
1936年	2.84	0	4.66	0.47

(1938년 濟州島勢要覽에 의함)

다만 이 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면사무소에 신고된 것 뿐임으로 신고가 되지 않는 것, 또 늦어지는 것도 때때로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결혼을 한 여자는 남편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회임이 되어 입덧이 있어도 이것으로 일을 쉬는 일은 없다. 잠녀는 출산 10일전까지 물에 들어가고 농사에는 출산직전까지 종사한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되면 탄 집 사람에게는 절대로 숨기고서 작은 온돌방(작은 구들)에 보릿짚을 깔아 그 속에 드러 눕는다. 남자는 이 방에 가까이 가는 것이 금지되며 즉시 친족 중에 분만에 경험있는 여인을 불러온다. 출산을 하면 친족여자는 배꼽줄(뱃동줄)을 가위로 끊어 그것을 끈으로

뭉고 오물을 짚위에 그냥 버려둔 채 산의(産衣)를 입힌다. 배꼽 줄은 짧게 꿰으면 밤잠을 자다가 오줌을 싸고 너무 길면 소변의 도수가 적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산의를 입히면 출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모유가 있는 젊은 여인을 불러와 사흘 동안 젖을 받아먹게 한다. 이 여자의 마음이 나쁘면 아이에게 그것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어 젖을 먹여주도록 부탁받은 여인은 그의 마음이 아름다움을 마을사람들로 부터 공인받은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탁을 받으면 기꺼이 달려온다. 이 여자를 「젓어멍」이라고 부른다. 출산 후 3일째를 「사흘」이라고 해서 엄마는 일어나 처음으로 아기를 목욕시키고 작은 온돌 속의 오물을 이날 길가 청정한 장소에 내다가 소각시킨다. 그사이 처음으로 모유를 주고 아이를 「애기구덕」이라는 요람에 넣어 다음과 같은 자장가(방언으로 애기재우는 소리)를 불러준다.

애기자랑 애기자랑

이날은 쌀밥을 지어 출산때 수고를 한 여자와 젖을 나눠준 유모(젓어멍)에게 식사대접을 한다. 또 7일째를 「일뫼」라고 해서 이날까지 급한 용무가 없는 딴 집 사람은 산가(産家)에 가까이 가지 않으며 한편 출산이 있었던 집안에서는 일체의 재물을 문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삼간다. 특히 우마의 매매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7일째는 이와 같은 금기(禁忌)가 풀리는 날로서 쌀밥을 지어 이웃 사람들은 불러 기쁨을 나눈다. 다음에 출생해서 1백일째를 「백일」이라고 해서 쌀밥을 지어 그것을 천 속에 뭉뚱그려

당(堂) 또는 청정한 장소에다 버린다. 그리고 사흘 때 식사대접을 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대접을 하고 쌀밥을 이웃집에 나눠 준다. 이 같은 제(祭)를 1년째 되는 날에도 행하는데 이것을 『생일잔치』라고 하고, 이날 부친에 의해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다. 산모는 『7일』 직후부터 농사나 나잡에 종사한다. 그래도 별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을 만큼 섬여인들의 신체는 강건하다. 육아는 양·산촌에 있어서는 대개 모친에게 맡겨지고 해촌에서는 수유(授乳) 이외에는 부친에게 맡겨진다. 그리고 남자는 7·8세가 되면 아버지를 여자는 어머니를 따른다. 따라서 남아에 대하여는 부친의 영향이, 여아에 대하여는 모친의 영향이 강해지는 것이다.

제4장 초가족(超家族) 집단의 연구

제1절 친족관계

(가) 조상제사(식계)

○ 제주도에 있어서는 신분의 상·하나 빈부를 물을 것 없이 조상제사는 엄격히 지켜진다. 그것이 섬사람들의 긍지였다. 그 제사 양식은 거의 유례풍(儒禮風)이지만 유례적 마을제(祭) 즉 포제(酬祭)에는, 육지부에서는 여자가 참가 않는 데 반하여 제주도에서는 남녀모두가 참가하며 오히려 여자쪽이 열심이다. 조상제사는 오대십신(五代十身) 이내의 조상을 모신다.

○ 조상 제사에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주부는 열심히 참가

하지만 모시는 조상은 남편 쪽(시댁)으로 한정되며 그 10대까지의 이름과 제삿날을 암기하는 일은 주부의 자랑으로, 주부와 첩이 구별되는 까닭이 되기도 한다. 조상 제사에 즈음해서 해촌(海村)에서조차 가족 안의 남녀를 뒤틀림은 해소된다.

○ 특히 여성들은 부조(扶助)라고 하여 제사를 중요한 사교로 생각 많이 모이고 친족 사이의 특히 여성의 사회적 결합이 강화된다.

○ 이러한 준비는 제사를 맡고 있는 가족의 주부 몫이다. 만일 그 여자가 월경일 때는 열석(列席)할 수 없을 뿐더러 제물이나 그 밖의 준비도 할 수 없다. 조상 제사 때가 마침 주부의 월경 때라 해도 그 여자의 마음이 깨끗하고 조상에게 정성스럽다면 내조(來朝)는 늦어진다고 믿어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경우 늦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그 집이 주최하는 조상 제삿날에 주부에게 월경이 온 경우에는 그 주부는 조상에게 정성스럽지 못한 여자로서 친족관계의 교제로부터 배제된다. 또 그날 밤 두 개의 상을 마련하여 양초에 불을 댕기기 전에 닭이 때를 알리면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태가 야기된 때도 앞의 월경과 마찬가지로 책임은 그 집 주부에게 있는 것으로 치부, 마음이 좋잖은 여자라고 친족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나) 장례(葬禮)

○ 한 집안의 화복은 그 시대의 친족전체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자는 이러한 유례적(儒禮的) 행사에 반드시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상제사나 장례에 있어 남녀가 제각각의 행위를 하는 일은 드물다. 만약 무속적(巫俗的) 행사를 하려고 해도 시간적인 차가 있다. 폭풍 속에 명정을 앞세워 산길로 향하는 장례 행렬을 나는 여러번 봤지만 여자나 남자가 육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허곡(虛哭)이 아니라 배어나오는 듯한 『아이고』의 소리가 드높았다.

제2절 수눌음(두레) 및 계

(다) 그 밖의 기능적 집단

부인회

○ 이것도 성별·연령 집단을 볼 수 있지만 양·산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부인회는 해촌의 나잠(裸潛)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여자만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회가 결성된 동기는 나잠어장의 옹호와 마을 안의 해녀의 내분(內紛) 조정이라는 내부적요구에 의하는 것 같았다.회는 마을 나잠어장이 나잠기간 즉 해금(解禁)을 정하며 다른 마을과 분쟁에 대항할 때 한 뭉치가 되어 결속한다. 또 어획물 매매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드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부인회는 그 당시 강력한 조직이 되어 보통 2원 내외의 입회금을 징수하고 또 나잠수입의

일부를 각금(鑿金)하고 있으므로 명실 공히 그 마을의 나잠어장 관리하고 있다. 북촌리에서는 이 회에서 용수정(用水井)의 수리비 전부를 지출한다. 북촌리·화북리와 같이 회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예도 적잖다.

제4절 물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나) 용수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 물길기는 여자의 대표적인 일로 남자는 결코 이에 종사하지 않는다. 물을 길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으로, 여자들은 「물허벅」이라는 현무토(玄武士)를 구워서 만든 물동이를 「물구덕(竹籠)」에 넣어 등에 십자로 교차시킨 끈으로 짊어지고 용수를 찾아가는 것이다. 비슷한 시간에 여자들이 물가로 모여들지만 바쁜 때인 만큼 지나치게 지껄이는 일 없이 길 위를 전후해서 걸어가면서 큰소리로 인사를 나누고 요건(要件)을 얘기한다.

용수 관리는 그 용수를 항상 또는 사람들 또는 동이나 마을에서 맡지만 남자들의 얘기로 방침이 결정되고 실제의 수리는 여자가 하는 것이다.

○ 북촌리 잠녀 부인회가 1백수십원을 각금해서 「충지」 용수를 수리한 일이 있는데 부인회가 마을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제5장 제주도의 종교

제1절 섬의 성소(聖所)

1. 보편적 성소(普遍的 聖所)

(가) 성소로서의 산

한라산

○ 이 산에 머무는 신의 성격은 반드시 하나는 아닌 것 같다. 한라산 여장군(女將軍)은 뒤에 말할 오백나한(五百羅漢)과 더불어 외적(外敵)으로부터 구한다고 믿어, 외국선이 가까이 오면 순식간에 운무(雲霧)를 일으켜 섬을 덮어버린다고 생각되고 있다.

○ 『여지승람』³⁵⁾에 제주의 남쪽 3리(朝鮮里)에 한라호국신사(漢拏護國神祠) 광양당(廣壤糖)이 있다는 것을 게재하고 속전(俗傳)으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전하고 있다.

漢拏山神之弟 生有聖德 歿爲神 高麗時宋胡宋朝 來壓此土
浮海而返 神化爲鷹 飛上穡頭 俄而北風大吹 擊碎宋朝之舟 沒于
西境飛揚 島巖石間 朝廷褒其靈異 賜之食邑封爲廣壤王 歲降香
幣以祭 本朝令本邑致祭

이 속전(俗傳)은 그 당시 남아있던 한라산 여장군의 신앙과 일

3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 三八.

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또 풍속의 강(綱)에는 이 당에 봄·가을 두 번 남녀가 주육(酒肉)을 갖고 모여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두 개의 당은 모두 한라산신을 모신 제장(祭場)의 예이지만 1935년 경 이미 제장은 모두 파괴되고 혹은 왕년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있었다.

(나) 시조(始祖)의 전설에 얽힌 성소(聖所)

○ 이 삼성혈은 제주 고·양·부(濟州 高·良·夫) 삼씨에게 있어서는 그들 조상의 발상지로써, 도민 전체로부터는 섬의 시조신(始祖神)이 솟아난 땅으로써 신성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 구명에 대한 제사는 제주가 가까웠다는 것과 무속(巫俗)에의 대항상(對抗上)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유례화(儒禮化)되어 마을들의 조상제사와는 달리 전혀 여자는 참여 않는다. 따라서 이 구명에 대해서 여성들은 관심이 없다.

II. 개별적 성소(個別的 聖所)

(b) 토산당(兎山堂) : 이 당은 옛 정의현(旌義縣) 사귀신앙의 본산일뿐더러 전도 사귀신앙의 중심이기도 했다. 그 제신은 나주(羅州) 교외에 치솟아 있는 금성산(錦城山)으로부터 날아와서 세 개의 금 구슬로부터 태어난 삼여신이라고 토산당본해(兎山堂本解)³⁶⁾는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 삼여신의 본체가 사귀란 것은 섬

36) 赤松智城·秋葉隆『朝鮮巫俗의 研究』, 上卷, 濟州島 神歌,

에서 뱀을 가리켜 토산당귀신 또는 토산할망당이라고 칭하는 일 및 차귀당의 대사퇴치(大蛇退治)의 전설로부터도 분명할 것이다.

이 당에 대한 제사는 1년 3회, 3월 8일, 6월 8일, 11월 8일 닭·떡·밥·감주(甘酒)를 올려 토산리 남녀들이 모여 무당(신방)이 이를 사제(司祭)하는 것이지만 제사와 달라 돼지는 제물로 절대 금물이다.

(c) 뚝당(豚堂) : 큰뱀 전설로 유명한 김녕굴의 한켠에 있는 동해용녀(東海龍女)의 세 딸을 모신 대·중·소당(堂)의 세 성소 중의 중당으로 정면 폭 3칸 정도 훌륭한 동굴을 이루고 있어 그 당시 이미 사귀와의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아키바 교수는 이것을 사귀당의 범주에 집어넣고 있다. 행사는 1년 1회, 돼지를 올린다는 점에서는 토산당과는 대차적(對蹠的)인 당이다.

(d) 고차당 : 옛 정의면 신천리(新川里)에 있는 당으로 사귀당이라고 무서워하고 있다. 전날 밤에 음주하든지 성교를 한 사람이 당의 위쪽을 지나면 병으로 죽는다고 믿어지고 있어 위쪽의 큰길을 피하고 아랫쪽에 가는 길이 스스로 개통하게 되었다. 이 당에 대한 행사로써는 신천리 여자들이 「8의 날」에 쌀밥, 폐백을 갖고 참배할 뿐이다.

(e) 피지남팻당 : 옛 제주목대흘리(濟州牧大屹里) 제2구 하늘촌에 있는 당으로 제신은 「피지남파 할망」이라고 칭하는 눈이 푸른 사귀이다. 당에는 커다란 팽나무가 있고 그 뿌리에는 덩불이 있

으며 덩불 속에는 널판지 모양의 용암이 ㄱ형으로 놓여져 있다 이 당의 특별한 영험(靈驗)은 돌계집을 임신케하는 일이다. 보통 마을 여자들은 자식의 건강을 빌어 월 3회, 만월(滿月)의 날과 1일, 월말에 밥과 향로를 들고 이 당에 참배하는 것이다. 대원(大願)이 있을 때는 이 밖에 폐백을 갖고가 덩불에 매어 놓는다. 옛날엔 이 당에서 신방에 의해 새신(賽神 : 푸닥거리)이 행해졌지만 그 당시는 이미 정기적인 그런 것은 볼 수 없었다. <252쪽>

(f) 칠성당 : 토산사귀를 일반적으로 「토산할망(兎山姥)」 또는 단지 「할망」이라고 부르는 데서 신명(神名)에 「할망」이란 말이 붙은 것을 모두 사귀적 신령으로 간주(看做)하는 설을 채택한다면 사귀적 신령의 성소는 더욱 그 수를 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귀적 신령을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지역의 성소의 제신의 이름에도 「할망」이름이 붙는 것도 있다. 이들 제신의 본체는 까마득한 옛날에 잊혀져 버렸다는 해석도 일단은 성립되지만 만일 이러한 설을 채택한다면 「연등할망(燃燈姥)」과 같은, 사귀와 서로 대립하는 신격(神格)까지를 사귀신령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므로 「할망」을 모두 사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생각컨대 제주도 및 남조선의 무속(巫俗)의 신통(神統)에는 「할망」 또는 「하르방(爺)」의 미어(尾語)를 갖는 것이 많다. 「할망」 또는 「하르방」은 본디 여성 또는 남성에 대한 경어이다. 따라서 만신(萬神)이라고도 말해지는 조선의 무속³⁷⁾의 신통 명칭에 붙여

37) 赤松智城, 前掲書.

지는 경우는 오히려 신통의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사귀의 할망이라는 미어가 많은 것은 토산당본해(兎山堂本解)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귀신은 여신이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할망』이 곧 사귀는 아닌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해에서 할망이라고 일컫어지는 제신 가운데서 특히 사귀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 범주에 수록했다.

(다) 비사귀적 신령(非蛇鬼的 神靈)의 성소(聖所)

(a) 용왕 부인당(龍王夫人堂) 및 용등당(龍燈堂)

이것이 전도 각 해촌의 바닷가 또는 바다가 잘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성소³⁸⁾이다. 모두가 어행(漁幸)과 해상평온을 관장하는 신이다. 행사는 대강 각 달 가운데의 정해진 날 및 이월삭(二月朔·음력초하루)의 용등제(龍燈祭) 7월 14일의 백종제(百種祭) 등에 행해져 남녀가 함께 참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여자만의 제사이다. 용등 및 신방의 제사는 신방이 맞는다. 제물은 이 계통의 신당(神堂)에서는 돼지를 피하고 닭이 중심이 된다. 아카마쓰(赤松智城)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동문 밖의 용등당에는 주로 해녀들이 모여들어 용등제의 제물로는 돼지와 소주를 금하고 월경 중인 사람·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장례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이 푸닥거리(또는 굿)에 참여할 수 없다.³⁹⁾ 또 이월삭(二月朔)의 푸닥거리에 앞선 용등의 달에는 바다에서의

38) 秋葉隆, 『濟州島의 蛇鬼信仰』, 『靑丘學叢』, 第七號.

39) 秋葉隆, 『濟州島의 蛇鬼信仰』, 『靑丘學叢』, 第七號.

일체의 행위가 금해진다. 승선은 물론 해녀의 잠수 해변에서의 빨래까지 금지된다.⁴⁰⁾

용등할망(燃燈姥) 용등풍(燃燈風)이라고도 일컫어지는 풍신(風神)으로 제주도에 있어서는 바다를 건너 1월 15일에 와서 2월 15일에 돌아간다고 믿어 그 사이를 앞에 말한 「용등의 달」이라고 부르며 바다 속에 숨어서 조개류를 먹고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따라서 용등의 금기(禁忌)가 풀림 직후의 조개류는 말라빠져 있다고 해녀들은 말하고 있다. 또 용등할망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우도에 전해지고 있다. 용등할망은 매우 광폭한 남조선의 신으로 그가 수사인(水死人)을 가장하여 김녕의 해안에 떠올려졌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이 신을 모시지 않으면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무튼 용등할망은 바다 저쪽에서 건너오는 풍신이지만 이를 모시지 않으면 광풍이 일어 해상은 말할 것도 없고 논·밭에도 피해가 미침으로 양·산촌 사람들도 이 제사를 지낸다. 또 용등계의 신당은 육지로의 출가(出稼)가 늘어난 다음 해외재주자(海外在住者)의 무사안녕을 비는 신이 되어 섬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첫째 선물은 이 신당에 바치는 포목이다(북촌리)(번역자 주 = 「용등할망」을 현재는 「연등할망(燃燈姥)」으로 많이 쓰고 있음).

(d) 수덕당 : 이것은 우도에 있어서 당치동산당과 맞먹게 물의 일(농사)을 모시는 당으로 온 섬에 당치동산당과 마찬가지로 삼개소가 보인다. 당의 형태는 당치동산당과 닮았으며 제신은 「수

40) 秋葉隆, 『濟州島の 蛇鬼信仰』, 『靑丘學叢』, 第七號.

덕할망(水德姥)』이라고 전해지는데 제신은 사귀가 아니라고 마을 사람들은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체는 잘 모른다. 제일은 「8」의 날, 즉 8일 18일, 28일로 이밖에 1년에 1회, 수확 후의 8의 날에 큰제사가 행해지고 있다.

(e) 이레할망당(七日姥堂) : 서귀포 해변에 있는 신당으로 울창한 활엽수의 숲 속에 석단이 있어 제신은 「이레할망(七日姥)」으로 물일(농사)을 관장하고 있으나 제신은 본체는 분명치 않다.

제일은 매월 7의 날, 즉 7일·17일·27일로 대원(大願)이 있을 때는 신방을 곁들여 푸닥거리를 한다. 그 당시 섬의 관권(官權)에 의해 신방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주위에 여러 개의 칠일할망을 모시는 소신당(小神堂)이 만들어져 갔던 일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제2절 우도(牛島) 도네촌 행사

○ 현재는 구좌면에 속하여 섬의 마을을 총칭해서 행정상 연평리(演坪里)라고 부르고 있다. 인구는 통계⁴¹⁾에 따르면 4백72호, 2천3백11명으로 그 중 남자는 1천27, 여자는 1천2백84명, 제주도의 일반적 현상 즉 「여다남소」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그 성년 여성은 모두 나잠(裸潛)에 종사하여 제주도 가운데서 가파도(加波島)와 더불어 해녀가 가장 조밀한 지대이다. 섬에는 8개의 자

41) 島廳統計에 따름.

연부락이 있다. 즉 천진동(天津洞)·후해동(後海洞)·우목동(牛目洞)·비양동(飛楊洞)·주흥동(周興洞)·고수동(古水洞)·삼양동(三陽洞)·전흘동(錢屹洞)이 그것이다.

○ 한편 우두산 남쪽에 「절터(寺址)라는 장소가 있어 옛날에 절이 있었던 것이 숙종(肅宗) 28년(1702), 목사 이형상(李衡祥)의 음사·불우박멸정책(淫祠·佛宇撲滅政策)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분명치 않다.

○ 따라서 이 섬의 주민의 역사는 아직 젊고 독특한 문화를 창출해 낼 여가는 없었을 터이지만 본도에 있어서의 무속에 대한 탄압이 그 때까지는 이섬에 아직 미치지 않고 있었음으로 무속에 관한 한 우도는 가파도와 더불어 제주도의 고속(古俗)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도에 이주한 주민은 거의 조천면과 구좌면의 주민이 많지만 온 섬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섬에는 우도 자체를 모시는 신당은 없고 앞에 말한 것과 같이 당치산당과 수덕당이 함께 여섯이 있어 그것들의 본당은 양자 모두 삼양동(도네촌)에 있고, 다른 것은 그 분사(分社)이다(그림 30). 삼양동의 창설은 천진·고수·후해의 3동에 비하면 1년 늦어져 있지만, 역사적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이주 당초부터 우도인의 정신적 지도자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는 도네촌에서 조사한 여러 행사를 제시하고 나아가 본도의 그것들과 비교해 보기로 했다.

(가) 정기적 행사(날짜는 음력임)

○ 1월 14일 당치동산당(堂置山堂) 푸닥거리 및 제사 : 이날은 해사(海事)에 대한 기원(祈願)과 제사가 행해지는 날로 마을의 집마다에서는 당치동산떡(堂置山餅)을 만들어 당앞에 모여든다.

이 땅의 당치동산하르방은 다른 이름을 『동지』라고도 해서 성장(城張) 속에도 머물어 있다고 믿어지는 해사(海事)의 수호신이다. 한편 마을의 신방은 당 앞에 백미·당치동산떡·소주 및 살아있는 닭을 바쳐 요령(搖鈴)을 흔들면서 푸닥거리를 행하고 마지막으로 춤을 추면서 닭을 손에 잡아 그 가랭이를 찢고 조금 높은 해변의 현애(懸崖) 위로부터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이 푸닥거리를 『당동굿』이라고 한다. 제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떡을 당 앞에 바치며 해사다행(海事多幸)을 비는데 이것을 『당동제』라고 한다. 이날의 행사는 무속에 의한 것이지만 남자도 이에 참가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한편 이날은 용등할망이 제주도에 오는 전날에 해당된다.

○ 1월중순 정일(丁日) 또는 해일포제(亥日醮祭) : 포제는 완전히 유례적 마을제로 이 섬에서는 각 자연부락별이 아니라 행정구획으로서의 연평리가 하나가 되어 행한다. 포제당(醮祭堂)은 <그림 3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행정구획으로서의 연평리에 다른 당과는 별도로 한군데만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도에서는 거의 때를 같이하여 자연부락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정리된 사회를 이룬 것에 따른 것일 것이다. 다른 본도의 여러 마을에서는 자연부락이 단위가 되어 이를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일(祭日)은 정일(丁日)이 이상적이지만 이날 사자(死者) 그 밖의 불길한 사상(事象)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해일(亥日)에 행한다. 제물은 돼지이며 제사의 순서, 초·아·종의 삼헌(三獻)을 올리는 일 등은 조상제사·혈제(穴祭)와 같으며 이 제사에는 여성이 참가 않는다.

○ 2월 15일 용두푸닥거리 및 제사 : 1월 15일에 와서 2월 15일에 떠나는 이국(異國)의 풍신, 「용등할망(龍燈姥)」을 모시는 이 제사(祭事)는 제주도에서는 널리 각지에서 볼 수 있다. 대제(大祭)는 할망이 죽은 사람을 가장하여 상륙했다고 하는 김녕의 승당(楸堂)에서 행해진다. 마을의 신방은 포목반(匏木盤) 또는 바가지에 대나무 막대(龍燈竿)를 세운 도고리 또는 용등배(龍燈船)라는 배를 만들고 그 안에 쌀·김·심태초(心太草)·마미초(馬尾草)·돈 등을 싣고 2월 13일에 신방집에서 푸닥거리를 하고 14일에는 용등간을 받들어 요령을 흔들며 마을 안을 돈 다음⁴²⁾ 15일에는 그것을 당치동산당으로 가져간다. 이날 마을의 선녀(善女)는 당치동산당에 밥 한공기를 갖고 모여 푸닥거리 후 배에 살아 있는 숫닭을 싣는다. 이것을 선두(船頭)라고 부르며 반드시 천진동의 한리케항구로부터 이 배를 물 위로 떠나보내는 것이다. 이것을 「용등굿」이라고 하며 방수(放水)와 동시에 여자들은 저마다의 공기 속의 밥을 바다로 던진다. 이것을 용등제라고 칭한다. 이 행사는 지방에 따라 그 세부(細部)를 달리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42) 秋葉隆, 「朝鮮巫俗의 家祭에 대해」, 『社會學研究』.

는 가족의 제사로 여겨지고 있지만⁴³⁾ 우도와 같이 마을제사로 간주되는 것도 있다.

또 양·산촌에 있어서도 신방은 똑 같이 용등선을 만들어 이날 용등제를 지내는데 배는 하천 또는 웅덩이(水溜)에 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때로는 바람이 거센 산상(山上)에 배를 안치(安置)해서 돌아가는 일도 있다.

○ 2월 또는 3월 한식일(寒食日) 조상제(祖上祭) : 이 날의 조상제는 완전히 유례적인 것으로 6대조 이전의 조상만을 모시는데 무덤 앞에서 행해진다. 친족관계집단에서 제사에 앞서 가정마다 각각의 조상의 묘 담당자를 할당한다. 행사의 진행방법은 본도와 다름 없어 쌀밥·술·바다고기 등의 제물을 올려 축문을 읽는다. 이러한 제사(祭事)에 앞서 무덤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 행사의 하나인데 어느 것이나 여성들이 열심히 참가한다.

○ 5월단오(端午) 조상제 : 각 성씨마다 집에서 올리는데 상제한 것은 친족관계의 대목에서 서술한대로이다.

○ 7월 14일 백종제(百種祭) 및 당치산당(堂置山堂) 푸닥거리(굿) : 백종일은 거의 「이백십일(二百十日·번역자 주≡立春으로부터 2백10일째 되는 날, 즉 9월 1일경을 일본에서는 「니하쿠도오카」라고 부르는데 이때가 태풍내습철이란 데서 경계한다.」에

43) 秋葉隆, 「朝鮮巫俗의 家祭에 대해」, 『社會學研究』.

해당되는 날인데 이날 제주도에서는 소·말을 가진 자는 그 안태(安泰)를 빌며, 소·말이 없는 자는 소·말을 얻게되길 기원한다. 이것을 앞에 말한 우업(牛業)이라고 한다. 이 제사는 그 즈음엔 신방이 관계 않은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로 백중제라고도 하지만 「백중굿」이라는 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엔 신방이 이를 행했을지도 모른다.

이날 주부는 쌀밥·소주·떡·폐백 등을 마련하여 달이 오름 다음 일가족 모두가 자기들의 소·말이 방목되어 있는 목장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달빛이 비쳐대는 원야(原野) 속의 목장에 도착하면 약간 높은 곳에 임시의 제대(祭台)를 만들어 앞의 제물을 바쳐 산신·지신에 삼배하고 폐백을 그 자리에서 불태운다. 이래서 제사는 끝나고 올린 제물을 내려서 음복(飮福)한다. 이날의 날씨가 나빠 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사는 효과가 없어진다고 믿어 그런 때는 목장까지 가질 않고 제물을 먹어버린다.

제사는 그 즈음부터 우도와 같은 해촌에서는 이를 올리는 사람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해촌에선 우마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양·산촌, 예를 들어 수기동·교래리·와산리·대흘리 등에서는 우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 저녁엔 달빛에 비춰진 암록색(暗綠色)의 측화산(側火山) 여기저기로부터 붉은 불이 타 올라 대단한 조망(眺望)을 이룬다.

우도에서는 이날, 백중제에 앞서, 즉 오전 중에 1월 14일과 똑같은 당치산당굿(푸닥거리)과 제사도 행해진다.

○ 8월추석 조상제(祖上祭) : 유례풍(儒禮風)의 조상제로, 5대째까지의 친족집단 가운데 유력자의 집에서 행한다. 제사양식은 제4장에서 말한대로이다.

○ 10월 입동(立冬) 조상제 : 한식일과 똑같은 제사이다.

○ 10월 8의 날의 길일(吉日) 수덕당(水德堂)굿 또는 제사 : 가을 수확후의 농한기에 물을 모시는 수덕당 굿 또는 제사를 행한다. 이것은 마을 여자들이 의논하여 낱짜를 잡아 떡 그 밖의 제식(祭食)을 갖고 수덕당 앞에 모여들어 신방으로 하여금 굿을 하게 하고 각자의 제물을 올린 다음 이를 내려서 모여앉아 음복한다. 이는 수확기의 바쁨에서 해방된 여자들의 위안일(慰安日)임과 동시에 수확제(收穫祭)이기도 하다.

수덕당에서 행해지는 정기적인 행사는 이 밖에 『8의 날 참배(參拜)』가 있다. 이날 가정주부는 실·포목 또는 조선지(朝鮮紙)를 갖고 당에 모여 『육사다행(陸事多幸·어린이 안전에 대한 기원도 포함돼 있음)을 비는데 이날 이외의 날에 당에 참배하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고 믿어지고 있다.

○ 11월 동지(冬至) 조상제 : 각 가정에서 5대조상까지를 모시고 팔죽을 먹어 감기를 예방한다.

(나) 임시적 행사

(a) 당동산제(堂置山堂祭) : 당동산당(堂置山堂)은 이미 말한 바

와 같이 해사를 관장하는 신의 좌소(座所)인 동시에 해상무사를 비는 성소이다. 따라서 이 섬으로부터 먼 바다에 나간 사람의 가족은 배가 출범함과 동시에 이 당에 포목·실·조선지 등을 갖고와서 해상무사를 기원하는 것이다.

(b) 잠수굿(潛水賽神) : 이것은 해조(海藻)가 잘 채취 안 될 때, 해녀들이 당동산당 앞에 모여 올리는 제사인데 이 섬에서는 성인여성은 모두 해녀임으로 일종의 여성이 주최하는 임시적마을 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굿(푸닥거리)의 주지(主旨)는 당 앞에서 행하는 행사의 막판에 신방이 「가는대구덕(手籠)」에 조를 채운 것을 한 손에 들고 해변에 이르러 달려가면서 그 조를 바다에 뿌리는 것이다. 조는 바다 밑에서 발아(發芽)하여 해조가 된다고 믿어지고 있다.

(c) 말죽굿(蝗糞神) : 제주도에서는 옛날부터 메뚜기(방언·말죽)의 피해가 심했다는 것이 『탐라기년(耽羅紀年)』 등에서도 밝히고 있다. 메뚜기 발생이 심했을 때는 수덕당(다른 당에서는 각기 陸事를 빌었다)에서 굿을 한다. 제사의 모티프는 살아있는 닭을 신방이 끌고 다니는 것이다. 그것은 닭에게 벌레를 잡아 먹으라는 주술(呪術)인 것 같다. 당동산당굿(푸닥거리)에서 닭을 찢어 발겨 바다에 던지는 일, 용두선에 닭을 태워 방수(放水)하는 일 등을 합쳐 생각해보면 닭은 제주도의 무속적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연출한다. 한편 유례적인 포제에 있어서의 돼지 희생에 비해 재미있는 대조이다.

(d) 기우(祈雨) : 제주도에서는 한밭은 커다란 공포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우선 임시의 포제(酬祭)를 지냄과 동시에 기우(祈雨)의 굿도 하는데 행사의 상세한 부분을 알 수 없다.

(e) 고사(告祀) : 제주도에서 고사(告祀)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은 육지의 개념과는 달라 그 당시 양·산촌에서는 성행했는데 해촌에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말의 성년식(成年式)에 관한 행사이다. 우도에서는 노인들이 기억하고 있었지만 수기동(水基洞) 및 교래리 등에서는 그 당시도 아직 고사를 하고 있었다. 섬의 말·소에 대한 수호신은 목사(牧使)라고 칭하는 신인데 고사는 이 신에 대해서 행해진다.

새끼말이 두 살이 되면 대개는 이를 뜰 앞에 끌어내어 발을 밧줄로 묶고 미리 준비해둔 쌀밥·소주·날고기를 각각 보시기에 담아 조금 높은 곳에 바친다. 그 집 주인이 우선 밥에 손갈을 꽃아 그 손갈로 밥덩어리를 떠내 술 속에 놓고 두 손으로 두 개의 보시기를 들어 배례한 다음 원위치에 돌려 놓는다. 그래서 주인이 말의 두 귀를 잡으면 다른 사람이 발의 밧줄을 끌어당겨 말을 쓸어뜨린다. 주인은 허리에 찻던 식칼로 재빨리 그 귀를 마을에서 정해진 모양으로 자르고 말을 풀어준 다음 제물을 내려 음복한다.

이 제사는 대개 백종일에 행해지지만 반드시 이 날에 한한 것은 아니라 두 살의 망아지라면 언제라도 괜찮은 것이다.

(f) 백일잔치 : 이 제사는 말이 새끼 낳아 백일째에 육도(陸稻)

를 꿰고 돼지를 죽여서 이웃을 초대하는 행사이지만 그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단지 이 제사가 치루어지는 곳에서는 고사를 하지 않으며 백일잔치 뒤에는 아무 때나 말의 귀를 자를 수가 있다.

그밖에 질병에 대한 용왕제(龍王祭),⁴⁴⁾ 사령제(死靈祭)로서의 산왕제(山王祭)⁴⁵⁾ 등은 이미 자세히 서술했으므로 생략하지만 본도에서도 다른 마을에 질병이 유행했을 때는 그 마을에 통하는 길 위에 금줄(禁繩)을 쳐서 악신(惡神)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육지와 똑같다.

마지막으로 출산의 행사를 덧붙이겠다. 제주도에는 「삼신(三神·産神)할망이라는 출생 전문의 무녀(巫女)가 있어⁴⁶⁾ 그녀는 출산에 즈음해서 산파로서의 역할도 다함과 더불어 종교적인 행사도 함께 맡는다. 무녀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서조차 주문(呪文)을 외는 사람이 있지만 신방과는 계통이 다른 별도의 존재이다. 출산의 행사는 우선 진통이 일어나면 이 할망이 와서 임산부가 있는 온돌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옷장 위에 쌀·실·돈 등을 바치고 기름등잔에 불을 당긴다. 다음에 선향(線香)을 피우면서 산신(産神)에게 「감사합니다(어린이가 생겨서)」, 「고쳐 주십시오(진통을)」라는 말을 교대식으로 외우며 분만이 가까워지면 산파구실을 한다. 답례는 금전으로 하질 않고 쌀로 하는 것이 상례이다.

44) 秋葉隆, 『濟州島의 蛇鬼信仰』, 『靑丘學叢』, 第七號.

45) 秋葉隆, 『朝鮮巫俗의 家祭에 대해』, 『社會學研究』.

46) 秋葉隆, 『朝鮮巫俗의 家祭에 대해』, 『社會學研究』.

제6장 제주도의 민구(民具) 해설

제1절 의류(衣類)

(가) 갈옷(柿澁衣類)

여름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산뜻한 의복이다. 이러한 옷을 총체적으로 갈옷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감(柿)으로부터의 전음(轉音)으로 피륙을 감물로 염색하는 데서 유래하고 있는 것 같다. 푸른 감을 돌 위에서 뿜아 물을 약간 섞은 것에 무명 또는 삼베를 담가 염색한 것이 갈옷감인데 더러움을 타지 않고 빨래가 잘되며 땀을 빨아들이지 않음으로 남국(南國)에 알맞는 천이다. 이제 그 피륙으로 만들어진 의류를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갈적삼(柿澁襦衣) : 만드는 방법은 남녀 모두 육지의 적삼과 다른 바 없다.

(2) 갈중이(柿澁男子袴衣·中衣라고도 하는 홀바지) : 이것은 육지의 그것과 만드는 방법이 달라 슬관절(膝關節)부분에서 굽기가 갑자기 좁아지고 슬관절과 복사뼈가 있는 곳을 끈으로 묶는다.

(3) 갈 굴중이(柿澁女子袴衣) : 이것도 육지와는 취향을 달리하여 허리부터 슬관절까지는 몸폐(주·발 일 등에 여성들이 입는 일본 특유의 여성용 바지)와 같이 주름이 바로 잡혀있어 무릎부터 밑으로는 매우 좁아지고 두 곳을 끈으로 묶는 것은 전자와 같다. 굴중이 모습으로 농사 그 밖의 노동에 종사할 수는 있지만 공도(公道)에서는 반드시 이 위에 희거나 검은 치마를 입지 않음

면 결례가 된다. 그러나 조천면 함덕리로부터 동쪽의 해촌 여자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때문에 다른 마을 사람들로 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다.

갈옷은 말하자면 섬에서의 노동복으로 외의류(外衣類)는 갈옷으로 만들어지는 일은 없다. 또 갈옷 위에 두루마기를 입지 않는다. 정장(正裝)의 의복은 육지와 바뀌는 게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종류의 옷은 모두 홑옷인지라 따뜻한 기간에만 입게 된다. 그러나 1년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옷이란 것도 사실이다.

(다) 관류

방립(方笠) : 대로 엮은 방추형(紡錘形)의 갓으로 남녀 모두 사용한다.

농립(農笠) : 방립과 거의 같은 모양이지만 다소 크며 야외에서 일할 때의 비막이, 차일(遮日)용 갓으로 남녀 모두 사용한다.

수건(帛巾) : 여자가 외출할 때 머리에 두르는 천으로 두루는 법은 일본의 「아네사마가부리(주=일본여자가 청소 따위를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방식)」나 「호호가부리(주=수건 따위로 얼굴이 가려지도록 뺨을 폭 싸는 일)」와는 달리 이마쪽을 덮은 천의 양끝을 뒷머리 부분에서 완전히 묶지 않고 한쪽을 원형으로 묶는다. 이것은 육지에서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치마를 입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로 일종의 비례(非禮)가 된다.

제2절 식기류(食器類) 및 그 밖의 생활용구

(나) 두껍 없는 대구덕(竹籠 표준어=바구니)류

가는대구덕(手籠·가는 대나무 바구니) : 직경 30~40cm, 깊이 25~30cm 정도의, 눈을 가늘게 엮은 아름다운 바구니로 여자들은 외출할 때 반드시 이것을 겨드랑이에 낀다. 제주도의 진기한 풍속의 하나다.

송키구덕(野菜籠·야채를 담는 바구니) : 가는 대구덕보다 눈이 굵고 조작(造作)도 거칠며 크기는 갖가지다. 야채를 담는다.

서답구덕(洗濯籠·빨래바구니) : 송키구덕과 거의 같은 것으로 빨래터의 왕래 때 사용한다.

물구덕(水籠·물을 길러 다닐 때 쓰는 바구니) : 허벅(水甕)을 담고 우물로부터 집까지 왕복하기 위해 쓰는 바구니로 바닥에 널빤지가 깔려 있어 이것으로 무게를 견뎌낸다. 조작은 조잡하지만 정성스레 특히 단단히 만들어졌다.

애기구덕(搖籃) : 길이 1m, 너비 50cm, 깊이 40cm의 대바구니로 조작이 아름다우며 속에 이불을 깔아 젖먹이를 눕힌다. 특히 어머니가 끈을 십문자(十文字)로 걸어서 등에 업어 들에 나간다. 이것을 몽고 유풍(遺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끈을 걸치는 법은 완전히 제주도식 물구덕과 마찬가지로 끈을 양 끝을 묶어 큰 원을 만들고 이를 바구니에 걸어 등에서 십문자로 교차시켜 엮는 것이다.

(다) 차룽 (두껍이 달린 대바구니)

구덕(바구니)에 대해 차룽은 보다 정성스리 만들어져 도민의 애착을 갖는 기구이다. 구덕(바구니)은 원형의 것이 많은데 반해 차룽은 장방형(長方形)의 것이 많다. 두껍을 「두께」라고 하며 이것을 받는 쪽을 「알착」이라고 한다.

이보지초룽(이바지를 담은 바구니) : 이것은 특히 정성스리 만들어진 바구니로 결혼 때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친족에게 나누는 음식(이바지)을 담은 그릇이다.

상지차룽(옷 등을 넣어두는 바구니) : 옷 또는 여자들의 가까이 쓰는 물건을 넣는 바구니다. 크기는 갖가지이며 일본의 고리짜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섬의 대는 살이 얇으므로 무거운 것을 넣고 운반하기에는 불편하다.

제4절 어구(漁具)

(마) 나잠구(裸潛具)

(1) 소중이(해녀가 잠수할 때 입는 옷) : 제주도의 물의 노동복은 갈색의 갈옷이지만 「소중이」는 남빛의 천으로 만들어져 전면은 넓적다리로부터 젖까지 감추고 뒷면은 허리부분을 덮고 배부(背部)에 있어서 천은 가늘어지면서 열십자로 교차해서 어깨를 넘어 흉부를 매달아 올리고 있다.

(2) 테왁 : 일본의 뜰통(浮樽)에 상당하는 것으로 대형 바가지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부착되어 있는 수확물을 넣는 그물을 「망사리」라고 한다.

(3) 호미(표준어 낫) : 농사에 쓰는 것보다 소형으로 해조를 베는데 쓴다.

(4) 비창 : 점복을 떼어내는 철제의 편평한 작은 지레.

(5) 눈(水中眼鏡) : 눈이란 「眼」의 의미로 바닷 속에서의 바로 해녀들의 눈이다. 그 당시 일본제를 쓰고 있었지만 옛날엔 유리를 사서 스스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젠 옛 것은 볼 수가 없었다.

第 2 部 東京에 있어서의 濟州島人

2. 東京 X지구 濟州島人의 移住經過

○ 그들이 일본에 이주함에 있어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던 사람은 매우 적고, 대다수는 막연히 「일하기 위해」 라든지 「공부하기 위해」 서라는 목적밖에 지닐 수 없었다는 데에 신천지를 찾아서 생활의 전환을 서두는 이민(移民)의 특질(特質)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도일(渡日)의 목적이 매우 막연하다고는 하나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크다. 남자의 경우는 어떻든 간에 자신이 일할 장소를 찾는다는지 혹은 생활의 근거를 구하려는 적극성을 갖고 있지만 여자는 누군가에게 끌려온다든지 부름을 받고 온다……고 하는 소극적인 동기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제주도의 여성은 육지에 비하면 보다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주에 즈음해서

적극적으로 노동이나 공부를 목적으로 한 것은(특히 공부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 대단히 적고 동반(同伴)이나 연고(緣故)에 의지하여 도일한 것이 대부분이다.

3. X지구 濟州島人の 分布・社會結合

○ X지구의 제주도인은 이러한 C역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모촌(母村)의 촌락조직을 이 땅까지 갖고 오지는 않았다. 즉 마을의 기능적인 조직(친족조직·계나 수누름과 같은 경제조직·동회와 같은 자치조직·각종 神堂이나 용왕부인당을 중심으로 한 祭祀의 조직 등)은 거의 볼 수 없었다.⁴⁷⁾ 친족관계집단은 고리(故里)의 그것에 편입되어져 있는 외에 촌락적 조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뒤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조선본토인에 비하면 또 다른 단결양식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의 제주도인은 그 출신의 향리 혹은 본관·성씨가 달라 있어도 서로는 친척과 같이 사귀다. 인사도 않고 서슴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암묵리(暗黙裡)에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있어서의 사회결합의 양식 중에서도 지연적(地緣的)

47) 자치조직으로서 대한민국재일거류민단 혹은 조선인연맹이 있지만 이것은 전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치조직으로 제주도인만의 이러한 조직은 없다.

고로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 「친족조직이 오사카에는 있지만 도쿄에서는 전쟁에 의해 완전히 붕괴했다. 또 금융조직으로서의 계는 오사카에서는 「다노모시(賴母子講)」라는 일본인 명칭을 갖고 발달하고 있지만 도쿄에서는 볼 수 없다.

조직이 도쿄의 X지구에 있어서 거의 붕괴해 버리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른다고 생각된다. 본도(本島)에서는 그들의 생활은 자급자족적인 전작(田作)작업 또는 여자의 잠수어업과 전작농업의 짜맞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더구나 이와같은 생산을 위해서는 크고 작은 갖가지의 협력이나 협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협력·협동의 조직은 구체적으로 경지(耕地)나 어장과의 관계에 의해 성립되고 있다. 그 위에 마을의 근간(根幹)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이동 않는다.

5. 姓氏와 이름

○ 같은 본관 같은 성씨에는 족보(族譜)가 있는데 그것은 매년 간행되며 족보에 따라 개인의 장유(長幼)의 서열이 정해짐과 더불어 새로 태어난 자식의 이름이 정해진다. 또 혼인에 관한 규제는, 동성자(同姓者)는 혼인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히 동성동본자의 혼인은 엄중히 금지된다.⁴⁸⁾

(i) 성씨의 變容

그런데 X지구의 제주도인의 성씨에 관한 관행(慣行)은 다음의

48) 동본동성의 혼인은 일반적으로 보면 금기(禁忌)지만 예를 들어 김해김(金海金)과 김해허(金海許)는 각각 조상이 형제였기 때문에 성이 달라도 결혼 않기로 되어 있다. 제주의 高·良(梁)·夫도 조상이 형제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인구가 가장 많은 「김해김」에 있어서는 그 안에 일곱 개의 계통이 있어, 다른 계통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있다……는 일종의 허용사항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이 점 더욱 상세한 연구가 기대된다. 동본동성혼(同本同姓婚)에 대해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한층 연구를 더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28표에서 알 수 있듯이 완만히 붕괴해가고 있다. 즉 1921년의 조선 본토에 있어서의 조사에 따르면 동본동성혼(同本同姓婚)은 도회에 있어서 0.2%로 확인됐으나 시골에서는 전혀 볼 수 없어 지금까지의 관습이 비교적 엄중히 지켜지고 있었다. 이본동성혼(異本同姓婚)이 오히려 시골에 있어서 고율이었다는 것은 특히 하층계급에 있어서는 멀리 이성(異姓)을 찾을 만 한 생활상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⁴⁹⁾

〈표 28〉 同姓氏婚姻

	X 地 區 濟州島人	朝鮮都會 (1921年頃)	朝鮮시골 (")
同本同姓婚	4.1%	0.2%	0%
異本同姓婚	2.7	5.2	6.5
異 姓 婚	93.2	94.6	93.5

이에 반해 X지구의 제주도인에 있어서는 겨우 73세대의 표본 중 4.1%의 동본동성혼이 확인되고 오히려 이본동성혼은 저율(低率)이 되고 있다. 동성동본혼의 증가는 조선가족의 기초구조를 이루는 동성불혼(同姓不婚)의 붕괴를 말해주는 것일 것이다.⁵⁰⁾

49) 조선농촌에서는 상류계급일수록 멀리서 색시를 맞이하고 신분이 낮아질수록 지역적인 내혼률(內婚率)이 높아진다.

50) 제주도에 있어서는 혼인에 두 가지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하나는 여기서 말한 동성(同本同姓) 불혼(不婚)의 제약으로 이것은 금기로서 강하게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다. 또 하나는 제주도인 이외의 사람과 결혼이 드물다는 것이다. 한편 도내에 있어서의 통혼(通婚)관계를 분석해 보면 옛 정의군(旌義郡)과 옛 대정(大靜)·제주 양읍(兩邑)과의 불혼, 또 같은

이러한 동본동성혼의 증가 경향은 성씨·본관에 대한 의식과 관련을 갖고 있을 것이다. 면접조사를 함에 있어 자기의 조선성을 모르는 사람은 만나 볼 수 없었지만 본관에 대해서는 연소자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남자의 4.9%, 여자의 37.7%까지가 자기의 본관을 잊고 있다. 주부에게 있어서는 시대조상의 이름과 기일(忌日)을 외는 것이 중대한 책무로, 조상에의 관심을 강하게 요구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관을 모르는 여자가 많은 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으로, 동성동본혼인의 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기(豫期)할 수 있다. 남성에 비해 보수적인 여성에게 있어서 어째서 이러한 붕괴가 조금씩 발생했느냐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인 사회가 조상제사나 묘제를 하지 않으므로 자연히 주부에게 과(課)해졌던 시대의 조상에 대한 의무적인 관심을 잃게 했을 것이다. 또 이러한 경향은 교육정도가 낮은 것과 맞물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ii) 이름의 變容

조선에 있어서 남녀의 이름은 족보에 따라 일정한 규정이 있

군 안에 있어서도 마을에 따라서는 「불혼의 마을」이 생기고 원칙으로서 는 해촌(해녀촌)과 양촌(농업촌) 산촌(牧畜村)과의 사이에 통혼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 혼인은 「동면혼(同面婚)」이 고율로 X지구에 있어서도 제주도에서 결혼한 사람의 66.1%까지가 동면혼이다. 그것이 도쿄에서 혼인한 사람에 있어서는 50.3%로 약간 내려가고 있긴 하나 조선본토인과의 혼인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인과의 통혼예(通婚例)가 가끔 나타나, 현재 8.3%까지가 일본인처를 갖고 있지만 거꾸로 일본에 시집간 예는 한 건도 없다.

어 이에 의해 동본동성 집단 속에서의 장유서열(長幼序列)이 정해지고 있다. 요컨대 같은 세대의 남자·여자는 동본동성의 조부모의 이름의 머리글(頭字)를 따서 여기에 한 글자를 첨가한 것을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번역자 주≡우리나라에서는 미리 정해진 행렬자(行列字)에 따른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음). 따라서 김해김씨와 같이 다수의 혈족을 전 조선에 갖고 있는 씨족이라도 간행된 족보를 보면 자기 서열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동열(同列·同行)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모두 형제라 부르면서 형제로서의 교제를 하는 일도 적잖고 이름에 의해 장유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유례풍(儒禮風)의 명명법에도 도쿄의 제주도인에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인남녀는 조선식 성명과 일본식 성명의 두 개를 함께 갖고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 자식들의 씨명에 대해서는 이것과 약간 취향을 달리하고 있다. 요컨대 자식들은 성씨에 따라 두 개의 이름을 갖는 일 없이, 이름은 하나만을 갖고 있다. 면접한 73세대 3백60명 중 1백54명은 이러한 하나만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름을 출생연차별(出生年次別), 조선식·일본식 이름 별로 정리하면 <표 29>와 같이 된다.⁵¹⁾

이 표에서도 분명하듯 창씨개명에 관한 법령의 시행 이전에도 일본식이름을 명명하는 일은, 특히 일본재주자 중에는 적지 않았다.

51) 창씨개명(創氏改名)에 관한 조선총독부령은 1940년 2월에 시행되었다.

〈표 29〉 年次別 어린이 이름

		1940年 2月 以前出生	1940年 2月以後 終戰까지 出生	終戰後 出 生
男 子	朝鮮式 이름	71.4%	25.0%	91.3%
	日本式 이름	28.6	75.0	8.7
	합 계	100.0	100.0	100.0
女 子	朝鮮式 이름	43.5	14.8	83.8
	日本式 이름	56.5	85.2	16.2
	합 계	100.0	100.0	100.0

6. 남녀의 생활

동국여지승람에 「여다남소(女多男少)」라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이 섬의 성별인구는 1936년의 통계로는 男 100에 대해 女 116이라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남녀비율의 불균형성은 섬의 사회에 있어서의 남녀의 지위를 특수한 것으로 하고 있다. 이제 섬의 해촌(海村)과 산·양촌(山·陽村)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산촌⁵²⁾에 있어서는 모든 재산과 노동은 남편에게 돌아간다. 즉 여자의 노동력은 반드시 남편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남자

52) 제주도에 있어서는 바다에 면한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을 해촌, 산지(山地)와 해안의 중간에 있어 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마을을 양촌, 산간 지대에 있어 주로 소·말의 방목에 의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마을을 산촌이라고 부르고 있다.

를 중개(仲介)로 하며 토지와 이어진다. 그리고 여자의 노동의 과실은 남자 소유로 돌아가게 된다. 남편에 준하는 남자란 「첩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제주도에 있어서의 첩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노리개가 아니라, 뛰어난 노동자로서, 남자가 첩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토지를 제공해서 첩의 부양을 받는 것이다.

해촌에 있어서는 생산면에서는 농업 외에 나잠(裸潛)과 어업이 더해져 토지의 중요성은 약간 떨어진다. 여자는 남자를 중개로 해서 토지와 결합 않는다 해도 해녀로서 생산에 종사할 수가 있으며 더구나 나잠함으로써 남자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해촌에 있어서는 양·산촌과 달리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남자보다 우위(優位)에 있다. 즉 가족 가운데서의 남녀 수입은 구별되어 아내의 것을 남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서 많은 일을 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경제적으로 종속(從屬)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다.

만일 아내가 남편을 신용할 수 없을 때엔 여자가 번 돈을 시가의 믿을 만한 친족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여자는 가족 안의 실권(實權)을 쥐어 있으면서도 가사(家事) 전반에 대한 의논은 반드시 시댁의 친족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처가의 친족이 가족과 동거(同居)하는 일도 없다. 해촌에서는 남자를 일하도록 하는 여자는 병신……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

요컨대 제주도에서는 여자는 잘 일하고 더구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국적(大局的)으로 보면 남자에게 종속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저간(這間)의 소식을 알리는 얘기로, 양·산촌에서는 「이상적인 아내는 부지런히 일해서 남편을 일하

게 하는 일 없이 부양하고 그와 동시에 남편의 명령에 복종하는 여자이다. 해촌의 여자는 일은 잘 하지만 집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등(下等)이다」고 말하고 해촌에 있어서는 「어째서 산의 사람을 아내로 얻겠냐, 바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 못하는 여자를…」이라고 양·산촌 사람을 경시(輕視)하지만 어떻게든간에 여자를 「노동력」이라는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려는 풍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여자는 남편을 부양할 만한 노동력을 갖고 있지만 남자가 아무 것도 않고 놀고 있느냐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섬에서는 그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더구나 제주도의 가족인구가 극히 적은 때문에 남자도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 섬에 있어서의 남녀 분업의 현황은 <표 30>대로이다.

〈표 30〉 陽·山村, 海村別 男女分業比較

	양 · 산 촌	해 촌
男	牛馬牧畜·牛馬를 사용하는 농사·수확시의 일부·숯구이·수렵·건축·儒敎的 마을祭·7~8세 이상 男子의 敎育·契관리	대체로 陽村과 같지만 牛馬牧畜이 적어지고 漁業이 더해진다. 育兒(젖먹이만 모친이…)
女	粗耕地의 흙덩이 부수기·파종·밭밟기·김메기·脫穀·風選·방아질·養豚·養鷄·물길기·취사·賦役·育兒와 다소 커진 여아의 敎育·조상제사·家祭의 施行. 金錢出納	농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陽村과 같지만 養鷄가 적어지고 潛水(海女)질이 더해진다. 育兒는 授乳 외는 부친에게 맡긴다.

〈표 31〉 父母別就職狀況比較

(單位：名)

		父				
		就職	無職	不明	死亡	計
母	就職	12	4	2	1	19
	無職	32	21	5		58
	不明	2	3	12		17
	死亡	1			3	4
計		47	28	19	4	98

(X地區朝鮮人小學校兒童의 作文에 依함)

그런데 고향에 있어서의 남녀의 분업은 X지구의 제주도인의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두드러지게 바뀌어가고 있다. 가족 안의 부부의 노동비율을 살펴 본 것이 <표 31>이다. 단 이것은 조선인소학교 4·5·6학년생에게 쓰도록 한 「나의 집」이라는 제목의 작문으로부터 살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표에 의해서도 분명한 바와 같이 남편이 일하는 경우가 47명, 아내가 일하는 것은 19명으로 분명히 도쿄에서는 남자의 노동이 한 집안의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요컨대 아버지가 일해서 어머니가 가정에 있는, 일본의 도시에 있어서는 당연한 가정이 32조(組)로 전 가정 98호의 최고위를 차지하고 맞벌이가 12조로 아주 적어지며 어머니가 일하고 아버지가 무직인 가정은 겨우 4조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가족의 노동양식은 제주도의 농가에서 볼 수 있는, 부부가 함께 일하고, 더구나 노동의 시간이나 양으로부터 보아도

아내 쪽이 더 일하는……관습은 거의 볼 수 없고 일본의 도회에 있어서의 일반가족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있어서의 맞벌이 또는 여자 쪽이 더 일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풍토적조건에의 적응(適應)으로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도시생활에 순응(順應)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남녀의 노동의 변화와 관련해서 X지구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의 남녀비율을 학동(學兒)에 대해서 보면 남아 100 여아 85로 제주도에 있어서의 여다남소 현상은 볼 수 없다는 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X지구의 제주도인의 직업을 살펴본 것이 <표 32>이다.

<표 32> X地區濟州島人職種比較

(單位：名)

	男	女		男	女
고 무 加 工	26	1	露 店 商	1	
미 싱 加 工	23	11	無 職	5	
古 物	2		洋 裁		1
會 社 員	2		會 社 事 務 員		3
革 靴 製 造	2		紡 績 工		5
朝 鮮 服 店	1		靴 工		1
洋 服 店	1		裁 縫		1
양 초	1		電 氣 工		1
비 누	1		서 키 스 從 業 員		1
옛 製 造	1		海 女		1
運 送 業	1				

본 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자의 직업으로서는 고무 가공(加工)과 미싱 가공에 태반이 집중하고 있다.

(2) 남자와 여자의 직업이 미싱가공업을 제외하면 거의 중복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남자의 직업으로서는 고무가공이 가장 많은데 여자는 겨우 한사람밖에 볼 수 없다.

(3)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조선인의 직업으로서는 토공(土工)·인부가 많다고 여겨져 왔는데 73호의 조사세대에는 그와같은 직업의 사람은 한사람도 볼 수 없다.

또 X지구 구청에 등록된 4백81세대의 직업을 보아도 그 가운데 토공·인부는 겨우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으로도 이 사실은 확인된다. 일본의 여학교에 유학하고 있던 조선 본토출신의 주부가 말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인은 날붙이를 사용하는 것을 특히 매우 멸시하는」데서 삼·곡괭이를 쓰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극렬 회피하기 때문일 것이다.

고무가공과 미싱가공에 제주도인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인뿐 아니라 소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일인(一因)일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인에게 있어 일본은 새로운 이주지(移住地)이며 거기에서 그들을 둘러싸는 새로운 환경은 미지의 불안한 벽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동향 출신이 믿을 곳이며 우선 이러한 선배의 직업이나 생활을 주목한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새로운 일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고 혹은 그 흥내를 낸다. 거기서 때마침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위에 조출한 고무·미싱가공업이 그 당시의 X지구의 제주도인의

직업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음에 틀림 없을 것이다.

그 당시 X지구에 사는 제주도인의 직업은 고무와 미싱가공업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이 두 개의 직업에 집중해 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시대에 따라 그들이 주로 종사하게 될 직업이 변전(變轉)하는 것이다. 그 당시 고무 또는 미싱가공업에 관련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이 직업에 종사하기 전에 다른 일에 종사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고무가공업은 일본의 패전 뒤에 늘어난 그들의 직업이지만 이미 미싱봉제업(縫製業)으로 전향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한 고로(古老·1921년에 도쿄로 來住)의 말에 따르면 그가 상경했을 당시는 조선본토인은 토공인부, 제주도인은 공원(工員)이 많았지만 하숙 겸 식당을 경영하는 제주도인도 적지 않아, 그도 그것을 했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인의 기질은 매우 격심하다. 특히 일본인과 비교하면 제주도여성의 기질의 격심함이 눈에 띈다.

때마침 면접조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제주도인의 집에 두사람의 빗쟁이가 독촉하느라 호통치며 들어왔다. 처음에는 집 주인이 응대하고 있었지만 쌍방이 흥분하여 소리 높이며 입씨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엔 주부가 끼어들어 주인을 뒤쪽으로 밀어내더니 일본어와 조선어를 섞어가면서 두사람의 빗쟁이 남자를 면박한다. 전신이 노여움과 입이 뚱뚱한 것같은 느낌이었다. 빗쟁이가 「넌 틀어박혀 있어」라고 하니 「너란 뭐야! 나는 애기아빠 외에는 <너>라고 들어본 기억이 없어!」 빗쟁이는 「너」라고 불렀던 탓에 한 대 먹고 도망쳤다. 또 조선인소학교의 직원

실에 조사하러 갔을 때 간막이 옆에서 PTA(주·우리나라의 師親會에 해당)의 대표와 교사들이 교육방침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 때 남자보다 어느 누구보다 격한 소리로 당당히 주장을 펴던 것은 20세를 갓 넘은 젊은 부인이었다.

이밖에 여러 차례나 제주도여성의 격심함에 충격 받은 일이 있다. 그들의 격심한 기질은 제주도에서 키워진 것이겠지만 아직 까지도 X지구에서 의기양양하다는 것은 흐뭇하다. 왜냐면 그녀들의 격정성(激情性) 뒤에는 소박한 순수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도 예로 든 조선본토 출신의 어느 주부는 「제주도의 여자들에겐 우물가의 썩덕공론이 없다. 험담을 나누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험담을 하면 오히려 자신이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되므로 그것이 머리에 박혀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무엇이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직접 부딪쳐 가서, 뒤는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곳으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진 C역 가까이의 제주도인 시장에 안에 사는 일본인 주부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제주도인의 가정이 집결되어 있는 속에 이사와서 가장 민감하게 느낀 일은 무엇입니까」는 물음에 「여인들이 매우 시원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뿐으로, 우물가의 썩덕공론으로 남의 험담을 한다든지 소문을 내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 대신 감정의 억제가 다소 모자라지 않는가고 여겨집니다. 순간적으로 흥분하기 쉬운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기질이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녀들에게 저절로 갖춰져 일본의 대도시 속에서 생활하면서 허물어지

지 않는 것은 귀중한 일이다. 앞에서 말한 초등학교 아동들이 쓴 「나의 집」이라는 제목의 98명의 작문에서 그들 가정의 분위기를 살펴 보자. 뚜렷히 「원만(圓滿)」, 「불화(不和)」라고 판독(判讀)되는 것만을 「원만」 또는 「불화」로 하고 표현이 애매한 것은 모두 「불명(不明)」으로 한 때문에 「불명」의 수가 많지만 오히려 실정을 포착한 수자가 나와있는 것이 아닐까고 생각하고 있다.

7. 소비생활

1. 의 복(衣服)

이른바 조선옷은 널리 제주도에서도 착용되고 있지만 제주도 독특한 의류로서는 「갈옷(柿澁衣)과 가죽옷(裘衣)이 있다. 전자는 감물을 드린 것이며 더러움을 타지 않고 빨래가 잘 되며 땀을 흡수하지 않으므로 특히 여름 노동복으로 널리 쓰이고 있었다. 또 후자의 가죽옷류는 제주도 남자만이 겨울에 입는 것인데 노루의 털가죽을 다루어 피모부(被毛部)가 밖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다. 제주도와 같이 눈이 내리고 습윤(濕潤)한 땅에서는 무두질한 면을 밖으로 내놓으면 가죽이 굳어질 우려가 있을 것이다. 산촌에서는 눈 속의 수렵 때 흔히 쓰이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 특유의 의복은 X지구의 제주도인 사이에서는 전혀 볼 수 없다. 갈옷은 출가해녀들이 일본에서도 입고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되지만 도쿄 거주자들에게는 벌써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본토풍의 조선옷은 일본에서도 널리 볼 수 있다. <표 34>는 남녀별 조선복소유자수이다.

〈표 34〉 朝鮮服所有者所持數

	所有者數	없 음	所有者1人 平均所有數	全平均 1人當
男	10(15.2%)	56人(84.2%)	1.6	0.2
女	53(86.9)	8(13.1)	4.5	4.0
日本人女	0	6(100)	0	0

즉 여자의 86.9%는 조선옷을 갖고 남자는 84.2%까지가 갖고 있지 않다. 더구나 남자소유자의 8명까지는 한 사람이 한 벌 꼴이며 나머지 둘은 각각 세 벌과 다섯 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소유자 한 사람의 평균소유수도 1.6벌밖에 안된다. 이에 반해 여자의 1인평균소유수는 4.5벌로 남자에 비해 훨씬 많다. 총체적으로는 76세대 가운데 남자조선옷은 16벌밖에 안되는데 여자의 그것은 2백41벌이다. 이렇듯 남자는 거의 입지 않는 조선옷을 여자들은 고향의 여자와 비슷하게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중에는 일본정부의 압박, 혹은 일본인의 멸시(蔑視) 등에 의해, 또는 일부의 편승(便乘) 조선인이 잉크를 뿌리며 다닌 일이 있어 조선옷은 생활의 표면으로부터 거의 말살되어 있었다.

그것이 해방후 재차 특히 여성의 조선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생활의 향상과 맞물려 새로이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조선에서는 요즘 남자는 양복을 많이 입지만 여자는 도회지나 젊은 층을 제외해서는 거의가 조선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일본 거주외 조선인(X지구 거주외 제주도인을 포함해서) 여성은 일상적으로 조선옷을 입는 일은 적고 특히 젊은 부인은 제

사나 식전(式典) 남을 방문할 때 이외는 거의 양복차림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제주도와 도쿄에서는 조선옷의 생활속에 있어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결혼식 복장을 예로 들어보자. 제주도에서는 남녀 모두 예복으로 조선옷을 입지만 일본에서는 반드시 조선옷을 입는 것은 여자뿐으로 남자도 조선옷을 입는 사람은 적고 모오닝 코우트를 입는 것이 보통이다. 신부는 조선식 옷을 입지만 머리에는 피어머를 하고 서구식(西歐式) 베일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일본옷에 베일은 어울리지 않지만 조선옷에 베일은 잘 조화되어 부자연스럽지가 않다. 일본에서 식을 올린 47명에 대해 그 복장을 조사해 봤더니 조선옷으로 식에 임한 사람은 12명으로 25.5%였는데 더욱 주목할만한 것은 이 12명 가운데 8명이 오사카에서 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사카는 일본에서 가장 제주도인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므로 제주도인의 생활양식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4. 기타

(가) 애기구덕(搖籠)

이것은 제주도에서는 「사진 63」 과 같이 대로 짠 바구니 속에 젓먹이를 눕혀 들에 나가는 어머니는 그대로 옆에 끼고 나간다. 지금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애기구덕은 금속제로 옆에 끼고 걸 어다닐 수는 없다. 그것은 모친이 들 일 때문에 나갈 일이 없고

모친의 가외노동(家外勞動)이 일본의 도회생활과 변함이 없으므로 애기구덕(요람)을 들고 나갈 필요가 없어져 침대의 착상(着想)을 가미(加味)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요람(애기구덕)은 들고 다닐 수가 없는 대신에 다리가 활모양을 하고 있어 좌우로 흔들 수가 있다.

8. 교육·종교생활

○ 여자로서 대학·고등전문학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연 없다.

○ 남녀 모두 젊었을 때(12세 이전) 도일(渡日)한 사람은 모두 소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23세 이후에 도일한 사람은 서당 정도의 교육밖에 받아 있지 않고 여성은 겨우 소학교 졸업자가 1명 있을 뿐이다.

○ 그 당시 20세 줄의 사람으로 무학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40세 이상의 남자에서는 중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은 겨우 1명으로, 소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혀 없고 모두가 서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여성은 거의 무학이다.

(4) 간극반응(間隙反應)

도형(圖形)의 하얀 간극(間隙) 및 하얀 공간에 대한 반응이 이것이며 체험형(體驗型)이 외향형인 때는 완고(頑固)한 경향을 보이고 내향형일 때는 자기비판·자책(自己批判·自責)의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제 X지구에 있어서의 출현율을 타

지구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X 地 區		S 町		H 町	
男	女	男	女	男	女
34%	43%	44%	50%	50%	60%

이것으로부터 본다면 이곳에서의 출현율(出現率)은 도리어 낮아 오히려 시원스러운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濟州島의 地理學的 研究

(1930年代의 地理·人口·産業·出稼狀況 等)

해제

이 책의 저자 마수다 이치지(栴田一之)는 도쿄대학 교수인데 1930~1938년 8년간에 걸친 제주도 답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제주도의 해륙, 산전, 기후, 생물 등을 연구하는 「자연지리학」 측면에서뿐 아니라 인구, 도시, 산업, 교통, 정치, 문화 등을 연구하는 「인문지리학」적 측면에서도 제주도를 탐구한 자료들이다. 제주도의 지역성, 축산, 해녀, 일본으로의 제주도민의 출가 그리고 취락의 형성상황 등을 수록했으며 특히 수자원 연구에 주력하였다. 이 책은 자연지리학은 물론이고 인문지리학까지 포괄하고 있다.

濟州島의 地域性 素描

<쇼와 9년(1934) 9월 20일>

○ 사람 머리의 3배나 될 듯한 바가지(干瓢=테와)와 나무를 둥글게 꼬불린 테두리에 걸린 망사리 등을 곁에 두고 젓먹이에게 젓을 물리고 있는 사람 등 보기에다 혈색이 좋고 튼튼한 몸매의 젊은 여자들도 여기 셋, 저기 다섯씩 보인다. 그들은 휴대품이나 햇볕에 그을린 혈색좋은 튼튼한 몸으로 해서 출가해녀의 귀환자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밖에도 겨우 걸음마를 하는 젓먹이를 데린 부부의, 가족 모두가 돈벌이를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 해녀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창백한 얼굴의, 여공으로 보이는 처녀와 청년도 있었다.

특등선실은 고물에 가까운 갑판 위에 있었다. 여자 손님은 겨우 한명으로 그녀는 20세 될락말락한 젊은 남자의 수발을 받고 있었다. 그 젊은 남자는 출가했다가 아내가 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 중이라고 했다. 부인은 완쾌하면 또 일하러 가겠느냐고 들었더니 다신 안가겠다고 한다. 그는 목수이고 그녀는 방적공으로 맞벌이 했었다.

2

○ 사흘째의 오후 4시계에는 섬의 동쪽 끝인 성산(城山)이 그

특색있는 자태를 나타내고 얼마없어 그 왼쪽 가까이에 해녀로 특히 유명한 우도(牛島)가 떠오른다.

4

○ 여자. 섬에는 여자가 많다. 제주는 『여호도(女護島)』(註=여성만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중국에서 유래된 상상의 섬) 라고 한다.

섬의 성별 인구구성을 다이쇼 14년(1925)과 1930년의 국세(國勢)조사 결과에서 살펴보면

단위 : 명

	남	여	여성과잉수
1925. 10.1	95,437	109,757	14,320
1930. 10.1	96,206	112,111	15,905

즉 남자 1백명에 대해서 여자 1백16명으로 일본의 남자 1백대 여자 99명(1930)과는 현저히 틀리다. 이것은 위 두 번의 조사 때 우연히 여성이 많았던 게 아니라 제주의 인구통계에서 얻을 수 있는 한의 것으로 살펴봐도 해마다 남녀의 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차이를 낳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랄 수 있는 출산·사망에 대한 1922년부터 1931년까지의 10년간 통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남	여
출생	100	93.7
사망	100	82.2
차감	0	11.5

이것은 매년 평균인구 100명에 대해 여자는 11.5명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어째서 섬의 여성이 남자보다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는 것일까. 어째서 남자의 출산율이 높고 그 사망률이 높은가. 그것은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어떤 의학자는 남자가 많이 태어나는 것은 모성의 체격이 여성보다 우수한 경우로, 그것은 여성의 허약에 의해 그 여성이라야 할 남자수의 감소를 두려워해서 남자가 많이 태어난다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이법(理法)에서 말한다면 제주도엔 남자가 적고 여성이 많은 셈이 된다. 따라서 그 결점을 보충하려고 남자가 많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또 여자의 체격이 남자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도 남자가 많이 태어나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 위에 남자의 사망율이 높은 것은 어업을 주로 하는 도서에 있어서는 출어 중의 조난 등도 이유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농업이 주종을 이루고 어업에도 여자가 종사하는 나체잠수어업(裸體潛水漁業)이 대부분이란 것을 생각하면 이 이유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어쨌든 제주도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현저히 많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생리상으로 흥미로운 문제다.

이와 같이 여자가 현저히 많은 것은 제주도가 갖는 지리적 사정 및 사회적 현상 등 여러 요소의 종합적 결과로, 그 이유의 속단은 선불리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근년 남녀수의 현저한 교차(較差)는 출가까지 고려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 한편 풍속(風俗)에 이르러서는 여러가지 점에서 육지와 다르다. 오히려 일본에 가까운 것이 있다.

첫째로 제주도여성은 육지 여성에 비해 활동적이다. 집 밖에서 농업에 종사함은 물론, 어업 그 밖의 노동에도 종사한다. 특히 부인의 나체잠수어업인 해녀는 섬의 명물이라고도 할만한 것으로, 육지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해녀가 제주에는 해녀어업 조합원만으로도 무척 많아 8천8백62명(1932)에 이르러, 전국 해녀의 40% 남짓을 차지하는 상태이다. 조합원 이외에 해녀 어업에 종사하는 해녀까지 합산하면 실수 1만5천여에 이르러 전국 해녀의 54% 남짓을 점유하게 된다. 이들 해녀는 섬 주위 2백40km의 임해취락(臨海聚落)의 여자만이 아니라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중산간 지대의 여자까지도 민첩한 해녀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명물인 해녀는, 섬 전체에 분포되고 있다.

이들 1만5천여의 해녀 가운데는 단순히 도내에서 해녀어업에 종사할 뿐 아니라, 농한기에는 대안(對岸)의 전라·경상남북도는 물론 강원도로부터 북으로는 물이 차가운 함경북도까지, 서로는 황해도까지 진출, 오랫동안 등한(等閑)히 해왔던 연안어업권을 제주도해녀조합의 이름으로 획득하는 등 제주해녀의 독점적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으로는 고용계약에 의해, 멀리 동경부(東京府)를 비롯, 치바(千葉)·시즈오카(靜岡)·미에(三重)·도쿠시마(德島)·고오치(高知)·가고시마(鹿兒島)·나가사키(長崎)의 여러 현(縣)에 이르고 있다. 이 제주해녀는 저임금과 장시간 조업이 인기를 끌

어 종전 일본의 「나무통해녀(註=일본의 해녀들은 테왁 대신에 나무통을 썼기 때문에 ‘樽がつぎ海女’라고 했다)」 어장에 진출하여 그 수는 실로 1천 6백명, 그 위에 반도부 출가해녀를 합치면 5천 78명(1932)명이 된다. 이들 해녀들이 우체국을 통한 송금만도 실로 1백10만엔에 이른다. 더구나 그녀들은 11세~12세경부터 잠수하는 연습을 쌓아 17~18세에는 제구실을 하는 해녀가 되어 40세를 넘길 때까지 일을 계속한다.

해녀의 조업은 노련한 자를 앞세워 간조(干潮)를 따라 일에 나가, 만조(滿潮)를 타고 돌아온다. 그 새는 배는 쓰지 않고 몸과 어획물을 담은 망사리를 1개를 바가지(테왁) 부표에 의지하여 4~8발(1발은 약 1.5~1.8m)의 수심(水深)을 약 1분 간격으로 단숨에 잠수하여 일하는 것이다.

○ 제주도 여자는 육지 여자와 같이 머리에 물건을 이지 않는다. 육지 여자는 물동이를 머리에 얹으며, 그 밖의 액체·고체(液體·固體)를 가리지 않고 커다란 짐까지도 머리 위에 얹어서 길을 간다. 이 모습은 육지에서의 독특한 모습이지만 제주도 여자는 결코 머리에 물건을 이지 않는다. 물동으로 물을 나를 때는 1두(斗)들이 정도의 입이 작은 허벅을 바구니(물구덕)에 담아 그것을 룩색과 같이 짊어진다. 그 바구니 밑바닥에는 작은 대발이 붙어있어 땅에 내려놓고 쉴 때 등에 허벅이 안정되어 물이 쏟아지지 않게 되어있다. 이 풍습은 돌맹이 많은 비탈길을 날라야 하고 더구나 물이 귀한 섬에서 상당히 멀리 운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자연히 생겨난 방법일 것이다. 틀림없이 일지역성

(一地域性)이다. 또 바구니가 있는 것은 기후가 따뜻한, 대가 풍부한 지역이란 것도 외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제주도에 와서 부인이 물건을 보면 섬사람인가, 육지에서 온 사람인가, 곧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한편 가벼운 것은 바구니에 넣어 겨드랑이에 끼고 나른다. 이것도 육지에선 볼 수 없다. 길을 걸을 경우에도 대개 바구니를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며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체면치레로 갖고 다닌다. 마치 모던걸의 핸드백과도 같이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가장 주의를 끄는 것은 부인의 옷차림이다. 조선인은 백의족(白衣族)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하얀 옷을 입는 것이 습관이다. 그런 제주에서는 색옷, 특히 감물을 들인 적갈색(赤葛色)의 것(주=갈옷)이 많이 쓰인다. 그것은 흰 베옷에 비해 3배의 내구력과 있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복과 평상복장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는 일본식이다. 또 바느질에 있어서도 육지에서는 바늘을 안쪽으로 향해 사용하지만, 섬에서는 일본과 같이 운침(運針), 바느질하는 것이 보통이며 더구나 그 솜씨가 좋기로는 조선의 제일이라고 말해진다. 어린이 엮는 법도, 육지부인은 일본과 틀린 독특한 방식인데 이 점도 섬의 부인들은 일본인과 꼭 같은 방법을 취한다.

濟州島 海女

<쇼와 8년(1933) 8월>

○ 제주도의 여성이 이른바 해녀로서 나체잠수어업(裸體潛水漁業)에 종사하는 것은 희귀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섬의 여성이, 또 바닷가의 여성이 처녀로서 활동하는 것은 그 환경으로 봐서도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에 있어서도 『아만도(蒼海人) 또는 해인(海人) 혹은 해사·해녀·단부(海士·海女·蜃婦) 등의 문자가 고문서에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옛부터 남녀 모두가 나체잠수어업을 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해녀는, 여성이 회화(繪畫)나 시가(詩歌)에 인용한다는 데서, 또 잠수어업상으로도 한층 흥미있는 일이라는 데서 여성이 주체로 여겨진다. 따라서 오늘날 일반적 관념으로 『해인』이라면 물에 잠수하는 여성을 연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남녀의 나체잠수어업자가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다. 쇼와 6년(1931)의 전국잠수노동자 통계에 따르면 나체잠수어업자의 본업, 부업자의 합계는 4만5백38명, 이 가운데 남자가 종사하는 이른바 해사(海士)가 1만8천7백63명, 해녀가 2만1천7백75명이다. 해녀가 해사보다 3천12명이나 많다. 또 분포에 있어서 해사는 오키나와(沖繩)현 7천19명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하며 해녀는 제주도에 있어서 8천8백62명 전국 해녀의 40%강을 점유하고 있다. 서남일본에 있어 류쿠(琉球)의 해사와 제주의 해녀가 특히 많고 더구나 서남의 한계점에 있다는 것이 뚜렷한 현상이라고 않을

수 없다.

이 제주해녀의 수는 1932년 8월 현재 제주해녀조합원수이지만 조합원 이외의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해녀를 포함하면 1만5천여나 되어 전국 해녀의 54%로서 제주해녀가 단연 발군이다. 더구나 제주도는 옛날부터 조선지방으로서 동일행정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부에 있어서 한 사람의 해녀도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조선여성이 일반적으로 농거적(籠居的), 비활동적 여성이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제주 여성만이 해녀어업에 종사하고 그 수가 많은 것은 조선지방에 있어서 제주도만이 갖는 독자의 지역성이며 극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半農半漁와 해녀의 특성

○ 제주도에 있어서의 반농반어의 형태는 일본의 그것과 현저히 사정을 달리하고 있다는 데에 독자(獨自)의 지역성이 인정된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반농반어의 주체는 대개의 경우 남자의 어업을 주체로 하고 부녀자는 농업노동에 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통성(一般通性)이지만 제주도에 있어서의 어업이란 남자가 주체가 되어 종사하는 어로가 아니라, 포패채조(捕貝採藻)를 주로 하는 전용어업으로, 부녀자가 대부분 이를 맡고 또 사실상 농업노동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 집안의 경제의 지지력이 본도에서 오직 부녀자의 두 어깨에 있다고 해도 된다. 이 부녀자들이 종사하는 포패채조(조개 잡이와 해조류의 채취)의 어법은 가장 원시적인 나체잠수업으로, 이들 부녀자가 이른바 해녀라고 불

러지는 것이다. 연안 1백24개리의 거주하는 부녀자의 거의는 12~13세 때부터 천해(淺海)에서 연습을 시작, 15~16세에 이르러 한 몫을 하는 해녀가 된다. 이 시대를 특히 유생해녀(幼生海女)라고 칭하고 있다.

제주해녀는 한서(寒暑)를 가리지 않고, 농한기와 어기를 노려 조업한다. 그 복장은 목면제(木綿製)의 내의와 같은 것에 백 또는 흑색의 속옷만을 입은 간단한 것으로 때로는 속옷만 걸친 경우도 있다. 기구는 테왁이라고 불리우는 부표와 이에 달려있는 망사리로, 패류의 채취에는 쇠로 만든 20~25cm 정도의 빗창을 휴대하고 해조류 채취에는 낫을 사용한다. 잠수하는 최고심도(最高深度)는 120심(尋 : 1심은 5~6尺) 이지만 보통 4~5심을 보통으로 한다. 1회의 잠수시간은 1분 내지 1분30초로, 그것을 연속적으로 60번쯤 한 다음 물에 나와 불에 쪼린 다음 다시 물에 들어간다. 하루에 이런 동작을 3~4회 되풀이 한다. 바닷가까지는 걸어서 가며 테왁을 왼쪽 어깨에 걸쳐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에 낫이나 비창을 들고 해변에 내려가 테왁을 복부에 대고 해엄처 목적지로 나가면서 조업을 한다. 피로해지면 테왁에 몸을 의지하고 물결 사이에 떠 있는 채로 쉰다. 일본해녀는 보통 나무로 된 부표를 이용하지만 이 점이 사정이 다르다. 한편 채취장이 멀 경우에는 심수명이 한 무리가 되어 섬 특유의 뗏목이나 작은 배에 타서 떠난다.

잠수심도가 깊을 경우엔 이세(伊勢)해녀나 그 밖의 해녀는 보통 3관내외의 분동어망추(分銅漁網錘)를 빌어 잠수한다. 이 경우 해상에는 사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다가 거친 날에는 조업

을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조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기리』라고 해서 1명 내지 2명의 해녀에 작은 배 1척, 사공 1~2명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해녀는 어망추가 없어도 깊은 곳까지 잘 잠수하고 또 파도가 높고 거칠어도 조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조업일수가 길어진다. 이 해녀들이 만약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전 정도의 값싼 물안경을 2엔50전 내지 3엔 것과 바꾼다면 더한 수압에도 견디고 보다 깊이, 보다 장시간의 조업에 종사할 수 있어 한층 능률적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고급 물안경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해녀는 내한력(內寒力)에 약하여 추운 때는 한 달에 겨우 1주일간 조업하는데 반해 제주도에서는 15~20일의 내한노동력이 있다. 이것은 일본 해녀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점이다.

도내해녀의 分布

(1) 동부해안지대 즉 구좌면 및 정의면을 포함하는 지역에 가장 많다. (2) 북서부해안지대 구우면, (3)남부해안지역이 되며, (4) 북부해안지역은 가장 적다.

1. 동부해안지대

해녀의 최대수를 갖는 구좌면 및 정의면은 합계 3천3백81명에 이르러 전체의 42%를 점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구좌면의 연평리(우도)로 5백13명에 이르며 그 밖에 종달리·하도리·정의면·시흥리·오조리·고성리·온평리 등으로, 즉 우

도를 중심으로하는 해안일대의 지역이다.

2. 북서부해안지대

○ 제2의 조밀지역인 북서부해안지대의 구우면(한림)은 비양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의 해안지역이다. 비양도는 유사(有史)이후 분화에 의한 것으로 해저의 암반은 오래지 않아 해조의 생육에 호적·미역·감태·우뭇가사리·모자반 등 각종 해류가 풍부하다.

3. 북부해안지역

○ 북안(北岸)의 신우면(애월)·제주면·신좌면(조천)의 해안에 해녀가 적은 것은 비교적 평탄치 못한 것과 겨울철의 북서 계절풍이 해저를 교란시켜 해조류가 모래가 덮인다는 정착상 불리한 조건도 있고, 물에는 비교적 넓은 가경지(可耕地)가 있다는 데서 농목업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出稼海女

○ 제주해녀의 출가는 40년전인 메이지 28년(1895) 경상남도 부산부 목도(釜山府 牧島)에 출어한 것이 처음이다. 그 이후 해마다 증가 했는데 쇼와 7년(1932)까지 의 해녀출가 상황을 보면

	출가해녀	송금액
1929년	4,310명	불명
1930년	3,860명	908,000엔

1931년	3,950명	687,350엔
1932년	5,078명	1,100,000엔
<내역>	내지 1,600명	
(1932)	조선3,478명	

에 이르고 있으며 해녀에 의한 수익금은 실로 1백40만엔의 거액에 달한다. 그 분포는 가장 근거리인 전라·경상의 각 남도와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츠시마(對馬)가 가장 많다. 특히 전년인 쇼와 6년에는 함경북도에까지 진출(10명)해서 조선반도의 일본해안 전역에 걸쳐있다.

또 황해사면(黃海斜面)이 일본해사면에 비해 해녀의 출가가 비교적 적은 것은 암석해안이 많지 않은 외에 조석간만의 차가 몹시 커서 해안어장에 적합지 않은 때문이며 황해도에 약간 많은 숫자를 보이는 것은 황해사면의 특유의 해안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 출가는 어기를 좇아 출어하는 것이지만 해류에 의한 수온관계로 남선(南鮮)의 어기는 빠르고 북선은 늦다. 또 일본해연안은 빠르고 황해연안은 늦다.

출가는 매년 2월경부터 시작되는데 우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비교적 근거리로 출어해 점차 북쪽으로 옮겨 8월말을 한도로 귀도해 가을건이에 종사하게 된다. 출어방법으로는 경남·경북·전남 전북 츠시마 등 지방에는 대부분 5톤의 범선으로 출어한다. 배에는 보통 해녀 12~15명이 타며, 나이는 17~30세까지가 가장

많아서 능률 높은 해녀들이었다.

그 밖에 선장 1명, 사공 1명 내지 2명이 승선해 6개의 노로 해녀도 함께 저으면서 식료품과 그 밖의 물건도 준비해 간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조업중인 때는 같은 배 안에서 생활하며 음료수, 식량 연료 등은 그곳에서 보충한다.

○ 지금까지 활약해온 이세(伊勢)의 분동(分銅)해녀를 점차 쫓아내어 발전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제주해녀의 특색은 이세해녀나 그밖의 일본해녀와 비교해서 임금이 싸고 능률이 비교적 높다는데 있다.

제주해녀는 조업시에는 테왁으로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분동을 사용하지 않고도 깊이 잠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동해녀와 같이 해녀배나 사공이 필요없다. 따라서 채취비용이 상당히 싸진다.

이세해녀(三重縣二見幡豆崎 7월이 29.2도, 8월 26.5도)는 1개월 조업 중 겨우 1주일 밖에 견뎌내지 못하는데 반하여 제주해녀(조선 남해안에서는 7월이 22.8도 8월이 22.7도)는 15일간의 조업을 견뎌낼 수 있고 하루의 취업시간에 있어서도 제주해녀가 월등히 길다. 결국 조업시간이 길고 임금이 낮다는 여러 조건 때문에 점차 이세해녀들은 축출을 당해 1929년 이후 이세해녀는 조선반도에서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

제주도해녀의 地理的 意義

1. 일본에 있어서의 해녀의 분포

① 현재 일본에서의 해녀 분포상 남서일본에 있어서 한계선을 이루고 있는 점.

② 오랜 기간 동안 조선과 동일행정지구에 있으면서 제주해협을 경계로 해서 해녀의 분포가 반도부와 명료한 한계선을 이루고 있는 점.

③ 조선반도에서는 전무인데 반하여 제주도는 해녀의 분포가 단연 월등하고 더욱이 전국적으로도 최대 조밀지구를 이루어 반도부와는 분포상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 점.

2. 도내의 해녀분포

① 동해안지대가 가장 조밀하며 북서부 해안지대가 그 다음이고, 남부해안지역, 북부해안지역으로 차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해안지형 및 해저지형·조류·풍향 등에 현저하게 지배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② 해녀어업은 예전부터 본도의 해변취락에 있어서의 여성의 중요한 부업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 전용어업권이 각리에서 제정되어 왔었다.

3. 출가 해녀의 出稼地

① 반도부 사람들이 관심없이 장시간 버려져 왔던 반도부의

해변을 좋은 어장으로 출가·발전시키고 더 나가서는 경상남도 연안에 진출한 일본의 이세(伊勢) 해녀등을 축출하고 다시 북진하여 일본해연안 각도로 진출, 황해연안지대의 평안남·북도 양도를 제외한 각도에 출가했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② 조선반도 각도의 해변어장 입어권에 관해서는 제주해녀어업조합의 명의로 입어관행보존등기를 행하고 영원히 본도해녀의 출가지가 확보되도록 미리 못박음으로써 장차 반도어의 출가가 보증되고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③ 내지에의 출가는 고용관계가 주체를 이루는데 지금까지 해당지역 해녀·어부를 갖고있는 지역 가운데 도쿄부(東京府)·치바(千葉)·가나가와(神奈川)·시즈오카(靜岡)·미에(三重)·도쿠시마(德島)·고오치(高知)·가고시마(鹿兒島)·나가사키(長崎)의 각현에 진출 해 1933년도에는 아오모리현 시모키타반도(靑森縣下北半島)에 까지 출가계약의 성립을 보기에 이르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가고 있다.

④ 출가해녀의 분포상 특색은 제주도의 대안지역 즉 남선이나 츠시마(對馬)에 가장 많고 거리와는 거의 반비례해서 감소하고 있다.

⑤ 출가해녀는 반도부에선 일본해 연안 전역에 그 분포를 볼 수 있는데 반하여 내지에서는 일본해연안은 전무하고, 태평양연안에만 편재되고 있음은 분포상 현저한 상위점(相違點)이라고 하겠다.

⑥ 1933년에는 내지의 일본해연안지방에 출가어장 조사를 위해 출장을 간 것으로 보아 새로운 지역을 개척, 앞으로 5~6년

사이에는 분포도상 출가해녀의 급격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⑦ 제주도의 해녀어업의 발생에 관해서 본도 독자적인 자연발생적인가, 혹은 츠시마(對馬)·고토(五島) 등 내지해녀의 영향에 의한 모방발생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후일의 연구로 미룬다.

20世紀 前半의 濟州島

해제

『특집 제주도』는 문화조선 제4호(1942, 7월)에 제주특징을 실은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제주도 민속·민요·지질·식물·곤충·육상동물·해중동물 등에 대한 현황을 당시의 권위있는 학자들의 글을 통해 집대성한 것이며, 제주도에 대한 당시 각 분야의 통합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이치카와 상키(市川三喜)의 「제주도기행」,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의 「지나간 날의 제주도」, 「韓文化 探究의 追想」 등이 실려있다.

特輯 濟州島 濟州島를 말한다

이마무라 도모(今村 鞆)

○ 이 섬에는 원래 사람이 없었지만 어느날 高乙那, 良乙那, 夫乙那라고 하는 3인의 神이 땅으로부터 홀연히 솟아나온 것이다. 대개의 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보통인데 이 곳의 신은 반대로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것이다. 어느날 東海 바닷가에 보랏빛 구름이 가로로 뻗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가 보니 한 척의 배가 당도하고 한 남자가 타고 있었다. ‘나는 일본의 使者이다. 국왕께서 가라사되 하늘이 西海 중에 三神人을 내려보냈으나 아직 配匹이 없다. 나는 공주 셋을 맞아 大業을 이루도록 하라고 말씀하였다면서 배에 실었던 돌 상자 속에서 3인의 여자와 牛馬, 五穀의 씨앗을 내놓았다. 세사람은 나이에 따라 이들에게 장가 들고 오곡의 씨앗을 뿌려 농업을 창시하고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 高良(良을 후에 梁으로 고친 사람도 있다)夫의 자손이라고 칭하는 집이 많으며 그 始祖가 나왔다는 三姓穴도 있어 그 곁에 祖神을 모시는 三姓祠도 있다. 이 신화는 九州부근의 小國王 즉 尊王과의 결혼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오곡의 씨앗의 일은 天智天皇 8년 정월 貢獻을 위해 파견돼 왔

던 耽羅의 왕자 久麻彼에게 오곡의 씨앗을 하사했다고 하는 『日本書紀』에 실려 있는 史實과 완전히 合致하고 있다. 또 본도 재래종의 보리가 일본재래종 보리와 흡사하다는 사실도 재미있는 점이다.

이렇듯 신화의 관계에서 보아도 옛부터 일본과의 관계는 깊고 육지의 조선과는 틀린 점이 많은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풍속에서 볼 때 육지에서는 물건을 나르는 데 지게를 쓰지만 이 섬에선 이를 쓰질 않고 여자도 육지에서와 같이 머리에 물건을 얹지 않고 손에 든다. 또 밥을 먹을 때 육지에서는 주인 혼자 먼저 먹고 다음에 주부나 머슴이 먹지만 여기서는 內地流(日本式)으로 일동이 단란하게 먹는다. 그리고 장남이 결혼하면 별거한다. 여자가 타인과 面接하는 것을 육지에서는 기피하지만 여기에선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로이 남자와 어울려 함께 일을 하고 서로 노래를 한다. 이런 광경을 육지에서는 볼 수 없다. 옛날 李朝中葉에 육지로부터 衛戍兵이 교대되어 새로이 선편으로 도착할 때 처녀들이 해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자택으로 데려가 부부와 같이 살다가 임기가 끝나 돌아갈 때는 눈물을 흘렸었다는 사실도 있다. 또 집의 구조로 봐도 문의 꾸임새가 일본에 가까와 초가지붕을 위에서 보아도 육지와는 달리 일본과 비슷하게 벽을 바를 때 짚을 자른 여물을 집어넣는다. 여자의 바느질을 봐도 運針法이 육지부에서는 건져올리는 듯한 손가락놀림이지만 이곳에서는 전적으로 일본과 같이 놀리듯 바늘을 움직인다. 또 어린애 엮는 법도 육지와는 다르고 일본과 비슷하다. 이곳에선 어린이를 바꾸니

(애기구덕)에 들여넣어 흔들며 놀리는데 이는 구주(口州)의 일부와 흡사하다.

○ 해녀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수는 약 1만명, 그 중 절반은 日本, 朝鮮연안, 북쪽으로는 포셋灣까지 출가하고 있다. 잡는 것은 각종 해조류와 전복·소라 등으로 12~13세 때부터 연습을 시작, 18세 쯤 되면 제구실을 하게 된다. 테왁에 망사리를 매단 것을 가슴에 대고 헤엄쳐 나가 이것을 띄워놓고 바닷 속에 잠수하여 전복 등을 잡는다. 일본 해녀에 비해 桴息시간은 약간 짧고 따라서 깊이도 약간 떨어지지만 하루의 回數와 온도를 견디는 힘은 강하며 능률이 우수하다. 正初의 寒氣에도 바다에 들어가며 또 임신 6~7개월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게 잠수한다.

해구의 掃海作業에는 어찌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萬葉集』에 나와 있는 해녀의 노래나 유키히라(行平)中納言의 수마(須摩)浦의 솔바람, 무라사메(村雨)의 두 미인 얘기, 우마타로(歌麿)의 해녀의 名畫를 보고 이 해녀들을 상상하면 환멸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赤茶色의 머리에 근육이 짜인 赤銅色의 피부를 들어내고 있는 것은 마치 그리스의 男性裸體彫刻을 보는 것과 같아 에로틱한 맛 같은 것은 조금도 없다. 優生學의 見地에서 튼튼한 자손을 얻으려는 분들에게는 결혼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濟州島의 民俗

아카하 다카시(秋葉 隆)

○ 26일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날씨는 청명했지만 바람이 강하여 아침 10시 西歸浦를 떠나서 城山浦로 향했다. 도중 南元里의 西中面(南元) 사무소에 들러 면직원 梁군의 안내로 兎山里의 토산당을 견학했다. 이 부근은 이른바 兎山堂 鬼神이라고 칭하는 뱀송배의 중심지로서 토산당본향신의 본풀이에도 그것이 보여 梁군으로부터 이 부근 어민의 신앙에 관한 갖가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이것도 梁군으로부터 들은 얘기지만 불과 두달쯤 전인 8월 17일 새벽 西中面 爲美里의 한 어부가 바닷가에 나가 출어준비를 마치고 조반을 먹기 위해 귀가하자 평소 신을 깊이 믿고 있는 그의 처가 간밤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의 信心이 열음을 힐책하고 내일 중에 神罰을 내리겠다더라면서 출어를 만류함으로 남편과 아들도 그녀의 말에 따라 바다에 나가는 것을 중지했다. 그러데 17~18일에 대폭풍이 불어 출어했던 마을사람 20여 명이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토산당에서는 金城山으로부터 날아 온 세계의 금빛 구슬이 여기에 내려 三女神으로 化한 것이 祭神이라는 아름다운 신화를 듣고 梁청년의 健脚에 이끌리듯 물이 없는 돌맹이 투성이의 강

가를 안으로 안으로 거슬러 올라가 下川리의 巫家를 찾아서 그곳 본향당을 본 다음 古城里까지 가 여기서도 두서너 군데 답사한 뒤에 저녁 가까이 걸어서 城山浦에 도착할 때는 몹시 피곤해서 녹초가 돼있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그곳 七日堂(일뤼당) 두군데를 견학하고 숙소로 돌아온 후 목욕하고 때마침 보름달인 지라 찾아온 유지들과 술잔을 나누면서 밤이 늦도록 전설을 들었다.

○ 11시경 金寧에 도착 나카무라(中村) 보통학교 교장의 호의로 예의 사굴을 구경했다. 옛날엔 연속된 일대동굴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南北西의 세 굴로 나뉘져 남굴이 최대인데 높이 14~15間 너비 8間 길이 數町에 이른다고 한다. 캄캄한 굴 안을 촛불빛을 의지하여 1町가량 들어가 봤으나 굴 안은 熔岩과 鐘乳石이 매달려 있을 뿐이다. 北窟도 길이 數町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감에 따라 岩塊가 꾸불꾸불 이어지고 있어 마치 大蛇가 누워 있는 것 같다. 西窟은 깊이 수십間에 지나지 않고 굴 안은 비교적 밝다. 『耽羅志』에 따르면 옛날 이 굴 안에는 큰 뱀이 살고 있어 매년 처녀를 받치도록 강요했으나 徐牧使가 이 큰 뱀을 퇴치하여 부하의 딸을 구조함과 함께 자신은 그 毒에 맞아 絶命했다는 비정한 전설이 있다. 오늘날에도 매년 寒食날에는 부근의 소년소녀가 동굴 앞에 모여들어 씨름을 즐기는 풍속이 있다.

○ 金寧에는 돈당 외에 大堂 및 小堂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성소가 있어 이에 대해 豚堂을 中堂이라고도 한다. 三堂은 모두

中海龍女の 딸을 모시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大堂은 언니神, 中堂은 다음 언니, 小堂은 막내라고 한다. 그것은 兎山里的 토산당의 제신이 삼위일체의 三女神이란 것과는 다소 정취를 달리 하고 있지만 이 섬의 신들에게 있어 여신이 많은 것을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또한 제주도에 바람의 신으로 燃燈할망의 신앙이 왕성한데 이것도 또한 여신이지만 지면관계로 지금은 그 얘기는 생략하겠다. 아무튼 이 섬의 堆石의 성소가 많다는 것, 風神을 비롯 여신의 신앙이 왕성한 것은 이른바 제주 삼다(石多 風多 女多)의 特異한 표현의 하나로서 흥미있는 민속이다.

濟州島의 民謠

趙潤濟

필자는 그 때 갖가지 재미있는 경험을 해서 지금 생각해도 유쾌한 일이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도 大靜에서 채취했을 때의 일은 대단히 인상 깊은 것이었다. 이곳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경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도착하자마자 미리 연락해 둔 西事務所 분을 찾아 민요를 채취하러 왔다는 뜻을 전하고 민요를 잘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를 2~3명을 소개 받았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은 대단히 노래를 잘 하신다는데 어찌된 셈인지 口述을 부탁하면 가

끔 막혀서 생각대로 구술하질 못한다. 필자가 이상스러워 여러모로 그 연유를 조사해 봤더니 절구를 찜지 않으면 아무래도 노래가 제대로 나오질 않는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래서 면사무소 근처에 있는 民家에 절구를 마련해놓고 직접 절구를 찜으면서 노래를 부르도록 해봤다. 그러자 이번엔 전과 달리 노래가 멜로디에 맞춰 낭랑히 한 없이 흘러나왔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든 10수명의 다른 여자들도(그 중엔 젊은 여자도 있었지만) 교대로 들어와 절구공이를 들고는 피곤함도 잊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쯤 되자 이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나 잘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필자는 여기서 비로소 민요라고 생각되는 것은 노동과는 不可分離의 것임을 깨달았고 또 민요는 노동을 떠나서는 부르기 힘들고 특히 멜로디 없이 구술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란 것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제주도의 민요를 직접 말하기 전에 민요를 노래하는 계급의 사람과 그들이 노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제주도에서는 주로 여자가 일하고, 여자에 의해 민요가 불리워지는 것 같았다. 남자도 물론 그저 빈둥거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밖의 일은 거의 여자들에 의해 영위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농업까지도 소로 논밭을 가는 일은 남자가 하지만 그 외의 거의 여자가 도맡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녀들의 노동은 매우 많아 집에서 가사를 도맡음은 물론 밖에 나가 농업까지 스스로의 손으로 거들어야 하고 또 해녀가 되면 바다에 나가서 작업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녀들이 언제 어떤 일을 할 때 노래를 부르느냐면 그것은 주로 집안의 일, 즉 맷돌·절구를 찧는다든가 혹은 말총으로 網巾·宕巾등을 짜는, 이른바 힘이 든다든가 그렇잖으면 심심해서 일할 때 하는 노래이다.

이 밖에 야외에 나가 농업을 한다든지 바다에서 전복을 딸 때도 물론, 부르지만 農歌란 것은 육지부와 마찬가지로 별로 그 수가 많지 않고 해녀의 노래도 바닷속에서 작업하면서 불을 수도 없으므로, 있어도 난바다에 나갈 때까지 배를 저으면서 노래하는 정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민요는 역시 家事에 수반하는 것이 많고 필자가 수집한 것도 대부분 이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채취한 것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본도의 민요 멜로디가 이미 그랬지만 매우 苦酸하다. 우선 도민의 민요는 ‘이여도하라’라는, ‘박자를 맞추며 흥을 돋우기 위한 반주’가 반드시 붙지만 이 ‘이여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哀想을 띄고 있다. 섬사람에게 들으면 ‘이여도’란 바닷속에 있는 하나의 섬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 섬 어딘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 특히 이곳 민요는 여자의 괴로움을 노래한 것이나 妾에 대한 本妻의 또는 본인의 苦惱를 노래한 것이 상당히 많다. 그 하나 둘 열거해보면

저 산골로 흐르는 물은
낭기섬새 다 썩은 물이여
세월에서 흐르는 물은

고운정 미운정 다 씻은 물이여
하늘에서 흐리는 물은
궁내 신내 밭씻인 물이여
집집의서 흐르는 물은
개도새기 밭 씻인 물이여
정네에서 흐르는 물은
오장 간장 다 씻은 물이여

× ×

살쟁 흥여도 살지 못하는 몸
흔저 죽영 혼으로 가져
살쟁 흥여도 어느 누게 살려나 주리
흔저 죽영 저 식상 가도
어느 누게 구덕에 눅정
저 식상 문을 두드려 주리

× ×

득은 울믄 날이나 샌다
정네 울영 어느날 새리
설룬 어멍 날 날 적의
눔은 울어도 정네도 올라

이것은 여성 일반의 괴로움을 노래한 것이지만 또 한 新婦의
괴로움을 노래한 것에는

산도 설고 강도 선 곳되

누게 보레 이곳딤 와시니
느네 오라방 엇이믄
난든 무사 이곳딤 오리
청지에집 열다솥 칸을
구경흐레 나 와시나
비단 치매 입단 허리에
삼베 치매 웬 말이나
비단 저고리 입단 몸에
미녕 저고리 웬 말이나
은가락지 찌단 손에
골쟁이가 무신 말고
가죽신 신단 발에
초신이 무신 말고
가심 썩은 물이나 뒤영
솟어나근 눈물이 뛴다.
정네 눈물은 여의주러라
떨어진 곳딤 복 생기라

× ×

시어명은 전복넛이
나를 보믄 언주쟁 흐다.
시아방은 소라의 넛이
나를 보믄 새들각흐다
시누이는 송사리의 넛이
나를 보믄 도망을 간다

서방님은 물꾸럭 냇이
나를 보든 안구정 한다

와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또 濟州島에는 어찌된 셈인지 돌아간
어머니를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가 많다. 한 두 首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게 있다.

저 생이야 저 식상 생이야
저 생이야 저 식상 생이야
만에 흐나 나부모 보경
어디 앓앙 울어니 흐경
삼도스도 거리에 앓앙
어멍 부르멍 울엄쟁 흐라

× ×

설룬 어멍 무덤 ㅁ의
당배치는 어랑 어랑
호미으정 캐젠 해도
눈물 제완 못캐여라

다음에 妾에 관한 노래를 인용해 보면

신 엇임도 하도나 설환
갓쓰물에 여든님 드난
두 번 식 변 물 덜은 밥을

씹어 도랜 양업이더라

× ×

호강^호젠 놈의 첩 드난
어디 간간 놀아점시니
지네 어명광 오름엿 돌은
등글어 땡기당도 살을매 난다.

이것은 첩에 붙은 것이며

것보리를 거죽차 먹은덜
시왓이사 혼 집의 살라
물이 엇엿 굿인 물 먹은덜
시왓광 ㄱ든질로 가라
질도 다시 새로나 빼른
시왓질은 ㅌ로나 빼라

× ×

전처 소박 식첩^호 놈아
소나이광 들진 밤 새라
대천바당 들진 밤 새라

이것은 본처가 노래한 것으로

소나이광 밤나무가진
펍관 좋으믄 살 질 웃나

원님의 은덕도 싫다
관관님 우세도 싫다
함박눈이 퍼붓는 날에
낭지게에 부림패 걸영
섭답지영 오는 님 볍다

고 하는 것도 있다. 덩달아 海女 노래도 한둘 인용해보면

앞의 뱀 낚시질 배여
뒤의 뱀 입자의 배여
눈물 흘렁 강이 뒤영
한숨 쉬영 브름이 뒤영
놀래 불령 노를 짓게

× ×

어린 얘기 떼여 두영
늙은 부모 떼여 두영
돈전촉에 돈전촉에
나소원은 돈뿐이여
흔푼 두푼 모아둔 돈은
서방님 노름판에 다들엄저

이것 역시 명랑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濟州島의 민요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다. 여기에서
'이여도하라'는 반주를 붙여 노래하면 더욱 더 고통스런 게 되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暗淚에 목메이게 한다. 그러나 제주도여성이라고 해서 언제나 어두운 생활에만 괴로워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녀들도 또 일반여성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명랑한 일면도 있다는 것을 양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녀들에게는 이상과 같은 쓰라린 노래만이 아니라 때로는 부드러운 사랑이 노래도 불리워졌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 둘을 뽑아 본다.

밤의 가곡 밤의 간 손님
어느 곳디 누겐중 알리
무바깳디 청버드낭에
이름 생명 씨똥 가라

× ×

임이 오려고 설심이든가
내가 가려고 설심이든가
좁은 질목에 고운님 만남
뉘돌아사도 난 못살앙

× ×

질주멍천 곤룡포장시
득이 운댕 질행을 말라
한밤중의 우는 득은
득이 아닌 인득이 소리
밤이 새경 떠나나지라

× ×

돌과 같이 붉은 남아
누룩과 같이 썩기 지나 맵서

아무런 假飾도 없이 순정 그것으로부터 나온 전혀 소박한 노래로 사람의 마음에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그러나 어딘지 애상적으로 제주도 민요의 특질은 여기에도 있다는 느낌이다.

濟州島의 地質

다치이와 이와오(立岩巖)

(三)

제주도의 삼다(三多)

○ (여자)…통계상으로 보면 남자 1백명에 여자 1백 15명의 비율. 남자의 내지 도항출가와 여자가 해녀로서 또 근로자로서 눈에 띄는 옥외활동을 함으로 여자가 많은 것 같이 느끼는 것일 것이다. 그 위에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데에서 여자의 힘이 강함과 여자의 많음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일 게다.

○ 海女

제주도의 해녀는 천하에 알려지고 있다. 그 수 1만. 12~13세부터 바다에 들어간다. 수심은 보통 4~5間, 최대 10間, 잠수시간은 1분 내지 2분을 60회 계속하여 상륙해서 몸을 녹힌 다음 다시 바

다에 들어간다. 둥근 것은 바가지의 테왁이며 그에다 포획물을 넣는 망사리가 달려있으며 그 테왁에 때때로 의지해서 쉰다. 육지부에서도 2천 6백 정도가 출가하지만 日本, 滿洲 등으로의 진출은 눈부시다.

内地에는 2천명 정도가 츠시마(對馬)를 비롯 도오쿄(東京), 치바(千葉), 미에(三重) 나가사키(長崎), 시코쿠(四國) 등지로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출가 年收 총계 74만 円 이상을 올려 경제에 기여를 토하고 있다.

濟州島一周

특파기자 미즈시마 유즈루(水島 謙)

○ 부녀자나 어린이들이 이 섬에서는 어디서나 그렇지만, 머리에 짐을 이지 않는다. 어린이를 업는 방법도 日本風이다. 집에 들어가면 運針法도 일본 풍, 언어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국어(註: 일본어)가 능숙, 가끔 大阪弁을 쓰는 데는 질리고 말았다.

○ 해안에 바짝 다가서니 異俗의 산이 솟아있다. 城山이라고 한다. 그 城山이 이즈러진 곳에 白沙場 위에 이루어진 것 같은 마을 城山浦는 그림이 될 만한 풍경이다. 말이나 소가 바다 가까운 언덕에 서 유유히 풀숲에 머리를 숙이고 있고 바다는 그 저

편으로 질푸르다. 그리고 그 바다에 떠 있는 半島에는 아열대식물인 文珠蘭이 꽃이 8월에 ‘한 여름의 꿈’으로 핀다. 이 일대는 해녀로 유명. 들리는 바로는 적잖이 일본 등으로 出稼, 적게는 1백50円 최고 6백円의 순수입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月見台서 달맛이를 하는 것이나 城山 봉오리를 찾아오는 일이 토지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움인데 본디 닭 한 마리 25錢쯤이었던 것이 지금은 5원. 그것을 10원 지폐로 척척 사간다고 한다. 海女景氣라고 할까, 水産景氣에 놀랐다.

○ 駐在所(註 : 파출소)에서 부장에게 들어 놀랐지만 이 面에는 3천의 해녀가 있어 日本 등지에 그 반으로부터 5백명이나 되는 해녀가 출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무리를 이루어 봄 3월, 漢拏 정상에 눈이 미처 녹지 않을 때 日本 각지나 滿洲로 떠나 간다. 그들이 보리나 조의 식량, 그 위에 젓먹이를 안고 배로 떠나는 壯觀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女人進運團會인 모양이다. 그들은 9월말 돌아오는데 섬의 가정경제력은 그들 여성의 손에 쥐여져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남편 한 사람쯤 놓고 먹일 수 없는 여자는 참으로 주변머리 없는 여자로 여겨지는 전통에 나는 啞然했다.

濟州島 紀行(1905)

이치카와 상키(時川三喜)

8월 10일 맑음

○ 이곳 도민과 일본인의 유사점을 두엇 열거하면 ① 여성들이 집을 나갈 때 육지부 사람과 같이 머리에 이지 않고 등에 짊어진다. ②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일이 없으며 안팎 출입이 자유롭다. ③ 일반적으로 여자가 활발하며 육지부와 같이 음울연약(陰鬱軟弱)하지 않다.

- 기획팀장 류상부(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부장)
- 기 획 문순덕(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 편 집 김오순(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연구사)
김일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연구사)
박찬식(제주대학교 연구교수)
장혜련(제주대학교 시간강사)

- 감 수 고창석(제주여성천년사 편찬위원장)

제주여성사료집Ⅱ

2008년 9월 일 인쇄
2008년 9월 일 발행

발행인 :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오경생)
편집처 : 제주발전연구원(허향진)
문의처 : 064-726-0500
인쇄처 : 경신인쇄사(☎ 746-2044)
